언론사: 내일신문-1-1.txt

제목: 욜로(YOLO) 시대, 보험 선택 트렌드는  
날짜: 20171226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26122753001  
ID: 01100301.20171226122753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You Only Live Once(YOLO, 인생은 한번뿐이다). 욜로(YOLO)는 올 한해 우리나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한 트렌드 중 하나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개의치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취미생활, 여행, 자기계발 등에 돈을 아끼지 않는 성향으로 요약된다. <br/> <br/><br/><br/> <br/><br/><br/><br/> <br/><br/> <br/><br/><br/>불확실한 미래에 연연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의 등장에 기성세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욜로족이 단지 현재에만 사는 세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 <br/><br/><br/>26일 하나생명(대표 권오훈)이 소비자패널 틸리언에 의뢰해 실시한 'YOLO 시대 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34.9%)는 응답보다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56.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욜로족이 내 집 마련이나 노후준비 등을 등한시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br/><br/><br/> <br/><br/><br/>응답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가격(13.2%)이 아니라 보장내역(65.1%)을 꼽았다. 한달에 소비하는 적정한 보장성 보험료는 2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94.2%)을 차지했다. <br/><br/><br/> <br/><br/><br/>선호하는 보험 가입채널은 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59.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4.5%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보험 판매 전문가인 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br/><br/><br/> <br/><br/><br/>하지만 스스로 보장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47억원, 2015년 75억5000만원, 2016년 92억6000만원으로 매년 120%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br/><br/><br/> <br/><br/><br/>보험에 가입돼 있는 응답자 중 보험에서 '준비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이 49.0%로 가장 높았고, '생활이 어려워져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암/질병/건강보험(42.7%)으로 나타났다. 욜로족 역시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과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br/><br/><br/> <br/><br/><br/>하나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비패턴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를 똑똑하게 즐기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하려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최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절약하는, 소위 '돈은 안 쓰는 것'이라는 '생민족'이 뜨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이 반영된 변화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span>"고 분석했다. <br/><br/><br/> <br/><br/><br/>이 조사는 국내 거주 20~49세 974명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언론사: 내일신문-1-2.txt

제목: [advertorial] 보험 특집  
날짜: 2017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22123942001  
ID: 01100301.20171222123942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삼성생명] 누적 100만건 이상 판매된 암보험 <br/>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암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한다. 그런 만큼 암 환자들이 진단은 물론, 치료와 요양, 이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br/> <br/>삼성생명은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삼성생명 올인원 암보험'을 판매중이다. <br/> <br/>이 상품은 출시 초기 단순 암 보장에서 출발해, 한방치료, 2차 발생 암 보장 등 꾸준히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다. 출시 50개월 만인 지난 5월 판매건수 100만건을 돌파하며 삼성생명 '밀리언셀러' 상품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에도 월 평균 1만2000여건이 판매돼 삼성생명의 대표 중저가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br/> <br/>'올인원 암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생활자금형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다. 암 진단시 고액의 진단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일시지급형을, 생활비에 대한 니즈가 큰 고객은 생활자금형을 선택하면 된다. <br/> <br/>예를 들어 고객이 위, 폐암 등 일반 암 진단시(주보험 2000만원 가입) ▷일시지급형의 경우 진단금으로 40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생활자금형의 경우 일시금으로 1000만원과 함께 생존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최소 2년 보장) 받게 된다. 새로 도입된 △건강관리서비스와 △한방 보장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br/> <br/>일정 보장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암 진단 이후 5년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담 간호사를 통해 진료 동행, 입/퇴원 수속, 사후 치료 예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건강상담이나 진료예약 등의 서비스도 지원된다. '암한방건강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단 이후 한의원의 첩약처방에 대해 최대 100만원(3회 한도), 한방 약침이나 물리요법의 경우 최대 10만원(각 5회 한도)을 받을 수 있다. <br/> <br/>[한화생명] 질병 초기 진단금 보장 높인 CI보험 <br/> <br/> <br/> 사망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중대한 질병 진단이나 수술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CI보험이 고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달로 질병이 중대한 상태로 가기 전 대부분 조기에 발견되면서 초기 질병 보장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br/> <br/>'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무)'은 기존 CI보험 보장에 경증단계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한 상품이다. 7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만여건이 판매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기존 CI보험과 달리 뇌출혈 및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만성간질환, 중기 만성신장질환, 중기 만성폐질환 등 5대 질병 진단시 중대한 질병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20%를 선지급한다. 질병 정도가 '중대한' 단계로 악화되면 60%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 <br/> <br/>의료비 지출이 부담되는 고액암 및 4기암, 최중증 뇌졸중, 최중증 급성심근경색증은 3대중증질병보장특약을 통해 보장된다. 이들 질병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해 최대 3단계까지 보장되는 셈이다. <br/> <br/>진단뿐 아니라 수술에 대한 보장도 확대했다. 기존의 중대한 수술만 보장하는 CI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 간단한 수술과 치료도 보장하는 특약이 눈길을 끈다.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은 급성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 치료시 그 비용을 보장한다. 관상동맥성형술,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을 받을 시에는 CI추가수술보장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의 주피보험자 가입가능 연령은 15세부터 60세이며 30세 남자기준 20년납, 해지환급금 보증형, 주계약 1억원, 3대 중증질병 보장특약, CI추가수술 보장특약,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 각각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31만원3736원이다. <br/> <br/>[ABL생명] 보증수수료 없이 최저연금액 보증 <br/> <br/> <br/> 변액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복리상품으로 적립금에 약 1% 전후로 부과되는 수수료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 가입 시 올바른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은 기본, 현재의 재테크 트렌드에 맞춰 수수료 미부과 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br/> <br/>ABL생명의 '(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별도 보증수수료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을 탑재하고 있다. <br/> <br/>이 상품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연금 개시 전과 후 모두 연금재원을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연금 개시 이후 실적배당연금을 최저보증한다는 것이다. <br/> <br/>연금 개시 전 투자실적이 하락하더라도 '보증수수료' 없이 유지기간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130%를 최저보증해줄 뿐 아니라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적배당연금을 최저보증한다. <br/> <br/>타사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통상 계약자적립금에서 최저연금적립금보증과 최저실적배당연금보증을 위해 일정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떼고 있다. <br/> <br/>이 상품은 또한 업계 최초로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에 '체증형'과 '부부형' 연금을 도입했다. '체증형'을 선택하면 최저보증 되는 연금액이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100세까지 매년 2%씩 증가하며, '부부형'을 선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동일한 수준의 실적배당연금을 최저보증 한다. <br/> <br/>단 '체증형'의 경우 '기본형'보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초기에 보증되는 연금액이 적다. <br/> <br/>[NH농협생명] 보험료 저렴한 장기간병보험 <br/> <br/> <br/> NH농협생명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는 '걱정없는NH장기간병보험(저해지환급형,무배당)'을 판매한다. <br/> <br/>'걱정없는NH장기간병보험(저해지환급형,무)'은 장기간병보험으로는 업계 최초로 '저해지환급형'으로 출시돼 보험료는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일반형'과 동일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률이 50%로 일반형보다 작은 대신 보험료를 6 ~ 13% 낮춘 것이다. 다만 가입 초기 해지 시에는 저해지환급형의 해지환급률이 더 높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주계약으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3등급까지도 보장(최대 90세, 10년 갱신)한다. 가입은 주계약 기준으로 4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능하다. 주계약은 1종(실속형)과 2종(보장강화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br/>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한다면 1종(실속형)을, 든든한 간병자금 보장을 원한다면 2종(보장강화형)을 선택하면 된다. <br/> <br/>주계약 1종(실속형)은 장기요양 1등급 진단 시, 간병자금으로 일시금 1000만원과 매월 생존 시 월 120만원씩을 10년(2년 보증)동안 지급하고, 2등급 진단 시에는 일시금 5백만원과 매월 생존 시 월 100만원씩의 간병자금을 10년(2년 보증)동안 지급한다. <br/> <br/>보장강화형인 주계약 2종은 장기요양 1등급 진단 시, 일시금 3000만원과 매월 생존 시 월 120만원씩 10년(5년 보증) 동안 간병자금을, 2등급 진단 시에는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생존시 월 100만원씩의 간병자금을 10년(5년 보증) 동안 지급한다. <br/> <br/>만약 가입자가 장기간병 1등급으로 진단 확정된다면, 10년 동안 최대 1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주계약 2종,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br/> <br/>[삼성화재] 전방충돌방지장치 차보험료 할인 <br/> <br/> <br/>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감소와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장치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이어지고 있다. <br/> <br/>최근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동제동이나 충돌경고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삼성화재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기본보험료를 평균 4% 할인했다. <br/> <br/>가입 대상은 개인용 및 업무용 승용차로 내년 1월 21일 이후 책임 개시하는 계약이며,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br/> <br/>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방충돌경고장치(FCW)나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장착한 차량이다. <br/> <br/>이들 장치는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거나,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되도록 해준다. <br/> <br/>보험개발원이 자동비상제동장치(AEB)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한 결과 도심지의 저속사고에 대한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시 도심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30.8%에 대한 사고방지 효과를 보인 것이다. <br/> <br/>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도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시에는 추돌사고가 4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전방충돌방지장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고 및 피해 감소가 증명된 첨단 안전장치이다. 이들 나라의 자동차 보험료도 적게는 3%에서 크게는 15%까지 할인이 되고 있다. <br/> <br/>삼성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자동차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현대해상] 차선이탈경고 시스템 차량 할인 <br/> <br/> <br/> 현대해상은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3.3% 할인해 주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 중이다. <br/> <br/>가입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하이카 자동차보험 계약이다. <br/> <br/>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신차 출고시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 또는 옵션(선택) 장치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이나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가 장착된 승용 자동차다. <br/> <br/>이들 장치는 차량이 주행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핸들진동 등으로 차선이탈을 알려주거나,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향 제어를 통해 차선을 유지시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장치다. <br/> <br/>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시 장치가 장착·작동됨을 증빙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또한 현대해상은 e-콜(Emergency Call, 사고 즉시 긴급구조 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대차(BlueLink), 기아차(UVO), BMW(BMW ConnectedDrive)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도 업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 <br/> <br/>따라서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면서 e-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넥티드카에 해당되는 고객은 총 10.3%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현대해상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우량한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특약을 개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KB손해보험] 안전운전하고 보험료도 줄이고 <br/> <br/> <br/>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제휴해 안전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Usage Based Insurance, 사용자기반보험) 상품인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별약관'을 출시했다. <br/> <br/>'티맵 안전운전할인 특약'은 내비게이션 어플 'T map'의 운전습관 기능을 통해 500km 이상 주행한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험사에 추가 서류제출 필요 없이 'T map' 어플을 사용하면서 측정된 안전운전 점수만 조회하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br/> <br/>KB손해보험은 새롭게 출시된 특약을 통해 평소 운행습관(급가속, 급정거, 과속 등)이 양호하거나 이를 개선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또한 이번에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약'을 추가하면서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br/> <br/>운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은 물론 블랙박스 장착 할인,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할인해 주는 자녀할인, 올해 특허를 취득한 업계 유일의 대중교통 이용할인 특약까지 운전자의 조건에 따라 실속 있는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r/> <br/>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이평로 상무는 "<span class='quot2'>새롭게 출시한 티맵 안전운전할인 특약은 보험사와 통신사(SK텔레콤)간 제휴를 통해 구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 선도를 위해 개발된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평소 안전 운전하는 고객들은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회사는 사고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모집함으로써 윈-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상품 가입 및 전용서비스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r/> <br/>[메리츠화재] 가입절차 간편한 TM전용 치아보험 <br/> <br/> <br/> 메리츠화재는 기존 치아보험을 간소화한 TM전용 '(무)메리츠 이득되는 치아보험1705'을 판매 중이다. <br/> <br/>이 상품은 고객의 니즈가 많은 치과치료 보장으로 구성하고 전화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 편의를 한층 높였다. <br/> <br/>영구치 상실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영구치상실치료비도 포함했다. 또한 고객의 비용 부담이 큰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경우 질병은 물론 상해로 인한 경우에도 보장한다. <br/> <br/>임플란트는 영구치 1개당 최대 150만원, 브릿지는 영구치 1개당 최대 75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금액을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틀니는 연간 1회 한도로 보철물당 150만원까지 보장하고, 크라운 치료는 연간 3개까지 치아 당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 <br/> <br/>업계 최초로 도입한 병원단위수술비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안과 및 이비인후과병원 수술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다래끼, 선천성 질병,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br/> <br/>또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레이저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 후 합병증 발생이나 재수술시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br/> <br/>최저 가입연령은 6세로 확대해 청소년기 치과치료까지 보장하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5년 갱신을 통해 최대 70세까지다. <br/> <br/>메리츠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치아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범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고객의 니즈가 많은 치과치료 보장으로 구성한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특히 전화로 가입하는 TM상품 성격에 맞게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편의를 증대시켰다</span>"고 말했다. <br/> <br/>무배당 메리츠 이득되는 치아보험1705는 메리츠화재 콜센터(1688-7711)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br/> <br/>[한화손해보험] 암 등 3대 질병 단계별 보장 강화 <br/> <br/> <br/> 한화손해보험은 3대질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부터 수술, 간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장을 강화한 '마이라이프 굿밸런스건강보험S'를 판매하고 있다. <br/> <br/>이 상품은 고보장플랜 기준으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최고 600만원까지 보장하고 3대질환으로 인한 최초 수술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이후 수술시에도 암은 최고 100만원, 2대질환은 최고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br/> <br/>또 기존의 일반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시에만 해주던 보험료 납입면제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질환 진단확정시에도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추가로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 질병후유장해 최고 3000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고 2000만원 등 간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상해수술비와 중환자실입원비 등 생활보장까지 강화시켰다. <br/> <br/>최초계약의 연만기 보험기간동안 2.5% 확정금리로 부리해 재가입 시점에 목적자금마련이 가능하고, 절약된 보장보험료를 활용해 인생주기에 따른 주택마련, 자동차구입, 은퇴 후 노후자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br/> <br/>질병보장 가입연령도 최대 70세로 확대했으며 플랜형 설계시에는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해 고연령층도 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br/> <br/>한화손해보험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span class='quot4'>건강보험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 보험료로 큰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시키고, 가입연령을 최대 70세까지 확대시켜 건강보장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 노후보장까지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종합건강보험</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 상품은 만기 재가입을 통해 일반상해사망, 3대진단비 등 최대 100세(질병사망 등 일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기본계약 기준으로 2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3.txt

제목: [기대수명 82세까지 살면] 남자 38%, 여자 32% '암' 발생  
날짜: 2017122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21121120003  
ID: 01100301.20171221121120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82세로 알려진 기대수명대로 산다면 남자 5명 중 2명(37.9%), 여자 3명 중 1(32.0%)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40세 이후부터 국가암검진과 걷기와 나쁜 식습관 등을 개선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오전 2015년 암등록통계를 밝히면서 "2015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1만4701명이며, 2016년 1월1일 기준 암 유병자는 160만명"이라고 밝혔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대비 1797명 늘었다. 특히 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률이 1위를 차지했던 갑상선암이 전년 대비 6050명 크게 감소했다. <br/> <br/>갑상선암 발생의 감소는 전체 암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갑상선암 발생률은 초음파 등을 통한 검진이 확대됨에 따라 암 발생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해 다른 국가들보다 수배 남은 발생률을 기록하기도했다. 결국 과잉진단논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br/> <br/>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암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 54.0%대비 16.7%p 증가했다. <br/> <br/>남자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암이, 45∼69세까지는 위암이,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자의 경우 39세까지는 갑상선암이, 40∼64세까지는 유방암이, 6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암발생은 0∼14세군은 남녀 모두 백혈병이, 15∼34세 군은 남녀 모두 갑상선암이, 35∼64세 군은 남자는 위암, 여자는 유방암이, 65세 이상 군은 남자는 폐암, 여자는 대장암이 1위로 높았다. 생존율을 보면,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로 높았다.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대체적으로 진단이 쉽게 되는 암들이 생존율이 높았고, 말기에 가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 암종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br/> <br/>이와 관련 암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br/> <br/>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남녀는 위암 간암 검진을 받는다. 2년마다 위암 검진으로 위장조영촬영, 위장내시경검사(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마다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유방촬영을 받을 수 있다. <br/> <br/>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검진표 발송한다. 가까운 암검진기관에 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암사망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55~74세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주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암조기검진 빠짐없이 받기 등</span>"을 실천해 암을 생활 속에서 예방할 것을 제시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4.txt

제목: 항암가발·당일착용가발도 내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날짜: 2017121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13175909001  
ID: 01100301.2017121317590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가발. 예전엔 탈모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스타일링을 위해 가발을 선택하고 있다. <br/><br/><br/>스타일 역시 많이 달라졌다. ‘뭔가’ 어색한 모습이 예전 가발에서 느껴졌다면, 요즘 가발은 트렌디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내게 꼭 맞는 모습으로의 스타일이 가능하다. <br/><br/><br/>실제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어 탈모와 항암환자들에게 특히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가발전문브랜드 이지위그스타일. 중간유통과정을 없앤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디한 스타일로 ‘강동 가발’ ‘천호 가발’ 등의 닉네임까지 얻고 있는 이지위그스타일이 강동점(천호점)에 이어 최근 송파점을 개원했다. <br/><br/><br/>이지위그스타일 송파점 김민희 점장은 “이지위그스타일의 가발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어 특히 만족도가 높다”며 “항암가발은 물론 당일착용가발, 맞춤가발, 그리고 대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이지위그스타일은 송파2호점 개원행사로 항암가발 할인(20만원)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암 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과도 싸워야 하는데 탈모는 그 대표 부작용 중 하나다. <br/><br/><br/>“인근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인 많은 환우분들이 항암가발을 맞추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죠. 최대한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맞춰드리려 노력합니다. 환우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br/><br/><br/>강동점 서상현 점장의 설명이다. <br/><br/><br/>그래서 이곳 이지위그스타일엔 항암치료를 받으며 머리가 빠지기 전 미리 방문해 가발을 상담하는 환자들도 있고, 예전의 사진을 가지고 와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다. <br/><br/><br/>항암환자들의 가발은 안전성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두피에 바로 가발이 닿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피부트러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지위그스타일의 가발은 100% 인모제품으로 두피자극이 없어 항암환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br/><br/>또, 암환우들을 위한 두피관리도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br/><br/><br/>김 점장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 두피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피와 모근관리를 함께 해 주는 것이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br/><br/><br/>일반 고객들을 위한 탈모관리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방문한 날 당일착용 가발이 가능한 것도 이곳의 큰 강점이다. 항암가발과 함께 당일가발은 이지위그스타일의 대표제품으로 이미 유명한 제품. 당일 방문해서 바로 ‘나만의 가발’을 착용할 수 있는 ‘원데이 시스템’을 구축, 젊은 층에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품별, 사이즈별, 색상별 다양하고 트렌디한 가발이 구비되어 있다. <br/><br/><br/>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맞춤가발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가발도 인기. 스타일을 타입별로 분석해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발을 제공한다. 원형탈모, M자형탈모, 정수리 부분 가발 등 다양한 용도로 맞춤가발이 제작되고 있다. <br/><br/><br/>대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주로 결혼식과 웨딩촬영, 혼주가발 등 아주 특별한 날 착용하기 위해 대여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다. 요즘은 면접을 위한 가발대여도 증가하는 추세.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 마련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아 만족도가 높다. <br/><br/><br/> <br/><br/><br/>서 점장은 “요즘은 가발도 ‘개인에 맞는 스타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를 표현,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br/><br/><br/>이지위그스타일은 100% 인모가발로 어떤 스타일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특징. 커트는 물론 펌, 염색이 가능하며 드라이기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br/><br/><br/>관리는 가정에서 샴푸로 직접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지위그스타일 강동점과 송파점은 구입 후 3회 무료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br/><br/><br/>현재 송파점 오픈이벤트로 암환우 2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과 관리 모두 100% 전화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5.txt

제목: 파주 고등학생들에게 - “학생부종합전형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날짜: 20171208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08125841002  
ID: 01100301.2017120812584100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span class='quot0'>15살 미국 소년 잭 안드리카를 아는가?</span>” <br/><br/><br/>EBS가 방영한 명의 ‘췌장암, 생존의 길을 열다’(2011.12.16)편의 영상을 보면 췌장암은 초기 발견과 진단의 어려움 때문에 발병 후 생존율이 5% 밖에 안 되는 난공불락의 암이라 한다. <br/><br/><br/>잭 안드리카는 초기 발병 여부 판단이 치료의 관건인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든 미국의 15세 소년이다. 그는 삼촌처럼 가깝게 지내던 아저씨가 스티브 잡스처럼 췌장암으로 죽게 되자, 사랑하는 이를 앗아간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br/> <br/><br/><br/> <br/><br/>시작은 의무와 당위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 <br/> <br/><br/><br/> <br/><br/>일견 무모해 보이는 이 연구를 위해 그 소년은 오로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 췌장암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 백편의 논문을 찾았다. 이후 췌장암 발병 시 인체에 ‘메소텔린’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생성됨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노탄소튜브를 활용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하게 된다. <br/><br/><br/>췌장암이 뭔지도 모르는 평범한 15세 소년의 호기심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수 십 년간 의학을 공부한 전문의들도 진단하기 어렵다는 췌장암의 조기 진단법을 알아 낸 것이다. <br/><br/><br/>이후 잭은 영국왕립학술대회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며 유명인사가 된다. 자서적과 특허로 인한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br/><br/><br/>그런데 생각해보라. <br/><br/><br/>“<span class='quot0'>잭 안드리카가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 췌장암은 등장하지 않는다.</span>” <br/><br/><br/>“<span class='quot0'>잭 안드리카의 중간, 기말고사에는 췌장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span>” <br/><br/><br/>“<span class='quot0'>잭 안드리카의 집과 학교에는 췌장암을 연구할 충분한 시설이 없었다.</span>” <br/><br/><br/>“<span class='quot0'>잭 안트리카는 췌장암을 배우기 위해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span>” <br/> <br/><br/><br/> <br/><br/>능동적인 자유 의지와 호기심이 시작이었으며, 연구수단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평등하게 주어진 정보화 기기의 사용능력이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성실성과 정보 판단, 조합 능력을 이용해 주어진 문제들을 넓고 깊게 공부했다. 미친 듯이 소위 ‘뭐에 꽂혀서’ 미친것처럼 공부했다. 결과는 접어두고 잭이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서울대가 말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이자 ‘역량’ 있는 인재가 아닐까? <br/><br/><br/>15세의 잭 안드리카가 구글로 세상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면, 한국의 철수 또는 미영이도 ‘네이버’와 ‘유튜브’로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br/> <br/><br/><br/> <br/><br/>개천에서 용난다 No! 개천의 연꽃이 되어야 한다! <br/><br/><br/>‘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말은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필자의 세대에게 가난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이후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사시나 행시로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진입장벽 높은 라이센스를 획득해 전문직의 길을 감으로서 이른바 개천의 삶에서 벗어나 돈과 권력을 쥘 수 있는 ‘용’이 되기를 꿈꾸었다. <br/><br/><br/>그런데 이렇게 ‘용’이 된 이들은 자신을 키워주고 보살펴 준 개천의 남아 있는 이들의 삶엔 관심이 없었다. 혹시나 다시 그 개천으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며 자신들이 움켜 쥔 것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학벌과 계층, 인맥이라는 자신들만의 여의주를 만들어 공유했다. <br/><br/><br/>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대한민국은 자신의 성장시켜준 공동체와 그 공간인 ‘개천’을 맑은 물로 정화시켜줄 연꽃 같은 인재들이어야 한다. 가난과 무지가 부끄러움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불평등과 탐욕, 독점이 부끄러움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br/><br/><br/>우리가 원하는 넓고 깊은 공부란 학문에 대한 탐구와 함께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대안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그런 교육의 시작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인 것이다. <br/> <br/><br/><br/> <br/><br/> <br/><br/><br/>파주 운정 열린고등부학원 고수남 원장 <br/><br/><br/>파주 열린학원 대표이사

언론사: 내일신문-1-6.txt

제목: 삼육보건대학 건강세미나 개최  
날짜: 20171204  
기자: 장세풍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04164741001  
ID: 01100301.2017120416474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은 최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초청 ‘김남혁 원장의 건강이야기’란 제목의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br/><br/><br/> <br/><br/><br/>김 원장(에덴요양병원 원장)은 외과의사로 근무하다가 7년 전 림프암 4기로 3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에덴요양병원에서 자연요법치료를 통해 기사회생해 암환자의 아픔, 두려움, 절망을 잘 아는 의사로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현재는 현대의학과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천연치료 프로그램의 통합치료를 통해 암환자들의 완치를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br/><br/><br/> <br/><br/><br/>이날 강연에서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 길은 최선의 예방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정신은 여러분의 행복의 기초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한편, 삼육보건대학 인성교육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초청 건강세미나 외에 건강밥상교실, 걷기운동, 물마시기, 사제동행걷기대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7.txt

제목: [신간│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죽음의 경계에서도 삶을 채워나가는 이유  
날짜: 20171201  
기자: 김형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01131453001  
ID: 01100301.2017120113145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니나 리그스 지음 / 신솔잎 옮김 / 북라이프 / 1만4000원<br/><br/><br/><br/>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매순간 인식한다는 것은 배터리가 거의 닳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 핸드폰으로 다정한 이와 수다를 떨고 있을 때처럼 불안하게 느껴져서 차라리 망각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br/><br/><br/> <br/><br/><br/>그런데 육체의 고통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음을 매순간 알려 준다면? 생명력의 배터리가 1%씩 사라져가는 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질까. 어차피 끝날 삶을 굳이 무엇인가로 채울 의지가 생길까. <br/><br/><br/> <br/><br/><br/>지난 2월 갓 마흔의 나이로 전이성 유방암으로 숨지기 전 1년 6개월여간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저자 니나 리그스라면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을 것이다. ‘작은 종양’으로 시작한 암덩어리가 척추까지 뻗어나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 때에도,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 해 온 엄마의 죽음을 암투병 중에 맞으면서도, 그는 잔인한 삶을 담담한 일상으로 채우며 삶을 사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br/><br/><br/> <br/><br/><br/>투병기가 읽기 쉬울 리만은 없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암환자’ 작가는 참으로 해학적인 유머로 상황을 묘사하며 독자를 잡아 둔다. <br/><br/><br/> <br/><br/><br/>작가의 암이 3기로 넘어간 어느 새벽 작가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엄마의 시신을 집에 둔 채 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면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유쾌한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던 ‘웃픈’ 에피소드. 레모네이드 파우더 보관용으로 오랫동안 썼던 오렌지색 타파통을 유골함으로 쓰려고 하는 아빠를 보내고 엄마에게 ‘제발 돌아와, 엄마. 아빠가 엄마를 이 통에 넣으려 했다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장면.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지나치며 저자가 말하고 싶었을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론사: 내일신문-1-8.txt

제목: 산후조리원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날짜: 2017120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201131422001  
ID: 01100301.201712011314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에 걸리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고통이 따른다. 따라서 암 환자들이 몸과 마음 모두 최적의 컨디션을 갖게 하는 총체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최근 강남구 도산대로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느루요양병원’이 새로 개원했다. 암 진단 환자부터 완화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와 다양한 보완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내 최초 부티크호텔 콘셉트의 여성 전문 암 요양센터인 ‘느루요양병원’을 소개한다. <br/><br/><br/> <br/><br/><br/>도심 속 부티크 형 암 요양병원 <br/><br/><br/>여성은 암에 걸려도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듯 ‘요양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환자들을 위해 ‘느루요양병원’은 집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표방한다. ‘느루’는 ‘천천히 몰아치지 않고 여유 있게’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br/><br/><br/>1층 병원 입구에는 화이트와 핑크로 화사하게 꾸민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다. 이곳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1일 3식의 푸드테라피와 ‘레인보우 항암주스’를 제공한다. 또 2, 3, 4, 5, 6층에는 통합치료실과 약국, 샤워실, 병동 등이, 7, 8, 9층에는 리프레시존, 진료실, 상담실, 테라스 등이 있다. <br/><br/><br/>특히, 7층 ‘리프레시존’에서는 사우나와 좌훈을 즐길 수 있고, 10층 ‘라이프존’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는 운동치료를 겸할 수 있다. <br/><br/><br/> <br/><br/><br/>다양한 보완치료프로그램 진행 <br/><br/><br/>옥상의 ‘느루 미니가든’도 환상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아로마테라피, 음악치료, 마사지, 미술치료,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느루요양병원’은 요양만 가능한 병원일까? ‘느루요양병원’은 휴식과 요양은 물론 항암온열치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항암 효과 증진과 면역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고주파 온열치료’를 환자 개개인에 맞춰 진행한다. 고주파 온열치료는 여러 종류의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치료법으로, 종양 부위의 온도를 42℃까지 올려 직접적인 암 치료 효과뿐 아니라 항암, 방사선 치료 효과도 높여준다. <br/><br/><br/>또한 암 환자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br/><br/><br/> <br/><br/><br/>여성 암 환자들 위한 최적화된 환경 <br/><br/><br/>이밖에도 전신 온열치료, 고압 산소치료, 항암 면역세포치료, 미슬토 항암 면역요법, 비타민 C·D주사, 글루타치온 치료, 마이어스 칵테일주사, 킬레이션주사 등 주사치료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강과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휴게실,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한 사우나실도 빼놓을 수 없다. <br/><br/><br/>또 서울의 대형병원(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 스케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자운송서비스도 진행한다. <br/><br/><br/>조현주 원장은 “<span class='quot0'>보통 남편이 병에 걸리면 배우자인 아내가 수발을 들고 집안 살림까지 책임지지만, 반대로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는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요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처럼 ‘요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암 환자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치료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토</span>”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9.txt

제목: 친박 수렁에 빠진 한국당  
날짜: 20171128  
기자: 엄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28130628001  
ID: 01100301.20171128130628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자유한국당이 친박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특유의 독설로 친박 청산의지를 강조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탄핵 직후 친박을 단호하게 청산하는 대신 태극기 민심에 기대려했던 홍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r/> <br/>한국당은 새로운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발목 잡힌 모습이다. 검찰이 연일 적폐수사를 통해 친박을 압박하면서 이들이 속한 한국당까지 도매금으로 적폐수사의 부담을 지고 있다. 친박핵심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았다. 친박 김재원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친박 서청원 의원의 측근 이우현 의원도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r/> <br/>더욱이 최경환 의원은 28일 검찰소환에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역시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27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최 의원은) 당을 나가달라고 해도 계속 버티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의 수사까지 버틴다면 이것은 당으로서도 좀 곤란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당은 27일 최경환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가 포함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 의원으로선 검찰 소환을 거부할 명분을 얻은 셈이 됐다. <br/> <br/>홍 대표는 "<span class='quot1'>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특검법'을 발의했다</span>"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특검 수사대상에서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를 빼려고 했지만 친박 원내세력에게 밀렸다. 홍 대표측은 "<span class='quot2'>최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 아쉽다</span>"고 말했다. <br/> <br/>친박은 내달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도 세를 모으고 있다. 홍 대표와 비박은 김성태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친박은 홍문종 의원 등을 앞세워 한판대결을 벼르고 있다. 중도의원들은 '제3후보론'에 더 기우는 모습이다. <br/> <br/>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논란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달 15일에, 홍 대표는 내달 7일에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 양측은 결국 내달 12일로 절충했다. 홍 대표측은 "<span class='quot2'>친박은 상당수 의원들이 외유를 떠난 15일에 경선을 치러야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홍 대표는 친박으로 인해 당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br/> <br/>홍 대표는 27일 "<span class='quot2'>구체제 잔재들이 준동하고 또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고름도 그대로 두고 암 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가겠는가</span>"라고 말했다. 친박 청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br/> <br/>하지만 당이 친박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홍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br/> <br/>홍 대표는 탄핵 뒤 실시된 대선에서 친박과 단절하는 대신 손을 잡으려 애썼다. 당원권정지 징계가 내려진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사면했다. 유세에서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돼 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딱 받은 것은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밖에 없다. 저는 무죄가 된다고 본다"며 태극기 민심에 기대려 했다. 대선 당시 친박을 냉정하게 청산하지 못한 채 그 힘에 기대면서 친박이 생명을 연장할 시간을 벌어줬고 지금와서 다시 청산 깃발을 드니 그동안 당내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0.txt

제목: 비수술적 자궁질환 치료방법  
날짜: 2017112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27125313001  
ID: 01100301.201711271253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생리통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유연우(33·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 직장을 다니면서 수술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내년에는 둘째도 가질 생각이라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레아산부인과 이경숙 원장으로부터 자궁근종 등 자궁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활용되는 하이푸(HIFU)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수술 없이 자궁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 하이푸 <br/><br/><br/>과거에는 자궁적출술과 자궁절제술, 근종절제술 같은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법이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증세가 심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시술이 인기다. <br/><br/><br/>이 원장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하이푸 시술, 고주파용해술, 자궁동맥결찰술, 약물치료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주파용해술은 근종 위치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접근이 어렵기도 합니다. 자궁동맥결찰술은 시술 후 다시 자라기도 하고 자궁 환경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거대 근종은 치료가 힘들고 약을 끊으면 근종이 다시 자라기도 합니다. 약물치료는 의학적으로 시술이 힘든 경우, 근종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하는 등의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라고 말했다. <br/><br/><br/>그럼 하이푸 시술은 어떤 방법일까? 이 원장은 “태양의 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와 유사한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데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열에너지가 응집되듯이 하이푸의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고강도초음파가 피부와 정상 조직을 통과해 체내의 종양에 집속되어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 하이푸가 종양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암 치료에 사용될 만큼 뛰어난 기술력 <br/><br/><br/>하이푸 시술의 장점은 절개가 없고, 흉터도 없다는 점이다. 회복이 빨라서 시술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마취도 일반 수술은 전신 마취인데 비해 하이푸 시술은 반수면 정도의 마취로, 시술 중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br/><br/><br/>하지만 하이푸 시술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 원장은 “하이푸 시술 전에는 MRI를 통해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치료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MRI를 다시 찍어서 시술 전후 근종의 상태 및 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br/><br/><br/>하이푸 시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는 여러 종류이다. 그중 충칭 하이푸는 고강도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출력·초점·강도)의 기술력과 정확도 높은 운동능력(차원·범위·정확도)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이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양성종양뿐 아니라 간암, 췌장암, 골육종, 유방암 등의 악성종양 치료까지 사용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br/><br/><br/>이 원장은 “충칭 하이푸는 포커스의 정확도를 높여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종을 잘 태우지 못하는 기기로는 한 번에 시술을 못하고 2~3회에 나눠서 시술하기도 하지만, 충칭은 웬만하면 한 번에 시술을 마칩니다”라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증상에 따라 요실금 치료법 달라 <br/><br/><br/>요실금 역시 자궁근종처럼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다. 요실금은 대부분 긴장성, 절박성, 혼합성 요실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원장은 “긴장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해 복압이 증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심하지 않으면 케켈 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 200번 이상 열심히 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환자들이 요령을 잘 몰라서 정확히 하기 힘들고 꾸준히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도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br/><br/><br/>바이오피드백 치료는 골반근육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골반근육과 신경에 전류를 흘려서 부교감신경, 방광 신경 등을 자극함으로써 환자의 골반근육을 강화시켜 요실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br/><br/><br/>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나와 버리는 경우이다. 노화 등으로 나타나며 수술보다는 바이오피드백 치료, 약물 치료 등을 권한다. 혼합성 요실금은 긴장성과 절박성이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요실금 수술을 하면 빈뇨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나 빈뇨 증상은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txt

제목: 양한방협진, 치료단축 효과  
날짜: 2017112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21125434003  
ID: 01100301.2017112112543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양한방 협진으로 요통을 치료했더니 비협진환자들보다 치료기간이 4.5배나 줄어 드는 등 양한방 협진이 치료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한간 협진서비스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양한방 협진한 경우 치료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 중 협진을 하지 않은 환자군은 102일의 치료기간이 걸렸다. 반면 협진 환자군에서는 45일 동안 치료했다. 2배 넘게 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요통의 경우 협진하지 않은 환자군은 114일 치료기간이 걸렸지만 협진군에서는 2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br/> <br/>1차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만족했다.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범 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9.5%, 양약 한약 처방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78.6%, 시범기관 확대 70.9% 등으로 조사됐다. <br/> <br/>의료인들의 사업 전후 비교 조사 결과, 환자 편의 도모면에서는 88.9%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단 효율성은 55.6%, 치료 효율성은 59.5%로 환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협진할 경우 협진표준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견이 88.9%,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88.9%로 나타나 협진 절차가 아직 매끄럽지 않다는 결과로 분석됐다. <br/> <br/>한편 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21일 선정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7일부터 표준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한의과 협진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진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br/> <br/>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적용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을 포함해 암, 대상포진,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이염, 청력소실 협심증, 부정맥, 뇌내출혈, 비염, 천식, 위장질환, 아토피성피부염, 건선, 월경, 난임 등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2.txt

제목: "호스피스완화의료 간병수가 높여야"  
날짜: 20171120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20130444003  
ID: 01100301.20171120130444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서비스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br/>호스피스 서비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가 남은 생애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지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br/> <br/>정부는 호스피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의료 도우미제도', 즉 간병에 대한 급여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했다. <br/> <br/>그 결과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자수는 1년 만에 약 200%가 증가했다. <br/> <br/>하지만 문제는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80개 중 약 절반만이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가 적정수가보다 낮게 설계되어 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되었음에도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어 환자 가족들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맡고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존 제공되던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br/> <br/>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렇게 되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게 되고, 그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11.3% 인상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올바른 대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스피스의 간병수가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txt

제목: [인터뷰│자생의료재단 설립자 신준식 박사] "한·양방 한자리 척추진료, 환자불편 줄어"  
날짜: 2017111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15122146002  
ID: 01100301.2017111512214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한국 추나요법을 창시한 신준식 박사가 설립한 자생한방병원이 13일 IMF 금융위기 시기 1999년 터 잡았던 압구정동을 떠나 논현동 신사옥시대를 열었다. 자생한방병원은 설립 후 26년 만에 국내 20개 해외 6개 병의원을 세우면서 연 매출 2000억원에 이르는 한국 최대 한방병원으로 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새 터전으로 이전하기 10일 전 신 박사를 만났다. 그는 자생한방병원이 '한양방 한자리 진료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방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약을 밟아 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척추질환 치료의 흐름은 '수술'에서 '비수술'로 빠르게 전환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30여 년 전부터 '수술 없이도 척추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자생한방병원의 영향이 컸다. <br/> 사진 이의종 ■ 신사옥 이전부터 한국 추나요법 창시자로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소회가 남다를 텐데. <br/> <br/>추나요법이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지 23년만에 이룬 쾌거다. 효능이 인정받았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비용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신사옥 이전은 추나요법의 저변을 넓히고 비수술 척추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다. <br/> <br/>■ 신사옥 이전 배경은. <br/> <br/>압구정 부지는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에는 불편했다. 척추 질환 환자들이 압구정역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부족했다. 특히 병원 부지에서도 진료 공간이 떨어져 있는 단점이 있었다.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하기에도 한 공간에서 한방전문의 양방전문의에게 동시에 소견을 듣고 비수술 척추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랬다. <br/> <br/>■ 한양방 한자리 진료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나. <br/> <br/>기존에도 우리병원에서 한양방협진을 진행했는데, MRI X-ray 영상의학 위주의 양방진단과 추나요법 약 침 등 중심의 한방처방으로 이뤄졌다. 이제 신사옥에서 진행되는 '한자리 진료시스템'은 양한방 진단과 처방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면에서 진일보했다. 진단 후 양방 처치법까지 이뤄진다면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이용할 필요가 없어 질 것이다. <br/> <br/>자생한방병원 측은 신사옥 오픈 후 11월말부터 2개월간 '한자리 진료' 시범운영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환자는 예약을 통해 주1회 30분가량 '한자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MRI 등 환자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병원장 주재로 한양방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의들이 병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계획, 담당주치의 배정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한다. <br/> <br/>■ 한양방 한자리 진료시스템은 의사들의 참여가 필수인데, 한국 의료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동참할 의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을 텐데. <br/> <br/>한양방 협진이 잘 안되는 부분은 의사들이 편협해서 그렇다기보다 서로 학문적 교류가 진지하게 이뤄지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진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몰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암센터에서도 '협진'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br/> <br/>보다 진화된 협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한국갤럽과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척추 관절 질환 의료기관 이용과 한양방 협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족'(44.1%), '한 의료기관의 소견만 듣기에는 불안함'(32.3%) 등을 이유로 평균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진료방지 및 최선의 치료법 모색을 통한 치료비용 절감'(31.7%)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br/> <br/>■ 자생한방병원은 한방 과학화 사업에도 모범적이었다. <br/> <br/>지난 1999년 자생생명공학연구소(후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설립했고 비수술 척추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연구 실험연구 등을 통해 입증해 왔다. 2014년부터는 수련의들이 제1저자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53편의 연구논문들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특히 2013년에는 디스크 질환의 급성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동작침법의 효능이 통증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통증학술지 'PAIN'지에 게재됐다. <br/> <br/>신사옥 이전 후에는 자생척추관절연구소에 '실험연구센터''임상연구센터'를 갖춰 데이터 기반 실험과 임상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br/> <br/>■ 한방의 세계화 전략을 세웠다는데. <br/> <br/>현대의학의 본 고장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주요 대학병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 의료진들에게 한의학을 강의하고 현지에 진출한 자생한방병원을 통해 한방알리기 첨병에 나설 것이다. <br/> <br/>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는 현지 거점 센터를 갖추고 의료진 교환 교육, 의료봉사 등을 통해 한의학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키르키스스탄 한의약 홍보센터' 구축사업에 시행기관에도 선정돼 현지 대통령병원에 한의학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게 됐다. <br/> <br/>신사옥 1개 층 전체를 외국인 전용 '국제 진료센터'를 갖췄다. 11월에 홍콩 환자 50명이 진료 예약했다. <br/> <br/>■ 자생한방병원의 성장 동력은. <br/> <br/>'긍휼지심'이라고 본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처치법을 찾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한·양방협진에도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사회공헌활동에도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 봉사의 경우 1800여명의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연 400회의 봉사에 나섰다. 그 수혜자만 3만7000 여명이다. <br/> <br/>■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br/> <br/>일부 매체에서 척추질환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언론사: 내일신문-1-14.txt

제목: [기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 전략  
날짜: 2017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8131213003  
ID: 01100301.20171108131213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많은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에 환호하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값비싼 항암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모든 초음파와 MRI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백만 원이 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책임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고 매년 44만 가구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br/> <br/>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당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재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서 약속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정부가 말한 30.6조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걱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br/> <br/>MRI 검사나 항암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br/> <br/>문재인 케어는 정부나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실패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br/> <br/>먼저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초음파와 MRI 같은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 부담이 1/3 정도로 줄어든다. 검사 횟수을 제한하거나 암 같은 몇 가지 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던 방식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의사와 환자 모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약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br/> <br/>이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문재인 케어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검사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으면서도 남용을 막는 새로운 진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br/> <br/>다음으로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부담할 것이다. 큰 병에 걸려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는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래야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어진다. <br/> <br/>의사와 병원의 참여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먼저 기존 비급여 진료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가려내고, 이것에 진료비 가격을 정하고, MRI 검사나 항암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모두 문재인 케어의 중요한 과제이다. <br/> <br/>그런데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선뜻 찬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원가 이하로 방치해 놓고 손해를 메꾸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해 온 의사들을 정부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나빠지자 정부가 진료비를 대폭 삭감한 트라우마도 아직 생생하다. <br/> <br/>불신을 해소하려면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을 적정 수준까지 인상해서 비급여가 없어져도 지금처럼 병의원의 진료수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br/> <br/>대학병원이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증환자 보면 손해 나도록 <br/> <br/>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대학병원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증 환자를 보면 손해가 나도록 진료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br/> <br/>동네의원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진찰료도 올리고 교육상담 비용도 책정해줘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도 굳이 멀고 복잡한 대학병원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br/> <br/>우리 국민은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을 접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br/> <br/>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료관리학

언론사: 내일신문-1-15.txt

제목: [미국 대통령 25년 만의 국빈방문 '명과 암'] 안보이슈 공유 '성과' … 과도한 무기구매 '부담'  
날짜: 20171108  
기자: 이명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8131156001  
ID: 01100301.20171108131156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 하려다 짙은 안개 때문에 취소했다. <br/><br/><br/> <br/><br/><br/>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시작된 양 정상의 파격적 행보가 날씨 때문에 막힌 셈이다. <br/> <br/><br/><br/><br/><b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span class='quot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8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계획했지만 기상악화로 취소했다</span>"고 밝혔다. <br/><br/><br/> <br/><br/><br/>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트럼프 대통의 DMZ 방문은 성사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날씨 상황 때문에 헬기가 착륙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측에서 방문을 취소했다</span>"고 밝혔다.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전날 한·미 단독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제안해 추진됐다. <br/><br/><br/> <br/><br/><br/>7일 열린 단독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DMZ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물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가신다면 동행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 <br/><br/><br/>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먼저 DMZ에 도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안개 때문에 방문을 취소하면서 복귀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br/><br/><br/> <br/><br/><br/>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span class='quot1'>중간에 착륙해 육로로 안개를 뚫고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나 비록 회항했지만 10분 단위로 방문의지를 전달하며 대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빈틈없는 한미동맹과 평화수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손색이 없었다</span>"고 밝혔다. <br/><br/><br/> <br/><br/><br/>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br/><br/><br/> <br/><br/><br/>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로 전체 기지 건설비용 약 100억 달러의 92%를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br/><br/><br/> <br/><br/><br/>두 정상은 기지 내 식당에서 양국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 양국 군 장병 앞에 서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span class='quot2'>한국은 단순한 동맹국 그이상</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span class='quot2'>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span>"라고 덧붙였다. <br/><br/><br/> <br/><br/><br/>이어 열린 두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와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부터 맞춰온 두 정상간의 공감대가 빛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코리아 패싱(한반도 주변 국제적 이슈를 논할 때 한국이 소외되는 상황)' 우려를 직접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패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span class='quot2'>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span>"고 단언했다. <br/><br/><br/> <br/><br/><br/>당초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려했으나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조치 외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하고 있다"며 군사옵션의 언급을 자제했다. 다분히 '평화적 해결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br/><br/><br/> <br/><br/><br/>그러나 무기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실익 행보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pan class='quot2'>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span>"고 자랑했다. <br/> <br/><br/><br/><br/><br/> [

언론사: 내일신문-1-16.txt

제목: 유방암·갑상선암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날짜: 2017110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7122037001  
ID: 01100301.201711071220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성암 발생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과 유방암, 그중에서도 유방암은 40대>50대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도 발생률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로, 생존율과도 이어지는 만큼 평소 갑상선, 유방관련 질환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 과정의 두려움과 앞선 걱정 등으로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친절한 상담이 가능한 갑상선유방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수원영통 아름다운향기유외과 권수범 원장은 조언한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유방자가검진 및 정기검진을 통한 <br/><br/><br/>조기발견이 생존율 높여  <br/><br/><br/>유방암은 발생률이 높은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로 생존율 90% 이상의 좋은 예후를 보이는 착한 암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 암 검진 항목으로 지정돼 40세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40대 이후가 아니더라도 30세 이후에는 매월 1회 유방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임상검진을 권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방암 자가검진이나 검진시기에 대해 잘 모른다. <br/><br/><br/>권수범 원장은 “2015년부터 수원, 용인 인근에서 매년 한국유방암학회 주최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건강강좌’를 열고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검진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데 유방암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들로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괜찮겠지’하고 무시하기도 한다”며,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 게 갑상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고 들려줬다. <br/><br/><br/>이런 증상들이 유방암, 갑상선암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내리기 전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가족력, 기타 환경적인 문제 등 전문의의 문진과 검사를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권 원장은 조언했다. <br/> <br/><br/><br/> <br/><br/>경험 많은 전문의와의 <br/><br/><br/>충분한 상담으로 궁금증 해소 가능   <br/><br/><br/>반면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유방촬영 시 발생하는 통증, 여성의 아픔을 충분히 나누고 공감할만한 곳이 없다 보니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경험 많은 전문의를 찾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하지만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환자도 많고 진료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개인병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방암 검진 지정병원, 서울아산병원 유방센터지정협력병원인 수원영통 아름다운향기유외과는 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 권수범 원장의 예약진료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다. <br/><br/><br/>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전문성을 갖춘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과 대학병원급 최신첨단장비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투자로 개원 3년여 만에 수원뿐만 아니라 분당, 용인 등 인근지역의 환자들이 방문해 갑상선유방 관련 상담 및 진단, 치료까지 받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br/><br/> <br/><br/>최첨단장비까지 뒷받침된 정확한 진단과 <br/><br/><br/>치료계획으로 신뢰도↑ <br/><br/><br/>갑상선 세포검사 및 고주파수술이 동시에 가능하고 유방촬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유방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아름다운향기유외과의원의 장점 중 하나. 우리나라 여성은 유선 조직 밀도가 촘촘한 치밀유방이 많아서 유방촬영과 더불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방사선 부담이 없는 유방초음파가 권장되기도 한다. <br/><br/><br/>아름다운향기유외과는 유방 압박의 통증을 줄여주는 자동 소프트기능의 유방촬영기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직검사 없이도 암의 경도까지 파악 가능한 탄성초음파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충분한 진료시간을 가지면서 증상에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거나 혹은 현재의 상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것도 치료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span>”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내일신문-1-17.txt

제목: 갑상선질환 진단과 치료  
날짜: 2017110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3124212002  
ID: 01100301.2017110312421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40대 후반의 여성 K씨는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데도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소화불량에다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서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 갑상선은 작은 기관이지만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br/><br/><br/>‘강남아름다운유외과’의 이주현 원장을 만나 갑상선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흔히 나타나는 갑상선 결절, 양성인지 암인지 확인해야 <br/><br/><br/>‘강남아름다운유외과’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여성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주현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유방·갑상선 전문 병원이다. <br/><br/><br/>목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은 두뇌의 명령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를 조절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기관에 결절이나 기능 이상이 생기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br/><br/><br/>갑상선 종양은 양성과 악성(암)이 있고, 양성이 악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양성인 경우 사이즈만 커진다. 사이즈가 크면 겉으로 만져지고 주변 조직을 눌러서 목이 쉬기도 하고 침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낀다. <br/><br/><br/>이 원장은 “갑상선 결절은 여성에게 많긴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흔히 생긴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조직검사를 해서 암인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한다. 양성인 경우 1cm가 넘으면 제거를 권한다. 작을 때 제거하면 한 번에 가능한데 사이즈가 커지면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성 결절은 예전에는 절개 후 제거했지만 이제는 절개 없이 고주파 열절제술로 태워서 제거한다. 절개를 하지 않으므로 흉터가 남지 않고, 마취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작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br/><br/><br/>또한 “암인 경우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 요오드치료가 필요하므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고 진행이 느려 거북이암이라고 인식하는 환자가 많아 암으로 진단해줬음에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갑상선암도 암의 한 종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암도 있으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br/><br/> <br/><br/><br/>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항진증과 저하증 <br/><br/><br/>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은 크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땀을 많이 흘린다. 반대로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정상보다 낮거나 결핍된 상태로 몸이 붓고 둔해지면서 체중이 늘고 추위를 탄다. <br/><br/><br/>이 원장은 “갑상선은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다른 호르몬이 대체할 수가 없다.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주로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곤해도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기능을 체크하고 이상이 생기면 약으로 호르몬 양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염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수술한 경우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정확한 검진으로 증상에 따라 내·외과적 치료 <br/><br/><br/>이 원장은 갑상선질환은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고 한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 건강검진에는 호르몬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갑상선 기능검사를 한다고 해서 혹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기능검사와 함께 영상검사를 병행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r/><br/><br/>또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 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기 힘든 단점이 있다”고도 언급하며, 정확한 검진과 함께 증상에 따라 내·외과적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8.txt

제목: [‘양말 인형 만들기’ 수업하는 신은숙, 박경자 주부]  
날짜: 2017110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3124211001  
ID: 01100301.20171103124211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친구가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는 토당동 박경자, 신은숙 주부. 올 봄부터 포돌이안전도서관 육아나눔터에서 매주 금요일 ‘양말인형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알려주고 배우는 모임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두 주부를 11월의 마음씨에서 만났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일주일에 한 번 양말인형 만드는 모임 <br/><br/><br/>고양시 포돌이안전도서관 육아나눔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양말인형 만들기’수업이 열린다. 수업을 이끄는 이는 신은숙, 박경자 주부로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동생 사이다. 손재주가 남다른 두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인형을 만들며 서로 소통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 올봄부터 ‘양말인형 만들기’ 수업을 시작했다. <br/><br/><br/>“수업이라기보다는 같이 인형을 만드는 모임이죠. 언니(신은숙 씨)가 손재주가 참 많아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까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자고 제가 제안했죠. 저도 만들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인형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박경자 씨) <br/><br/><br/>  <br/><br/><br/> <br/><br/><br/> <br/><br/><br/>인형 만들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       <br/><br/><br/>지역 카페를 통해 수업을 알리고 장소는 고양시 포돌이안전도서관 육아 나눔터로 정했다. ‘열매 품앗이’라고 이름 붙인 양말 인형 만들기 수업에 처음 모인 인원은 약 15명. 주로 신은숙씨가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박경자 씨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단다. 수업은 양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을 만드는 것. 얼핏 생각하면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만 박음질정도만 할 줄 알아도 쉽게 만들 수 있단다. 처음에는 주로 토끼와 고양이 같은 쉬운 인형으로, 한 개 두 개 만들어 실력이 쌓이면 코알라나 원숭이 인형을 만든다.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 사는 엄마들로 다들 아이를 위해서 손수 인형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다. 도중에 그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형 하나를 만들면 하나 더 만들고 싶게 되고 매주 두 개 세 개를 함께 만들며 모인 이들은 친구가 되었다. <br/><br/><br/>“대부분 아이를 둔 같은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기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들 얘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지요. 이번 여름 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 인형을 만들기도 했어요.” <br/><br/><br/> <br/><br/><br/>  <br/> <br/><br/><br/> <br/><br/>함께 나누고 계속 소통했으면 <br/><br/><br/>처음 양말 인형 만들기 수업을 구상할 때 생각한 것은 집안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요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게 친구 사귀는 방법,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자연스럽게 서로 잘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배우는 모임이 되었다. <br/><br/><br/>“모임에서 어느 정도 친해지니 누구는 머리핀을 잘 만들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각자 다 한 가지씩 잘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같이 머리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지요. 모임을 통해 이렇게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br/><br/><br/>앞으로의 바람은 모임을 통해 양말 인형을 만들어 인근 암 병동에 있는 아픈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변에 그런 모임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9.txt

제목: 증상없는 유방암,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야  
날짜: 20171102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2103830001  
ID: 01100301.201711021038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암협회 안산시지부(지부장 한사랑병원원장 이천환)는 지난달 25일 한사랑병원 소강당에서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시·군 단위 지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캠페인을 펼친 안산시지부는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유방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너울회’와 평소 유방암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일반시민 100여명이 함께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예방법과 치료법 공유 건강사회 지름길 <br/><br/><br/>강연이 시작되기 전 대한암협회 안산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천환 원장은 “50년 역사를 가진 대한암협회는 다양한 암예방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시 단위 지부가 있는 곳은 경기도내 일산과 안산뿐인데 해마다 캠페인과 강연을 펼치는 곳은 안산이 유일하다”며 “질병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를 나누고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오늘 강의가 참가자들에게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예방법과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특히 이날 건강강좌는 대한암협회 안산시지부가 주최하고 상록수보건소와 한사랑병원이 후원했으며 평소 궁금했던 유방암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가 쏟아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유방암과 ‘비만’의 상관관계 <br/><br/><br/>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첫 강의자로 나선 김지현 한사랑병원 외과과장은 “<span class='quot1'>비만예방과 정기적인 건강검진</span>”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이후 해마다 2만명 이상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활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이 수치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br/><br/><br/>김지현 과장은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0%라면 그 중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25% 정도다. 네 명 중 한 명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유방암 생존율은 90%를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편이지만 3기 이후 발견된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br/><br/><br/>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자가진단과 정기 검진이 필수다. 특히 최근엔 유방암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30대 이후 여성이라면 2년에 1회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br/><br/><br/>이어 김지현 과장이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꼽는 것은 ‘비만 해소’다. 그는 “비만과 유방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유방암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br/><br/><br/> <br/><br/><br/>개인별 맞춤 치료 완치율 높힌다 <br/><br/><br/>이어 기영준 외과과장이 ‘유방암의 개인별 맞춤치료’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기영준 과장은 “<span class='quot1'>최근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유방암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예전엔 유방암 발병 시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부분 절제술로 수술 후에도 가슴을 잃지 않는 수술법이 개발돼 시행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 <br/><br/><br/>하지만 다양한 치료법 중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개인별 암 발병 위치, 모양,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br/><br/><br/>강연 후 실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현재 복용 중인 항암제의 효과와 유방암 재발 위험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경포 원장은 “일단 유방암에 한 번 걸린 환자는 다른 암에 걸릴 확률과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다. 오늘 강좌에서 들은 좋은 정보를 생활속에서 실천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br/><br/> <br/><br/><br/>도움말 한사랑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언론사: 내일신문-1-20.txt

제목: 암 유발 논란 '몬샌토(글로벌 거대 농업기업)', 진실인정 대신 로비공작에만 몰두  
날짜: 20171101  
기자: 김은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1122348001  
ID: 01100301.2017110112234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농업화학계 공룡기업인 몬샌토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라운드업의 유럽연합(EU) 내 판매허용 기간은 오는 12월 15일 만료된다. 회원국들은 또 다른 10년 동안 판매를 허용할지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과 관련한 문건들이 폭발적으로 공개되면서 라운드업의 안전성, 판매연장 등이 화두에 올랐다. <br/> <br/>독일 주간지 슈피겔 최신호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의 결점을 감추려는 몬샌토의 전략은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메모 등에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같은 문건들을 보면 '라운드업이 인간의 건강에 무해한지' 여부를 몬샌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br/> 지난 7월 19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거대 농업기업 몬샌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민단체 '아바즈'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br/>몬샌토 연구진 중 한 명인 도나 파머는 지난 2003년 11월 22일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span class='quot0'>라운드업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무해하다고 말할 만큼 충분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span>"고 적었다. <br/> <br/>이 이메일은 미국 법정에 제출된 100여건의 증거자료 중 하나다. 현재 몬샌토는 라운드업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2000여명의 원고와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직접적 피해자 또는 피해가족들은 "라운드업 때문에 림프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br/> <br/>문건들을 보면 몬샌토는 라운드업의 위험성을 숨겼다. 몬샌토를 인수하려는 거대 제약사 바이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br/> <br/>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연합의 마이클 바움 변호사는 "<span class='quot1'>몬샌토 문건을 보면 연구보고서 대필, 과학적 조작, 정보 은폐 등에 대한 놀랄 만한 사실이 담겨 있다</span>"고 주장했다. 바움 변호사에 따르면, 몬샌토의 전략은 담배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감춰왔던 담배회사들의 전략과 동일했다. 피해 보고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대편의 연구자들을 공격하며,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줄 대필 연구자를 포섭한다는 것. <br/> <br/> <br/>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다. 몬샌토와 신젠타, 바이엘 등은 매년 80만톤 이상의 글리포세이트를 생산, 판매한다. 전 세계 농부들은 파종기와 수확기에 앞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글리포세이트를 뿌린다. <br/> <br/>인기제품으로 40년 이상 판매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나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소변,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맥주에서 발견된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환 형태로 만드는 가축사료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결국 이를 먹는 독일 등 유럽의 소나 돼지 등 가축에서도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된다. <br/> <br/>'글리포세이트는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추정이 오랫동안 힘을 얻었다. 식물에게 필수적인 물질대사를 방해할 뿐, 포유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br/> <br/>2015년 3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단체인 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br/> <br/>인간·가축에서 발견되는 독성 <br/> <br/>몬샌토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몬샌토 최고기술경영자(CTO)인 로브 프레일리는 "<span class='quot2'>IARC의 주장은 수십년 동안 전 세계 선진국 보건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글리포세이트의 안정성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CEO 휴 그랜트는 IARC의 연구결과를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br/> <br/>하지만 몬샌토 역시 IARC의 그같은 결론을 예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몬샌토 본사의 연구진들은 처음부터 IARC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가능성을 경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r/> <br/>몬샌토 연구자 도나 파머는 2014년 9월 이메일에서 "<span class='quot0'>오랫동안 걱정해왔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IARC가 내년 3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span>"이라고 적었다. 한 달 뒤인 2014년 10월 또 다른 연구자인 윌리엄 헤이든스는 더욱 구체적인 고민을 내비쳤다. 그는 내부 이메일에서 "<span class='quot0'>우리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노출과 유전독성, 작용기전 등 부문에도 취약하다</span>"고 털어놨다. 유전독성이란 화학물질이 생물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결국 암으로 전환될 수 있다. <br/> <br/>역학조사는 질병의 발병이 특정 물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쓰인다. IARC는 역학조사를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판단했다.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글리포세이트는 림프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몬샌토는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메일에는 "우리는 아만성독성(sub-chronic, 3개월간 연속 투여했을때 생기는 특성), 만성독성, 최기형성(teratogenicity, 이상발육과 선천기형을 일으키는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 라운드업 희석액에 노출된 어미뱃속 태아 쥐는 선천적 골격기형을 나타냈다. <br/> <br/>몬샌토는 자사의 연구진도 믿지 않았다. 연구진 제임스 패리가 분석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나 파머는 내부 이메일에서 "<span class='quot0'>패리가 글리포세이트가 유전자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를 쫓아낼 수 있도록 다른 연구과제를 맡겨야 한다</span>"고 적었다. <br/> <br/>글리포세이트는 몬샌토의 주장처럼 인간에 무해한 게 아닌 듯 보인다. 특히 글리포세이트는 식물은 물론 미생물도 죽인다. 그 사실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해도, 포유동물 장내에서 활동하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하다. <br/> <br/>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수의사인 모니카 크뤼거는 가축이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환 형태의 사료를 먹으면 위장에 사는 특정 미생물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이는 해당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의 '위험조사 연방연구소'(BfR)는 크뤼거의 연구결과를 배척했다. BfR는 EU내 글리포세이트의 안정성 평가를 책임지는 곳이다. <br/> <br/>몬샌토 연구진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라운드업이 인체에 흡수됐을 때 인간에게 미칠 위험 가능성에 대해 '나몰라라'다. 몬샌토는 2002년 자체 동물실험에서 '라운드업이 실험용 쥐의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투하는 경우가 5~10%에 달했다'는 결론을 냈다. <br/> <br/>5~10% 비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수치였다. 이는 라운드업의 위험 평가에 치명타를 날릴 만한 결과였다. 게다가 실험용 동물들은 소화기관을 통해 더 많은 라운드업을 흡수했다. 이에 대해 몬샌토는 이메일에서 "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br/> <br/>여기서 중요하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운드업이 위험의 주요소로 거론되는 글리포세이트 외에 또 다른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즉 라운드업은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딱딱한 식물의 세포벽에 침투시키기 위해 또 다른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물질들은 글리포세이트 자체보다 더 위험한 성질을 띠고 있다. <br/> <br/>수년에 걸친 몬샌토의 집요한 로비 결과로, 많은 나라의 보건당국은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만을 따로 떼어내 평가하고 있다. 즉, 실생활에서는 글리포세이트 단독이 아니라 그것을 함유한 라운드업이 살포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br/> <br/>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유럽식품안전청, 독일의 BfR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평가'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실험용 쥐에게 순질의 글리포세이트를 노출시킨다. 그런 뒤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글리포세이트 허용양을 결정하는 데 그친다. 이들이 수행하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환경에 실제로 축적되는 글리포세이트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뿐이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이처럼 2개의 별도 연구로 파악하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br/> <br/>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판단한 IARC의 연구는 달랐다. 이곳 연구진은 노출량과 무관하게 글리포세이트 자체의 위험도를 측정했다. 또 순수 글리포세이트뿐 아니라 실제 복합화합물로 살포되는 형태, 즉 라운드업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물론 이를 위한 역학조사에서 조건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IARC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통해 라운드업을 발암추정물질로 판단했다. <br/> <br/>몬샌토 연구진도 비슷한 결론을 냈다. 헤이든스는 도나 파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글리포세이트는 괜찮다. 하지만 복합화합물인 라운드업은 피해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br/> <br/>그럼에도 몬샌토는 대중들에게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대규모 로비작업을 펼쳤다. 자사의 입장과 반대되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br/> <br/>그같은 공작의 피해자는 프랑스 독극물학자인 질 에릭 세랄리니다. 그는 몬샌토가 했어야 할 실험을 한 죄밖에 없다. 그는 2년 동안 실험용 쥐들에게 라운드업이 희석된 물을 마시게 하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먹게 했다. 연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험용 쥐 일부에서 신장에 이상이 나타났다. 암컷 쥐 상당수는 유방암을 앓았다. <br/> <br/>2012년 9월 과학저널 '식품과 화학 독극물학'에 세랄리니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이후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수백명의 과학자들이 세랄리니의 연구에 항의하고, 그가 거짓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정치적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동물을 악용한다는 혐의였다. 해당 저널은 결국 2013년 11월 그의 논문을 철회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해당 저널은 철회 6개월 전 몬샌토 전 직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br/> <br/>몬샌토 내부 문건엔 세랄리니에 대한 압력행사 방법이 나와 있다. 당시 몬샌토 간부였던 데이빗 샐트미러스는 "<span class='quot3'>무수한 제3자 연구자들을 부추겨 '식품과 화학 독극물학' 편집진에 항의 편지를 보내게 했다</span>"며 "<span class='quot3'>얼마 남지 않은 세랄리니의 신뢰성은 회복불가능한 처지에 몰렸다</span>"고 자랑했다. <br/> <br/>세랄리니의 연구방법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 몬샌토는 그 점을 파고들어 세랄리니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IARC의 평가도 세랄리니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br/> <br/>그러자 몬샌토는 다수의 연구자와 로비전문가를 고용해 IARC에 대한 조직적 반격에 나섰다. IARC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역사를 가졌고, 자금확충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공격했다. <br/> <br/>내부 문서에 따르면 2016년 제3의 연구자가 쓴 IARC 공격 논문의 내용은 몬샌토가 제공한 것이었다. 공동저자 2명은 몬샌토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 또 몬샌토의 전 직원인 존 아카벨라는 글리포세이트의 역학조사패널에 우호적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과정을 자문하는 대가로 2만달러를 받기도 했다. <br/> <br/>몬샌토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공작을 폈다는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라운드업이 무해하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왜 몬샌토는 자사의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일까. <br/> <br/>내달 라운드업 허용 연장에 관심 <br/> <br/>글로벌 시민단체인 '아바즈'의 대니얼 보이세는 "몬샌토는 라운드업을 지키기 위해 갖은 공작을 다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물론 전문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몬샌토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안정성 점검과정을 파괴해왔다"며 "몬샌토의 로비력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아바즈에 따르면 BfR의 연구보고서 일부는 몬샌토 연구기관인 '글리포세이트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표절하기도 했다. <br/> <br/>유럽은 내달 글리포세이트의 10년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EU가 미국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는 몬샌토 내부 문건을 참고할지는 불투명하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정부는 이미 10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br/> <br/>메르켈 총리는 지난 6월 '독일 농부인의 날' 행사에서 "<span class='quot4'>필요할 때 글리포세이트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span>"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메르켈은 친환경 정당인 녹색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br/> <br/>슈피겔은 "<span class='quot5'>어찌 됐든, 유럽 농업인들은 잭 매콜의 운명을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 그의 미망인 테리는 미국 집단소송 원고 중 한 명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짓던 매콜은 수십년 간 과수원에 라운드업을 뿌렸다. 제초제 살포 때 사랑하는 반려견 '듀크'와 동행할 때가 많았다. 듀크는 림프암으로 죽었다. 몇년 뒤 매콜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21.txt

제목: 난청이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  
날짜: 2017110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101122306001  
ID: 01100301.2017110112230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굿모닝보청기 안양센터 <br/><br/><br/>하준호 원장 <br/> <br/><br/><br/> <br/><br/>난청이란 청력의 저하로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난청이 더 진행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목소리도 못 듣게 된답니다. 하지만 난청은 보통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청이 있어도 어디가 아프다거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그 난청인과 대화를 하기 어렵고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회와 단절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친했던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기가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br/> <br/><br/><br/> <br/><br/>하지만 난청이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어떤 이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치매환자는 65만 명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무려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필자 또한 10년 동안 안양보청기 일을 하면서 예전보다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br/> <br/><br/><br/> <br/><br/>그러면 난청과 치매는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가 발생하고, 그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을 거쳐, 뇌까지 가서야 무슨 소리가 났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소리의 최종 목적지인 뇌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소리가 뇌까지 전달이 안 된다면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는 부위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청이 생겼고 뇌까지 가야되는 소리의 양이 갈수록 적어진다면, 뇌로 전달하는 신경과 근육들은 점점 약해지고 막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난청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치매발생률은 고도난청일 경우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눈의 시력저하로 치매가 유발된다는 뉴스는 보지 못해도, 난청으로 치매가 유발된다는 뉴스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br/> <br/><br/><br/> <br/><br/>난청으로 치매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면, 난청이 있는 치매환자일 경우 잘 듣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잘 듣게 된다면, 뇌도 그전처럼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변화가 유발되어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승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로 바뀔 것입니다. 난청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이라면 청력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언론사: 내일신문-1-22.txt

제목: 환절기에 시작된 비염 코감기, 어떻게 치료할까  
날짜: 2017103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31123940001  
ID: 01100301.201710311239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콧물 그리고 천식이 있는 사람은 환절기만 되면 무섭다. 봄 가을이 되면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재채기와 콧물이 난다. 봄 가을에 외출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 청소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다.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알레르기 약을 먹는데 이대로 계속 먹는 것이 괜찮은 건지 걱정스럽다다. <br/> <br/><br/><br/> <br/><br/>환절기 등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증상이 심해지거나 기관지염 만성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보다는 병의 원인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br/><br/> <br/><br/>대구 수성구 바른몸한의원 권병재 원장은 “모든 병은 정체와 허약으로 시작된다. 어혈과 담음이 쌓여 정체가 일어나 몸이 허약해지면 기혈이 순환하지 못해 병이 생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질환,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 등은 증상이 있는 부분이 아닌 몸 전체를 치료해야 낫는다. 사람의 몸은 전체가 상호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br/> <br/><br/><br/> <br/><br/>전신의 기와 혈을 순환시키고 몸의 기력을 보강하면 면역력이 회복되고 염증이 호전되면서 병이 재발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낫지 않던 만성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또 기(氣)와 혈(血)을 순환시키고 몸을 보강하는 치료는 치매 중풍과 같은 중대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으며,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의 척추질환과 여성질환인 생리통 그리고 손발저림 수족냉증 등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br/> <br/><br/><br/> <br/><br/>이 치료는 크게 3가지 한방치료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신의 경혈을 자극해 온몸의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침’과 중대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 속 염증을 치료하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침, 허약해진 기력을 보강해 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기혈순환개선 한약 등이 복합적으로 처방된다. <br/> <br/><br/><br/> <br/><br/>침치료와 환자별 맞춤 한약치료를 병행하여 전신기혈을 소통시키는 치료는 치료과정에서 몇가지 생소한 몸의 반응을 느낄 수도 있다. 사우나를 한 듯 등에 땀이 살짝 난다거나 통증이 있던 부위가 더 아프다거나 월경의 변화, 나른한 기분, 졸음, 가벼운 몸살 등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시적 반응이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호전된다고. <br/> <br/><br/><br/> <br/><br/>권 원장은 “동의보감에 ‘미병치병’이라는 말이 나온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뜻”이라며 “만성적인 통증이나 질환을 치료하고 암 중풍 치매와 같은 중대질환을 예방하는데에는 침과 한약, 식이요법 등을 함께 고려한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오래 앓는 호흡기 질환은 한방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23.txt

제목: "보험 하나로 3대 질병 종신보장"  
날짜: 20171027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27122817003  
ID: 01100301.20171027122817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AIA생명은 텔레마케팅 채널 전용 상품이었던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을 올해 초 대면채널로 판매를 넓히면서 보장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br/>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3대 질병에 대한 종신 보장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80세 보장 상품만으로는 노년기 의료비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80세 이후 발생하는 '보장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은 업계 최초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3대 질병 진단비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특약 부가 시). <br/> <br/>또한 급증하는 중대 질병 치료비 트렌드를 반영해 보장금액도 대폭 늘렸다. 보험 가입 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이후 20년동안 암 보험금이 매년 10%씩 늘어나(주계약에 한함) 최대 30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일반암 진단 시 최대 9000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각각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br/> <br/>이처럼 보장기간, 범위, 금액 등이 늘어났지만 가입자는 무해지환급형 설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 선택 시 일반 표준형 대비 보험료를 약 26%(40세 남성, 주계약 2형 300구좌 기준) 절약할 수 있다. <br/> <br/>다만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종 표준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또한 이번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설계돼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

언론사: 내일신문-1-24.txt

제목: 오늘은 무서운 날이다!!!  
날짜: 2017102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27100748003  
ID: 01100301.20171027100748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늘은 정말 무서운 날이다. <br/><br/><br/>왜 무서울까요?~~ DNA 컴퓨터 때문이다. <br/><br/><br/>무슨 소리지? 라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지만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저처럼 무서워질 거다. <br/><br/><br/> <br/><br/><br/>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읽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빛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br/><br/><br/> <br/><br/><br/>자석을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읽는 원리는 N극 S극의 방향에 따라 0, 1을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N극이 위쪽이면 0으로 하고, N극이 아래쪽이면 1로 하는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읽을 때는 그 반대로 하면 된다. <br/><br/><br/> <br/><br/><br/>그리고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읽는 대표적인 방식이 CD인데요. CD면에 홈을 파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해요. 파인 홈 부분은 0, 안파인 부분은 1로 인식하게 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읽을 때는 두 빛을 쏘아 CD면에 부딪친 후 되돌아온 빛의 상태로 정보를 읽게 된다. <br/><br/><br/> <br/><br/><br/>그런데 정보저장과 읽는 방식이 DNA컴퓨터가 무서운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글을 마저 계속 읽어 주기 바랐다. 그럼 제가 왜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br/><br/><br/> <br/><br/><br/>DNA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 <br/><br/><br/>DNA에는 아데닌(A),티민(T), 구아닌(G), 싸이토신(C)이라는 4종류의 염기가 있는데요. A 는 항상 T 하고만 결합하고, G는 항상 C하고만 결합을 하게 된다. <br/><br/><br/>앞에서 본 자석을 이용한 저장방식이나 CD를 이용한 저장방식은 기본 경우의 수가 2이다. <br/><br/><br/>그런데 DNA 컴퓨터는  A , T, G, C 가 모두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경우, A와 T만 결합한 경우, G와 C만 결합환 경우,  A와T G와C 둘 다 결합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본 경우의 수만 보더라도 그 수가 4이다.(기본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염기는 A,T,G,C 가 각 1개씩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 추가로 DNA는 엄청 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A,T,G,C 결합들이 병렬적으로 일어나면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기존 컴퓨터보다 정보저장과 처리가 훨씬 탁월하다는 것이다. 또한 DNA컴퓨터는 기존컴퓨터와 달리 핵심부분이 엄청 가볍고, 에너지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여 작동한다. 현재는 DNA 컴퓨터가 상용화되기엔 그 크기와 구조가 크고 복잡한 편이지만 조만간 아주 콤팩트하게 작아질 것이다. <br/><br/><br/> <br/><br/><br/>그리고 DNA는 원래부터 생물 몸속에 있는 것이므로 생물 친화적이다. 인간은 멀지않은 미래에 DNA컴퓨터를 쉽게 생체 내에 이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몸속 이동도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든 생체 내에 이식된 DNA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편리한 생활하는 날이 도래 할 것이다. <br/><br/><br/>위에서 열거한 내용들 때문에 DNA컴퓨터는 조만간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br/><br/><br/> <br/><br/><br/>그러나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생체 내에 이식된 DNA 컴퓨터가 DNA변이를 일으킨다면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난 생물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생물들은 몸속 DNA 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만약 그 명령이 잘못되면 생물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 실례로 각종 암, 당뇨병, 장애등은 대부분 DNA의 변이나 DNA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br/><br/><br/> <br/><br/><br/>너무 앞선 걱정일수도 있지만, 애니악(최초의 컴퓨터)이 만들어졌던 당시 사람들이 60년 후에 손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br/><br/><br/> <br/><br/><br/>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DNA 컴퓨터를 생각하는 날이면 두렵고 무서운 맘이 든다. <br/><br/><br/> <br/><br/><br/> <br/><br/><br/>이창과학전문학원 <br/><br/><br/>이창 원장

언론사: 내일신문-1-25.txt

제목: 대장암·대장항문 질환 증상 비슷해 오인  
날짜: 20171025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25161213002  
ID: 01100301.20171025161213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장이 건강하면 장수한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대장항문 질환 유무는 장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암종별 사망지수에서 폐암, 간암, 위암에 이어 대장암은 네 번째(남녀 전체)로 높은 암이다. 특히 여성 환자에서는 사망자 수 2위의 암으로 예방이 최선책이다. 다만 대장암은 여러 대장항문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오인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br/><br/><br/> <br/><br/><br/>대장암 초기증상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장내시경 정기검진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항문 질환 중에는 혈변이나 항문에서 피가 날 때, 묽은 변이나 설사, 복통 등 대장암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치핵(치질), 변비, 직장류, 과민성대장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안산 한사랑병원 기영준 외과과장의 도움말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br/><br/> <br/><br/><br/>첫째, 치핵(치질) 증상 중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대장암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무조건 피가 나온다고 암은 아니다. 항문출혈, 혈변 등이 있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한다. <br/><br/><br/> <br/><br/><br/>둘째, 변비(하루 세 번부터 3일에 한 번까지 주기적으로 변을 본다면 정상 범위)가 심할 때 대변에서 피가 묻어나온다. 셋째,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복통부터 점액질 변, 전신 피로, 어깨 결림 등이 나타나며 대게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 일주일 설사, 3주 변비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고한다. 넷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병으로 알려진 ‘염증성 장 질환’은 몸속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면서 발생한다. 입에서 항문까지 곳곳에 생기는 크론병과 항문 안쪽으로 염증을 따라 진행되는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만일 일주일간 설사, 3주간 변비가 계속된다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안산 한사랑병원 기영준 외과과장은 “대장항문 질환은 대장암 증상과 비슷해 혼동할 수 있다. 특히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증상은 대장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고, 대장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50세 이상은 정기검진이 필수”라고 권고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26.txt

제목: 배봉산근린공원에 인공암벽장 선보여  
날짜: 20171019  
기자: 김진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19121537003  
ID: 01100301.20171019121537003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서울 동대문구 주민들이 즐겨찾는 배봉산 근린공원에 청소년들을 위한 인공 암벽장이 들어섰다. 동대문구는 암벽장을 포함한 청소년 체육시설을 조성, 18일 주민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br/> <br/>동대문구는 여가활동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 등에 체력도 키우고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상했다. 10m 너비에 5~7m 높이 인공 암벽장은 그 중 하나. 인공암벽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배치했다. 암벽장과 함께 속도와 긴장감을 즐길 수 있는 6가지 종류 모험 레포츠 시설, 길거리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했다. 지난 6월 중순 공사를 시작해 8월 말 마무리했다. <br/> <br/>18일 준공식 행사에는 유명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참석, 인공 암벽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span class='quot0'>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배봉산에서 암벽등반을 비롯해 모험 레포츠를 즐기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역 곳곳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적극 조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27.txt

제목: 국민 3명중 1명은 만성질환자  
날짜: 20171018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18122557002  
ID: 01100301.201710181225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33% 넘는 사람들이 2016년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지출에서 40%를 차지했다. 만성질환은 지나친 흡연·음주, 운동안함, 나쁜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해 약물치료보다 생활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나 고령사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주치의제적 질환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2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67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33.1%에 해당된다. <br/> <br/>고혈압으로 590만명, 관절염으로 464만명, 신경계질환으로 292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로 279만명, 당뇨병으로 270만명, 간질환으로 161만명 등으로 진료했다. 만성질환 진료 결과 지출된 진료비는 26조447억원 정도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40.0%를 차지했다. 암 진료비로 5조9247억원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3조 4161억원, 고혈압으로 3조177억원, 대뇌혈관2조5279억원, 당뇨병으로 2조434억원 등으로 지출했다. <br/> <br/>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많은 앓은 질병 순을 보면, 고혈압으로 252만8000명이 1조385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이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2015년 25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동네의원에서의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하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만성질환관리제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자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만성질환 의료 이용분석과 개선방안 - 고혈압당뇨병을 중심으로'보고서에서 "<span class='quot0'>설문조사에 참여한 고혈압환자 80.6%, 당뇨병환자 85.1%가 진단 후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서 치료제를 복용하지만 식단조절이나 운동 실천 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span>"고 밝혔다. <br/> <br/>부실한 만성질환관리 결과, 당뇨병 조절률은 20.0%에 불과했다. <br/> <br/>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1'>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식습관과 신체활동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동네 가까운 곳에 만성질환 진료 외 예방관리, 건강증진 교육도 담당하는 주치의제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br/> <br/>한편 건강보험공단은 "<span class='quot2'>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 입원 방지와 잦은 외래 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치료재료 관리 등을 추진할 것</span>"이라고 16일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28.txt

제목: 동양 최대 인공폭포 아래서 뮤지컬·거리예술 즐겨볼까  
날짜: 20171016  
기자: 김진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16125527001  
ID: 01100301.20171016125527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공폭포와 함께 뮤지컬 갈라콘서트나 전문 공연팀이 참여하는 거리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중랑구가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면목동 용마폭포공원에서 '2017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br/> <br/>용마폭포공원은 용마봉 기슭에서 돌을 파내 건축 자재로 사용하던 채석장을 재단장해 주민에 돌려준 공간. 암반을 깎아내면서 생긴 바위벽을 이용해 만든 3개의 인공폭포와 함께 국제 규모 인공암벽장이 자리잡고 있다. 중랑구는 수명이 다한 버스와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책깨비 도서관' '꿈꾸는 작은 책방'을 조성, 휴식과 독서를 겸한 치유공원으로 꾸몄다, <br/> <br/>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는 기존 환경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더한 주민 공감형 잔치. 매년 열리던 가을음악회를 종합 문화예술축제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개최 중이다. 올해는 공원 산책로와 용마폭포에 야간조명을 더해 '반딧불이 어우러지는 숲속'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숲길' '빛에 물들어 떨어지는 폭포'를 연출한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를 소재로 한 분재와 토피어리 작품도 선보인다. <br/> <br/>51.4m에 달하는 용마폭포 물줄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특히 눈길을 끌 전망이다. 축제 첫날 뮤지컬 '시카고' '맘마미아' 등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담은 공연이 예정돼있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21일 밤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br/> <br/>전문 공연단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이 축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거리예술 공연과 공방체험, 수공예품 전시·판매, 청소년 백일장, 도서 무료 교환전 등 주민들 문화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br/> <br/>중랑구는 이와 함께 지역 대표 관광자원 중 하나인 용마산 자락길 걷기, 향토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문화탐방, 어린이 암벽체험 등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축제장 한켠에서는 지역 패션봉제조합과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span class='quot0'>가을밤을 낭만과 예술로 물들이는 잔치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봄을 대표하는 서울장미축제와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명품 축제로 진화시켜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29.txt

제목: 유방질환 진단과 치료  
날짜: 2017101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13125143002  
ID: 01100301.201710131251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인 유방암. 유방암은 진행 속도도 빨라 자각증상이 있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뒤늦게 진단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한다. 정기 건강검진만으로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유방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강남아름다운유외과’의 이주현 원장을 만나 건강한 유방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정기검진은 기본, 자각증상 있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조기 진단 필요 <br/><br/><br/>유방암은 서양 여성들의 경우 50~60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해 그 연령대가 낮은 편이다. 이주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질환은 여성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여성호르몬 노출이 많아져 유방질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유방 세부분과 전문의인 이 원장은 유방·갑상선 전문 병원인 ‘강남아름다운유외과’의 원장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거쳐 서울여성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br/><br/><br/>이 원장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생애전환기 검사에서도 유방촬영을 하지만 그 정도 검사로는 중요한 병변을 놓치기 쉽다. 개인의 질병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각 증상이 있다면 20대라도 유방 초음파 검진을 하고, 30대부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진을 하는 것이 예방에 좋다”고 조언했다. <br/><br/><br/> <br/><br/><br/>유방질환 대표 증상은 유방통, 만져지는 혹, 유두 분비물 <br/><br/><br/>유방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을 종양이라고 하는데 악성종양이면 암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종양이다. 악성보다는 양성이 훨씬 많다고 한다. 종양 이외에 질환으로 유방염증도 있는데, 함몰유두처럼 위생관리가 힘든 경우나 피지선이 발달한 수유부들의 경우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질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각할 수 있는 증상으로 유방통, 손으로 혹처럼 만져지는 것, 유두 분비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방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br/><br/>이 원장은 “유방통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생리 전 통증이 흔한 편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검사했다가 다른 질환을 발견하기도 한다. 혹은 많이 커지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통증 때문에 검사해 발견되기도 한다. 사이즈가 커져 손으로 만져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많이 커진 상태이고 암일 경우에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다. 60대 이후 발생하는 노인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첨단 치료로 건강함과 아름다움 유지 <br/><br/><br/>폐경기 이후 갱년기 증상이 생기면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갱년기 증상 치료제를 정기적인 검사 없이 장기 복용하면 유방암 발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br/><br/><br/>유방·산부인과가 같이 있는 곳이라면 유방검사를 병행할 수 있고 이상이 생기면 약을 중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br/><br/>또한 유방 초음파 검진의 경우 다른 부분보다 판독이 어려워 유방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유방암은 진행이 상당히 빠르므로 정확한 조기진단 여부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br/><br/>유방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검진받기가 두려워 병원 방문을 미루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 원장은 프리미엄 검진 장비인 ‘엘라스토 쉐어웨이브’를 소개했다. 이는 종양의 악성 유무를 색깔과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는 첨단 의료기술로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최소화하고 비침습식으로 진단하므로 흉터와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한다. <br/><br/><br/>또한 ‘맘모톰’이라는 기기는 작은 구멍하나로 혹을 조각조각 잘라서 제거하므로 예전의 절개 수술 방식과 달리 상처와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한다. <br/><br/><br/>어떤 질병이든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여성으로서 시행착오를 허락할 수 없는 유방질환, 정기적인 전문의의 검진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30.txt

제목: 관리의 중요성과 그 중요한 관리의 명과 암  
날짜: 20171012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1012083207002  
ID: 01100301.20171012083207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관리라는 말은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흔한 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체중 관리” 가 될 것이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산 관리”가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체중 관리”의 경우 체중 “관리”를 잘 해 주는 피트니스 센터가 좋은 센터가 될 것이고, 자산“관리”를 잘 해주는 금융 전문가 역시 좋은 자산 관리자로서 유명세를 탈 것입니다. 각 수요자들은 좋은 관리자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 체중, 내 자산의 관리를 맡기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br/><br/><br/> <br/><br/><br/>관리의 객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관리의 주체자가 될 것인가? <br/><br/><br/> <br/><br/><br/>그런데 100명이 체중 관리를 잘 해 주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명 모두 만족할만한 체중 관리에 성공했을까요?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0%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까요? <br/><br/><br/>“관리를 맡긴다”의 내면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그 부분의 전문가인 대리자에게 맡긴다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참기 힘들고, 운동하며 힘든 과정이 싫어 이 과정을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기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쪽에서는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할 것이고, 대부분은 그 과정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비용을 지불했으면 어떻게든 내 체중을 관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는 단순히 관리 잘 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나는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 하는 착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전혀 변하지 않은 내 모습에 화들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br/><br/><br/>결국 체중 관리에 있어서 내 대리 관리자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관리의 주체가 되고, 관리자는 일종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 “관리”라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br/><br/><br/>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운동시간을 정해 놓고서 아무리 피곤하거나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힘든 운동을 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 방법, 앞으로 체중 관리의 가이드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음식도 역시 내 스스로 먹고 싶어도 참아 가며 관리자가 제공한 식단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체중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br/><br/><br/> <br/><br/><br/>공부에 있어서의 관리, 객체가 될 것인가? 주체자가 될 것인가? <br/><br/><br/> <br/><br/><br/>물론 체중 관리나 자산 관리와 모든 면에 있어서 공부가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공부에 있어서도 관리의 주체자는 학생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잡아 두고, 학원 와서 잡아 두고, 시간 죽이며 책에 동그라미, 세모 쳐 주는 과정이 절대 관리가 아닐 것입니다. <br/><br/><br/>학부모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 보셨기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숙제 검사는 누군가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일종의 “고사” 의 성격인 경우와 초등, 중등 저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입니다.)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채점해서 오답까지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모르는 문제와 다시 설명 들어야 하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이런 것을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의 과정 자체가 공부인 것이지 단순히 기계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는 풀고 안 풀리는 문제는 못 풀어서 채점 받고 설명 듣고 답만 체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관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r/><br/><br/> <br/><br/><br/>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필요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강한 의지와 동기 부여가 그 요체가 될 것 입니다. <br/><br/><br/> <br/><br/><br/>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르는 문제를, 개념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관리” 라는 영역 역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일차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경험상 이 만큼, 혹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법이 몸에 베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며 교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교육이 끝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공부에 대한 관리가 되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거 해라! 이거 왜 안 했니? 하며 끌고 가는 것이 관리는 아니라는 점을 부모님들께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br/><br/><br/> <br/><br/><br/> <br/><br/><br/>노성종 원장 <br/><br/><br/>오르투스수학학원

언론사: 내일신문-1-31.txt

제목: 산삼감정협회 박형중 대표  
날짜: 20170925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25125412001  
ID: 01100301.20170925125412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주는 기쁨을 깨달은 지 고작 13년밖에 안됐다’며 연신 쑥스러워하던 산삼감정협회 박형중 대표. <br/><br/><br/>구반포역에 자리한 산삼감정협회 입구에는 “소아암 환자(저소득층)에게 산삼을 무료로 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br/><br/><br/>평범한 직장인에서 심마니로, 산삼감정 전문가로, 그리고 산삼을 기부하는 그의 특별한 나눔 이야기를 들어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난’과 ‘등산’이 취미였던 평범한 직장인 <br/><br/><br/>30여 년 전 우연히 산삼을 캐다 <br/><br/><br/>박형중 대표는 ‘30년 차 심마니’라는 꼬리표 이전에,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다. 평소 등산을 즐기고 난(蘭)을 좋아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문적인 심마니들조차 목욕재계하는 마음으로 입산해도 산삼을 캐기 어렵다는데, 느닷없이 행운이 찾아든 것이다.  <br/><br/><br/>“우연히 산삼을 발견했어요. 저도 놀랐죠. 그때를 계기로 ‘산삼 캐는 일’을 업으로 삼은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산삼을 캐면 어떤 기분이냐고요? 그저 겸허한 마음뿐이죠.” <br/><br/><br/>그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듯 박형중 대표도 ‘산삼=일확천금’을 꿈꿨던 때가 있었다. 게다가 산삼 캐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현실적 제약이 컸다. 심마니들은 자식에게조차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혼자 힘으로 터득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br/><br/><br/>우연히 삼을 캤던 ‘구광자리’에 가서 위치, 방향, 수목, 바람, 습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산삼을 캐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2004년 소아암 환아 부모와의 만남 <br/><br/><br/>돈벌이가 아닌 ‘희망’으로 산삼을 캐다 <br/><br/><br/>산삼을 캐기 시작할 때만 해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그에게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돈벌이 수단이 아닌 ‘희망’으로 산삼을 캐게 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4년, 산삼을 사겠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간 소아암 병동에서의 일이다. <br/><br/><br/>“구매자는 소아암 환아의 부모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도저히 산삼 가격을 흥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돌아서서 병실을 나오던 중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없이 투병 생활에 지쳐 저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죠. 애써 외면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도저히 차를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올라가 부모에게 산삼을 주고 왔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걸…….” <br/><br/><br/>진솔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br/><br/><br/> <br/><br/><br/>법원, 인천공항, 인천 관세청 산삼 감정사 위촉  <br/><br/><br/>무료로 삼 감정해주며 재능기부 하다 <br/><br/><br/>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희망을 캐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도 생겼다. 법원 산삼 감정사로 위촉돼 지금까지 10여 번 감정을 했고, 인천공항과 인천 관세청의 요청으로 밀수입된 중국산 장뇌삼(산양삼)을 감별하는 일도 맡고 있다.  <br/><br/><br/>“산삼감정협회는 대법원 특수 감정 분야 산삼, 약초, 장뇌삼 등록업체 중 유일한 법인체입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산삼을 감정하고 있어요. 특히 저렴한 중국산 장뇌삼이 한국에서 100만 원 넘게 유통되고 있어, 일반 분들의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아내가 암 수술한 지 1년이라 기력 회복을 위해 천종삼을 샀다는 남편분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비싸게 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말이죠. 감정을 해보니 중국산 장뇌삼이었습니다. 저조차 속상하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br/><br/><br/>삼을 ‘캐고’ 삼을 ‘파는’ 업을 가졌음에도 자연에 감사하고 세상에 되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 인터뷰 내내 박형중 대표의 소박한 바람과 간절한 희망을 느낄 수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초구청 복지과와 연계  <br/><br/><br/>소외된 이웃과 소아암 환자 위해 산삼을 기부하다 <br/><br/><br/>지난 13년간 박형중 대표가 기부한 산삼은 시가로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억’ 소리 나게 돈의 가치를 환산하겠지만 그에겐 무의미한 일이다. 푸르메재단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각종 어린이재단 등을 통해 산삼이 필요한 이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참말 소박한 바람이다. <br/><br/><br/>그의 기부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나쁜 맘을 먹고 접근해 아이가 아프다며 삼을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 맘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삼을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다.  <br/><br/><br/>“다행히 지금은 서초구청 복지과의 도움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산삼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일산 암센터에 의뢰해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산삼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br/><br/><br/>중국 장뇌삼으로 인해 산삼의 이미지조차 훼손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힘닿는 데까진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산삼이 아닌 희망을 캐는 사람 박형중. ‘희망 심마니’라는 그의 꼬리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론사: 내일신문-1-32.txt

제목: 첨가제 No!! 100% 우리 통밀로 만든 착한 탄수화물 공급원~  
날짜: 2017092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21100445002  
ID: 01100301.20170921100445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올해 초, 킨텍스 앞 대화동 골목길에 작은 빵집이 문을 열었다. 여느 빵집보다 작은 규모에 화려한 쇼 케이스도 없이 소박하지만 유럽 전통 빵을 우리밀과 접목시킨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이 난 이곳은 ‘황금똥빵’. 이곳의 주인장은 33년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자연생태 전문 사진작가이자 한겨레, 중앙일보, 문화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김연수씨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2015년 미국에서 통밀 빵을 만난 후 ‘황금똥빵’ 구상 <br/><br/><br/>김연수 대표는 1985년도 일간지 사진기자로 입사해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주로 야생동물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그렇게 도시와 자연을 오가며 사진기자로 자연생태 전문 사진작가로 살아오는 동안 김 대표는 『사라져가는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당대. 2003), 『바람의 눈: 한국의 맹금류와 매사냥』(수류산방. 2011), 『오래된 물건과 속닥속닥』(에르디아. 2013) 등 7권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야생동물의 모습을 포착하기위해 위장막 안에서 몇날 며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김 대표가 은퇴 후 또 다른 느림의 미학 ‘슬로푸드’에 빠졌다. 유럽 전통 빵을 우리 밀과 접목시킨 ‘황금똥빵’이 바로 그것. <br/><br/><br/>“2년 전에 문화일보 정년 앞두고 구석기 돌칼 아트로 유명한 선배를 만나러 미국에 갔었어요. 보름 정도 선배 집에서 머물렀을 때 아침 점심으로 빵을 주는데 구수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선배가 이 빵을 3일만 먹으면 황금 똥을 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실제 삼일 째 되던 날 직접 체험을 하니까 놀라웠죠.“ 돌칼을 배우러 갔던 미국 방문길에 김 대표는 통밀 빵 제조법도 함께 배우고 돌아왔다. <br/><br/><br/>통밀을 직접 갈아 깨끗한 물과 효모, 약간의 소금으로 반죽하고 숙성해 구운 빵은 맛도 담백하고 구수하지만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실제 그의 선배는 20여 년 전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 대장암 판정을 받고 오래 살기 힘드니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워낙 탐구정신이 강한 분이라 공기 좋은 시애틀 외곽에 자리를 잡은 후 스스로 각종 고서의 의학서를 파고들었다고 해요. 그때 발효식품과 통밀 빵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동양 의학서에 근거해 콩과 통밀을 주식으로 암과 당뇨를 극복한 선배의 경험담에 김 대표는 한국에서 건강한 통밀 빵을 보급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무 첨가제, 무 방부제, 무 버터, 무설탕 등 4무(無) 통밀 빵 <br/><br/><br/>한국으로 돌아온 김 대표가 1년 가까이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이 ‘황금똥빵’이다. 그리고 올해 초, 고등학교 동창이자 인생지기인 이용희씨와 함께 순 우리통밀 '황금똥빵' 공동 대표로 새로운 인생2막을 시작했다. <br/><br/><br/>“황금똥빵이란 이름이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빵 이름에 ‘똥’이라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배설을 잘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빵 이름과 브랜드를 황금똥빵으로 정하게 됐죠"라는 김연수 대표. 김 대표는 통밀은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세계 인구의 2/3가 밀을 주식으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덧붙여 "현대에 와서 성인병과 대장암 같은 암에 걸리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선호하고 곡물 또한 전통방식을 거부하고 대량 생산한 밀을 기계로 제분, 장기간 보관하면서 면과 빵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br/><br/><br/>황금똥빵은 껍질을 정제한 흰 밀가루와 달리 섬유질이 풍부한 밀의 눈이 100% 살아있는 통밀과 물, 소금, 효모만 넣고 만든 슬로푸드다. 유해성분이 생성되기 전에 바로 반죽, 숙성, 발효과정을 거쳐 탄생한 황금똥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고루 갖추어 기초 대사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포만감을 주며 약간은 거칠게 제분한 밀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복부비만을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딱 할 수 있는 만큼만, 돈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데 보람 느껴 <br/><br/><br/>“탄수화물이 성인병 및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문제는 이를 자연 그대로 먹지 않고 흰 쌀밥이나 가공 밀 등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황금똥빵은 이런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착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일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배 주문해 먹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br/><br/><br/>하지만 김 대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빵을 만든다. “가게 문을 열 때 절대 비싸게 받지 말자, 돈을 탐하지 말자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이 나이에 뭐 떼돈을 벌겠다고 하겠어요.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 친구와 저의 뜻이지요. 감사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황금똥빵의 효과를 인정해 주시고 찾아주시니 친구와 제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이 정도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김 대표는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건강 차원에서 황금똥빵이 사랑받고, 꼭 황금똥빵이 아니더라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한다. 동그란 황금똥빵 외에 납작하고 속이 비어 있어 샌드위치처럼 야채 등을 넣어 먹을 수 있는 황금피타빵도 있다. 매장 위치는 일산서구 호수로 838번길 52-2, 택배로도 주문 가능하다. http://cafe.daum.net/goldDbread, 031-923-1040

언론사: 내일신문-1-33.txt

제목: [Advertorial] 동양생명, 5대질환·암 맞춤형 종합보험 출시  
날짜: 2017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19130808002  
ID: 01100301.2017091913080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동양생명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증 등 5대 질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까지 보장해주는 '(무)수호천사생활비주는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br/> '(무)수호천사생활비주는건강보험(갱신형)'은 20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5대 질환(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증)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천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해준다. <br/> <br/>최초 계약에 한해 만기생존시에 만기지급금 1백만원을 지급하며, 만기시점까지 5대질환을 진단받지 않을 경우에도 건강관리자금 1백만원을 지급한다. 15세부터(여자는 22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5대 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br/> <br/>암·LTC·재해장해·입원·수술 등 다양한 선택 특약을 통해 맞춤형 종합보장이 가능하며, 주계약 갱신시점마다 선택 특약의 중도부가를 통한 보장설계도 가능하다. <br/> <br/>암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일반암 진단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천만원의 생활비(유방암·전립선암 제외)를 지급해준다.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시에도 5백만원을 보장한다. <br/> <br/>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 진단시 1천만원을 보장하며, 재해장해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재해로 50%이상 장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해준다. 두 특약 모두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준다. <br/> <br/>또한, 입원특약을 통해 입원비를, 수술보장특약을 통해 각종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34.txt

제목: 신생아 3명 중 1명이 가입한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날짜: 20170918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18162526001  
ID: 01100301.201709181625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어린이 전용 종합 보험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br/><br/><br/> <br/><br/><br/>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통합 보장한 상품으로 2004년 7월 출시 이후 2017년 8월까지 289만건, 1502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손보 상위 4개사 기준 시장점유율이 40% 수준으로 신생아 3명 중 1명은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br/><br/><br/> <br/><br/><br/>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치명적 중병상태인 다발성 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중증 화상 및 부식, 4대장애(시각,청각,언어, 지체 장애), 양성뇌종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중증세균성수막염, 인슐린의존당뇨병 등 어린이CI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입원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시력교정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보장한다. 치아와 정신질환도 보장해 자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br/><br/><br/> <br/><br/><br/>보험기간은 초/중/고교의 입학/졸업시점에 맞춰진 10/20세 만기는 물론, 24세, 27세, 30세 만기까지 마련되어, 대학졸업 및 사회생활시작 시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만기시 100세 보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처음부터 100세만기로 가입이 가능하여 단 한번 가입으로 태아부터 100세까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증 등 주요 성인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r/><br/><br/> <br/><br/><br/>지난 4월부터는 ‘굿앤굿어린이케어서비스’를 신설해 병원안내 및 예약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메디케어서비스’에 ‘우리아이 아파요’ 서비스를 추가해 스마트온도계를 활용, 자녀의 체온정보에 따라 열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발열현황과 유행성 질병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무럭무럭 자라요’ 서비스에서는 자녀의 키와 몸무게 등 성장정보를 관리하며 성장관련 각종 정보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br/><br/><br/> <br/><br/><br/>이밖에도 모성사망과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수술, 유산입원일당/수술담보 등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위험보장도 가능하다.

언론사: 내일신문-1-35.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시스템, 러시아 모스크바 진출  
날짜: 2017091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11130220003  
ID: 01100301.20170911130220003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의 시스템이 러시아 모스크바시로 진출하게 됐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9월 6일에서 7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시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추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및 러시아 경제개발부 올레그 포미체프 차관 등 양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스크바시 스콜코보 특구 내에 한국형 첨단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br/> <br/>모스크바 스콜코보 특구는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단지다. 세계적 기업인 IBM,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 미국 MIT가 혁신 공과대학인 스콜테크(Skoltech)를 개교하는 등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br/> <br/>첫 사업은 모스크바 스콜코보 메디클러스터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 러시아 현지에서 선진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히는 암 · 심장 · 관절질환 및 재활치료분야를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이후 교육, 연구 등의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러시아 의료진이 진료 · 교육 · 연구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도입된다. 국내 병원설계 및 제약 · 의료기기 · 의료정보 기업등이 동반 진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 내일신문-1-36.txt

제목: '열흘 추석'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날짜: 20170908  
기자: 오승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08124639004  
ID: 01100301.20170908124639004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 신청계획을 무더기 철회했지만 1심 구속 만기일까지 재판을 끝내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신문을 하지 않은 증인이 많은데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까지 끼었기 때문이다. <br/> <br/>검찰은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거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받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한다. <br/> <br/>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br/> <br/>10월 10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아무리 속도를 낸다해 1주일 만에 선고 공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구속 만기일을 넘겨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박 전 대통령측은 10월 17일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눈치이고,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br/> <br/>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만기가 지나면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계획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br/> <br/>구속영장이 추가 발부 된 경우도 있다. 범죄 은닉과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구속기간이 11월 26일까지 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만기일 전에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증인 신문 등을 모두 마무리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선고를 미뤄왔다. <br/> <br/>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 지분 인수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올 5월 26일이었지만 추가 혐의로 연장된 경우다. <br/> <br/>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구속만료 전날인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차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늘어났다. <br/> <br/>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 95명의 신청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아직도 중요 증인이 많이 남아 있다. <br/> <br/>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월 화 목 금)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인 신청이 많아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br/> <br/>재판부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8일)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12일) 모철민 전 주프랑스대사(14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26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10월 10일) 등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부를 계획이다. 10월 10일까지 재판부가 부를 증인만 29명이다. <br/> <br/>박 전 대통령측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암수술을 받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br/> <br/>재판부는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더 줄기는 어려운 상태다. <br/> <br/>이날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br/> <br/>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br/> <br/>그는 2015년 1월 9일 정호성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김 종 2차관과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으로부터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관리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게 사실인가</span>" "<span class='quot0'>(문화계 지원배제 관련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을 호출해서 '철저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닌가</span>"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br/> <br/>김 전 장관은 검찰쪽 증인신문에는 응했지만 변호인 측 신문에는 거부했다가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자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37.txt

제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바로알기 Q&A  
날짜: 2017090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07175346002  
ID: 01100301.2017090717534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오미선씨(42세·강남구 대치동)는 얼마 전 학교에서<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아직 어린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망설임 때문에 주위 엄마들에게 물어봐도 ‘맞힌다’ ‘안 맞힌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고민을 하는 12세 전후 여성청소년 학부모들을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br/><br/><br/>자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br/><br/><br/> <br/><br/><br/>자궁경부암은 왜 발생하나요? <br/><br/><br/>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고위험 유형 HPV가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 중 HPV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지원되는 백신은 4가백신(가다실)과 2가백신(서바릭스) 2종류이며, ‘16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만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합니다. <br/><br/><br/> <br/><br/><br/>왜 12살 여성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나요? <br/><br/><br/>성인연령에서 보다 어린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얻는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접촉이 발생하기 전 2회 접종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br/><br/><br/> <br/><br/><br/>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의무인가요? <br/><br/><br/>본인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r/><br/><br/> <br/><br/><br/>다른 나라에서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나요? <br/><br/><br/>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OECD 34개국 중 29개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습니다. <br/><br/><br/> <br/><br/><br/>HPV 백신 1차 접종률 현황(2017년 8월 30일 기준) <br/><br/><br/> <br/><br/><br/> <br/><br/><br/>뉴스에 보면 일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br/><br/><br/>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자국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 등의 이상사례에 대해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일본 이외에 일찌감치 자궁경부암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br/><br/> <br/><br/><br/>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 <br/><br/><br/>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 건 이상 효과적으로 접종된 안전한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br/><br/><br/> <br/><br/><br/>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br/><br/><br/>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자궁경부암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빈도가 높은 편임,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음), 부종, 발적, 두드러기 같은 국소증상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 이상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br/><br/><br/>일부 청소년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야 합니다. <br/><br/><br/> <br/><br/><br/>왜 유독 자궁경부암 백신만 이상반응 우려가 많은 거죠? <br/><br/><br/>부작용 관련 언론 보도들이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자궁경부암 백신 이상반응은 다른 어린이 접종 백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접종을 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br/><br/><br/> <br/><br/><br/>이상반응에 대해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나요? <br/><br/><br/>질병관리본부는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자(보호자) 중 백신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r/><br/><br/> <br/><br/><br/>Tip  <br/><br/><br/>예방접종 전후에 지켜야할 안전수칙 <br/><br/><br/>-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세요. <br/><br/><br/>- 여러 명이 함께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세요. <br/><br/><br/>- 접종 의료기관 방문은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보호자와 함께 해주세요. <br/><br/><br/>- 예방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예진 시 의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br/><br/><br/>-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급성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세요. <br/><br/><br/>-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언론사: 내일신문-1-38.txt

제목: 레지오넬라증 신고 58% 증가  
날짜: 20170907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07125557002  
ID: 01100301.201709071255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76건)보다 58% 많았다. <br/> <br/>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 3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br/> <br/>감염되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br/> <br/>50세 이상이나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가 주로 감염되는데 치명률은 10%으로 주의해야 한다. <br/> <br/>2011∼2016년까지 보고된 레지오넬라증 사례 가운데 266건을 뽑아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환자는 남성(71%), 50세 이상(82%), 당뇨·암·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81%)에 많았다. <br/> <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조사 결과를 볼 때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는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한다. <br/> <br/>이 때문에 건물 급수시설과 목욕탕 관리자는 냉수는 20도 이하, 온수는 50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공급수 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 치료기구 등을 사용할 때는 멸균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39.txt

제목: 식약처, 생리대 위해성 평가 9월말 발표  
날짜: 2017090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05125658002  
ID: 01100301.20170905125658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가 제기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건과 관련 인체위해성 평가를 9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알코올, 담배연기 등과 같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군에 속해 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에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를 기다려 달라</span>"고 당부했다. <br/> 식약처, 생리대 안전 검증위 2차 회의 결과 브리핑│김대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br/>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 위원을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12명(1차회의)에서 18명(2차회의)으로 늘렸다. <br/> <br/>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 달 마무리 되는대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에 대한 2차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제품 위해성이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여성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은 '화학물질 노출 건강 피해의 신고와 조사 구제를 위한 통합적 제도가 마련'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br/> <br/>한편 식약처는 인체와 식품에 접촉되는 17개 용품에 대해 관리를 내년 4월18일부터 진행한다.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br/> <br/>△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40.txt

제목: 내일신문이 만난 사람 - 금산군보건소 ‘행복 실은 이동보건소’ 한명화 주무관  
날짜: 20170904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904130629001  
ID: 01100301.201709041306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디지털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대. 우리는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눈부신 디지털 시대를 꿈꾸는 사회의 가장자리, 농촌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병원은 멀고 가족은 더 멀리 있는 독거노인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을 만나봤다. <br/><br/><br/> <br/><br/><br/> <br/><br/><br/>‘행복 실은 이동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돕고 있는 한명화 주무관. <br/><br/><br/> <br/><br/><br/>이동보건소 건강버스로 어르신들 찾아 <br/><br/><br/>금산군 군북면. 이곳 주민들은 금산읍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하루 두 번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오고 갈 기력이 있으면 다행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병원 치료는 언감생심 멀기만 하다. 도로를 한참 벗어난 산간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제때 치료하지 못한 치아는 뿌리까지 상했고, 몇 해 전에 맞췄던 틀니는 잇몸에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기 일쑤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문 앞까지 찾아온 이동보건소 건강버스다. <br/><br/><br/>이동보건소 차량에는 첨단의료장비가 탑재되어 멀리 가지 않아도 구강 진료와 치료, 내과와 한방진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금산보건소 한명화 주무관은 올 2월부터 이동보건소 건강버스에 합류해 어르신들 건강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br/><br/><br/>“치과 장비가 정말 잘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치료받을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몸이 아프면 물리치료는 곧잘 받으시지만 치아는 큰돈이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참고 계세요. 부러진 이를 어쩌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오신 분, 신경까지 상해 뺨까지 퉁퉁 붓도록 앓다가 이동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분도 계세요. 속상하죠.” <br/><br/><br/>치위생사인 한명화 주무관은 이동보건소를 반가워하는 어르신들과 만날 때마다 슬며시 올라오는 안쓰러움을 어쩔 수 없다. 언제 맞췄는지 기억나지 않는 틀니가 덜그럭거리고, 씹지 못해 물에 만 밥만 마시는 식사가 전부인 노인들은 눈에 띄게 말라 보였다. <br/><br/><br/>“치료 후 상담 시간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일상에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틀니를 소독하고 잘 조율을 해드려도 유지하기 힘든 고령인 어르신들이거든요. 경로당으로 찾아가 정기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치과 진료에 관해 상담하기도 해요. 건강이 걱정돼서 잔소리가 길어져요. 잔소리 많은 막내딸 같다고 하면서도 손은 꼭 잡고 계세요. 그럴 때 좀 더 바쁘게 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r/><br/><br/> <br/><br/><br/> <br/><br/><br/>한명화 주무관은 금산군의 각종 행사장, 경로당, 생활터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찾아 나선다. <br/><br/><br/> <br/><br/><br/>홀로 있는 어르신, 외롭지만 서글프진 않도록 <br/><br/><br/>한명화 주무관은 올 초 이동보건소 업무를 맡기 전까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담당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진임에도 정보가 부족한 농촌인 탓에 홍보 방법을 총동원해 어르신들께 알렸다. 전화는 기본이요 야간에 열리는 행사장과 수삼센터, 경로당과 생활터 등을 찾아다니며 검진 내용과 방법을 설명했다. 공무원의 특권 같은 정시 퇴근이란 한 주무관과 거리가 먼 얘기였다. 금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대전에 사는 한 주무관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몇 년을 보냈다. 금산읍에 사는 7000명 평가대상자를 찾기 위해 도로명을 일일이 구주소로 밤을 새워 변경했다. 한 달이 걸렸다. <br/><br/><br/>“검사받을 때까지 주소로 찾아가고 전화 드렸어요. 조기 발견만이 살 길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게 설명하고요. 이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 지도자 등등 네트워크 중심인물도 닦달하고 대장암 검사에 필요한 대변 통도 직접 배달하고 수거했어요. 신문지 위에 용변을 봐야 해 싫다며 손사래를 치기에 뻥튀기를 차에 잔뜩 싣고 다니며 나눠 드렸어요. 물에 녹으니 신문지보다 처리가 간편했거든요.” <br/><br/><br/>때와 장소를 불문한 잔소리와 기상천외한 발상 덕분에 작년 금산군보건소는 16개 시·군에서 검진율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접근이 편한 의료기관이 상주한 여타 시·군과 달리 출장 검사소도 없는 금산군의 현황을 감안하자면 1위보다 값진 검진율이었다.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에 보탬이 됐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다. 그러다 가끔 반갑지만 슬픈 안부 전화도 받는다. <br/><br/><br/>“워낙 정이 든 분들이라 검사 결과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재검 받으라고 하네. 안 좋은가 봐.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병을 빨리 알았어’ 하시며 제게 전화를 주세요. 재검 소리에 울컥하지만 그래도 발견했으니 더 나빠지진 않겠지, 만감이 교차하는 전화죠.” <br/><br/><br/>한 주무관은 홀로 있어 외롭지만 아파서 서럽지는 않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것이 본인의 소임이라고 말한다. 함께 울고 웃는 막내딸 같은 공무원, 한명화 주무관은 오늘도 이동보건소에 올라 어르신들을 찾아 나선다.

언론사: 내일신문-1-41.txt

제목: 과기본부장 임대식 카이스트교수  
날짜: 20170831  
기자: 이명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31130028003  
ID: 01100301.20170831130028003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공석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은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은 박기영 교수가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br/> <br/>신임 임대식 과기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 과기본부장에 대해 "<span class='quot0'>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분야 권위자로서, 뛰어난 연구 역량과 관리 역량을 겸비하여,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염한웅 부의장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br/> <br/>백 위원장은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42.txt

제목: [Advertorial] 라이프사이클 따라 주목해볼 보험상품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29125126001  
ID: 01100301.201708291251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태아를 포함한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및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br/> <br/>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 의료비 지출규모 대비 질병 및 상해위험에 대한 보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보업계는 태아보험특약과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r/> <br/>태아보험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선천이상과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하며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한다. 생보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인질환도 보장된다. <br/> <br/>20~30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모색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보장과 노후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기로, 노후의 질병과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br/> <br/>특히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암보험은 암 발생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을 보장해준다. <br/> <br/>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r/> <br/>40~50대에는 가장의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가장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br/> <br/>치매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치매·간병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보험은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한다. 전체 생애의료비의 50% 이상이 들어가는 60대에는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LTC(장기간병)보험 등이 적당하다. 이러한 보험은 고연령자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보장성보험으로 각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수술 등 각종 치료비를 보장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43.txt

제목: 독립운동가 손자의 안타까운 죽음  
날짜: 20170828  
기자: 김신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28124951002  
ID: 01100301.20170828124951002  
카테고리: 국제>중남미  
본문: 반민족특별위원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상덕(1892~1956) 선생의 유일한 손자 김진영(38·사진)씨가 오랜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br/> 경기 의정부시 총무과에 근무하던 진영씨는 만삭의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둔 가장이다. 그의 유년 시절은 고단했다. 우선 독립운동을 했던 할아버지의 이력이 명예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로 따라다녔다. 할아버지 김상덕 선생은 1919년 도쿄 유학시절 2.8독립선언을 주동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br/> <br/>해방 후에는 고향인 경북 고령에서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친일파를 비호하던 이승만정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br/> <br/>이 집안의 시련은 김상덕 선생이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면서 시작됐다. 김상덕 선생은 납북 전 딸과 아들을 두었다. 이 중 아들 김정육 선생은 부모 없이 어렵게 대학까지 다녔지만 일종의 연좌제에 걸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이 문제가 해금될 즈음에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다. <br/> <br/>1990년대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보훈수당을 받았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누이를 챙기느라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없었다. 40대에 늦게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죽고 외아들 진영씨를 홀로 키웠다. 본인도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10여시간에 걸친 위험한 수술을 받은 후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아들을 만삭인 며느리와 간병해왔다. <br/> <br/>의정부시 직원들은 진영씨를 '스마일맨'으로 기억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는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 9급 공무원으로 의정부시에 들어와 동료 공무원인 지금의 아내와 결혼, 3살짜리 딸을 뒀다. 아내는 임신 중인데 9월 초가 출산 예정일이다. <br/> <br/>진영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동료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일 내내 빈소를 지키고 발인까지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배재정 비서실장이 조문하고 유족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br/> <br/>진영씨의 병원비와 장례비는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이 책임지기로 했다. <br/> <br/>의정부시 한 간부공무원은 "<span class='quot0'>진영씨가 독립운동가 자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직원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의 생계 등을 보살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44.txt

제목: [복지부·심평원 , 면역항암제 '허가 외 사용' 길 열어주고도] 홍보·소통 부족으로 환자 불만 쏟아져  
날짜: 20170823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23120918004  
ID: 01100301.20170823120918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진료에도 약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도 홍보소통 부족으로 환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br/> <br/>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의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주'와 '키트루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에 1억원대에 이르는 환자의 약값부담이 400만원 전후로 줄어들게 됐다. <br/> <br/>그리고 위암 유방암 환자들 외 다른 암환자들도 '허가 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 <br/> <br/>다만 연말까지는 기존 동네의원에서 진료처방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올해안에 종합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br/> <br/>이는 급여화가 되면 허가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기에 기존에 허가 외 진료를 임의로 받아온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br/> <br/>그런데 이런 내용이 해당 환자군과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br/> <br/>심평원은 변경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알릴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며칠 후 약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어느 종합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몰라 마음이 급하다. 여기에 이전에 임의진료를 한 것이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일부 동네의원들은 추가로 처방을 내리지 않아 환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br/> <br/>심평원에 상담한 한 환자는 "21일부터 시행했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아직 약 이름조차 모르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에게 물어보니 효과 없다고 무조건 자른다. 나를 미친놈 쳐다보듯이 한다. 기존 처방하던 의원들도 처방 해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br/> <br/>이런 환자들의 불만이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면역항암제의 허가 외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도 비난을 받게 됐다. <br/> <br/>3주마다 주사약을 맞아야 한다는 한 환자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약 종합병원으로 옮겨 이 처방을 그대로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동네의원에서 처방받기 전 종합병원에 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처방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종합병원으로 가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진료 가능한 병원 소개를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45.txt

제목: 두산연강재단,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비 1억원 지원  
날짜: 20170821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21130153001  
ID: 01100301.2017082113015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두산연강재단은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비 1억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br/><br/><br/> <br/><br/><br/>이 연구비는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윤형진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현진 교수,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 등 3명의 암 관련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br/><br/><br/> <br/><br/><br/>윤 교수는 현재 암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급성신손상 조기발견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br/><br/> <br/><br/><br/>두산연강재단은 2006년 서울대병원과 암 연구비 지원 관련 협약을 맺고 매년 1억원씩, 현재까지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46.txt

제목: [신간│생각하는 사물의 농장] '사고하는' 인공지능과 같이 살려면  
날짜: 20170818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18122502002  
ID: 01100301.20170818122502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임환철 지음 / 지식노마드 / 1만5000원 사람보다 빨리 배우고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늙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그것'들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br/> <br/>인공지능의 발달을 보며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일자리 걱정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span class='quot0'>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물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할까?</span>" 저자는 이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시작한다. <br/> <br/>'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치를 누리며 인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까?' 이에 대해 저자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인공지능이 개선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이 더욱 깊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사용 증가로 발생한 수익이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확대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br/> <br/>'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날이 올까?' 이에 대해 저자는 "<span class='quot1'>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시간 문제</span>"라고 밝힌다. 알파고, 암 진단에 참여하는 왓슨 등 제한된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사례는 이미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br/> <br/>이런 류의 질문을 저자는 던지면서 '생각하는 사물'과 우리와 아이들이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47.txt

제목: 이대여성암병원, '새생명 나눔이 프로젝트' 시행  
날짜: 2017081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17122651002  
ID: 01100301.20170817122651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사진 가운데)이 레이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우에게 배액 주머니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br/><br/> <br/><br/><br/>이대여성암병원(병원장: 백남선)이 지난 10일 ‘새생명 나눔이 프로젝트’를 통해 암 완치 환우가 만든 배액 주머니를 레이디 병동에 입원해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전달식을 가졌다. <br/><br/><br/>'새생명 나눔이 프로젝트'는 이대여성암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치료 전공)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진행하는 환우 위로 프로젝트다. <br/><br/><br/>이번에 전달된 배액 주머니는 미술 치료 전공 교육대학원생 5명의 지도하에 11명의 환우들이 지난 6월 12일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참석해 직접 바느질로 만들었으며, 주머니에 다양한 브로치를 만들어 장식하고 응원의 편지를 매달아 포장했다. <br/><br/><br/>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암을 진단받고 치료가 완료된 환우가 투병중인 환우를 위한 선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br/> <br/><br/><br/> <br/><br/>암 완치 환우가 만든 배액 주머니, 투병 중 환우에 전달 <br/><br/><br/>배액 주머니를 전달받은 입원 환자들은 암 완치 환우들이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손편지를 보고 힘을 얻었다. <br/><br/><br/>직접 환자들에게 배액 주머니를 전달한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을 이겨낸 환우들이 직접 만든 배액 주머니와 작성한 응원메시지를 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br/><br/>한편, 이대여성암병원은 수술 후 여성암 환자들의 암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 ‘파워 업(Power-up) 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암환자를 위한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 10년 이상 장기 생존 암환자 및 가족을 초청하는 ‘암 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 유방암 및 부인암 환자들의 모임인 이유회와 난초회 운영 등 여성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48.txt

제목: [법원 "한국타이어, 암 사망 직원 유족에 1억원 배상하라"] 유해물질 사업장서 달랑 마스크만 지급  
날짜: 20170811  
기자: 오승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11123804001  
ID: 01100301.2017081112380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회사측이 직원들의 산업환경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br/> <br/>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br/> <br/>재판부는 "피고(한국타이어)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안씨의 아내 오 모씨에게 1466만원, 자녀 3명에게는 각각 2940만원 등 모두 1억2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br/> <br/>안씨는 한국타이어 입사 후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을 담당했다. 가류공정은 생타이어를 금형에 넣고 열과 압력, 화학약품으로 점성과 탄성을 높인 판매할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 노동자는 각종 유해물질과 고온에 노출된다. 금형기가 8~12분마다 열리면 타이어에서는 고무흄과 가스 증기가 방출된다. 고무흄이란 고무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분해 산물이다. 유해물질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발암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영국은 법적으로 고무흄 노출기준을 0.6㎎/㎥로 정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자체 조사한 결과 대전공장에서 2005년 하반기에 고무흄 배출은 1.31㎎/㎥로 나타났다. 영국 기준의 두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br/> <br/>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공정 과정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 조치에는 미흡했다고 봤다. <br/> <br/>재판부는 "3교대 근무형태로 교대근무 전 또는 후에 4시간의 초과근로가 확인됐다"며 "소위 '곱빼기 근무'라고 야간교대를 끝내고 2일 쉴 때 야간조 종료 후 이어서 오전조 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오전 교대조 근무를 하기 전에 전날 야간조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공정과정이라면 추가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어야 질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연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br/> <br/>공장 내 의료진이 턱 없이 부족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2008년 이전 보건 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있었으나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도 인력은 보강했으나 산업의학 인력은 외부의 간헐적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안씨에게 암이 발병하기 전인 2007년 말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누락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또 보건관리 관련 인력의 근무경력은 1년 정도로 짧고 고용형태도 불안정해 정상적 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r/> <br/>상황이 이런데도 회사측이 조치한 것은 방진 마스크였다. <br/> <br/>한국타이어는 직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했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다 3번 적발되면 교육이나 징계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배기 및 냉각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성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다는 것만으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br/> <br/>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안씨 폐암 발병과 관련해 작업 환경 외에 다른 원인이나 조건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흄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br/> <br/>다만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br/> <br/>안씨는 폐암에 걸리자,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0년 4월 "안씨가 발암물질인 고무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폐암 잠복기보다 선행한다"며 "비흡연자임을 고려해 고무흄에 장기간 노출함으로써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기도 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안씨 유족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8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r/> <br/>한편, 한국타이어는 2006~2007년 사이에 10여명의 근로자 10여명이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해 '집단 산재 사망'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이후 관계당국이 대대적 역학 조사 및 관리감독을 진행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49.txt

제목: [기고] 노인 주치의제 조속히 시행하자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09124625002  
ID: 01100301.2017080912462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고령화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비율은 24.3%로 일본, 한국, 미국, 영국등과 더불어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다. <br/> <br/>하지만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에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고령화 속도에 비해 우리사회의 대책은 문제점이 많다. 노인가구중 빈곤가구가 50%를 상회하고, 노인자살율이 OECD국가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br/> <br/>'치매'만이 아니라 노인 건강관리 전반을 책임져야 <br/> <br/>의료 빈곤(재난적의료비)은 가구지출(식료품비 제외)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다. 2015년 노인가구중 의료 비곤 비율은 30.6%에 이른다(2005년에는 31%). <br/> <br/>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지면, 건강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매우 높아진다. 중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병원과 시설의 상당수는 노인보건의료 측면에서 질적 수준이 낮다. <br/> <br/>접근가능한 건강옹호서비스로서의 일차의료가 노인건강증진에서 가장 필요하며, 일차의료로부터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과 호스피스에 이르는 연계성이 실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와 복지, 장기요양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의 제약이 많다. 당연히 노년기의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br/> <br/>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치매 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치매는 책임지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책임지지 않을 셈인가? 암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단지 노인성치매라는 개별 질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노인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br/> <br/>치매관리에서도 뚜렷히 드러나지만, 가족과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노인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중심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 목표와 전략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br/> <br/>"<span class='quot0'>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주민 동행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span>"을 주내용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초기의 비전과 목표는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지역에서도 만성질환관리 단골의사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2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고령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에 좋은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고령층 사전 건강관리 통해 의료비 급증 막아야 <br/> <br/>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미만에 비해 의료비가 4.5배 급증한다. 한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19조 발생하고 2060년에는 무려 692조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br/> <br/>이대로 둔다면, 노인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를 가져다 주어 우리사회에서 의료 대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우선 의료비 증가의 위험이 큰 고령층부터 사전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급증을 막아야 한다. <br/> <br/>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75세 이상 초고령층으로부터 건강돌봄과 의료서비스(주치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중고령 노인들로부터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해나가도록 하자. <br/> <br/>임종한 인하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

언론사: 내일신문-1-50.txt

제목: '온열질환' 질병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날짜: 20170809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09124608001  
ID: 01100301.201708091246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무더위가 집중되는 8월에는 온열질환이나 식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또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질병 위험도 달라 40~50대는 일본뇌염 위험이 더 높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서는 눈병이 더 자주 나타난다.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발병했을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질병이나 상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br/> <br/>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의 경우 발생빈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달에 비해 8월 발생빈도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열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온열질환의 경우도 폭염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556명에 불과했던 온열질환자 수는 2015년 1,056명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2,215명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의 발생시기 역시 8월, 특히 첫째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재난사고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대응, 구급활동 등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8월에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가장 발생했다. 일본뇌염과 눈병도 더운 여름철에 유행하는 병이다. <br/> <br/>생명보험사들은 여름철 크게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보험은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만성질환을 주로 보장한다. 일반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br/> <br/>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상해의 치료비용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의 재해사망, 재해장해진단, 재해수술·입원 등의 보장급부를 제공한다. <br/> <br/>회사별로 관련 상품을 살펴보면 △휴일 재해보장을 강화한 한화생명 뉴OK재해보험 △버스, 열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삼성생명 NEW퍼펙트 상해보험 △최고 100세까지 일상생활중 각종 재해를 보장하는 동양생명 (무)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보험료 갱신없이 최대 80세까지 각종 재해관련 수술을 집중 보장하는 신한생명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 △등반·자전거 사고를 비롯해 일상생활 중 재해사고 보장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등이 있다. <br/> <br/>또 재해·질병·사망까지 폭넓게 보장설계 가능한 NH농협생명의 매일안심 NH재해보험(무)\_1604 △중대한 질병과 치매까지 보장하는 ING생명 (무)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사망보장 없이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 생존보장에 집중한 교보생명 교보생생플러스건강보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미래에셋생명의 종합보장보험 생활의 자신감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적인 사망보장과 중대한 질병을 함께 보장하는 ABL생명 (무)걱정말아요 CI통합 종신보험 등도 질병·상해 관련 대표 상품이다. <br/> <br/>생보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회사별로 보장내용과 보험료 차이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소비자가 직접 '보험다모아'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상품별 보장내역과 보험료를 비교해본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51.txt

제목: 현대해상 '기세당당건강보험' 출시  
날짜: 20170807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07122807004  
ID: 01100301.20170807122807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각종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중증질병 진단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br/> 이 상품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7대 성인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및 당뇨병에 대해 초기발병부터 중증진단, 이후 치료관리까지 단계별로 보장이 지속되는 게 주요 특징이다. <br/> <br/>각종 성인질환 발병초기에는 입원 및 수술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악화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등 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진단금을 제공하고,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br/> <br/>이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 연장방식을 도입해 10/15/20년 연만기형 상품임에도 6대질병 진단 확정시 상해사망, 질병사망, 입원, 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10가지 특약의 보험기간을 보험료 추가납입 없이 80세까지 늘려줘 환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br/> <br/>또한 토탈건강관리서비스 '누구나메디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 우대, 병원안내 및 진료예약대행, 전문의료진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암·심장·뇌질환 진단시 전담간호사 병원 동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에 도움을 준다. <br/> <br/>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10/15/20년 만기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시 월 5만원 수준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52.txt

제목: [87년 노동자대투쟁 주역들을 만나다 ①] 노예적 삶에서 자주적 노동자로 서다  
날짜: 20170801  
기자: 한남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801124728002  
ID: 01100301.20170801124728002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30년 전인 1987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준 해였다.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br/><br/><br/> <br/><br/><br/>6월항쟁에서 촉발된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현대그룹 노조결성을 시작으로 마산·창원을 거쳐 수도권 등 전국으로, 생산직에서 사무금융 병원 언론 나아가 교사 등 전 분야로 확대됐다. 또한 노동자대투쟁은 개별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7년 12.5%, 1988년 11.9%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한 결과였다. <br/><br/><br/> <br/><br/><br/>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노예적 삶에서 자주적 인간으로 우뚝 일어섰다. <br/><br/><br/> <br/><br/><br/>7·8월 노동자대투쟁에는 수년 전부터 노조를 준비하고 함께 싸운 주역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본다. 우선 '노동자가 잘사는 세상'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다. 고 권용목·이성도·장진수·유상덕·손길수가 그들이다. <br/> <br/><br/><br/><br/><br/> 울산 현대계열 7개 계열사의 무기한 휴업조치에 항의, 현대중공업 운동장에서 8월 17일부터 이틀째 농성을 벌여온 노동자와 가족들은 18일 덤프트럭과 지게차 등을 앞세우고 16km 거리시위를 벌인 뒤 울산공설운동장으로 옮겨 농성을 벌였다. 7·8월 노동자대투쟁의 '백미'였던 이틀간의 집회는 바로 현대그룹노조협의회 주도로 이뤄진 사실살 '울산지역 현대그룹 노동자총회'였다. 사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br/><br/><br/><br/> 현대그룹 생산직 첫 노조결성 <br/><br/><br/> <br/><br/><br/>울산현대그룹 노동자 대투쟁은 1년 전부터 현대엔진과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작은 모임들이 있었다. 권용목(현대엔진), 이상범(현대자동차) 등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 등을 통해 현장 기반을 넓혔다. 소모임과 일상활동이 6.29 선언이라는 외적 상황과 결합해 노조결성으로 이어졌다. <br/><br/><br/> <br/><br/><br/>일요일인 7월 5일. 회사의 감시를 피해 101명의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위원장에 권용목이 선출됐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한 현장보고대회에서 권 위원장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이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해도 좋다</span></span>"고 선언했다. <br/><br/><br/> <br/><br/><br/>현대엔진노조 결성에 자극받아 현대미포조선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정공에 잇달아 노조가 결성됐다. 마침내 8월 8일 현대그룹 11개 계열사 노조가 모여 현대그룹노조협의회(현노협)를 결성했다. 권 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br/><br/><br/> <br/><br/><br/>8월 18일 울산공설운동장에 현대그룹 11개 계열사 노조의 6만여 노동자와 3000여 가족이 모였다. 급기야 노동부 차관까지 울산으로 내려와 합의서를 발표하고 서울로 올라간 현대중공업노조 집행부도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노조 인정'을 받아냈다. 이 흐름은 1988년 10월 말 울산지역 15개 노조, 경인지역 6개 노조 등 21개 노조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을 이어졌다. <br/><br/><br/> <br/><br/><br/>권용목은 1988년 제1회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민주노총 건설에 뛰어들어 1995~1996년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br/><br/><br/> <br/><br/><br/>방위산업체에서도 노조쟁의 <br/><br/><br/> <br/><br/><br/>울산 현대그룹 내의 노조결성의 열기는 경남, 부산지역으로 옮겨졌다. 8월 13일 M16 소총을 만드는 국가 '가'급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 경남 양산시(군) 군수공장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성도 위원장이 앞장섰다. 그는 2대 위원장을 연임하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br/><br/><br/> <br/><br/><br/>대우정밀노조는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 '무지는 의존을 낳는다'라는 3대 원칙을 갖고 노조운동을 해 나갔다. <br/><br/><br/> <br/><br/><br/>대우정밀 1600명 조합원 가운데 480여명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지지 속에 1988년 4월 12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직접 담판을 벌이기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 연행된다. 연행되지 않은 18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10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4월 22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취하, 즉각 교섭' 등을 받아냈다. <br/><br/><br/> <br/><br/><br/>이 위원장은 새로 생긴 60개 노조를 중심으로 1989년 부산·양산·김해노조협의회를 결성해 초대 의장에 뽑혔다. 이러한 새로운 노조운동이 밑으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노총과 다른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br/><br/><br/> <br/><br/><br/>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 <br/><br/><br/> <br/><br/><br/>경인지역 부천 경원세기 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 투쟁은 당시 모범이었다. 그 중심에 장진수가 있었다. 8월 11일 경원세기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무직도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단결의 폭을 넓혔다. 이들은 9월 7일까지 28일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어용노조를 바꾸고 장진수를 유일한 교섭대표로 하는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학생출신'인 장민석 교육선전부장 등 해고자 복직도 쟁취했다. <br/><br/><br/> <br/><br/><br/>장 위원장은 자주를 기반으로 민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몸소 실천했다. 경원세기 노조에서 사실상 처음 시작된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명사가 됐다. <br/><br/><br/> <br/><br/><br/>1993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에 당선된 장진수는 전국 최초 '의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연대활동도 전개했다. 그는 2013년 6월 한국노총 제1회 김태환 노동상을 받았다. <br/><br/><br/> <br/><br/><br/>교육민주화와 참교육 <br/><br/><br/> <br/><br/><br/>7·8월 노동자대투쟁은 교사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이 출범했다. 유상덕이 중심에 있었다. 1980년 서울 신일고 전임강사로 처음 교단에 선 그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파면되는 등 교사운동에 앞장섰다. <br/><br/><br/> <br/><br/><br/>교직원 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 4·19혁명 뒤 7월 서울에서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전국교조)가 결성됐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 탄압으로 무너졌다. <br/><br/><br/> <br/><br/><br/>1980년대 교사운동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사들의 고뇌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1986년 YMCA 교사모임 중심의 '5·10 교육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전교협으로 발전했다.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내세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이어졌다. <br/><br/><br/> <br/><br/><br/>전교조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1999년 7월 1일 합법화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유지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했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br/><br/><br/> <br/><br/><br/>유상덕은 1989년 전교조 출범 때 대외협력국장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수배생활하다 구속되는 등 교사운동에 헌신했다. <br/><br/><br/> <br/><br/><br/>차이를 극복하고 큰 단결로 <br/><br/><br/> <br/><br/><br/>경기 성남에서는 1987년 8월부터 시작된 동양정밀(OPC) 노조민주화 투쟁으로 12월 손길수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7·8월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동양기계(OMC), 오텔코 노조가 결성돼 1988년 초부터 동양정밀 노조와 함께 그룹 3사 공동 임금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단결해 절대로 노·노 싸움을 하지 않는다' '단위사업장 및 그룹 전체 노동자의 단결 그리고 가족까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2가지 원칙을 세우고 함께 싸웠다. <br/><br/><br/> <br/><br/><br/>손 위원장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구협의회 의장이 되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한국노총에 반대하던 노조들 모임인 성남노조협의회(성노협)와 통합을 추진했다. 세계노동절 100주년인 1989년 5월 1일 전국 최초로 성남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등 노조 70여개가 하나가 된 성남노동조합연합(성남노련)이 탄생했다. <br/><br/><br/> <br/><br/><br/>[기사 전문] <br/><br/><br/>30년 전인 1987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준 해였다.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br/><br/><br/> <br/><br/><br/>6월항쟁에서 촉발된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현대그룹 노조결성을 시작으로 마산·창원을 거쳐 수도권 등 전국으로, 생산직에서 사무금융 병원 언론 나아가 교사 등 전 분야로 확대됐다. 1987년 말 노동조합수 4103개(1986년 2675개), 조합원수 126만7457명(전년 103만5890명)으로 늘었다. 같은 해 발생한 노동쟁의 3749건 중 7~9월에만 3341건이 발생했다. <br/><br/><br/> <br/><br/><br/>또한 노동자대투쟁은 개별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7년 12.5%, 1988년 11.9%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한 결과였다. <br/><br/><br/> <br/><br/><br/>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노예적 삶에서 자주적 인간으로 우뚝 일어섰다. <br/><br/><br/> <br/><br/><br/>7·8월 노동자대투쟁에는 수년 전부터 노조를 준비하고 함께 싸운 주역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본다. 우선 ‘노동자가 잘사는 세상’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다. 고 권용목·이성도·장진수·유상덕·손길수가 그들이다. <br/><br/><br/> <br/><br/><br/>현대그룹 생산직 첫 노조결성 <br/><br/><br/> <br/><br/><br/>울산현대그룹 노동자 대투쟁은 1년 전부터 현대엔진과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작은 모임들이 있었다. 권용목(현대엔진), 이상범(현대자동차) 등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 등을 통해 현장 기반을 넓혔다. 소모임과 일상활동이 6.29 선언이라는 외적 상황과 결합해 노조결성으로 이어졌다. <br/><br/><br/> <br/><br/><br/>권용목은 1957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76년 천안공고를 졸업한 뒤 1978년 울산 현대그룹에 입사했다. 부푼 희망을 품고 굴지의 재벌회사에 입사했던 그는 10년간 누구보다도 성실한 모범 기능공이었고 1984년부터는 반장직을 맡았다. 권용목은 “<span class='quot1'>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현대의 노동현실에 분노를 느껴 가까운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br/><br/> <br/><br/><br/>일요일인 7월 5일. 회사의 감시를 피해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울산 옥교동에 있는 한 디스코홀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101명이 모이자 홀 중앙에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글이 붙었다. 권용목을 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시 그는 만 29세 청년이었다. <br/><br/><br/> <br/><br/><br/>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한 현장보고대회에서 권 위원장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이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해도 좋다</span></span>”고 선언했다. <br/><br/><br/> <br/><br/><br/>현대엔진노조 결성에 자극받아 현대미포조선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정공에 잇달아 노조가 결성됐다. 마침내 8월 8일 현대그룹 11개 계열사 노조가 모여 현대그룹노조협의회(현노협)를 결성했다. 권 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br/><br/><br/> <br/><br/><br/>권 의장은 “<span class='quot2'>현노협의 탄생은 모든 것이 그룹회장 한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각사의 경영실적 등에 관계없이 그룹차원에서 임금인상이 시행되며 모든 제도가 종합기획실에 의해 일괄 통제되는 현대그룹의 중앙집권식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었다</span>”고 말했다. <br/><br/><br/> <br/><br/><br/>8월 18일에는 울산공설운동장에 현대그룹 11개 계열사 노조의 6만여 노동자와 3000여 가족이 모였다. 이들은 ‘나 태어나 이 강산에 노동자 되어…’ 등의 노래를 부르며 16km 행군 끝에 운동장에 도착했다. 대열 길이가 4km나 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 전날 전경과의 마찰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고 현대그룹 노동자들은 덤프트럭 소방차 카고트럭 지게차 등을 수도 없이 끌고 나왔다. <br/><br/><br/> <br/><br/><br/>이날 집회는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노동부 차관까지 울산으로 내려와 합의서를 발표했고 서울로 올라간 현대중공업노조 집행부도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노조 인정’을 받아냈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백미’였다. <br/><br/><br/> <br/><br/><br/>권용목은 이날 집회를 “<span class='quot1'>허름한 신을 신고 장장 16km라는 강행군을 감행한 가족들의 모습, 손에 손에 신발을 들고 하늘을 향해 팔을 힘차게 내젓던 모습은 노동자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보여준 위대한 행진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한 맺힌 어제를 딛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출발점이었으며,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내일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span>”고 회고했다. <br/><br/><br/> <br/><br/><br/>이 흐름은 1988년 10월 말 울산지역 15개 노조, 경인지역 6개 노조 등 21개 노조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을 이어졌다. <br/><br/><br/> <br/><br/><br/>권용목은 1988년 시작된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을 함께 하던 중 1989년 1월 8일 현총련 사무실에서 구사대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노동법 독소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 등으로 4번 구속됐다. 그는 1988년 제1회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민주노총 건설에 뛰어들어 1995~1996년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노동자 곁을 떠났다. <br/><br/><br/> <br/><br/><br/>그 이후 권용목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이인재 캠프의 ‘새시대개혁연대’ 대표, 정몽준의 국민통합21 노동특위 정책위원을 거쳐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를 끝으로 2009년 2월 13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br/><br/><br/> <br/><br/><br/>방위산업체에서도 노조쟁의 <br/><br/><br/> <br/><br/><br/>울산 현대그룹 내의 노조결성의 열기는 경남, 부산지역으로 옮겨졌다. 8월 13일 M16 소총을 만드는 국가 ‘가’급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 경남 양산시(군) 군수공장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성도 위원장이 앞장섰다. 이 위원장은 1957년 경남 양산시에서 태어나 1986년 7월 대우정밀에 입사했다. 그는 2대 위원장을 연임하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br/><br/><br/> <br/><br/><br/>대우정밀노조는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 ‘무지는 의존을 낳는다’라는 3대 원칙을 갖고 노조운동을 해 나갔다. <br/><br/><br/> <br/><br/><br/>대우정밀 1600명 조합원 가운데 480여명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지지 속에 1988년 4월 12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직접 담판을 벌이기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 연행된다. 연행되지 않은 18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10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4월 22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취하, 즉각 교섭’ 등을 받아냈다. 당시 이 위원장은 “<span class='quot3'>자본가들이 경총, 전경련 등으로 뭉쳐서 노동력 착취에 혈안이 돼 있는 만큼 우리 노동자도 기업별 한계를 벗어나 지역별, 그룹별, 산업별로 연대해 통일 투쟁을 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이 위원장은 새로 생긴 60개 노조를 중심으로 1989년 부산·양산·김해노조협의회를 결성해 초대 의장에 뽑혔다. 이러한 새로운 노조운동이 밑으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노총과 다른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br/><br/><br/> <br/><br/><br/>그는 1995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998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장, 2000년 민주노동당 박순보 부산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3년 4월 19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했다. <br/><br/><br/> <br/><br/><br/>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 <br/><br/><br/> <br/><br/><br/>경인지역 부천 경원세기 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 투쟁은 당시 모범이었다. 그 중심에 장진수가 있었다. 그는 1959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983년 경원세기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그는 당시 회사의 폭압적인 노무관리에 분노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껌을 씹는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당하고, 긴 머리는 가위에 잘렸다. 초과노동은 한 달 130시간을 넘는 게 예사였다. 노조는 있었지만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했다. <br/><br/><br/> <br/><br/><br/>8월 11일 경원세기 노동자들은 “<span class='quot4'>어용노동조합을 민주적인 노조로 바꾸는 것은 오직 전체 조합원의 힘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야 한다</span>”는 원칙으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무직도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단결의 폭을 넓혔다. 이들은 9월 7일까지 28일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어용노조를 바꾸고 장진수를 유일한 교섭대표로 하는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학생출신’인 장민석 교육선전부장 등 해고자 복직도 쟁취했다. <br/><br/><br/> <br/><br/><br/>장 위원장은 자주를 기반으로 민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몸소 실천했다. 경원세기 노조에서 사실상 처음 시작된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명사가 됐다. <br/><br/><br/> <br/><br/><br/>1993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에 당선된 장진수는 전국 최초 ‘의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연대활동도 전개했다. 그는 민주노총 사업장들과도 공대위를 중심으로 연대하면서 노동자 단결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현재에도 지역 현안에 있어서 폭넓게 연대하는 부천지역지부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r/><br/><br/> <br/><br/><br/>장진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문서를 들고 사장을 찾아가 “<span class='quot5'>개인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를 살리자</span>”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IMF 이후 회사에서 해고된 뒤 한국노총 조직국장으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담당했다. 2005년 충주지역 레미콘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다 대체 투입된 레미콘 차량에 깔려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 숨지자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한 달여에 걸쳐 현장투쟁을 전개했다. <br/><br/><br/> <br/><br/><br/>장진수는 2013년 6월 한국노총 제1회 김태환 노동상을 받았다. <br/><br/><br/> <br/><br/><br/>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한 지지에 나서자 몹시 괴로워하던 장진수는 그해 12월 4일 심장마비로 48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br/><br/><br/> <br/><br/><br/>교육민주화와 참교육 <br/><br/><br/> <br/><br/><br/>7·8월 노동자대투쟁은 교사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이 출범했다. 그 중심에 유상덕이 있었다. 유상덕은 1949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1975년 김상진 열사 추모제 사건을 주도했다가 실형을 산 뒤 야학과 교육운동에 투신했다. 1980년 서울 신일고 전임강사로 처음 교단에 선 그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파면되는 등 교사운동에 앞장섰다. <br/><br/><br/> <br/><br/><br/>교직원 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교원노조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19혁명 뒤 7월 서울에서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전국교조)가 결성됐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연행 1500여명, 실형선고 9명, 단식사망 5명 등 군사정부 탄압으로 무너졌다. <br/><br/><br/> <br/><br/><br/>1980년대 교사운동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사들의 고뇌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1986년 YMCA 교사모임 중심의 ‘5·10 교육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전교협으로 발전했다. 전교협은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세워진 지 1년 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이르는 3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내세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정부는 구속 107명, 강제해직 1500여명을 시키며 탄압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 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을 전개해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4년 3월 대부분의 해직교사가 복직했다. <br/><br/><br/> <br/><br/><br/>전교조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1999년 7월 1일 합법화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유지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했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br/><br/><br/> <br/><br/><br/>유상덕은 1989년 전교조 출범 때 대외협력국장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수배생활하다 구속되는 등 교사운동에 헌신했다. 그는 당시 한 좌담회에서 “<span class='quot5'>교육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렸고 노동생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심해 참교육을 이뤄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굳건히 서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 <br/><br/><br/>유상덕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2011년 7월 12일 암으로 숨졌다. <br/><br/><br/> <br/><br/><br/>차이를 극복하고 큰 단결로 <br/><br/><br/> <br/><br/><br/>경기 성남에서는 1987년 8월부터 시작된 동양정밀(OPC) 노조민주화 투쟁으로 12월 손길수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7·8월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동양기계(OMC), 오텔코 노조가 결성돼 1988년 초부터 동양정밀 노조와 함께 그룹 3사 공동 임금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단결해 절대로 노·노 싸움을 하지 않는다’ ‘단위사업장 및 그룹 전체 노동자의 단결 그리고 가족까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2가지 원칙을 세우고 함께 싸웠다. <br/><br/><br/> <br/><br/><br/>손길수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구협의회 의장에 뽑히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한국노총에 반대하던 노조들 모임인 성남노조협의회(성노협)와 통합을 추진했다. 세계노동절 100주년인 1989년 5월 1일 전국 최초로 성남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등 노조 70여개가 하나가 된 성남노동조합연합(성남노련)이 탄생했다. <br/><br/><br/> <br/><br/><br/>기존의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한국노총의 바깥에서 새로운 구심을 형성하려고 한 데 비해 성남노련은 노동자 조직의 분열을 거부하고 새로운 통일을 이뤘다. 손 의장은 “<span class='quot6'>노동운동을 대표자가 아닌 노동자 대중 중심으로 성숙하고 질서 있게 해나가자는 목적에서 결성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53.txt

제목: 치매환자 고혈압 치료 '사각지대'  
날짜: 2017073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31124624002  
ID: 01100301.2017073112462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매환자의 고혈압과 당뇨치료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중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6.8%,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는 68.5%로 적었다. 고혈압·당뇨는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방치하면 치매도 악화된다. 이에 앞으로 시행될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매환자의 중복질환을 관리하는 의료관리방안을 받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 간 치매환자 중 고혈압당뇨병 치료환자수' 자료를 보면, 일반인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에 비해 치매환자의 고혈압당뇨병 진료율이 매우 낮았다. <br/> <br/>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30세 이상에서 32.0%, 65세 이상에서는 64.7%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보유한 일반인은 30세 이상에서 10.6%, 65세 이상에는 22.2%로 나타났다. <br/> <br/>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유병률 기준으로 환자수를 환산하면, 치매와 고혈압 중복환자는 29만 412명, 치매와 당뇨병 중복환자는 9만8749명 정도로 추산된다. <br/> <br/>하지만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상 2016년 치매진료환자수 44만8859명 중 고혈압치료자가 2만6000명, 당뇨치료자가 6만7745명으로 고혈압치료자는 8.9%, 당뇨병 치료자는 68.6% 정도 집계됐다. <br/> <br/>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특히 고혈압의 진료율이 매우 낮다. 일반인 고혈압 환자 진료율이 62%임을 고려하면 거의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r/> <br/>이렇게 낮은 고혈압 당뇨병 진료 지표는 만성질환으로 치매환자가 다수 사망한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와 연결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 <br/>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관리방안 모색' 연구에서 "<span class='quot0'>치매환자의 사망원인이 치매가 직접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다</span>"고 밝혔다. <br/> <br/>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순환기계 질환이 26.5%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질환이 14.54%, 신경계 질환이 11.85%,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이 11.3%로 나타났다. 또 치매환자가 가진 복합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치매증상을 악화시키고 사망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만성질환을 치매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치매국가책임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노인주치의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복합질환자인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정부는 8월 안에 치매국가책임제 기본안을 내고 연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54.txt

제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담뱃세 인하 논의 중단하라"  
날짜: 20170728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28123804001  
ID: 01100301.20170728123804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는 국민금연정책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조세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br/>시민사회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8일 논평을 내고 "3년 전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당이 다시 인하를 주장하는데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소모적인 담뱃세 인하 논의를 중단하고 세입 사용처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br/> <br/>자유한국당은 지난 새누리당 시절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때도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금연정책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담배가격이 대체로 1만원 내외라는 점을 비춰 볼 때 당시 담뱃세 인상은 금연정책이라기보다 세수 최대화가 실질적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격이 너무 올라 판매량이 크게 줄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갑당 2000원 인상돼 현재 담배 각겨이 4500원이 된 이유다. <br/> <br/>더구나 이 과정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해 인상액의 상당 몫을 중앙정부가 챙겨 갔다. <br/> <br/>또 당시 새누리당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비가격정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추진하겠다던 경고그림 문구 삽입도 가격 인상 후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행했다. 그 조차도 담배갑 표면의 50% 이상이 아닌 30%로 축소했다. <br/> <br/>국민건강 차원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광고제한, 경고그림, 금연구역확대, 금연교육 및 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상위 20%의 평균수명 차이가 무려 6년이다. 서민이 더 일찍 사망하는 셈이다. 여기에 서민들의 높은 흡연률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br/> <br/>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담뱃세의 전향적인 사용방안을 두고 국민들과 토론하자. 추가로 재정이 확보되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암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 지원, 질병 예방, 공공병원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55.txt

제목: 통합사회·통합과학 추천도서  
날짜: 20170728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28123735001  
ID: 01100301.20170728123735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현 중3)의 사회와 과학 교육과정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편성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 대입에서 사회와 과학 과목의 심층 독서와 비교과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와 연관된 전공적합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육과정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을지 <br/><br/><br/>교과와 연관된 도서를 추천해본다. <br/><br/><br/>도서 목록 추천 통합사회 ‘천개의 고원’(대치동) 조중훈 대표 <br/><br/><br/>통합과학 저자 마진호 강사 <br/><br/><br/>참고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 안내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증 과학 우수 도서(2013~2016년) 목록 <br/><br/><br/> <br/><br/><br/>탐구 교과 공통 과목 이수 단위 <br/><br/><br/>통합사회 8단위, 통합과학 8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 <br/><br/><br/>‘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의 7개 공통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기초 교과 영역이 현행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한국사까지 추가된다.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는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한국사(6단위)를 포함함으로써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사실상 6단위 감축했다. 탐구 교과 영역의 공통과목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각각 8단위이며 과학탐구실험도 2단위이다. 고등학생들은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br/><br/><br/> <br/><br/><br/>통합사회 <br/><br/><br/>9개 핵심 개념 선정해 사회 현상 통합적 이해 <br/><br/><br/>사회 교과 개정의 주요 변화는 ‘통합사회’를 신설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신설해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 등 9개 핵심 개념을 선정해 사회 현상의 특징,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목으로 운영된다.  <br/><br/><br/> <br/><br/><br/>현 중학교 3학년을 위한 통합사회 대비 추천도서 <br/><br/><br/>통합사회 교과의 핵심 개념 9가지에 맞춰 현 중학교 3학년들이 고입 전에 미리 읽어둘만한 책들을 모아봤다. 추천도서는 아주 우수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해볼만한 수준의 일반고 중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다. <br/><br/><br/> <br/><br/><br/> <br/><br/><br/># 지리, 세상을 날다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사람의 이해와 환경 <br/><br/><br/>9명의 지리교사들이 21세기를 관통하는 21가지 지리 쟁점들을 모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리는 공간과 공간의 차이를 규명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학문이라고 한다. 이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아온 개발지상주의와 제국주의, 편견과 이기심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생태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며, 각 개인과 사회의 차이가 존중받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br/><br/><br/> <br/><br/><br/> <br/><br/><br/># 지리 시간에 철학하기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사람의 이해와 환경 <br/><br/><br/>지리 현상의 의의와 가치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철학박사이자,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인 안광복 저자가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곳곳에 배치해 철학의 주제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br/><br/><br/> <br/><br/><br/> <br/><br/><br/># 나의 권리를 말한다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인권보장과 헌법 <br/><br/><br/>현직 ‘법과 사회’ 교사가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권리문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근본적으로 권리가 낮은 자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는 사람, 그중에서도 낮은 자의 편을 들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따라 14개의 꼭지로 권리를 설명한다. <br/><br/><br/> <br/><br/><br/> <br/><br/><br/>#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사회경제와 금융 <br/><br/><br/>이 책은 저자인 경인교대 한진수 교수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경제 이슈를 통해 경제학의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학이란 무엇인지, 경제학의 역사, 가격, 시장, 세계의 경제흐름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권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사고력은 곧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br/><br/><br/> <br/><br/><br/> <br/><br/><br/>#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정의와 사회 불평등 <br/><br/><br/>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문답을 따라 가며 스스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성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도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가장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10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다. <br/><br/><br/> <br/><br/><br/> <br/><br/><br/># 왜 세계화가 문제일까? <br/><br/><br/>교과 관련 주제 : 문화와 다양성, 세계화와 평화 <br/><br/><br/>세계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책은 국제 금융자본, 실패한 나라들, 신자유주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어린이 등 우리가 꼭 한 번 곱씹어 생각해볼 만한 세계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통합형 논술을 위한 청소년 교양 필독서이다.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이지만 우리 삶과 얽혀 있는 세계화 문제를 청소년이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알맞은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br/><br/><br/> <br/><br/><br/> <br/><br/><br/># 소통을 꿈꾸는 토론학교 : 사회·윤리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사회 문화 전반 <br/><br/><br/>현직 사회교사와 윤리교사가 집필한 책으로, 외모지상주의, 개인주의, 대학입시, 학생인권, 사형제도 등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열 가지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같은 무게로 나란히 실었다. 찬성과 반대의 대립된 주장 속에서 우리 삶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br/><br/><br/> <br/><br/><br/> <br/><br/><br/>#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 에세이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사회 문화 전반 <br/><br/><br/>이 책은 2년 동안 <고교독서평설>에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통계로 보는 사회’를 엮은 것이다. 고등학교「사회문화」교과목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100여 가지 통계 키워드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화 현상을 알기 쉽게 풀어썼다. 책은 4장으로 나뉘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 <br/><br/><br/> <br/><br/><br/>■2015 통합사회 교육과정 변화 내용 <br/> <br/><br/><br/> <br/><br/><br/> <br/><br/> <br/><br/> <br/><br/> <br/><br/>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br/><br/> <br/><br/>2015 개정 교육과정-통합사회<br/><br/> <br/><br/>비고<br/><br/><br/><br/> <br/><br/> <br/><br/>- 사회를 바라보는 창 <br/><br/><br/>- 공정성과 삶의 질 <br/><br/><br/>- 합리적 선택과 삶 <br/><br/><br/>- 환경 변화와 인간 <br/><br/><br/>- 미래를 바라보는 창<br/><br/> <br/><br/>-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br/><br/><br/>- 자연환경과 인간 <br/><br/><br/>- 생활공간과 사회 <br/><br/><br/>- 인권보장과 헌법 <br/><br/><br/>- 시장경제와 금융 <br/><br/><br/>- 정의와 사회 불평등 <br/><br/><br/>- 문화와 다양성 <br/><br/><br/>- 세계화와 평화 <br/><br/><br/>-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br/><br/> <br/><br/>- 2009 개정 사회 : 지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 <br/><br/><br/>  <br/><br/><br/>- 2015 개정 통합사회 :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영역의 통합<br/><br/><br/><br/><br/><br/><br/><br/> <br/><br/><br/> <br/><br/><br/>■통합사회 추천 도서 목록 <br/><br/><br/> <br/><br/> <br/><br/> <br/><br/> <br/><br/>도서명<br/><br/> <br/><br/>저자<br/><br/> <br/><br/>출판사<br/><br/> <br/><br/>가격<br/><br/><br/><br/> <br/><br/> <br/><br/>지리, 세상을 날다<br/><br/> <br/><br/>전국지리교사모임<br/><br/> <br/><br/>서해문집<br/><br/> <br/><br/>13,900원<br/><br/><br/><br/> <br/><br/> <br/><br/>지리 시간에 철학하기<br/><br/> <br/><br/>안광복, 강응천<br/><br/> <br/><br/>웅진주니어<br/><br/> <br/><br/>14,000원<br/><br/><br/><br/> <br/><br/> <br/><br/>나의 권리를 말한다<br/><br/> <br/><br/>전대원<br/><br/> <br/><br/>뜨인돌<br/><br/> <br/><br/>11,000원<br/><br/><br/><br/> <br/><br/> <br/><br/>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br/><br/> <br/><br/>한진수<br/><br/> <br/><br/>해냄출판사<br/><br/> <br/><br/>13,800원<br/><br/><br/><br/> <br/><br/> <br/><br/>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br/><br/> <br/><br/>마이클 샌델, 신현주<br/><br/> <br/><br/>아이세움<br/><br/> <br/><br/>12,000원<br/><br/><br/><br/> <br/><br/> <br/><br/>왜 세계화가 문제일까?<br/><br/> <br/><br/>정승일, 게르트 슈나이더<br/><br/> <br/><br/>반니<br/><br/> <br/><br/>12,000원<br/><br/><br/><br/> <br/><br/> <br/><br/>소통을 꿈꾸는 토론학교: 사회·윤리<br/><br/> <br/><br/>김범묵, 윤용아<br/><br/> <br/><br/>우리학교<br/><br/> <br/><br/>15,000원<br/><br/><br/><br/> <br/><br/> <br/><br/>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 에세이<br/><br/> <br/><br/>구정화<br/><br/> <br/><br/>해냄출판사<br/><br/> <br/><br/>13,800원<br/><br/><br/><br/><br/><br/><br/><br/> <br/><br/><br/> <br/><br/><br/> <br/><br/><br/>통합과학 <br/><br/><br/>9개 핵심 개념 선정해 과학 현상 통합적 이해 <br/><br/><br/>과학 교과 개정의 주요 변화는 ‘통합과학’을 신설해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9개의 핵심 개념인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화학변화,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환경,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학문적 기본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해 융·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br/><br/><br/> <br/><br/><br/>현 중학교 3학년을 위한 통합과학 대비 추천도서 <br/><br/><br/>통합과학 교과의 핵심 개념 9가지에 맞춰 현 중학교 3학년들이 고입 전에 미리 읽어둘만한 책들을 모아봤다. <br/><br/><br/>추천도서는 교재를 집필한 마진호 강사(현 대치미래탐구학원, 대찬학원 등 출강)의 추천도서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통섭의 식탁>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증 우수 과학도서(2013~2016년, 2017년 7월 현재 미발표)’ 중에 선별했다.  <br/><br/><br/> <br/><br/><br/> <br/><br/><br/># 고중숙 교수의 과학 뜀틀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br/><br/><br/>총 6부로 구성돼 자연에 관한 이해와 자연의 구성, 원자와 원소의 차이 및 원자 이하 소립자와 진공의 세계, 원자 이상 분자와 우주의 세계 등을 다룬다. 또, 정역학에서 동역학으로의 전환, 운동의 3원소,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측정과 단위 등 자연계의 근본적인 힘을 다루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 오늘날의 과학을 이루는 여러 분야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 통합적으로 담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 케미가 기가 막혀 <br/><br/><br/>교과 관련 주제 : 화학 변화, 과학탐구실험 <br/><br/><br/>유명 화학자들의 실험과 그들의 이론을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학생들이 집, 혹은 학교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들로 내용을 다룬다. 이 책 속에 담긴 화학 실험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화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기 쉬운 화학 이야기를 설명한다. <br/><br/><br/> <br/><br/><br/> <br/><br/><br/># 과학 수다 1 <br/><br/><br/>교과 관련 주제 :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br/><br/><br/>천문학자이자 과학 저술가, 과학 교육자, 과학 기자 3명의 저자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 열쇠 15가지를 꼽아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수다’를 기록한 책이다. 힉스 입자와 중성미자처럼 현대 물리학에서 최근 떠오른 쟁점들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빅데이터와 3D 프린팅 등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br/><br/><br/> <br/><br/><br/> <br/><br/><br/># 지구의 물음에 과학이 답하다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지구 시스템, 생태계와 환경 <br/><br/><br/>대서양 아래 수천 미터 깊이 잠긴 거대한 폭포와 슈퍼화산 심장 한가운데 구멍을 뚫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 등 기후가 역사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돌과 모래, 폭풍과 지진, 날씨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준다. 지구와 연관된 지질학을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인류의 멸종 위기부터 기후 문제를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룬다.  <br/><br/><br/> <br/><br/><br/> <br/><br/><br/># 생물학 명강 3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생명 시스템 <br/><br/><br/>서영준 서울대 교수(약학과), 백성희 서울대 교수(생명과학과) 등 국내 저명한 생물학자 16명이 신경세포, 줄기세포, 암, DNA, RNA, 단백질, 후성유전 등 생물학계의 핵심 주제를 소개한다. 뇌, 줄기세포, 암, 유전자 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는지, 신경세포들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암줄기세포의 특성과 기능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면서 세포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룬다. <br/><br/><br/> <br/><br/><br/> <br/><br/><br/># 지구가 뿔났다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생태계와 환경  <br/><br/><br/>미래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구와 환경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상 기후와 멸종 사태, 동물 복지, 환경 파괴, 식품 문제 등 핵심적인 환경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나 원자력 발전소, 해양 쓰레기, 4대강 사업과 같은 시사적인 환경 이슈들도 함께 다루며 다양한 사진 자료와 지도, 그래프, 세계적인 환경 보호 캠페인 광고 등 감각적인 시각 자료로 읽는 재미를 더한다. <br/><br/><br/> <br/><br/><br/> <br/><br/><br/># 통섭의 식탁 <br/><br/><br/>교과 관련 주제 :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환경 <br/><br/><br/>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이 책에서 <동물을 알면 인간이 보인다>, <생명, 진화의 비밀을 찾아서> 등을 주제로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전자, 진화 이론뿐 아니라 바이오필리아, 미생물, 우주물리학 등 세부적인 주제를 다룬다. 자연과학,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56권의 독서 기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합, 통섭의 지식을 전달한다. <br/><br/><br/> <br/><br/><br/> <br/><br/><br/>#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시리즈(1~130) <br/><br/><br/>교과 관련 주제 : 통합교과 4개 주제 통합 <br/><br/><br/>총 130권 세트로 이뤄진 전집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부터 레일리 빛의 물리, 멘델의 유전과 왓슨 DNA, 톰슨 줄기세포, 호킹의 우주 빅뱅, 치올콥스키 우주 비행, 줄의 에너지, 토리첼리 대기압, 호이겐스 파동, 돌턴 원자, 갈릴레이 낙하, 뉴턴 만유인력 등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반에 걸친 법칙과 현상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재미나게 풀면서 법칙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r/><br/><br/> <br/><br/><br/>■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변화 내용 <br/><br/><br/> <br/><br/> <br/><br/> <br/><br/> <br/><br/>2009 개정 교육과정-융합과학<br/><br/> <br/><br/>2015 개정 교육과정-통합과학<br/><br/> <br/><br/>비고<br/><br/><br/><br/> <br/><br/> <br/><br/>\*융합과학 <br/><br/><br/>주기율표, 보어모형, 생물 다양성, 생물자원 이용, 대기대순환→통합과학 이동<br/><br/> <br/><br/>\*통합과학 + 과학탐구실험 <br/><br/><br/>-물질과 규칙성(핵심개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br/><br/><br/>-시스템과 상호작용(핵심개념: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br/><br/><br/>-변화와 다양성 (핵심개념: 화학변화, 생물 다양성과 유지) <br/><br/><br/>-환경과 에너지(핵심개념: 생태계와 환경, 발전과 신재생에너지)<br/><br/> <br/><br/>-2015 개정 교육과정 : 공통과목(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일반선택(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진로선택(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br/><br/><br/><br/><br/><br/><br/><br/> <br/><br/><br/> <br/><br/><br/>■통합과학 추천 도서 목록 <br/><br/><br/> <br/><br/> <br/><br/> <br/><br/> <br/><br/>도서명<br/><br/> <br/><br/>저자<br/><br/> <br/><br/>출판사<br/><br/> <br/><br/>가격<br/><br/><br/><br/> <br/><br/> <br/><br/>고중숙 교수의 과학 뜀틀<br/><br/> <br/><br/>고중숙<br/><br/> <br/><br/>궁리출판사<br/><br/> <br/><br/>16,800원<br/><br/><br/><br/> <br/><br/> <br/><br/>과학 수다 1<br/><br/> <br/><br/>이명현, 김상욱, 강양구<br/><br/> <br/><br/>사이언스북스<br/><br/> <br/><br/>16,500원<br/><br/><br/><br/> <br/><br/> <br/><br/>케미가 기가 막혀<br/><br/> <br/><br/>이희나<br/><br/> <br/><br/>도서출판 들녘<br/><br/> <br/><br/>13,000원<br/><br/><br/><br/> <br/><br/> <br/><br/>지구의 물음에 과학이 답하다<br/><br/> <br/><br/>악셀 보야노프스키<br/><br/> <br/><br/>도서출판 이랑<br/><br/> <br/><br/>14,000원<br/><br/><br/><br/> <br/><br/> <br/><br/>생물학 명강 3<br/><br/> <br/><br/>고기남 외 15명<br/><br/> <br/><br/>북하우스<br/><br/> <br/><br/>15,000원<br/><br/><br/><br/> <br/><br/> <br/><br/>지구가 뿔났다<br/><br/> <br/><br/>남종영<br/><br/> <br/><br/>꿈결<br/><br/> <br/><br/>13,800원<br/><br/><br/><br/> <br/><br/> <br/><br/>통섭의 식탁<br/><br/> <br/><br/>최재천<br/><br/> <br/><br/>움직이는서재<br/><br/> <br/><br/>15,000원<br/><br/><br/><br/> <br/><br/> <br/><br/>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시리즈(1~29)<br/><br/> <br/><br/>정완상<br/><br/> <br/><br/>자음과 모음<br/><br/> <br/><br/>각 9,700원

언론사: 내일신문-1-56.txt

제목: [신간│과학자의 생각법] 과학자, 생각·창조법 파헤친다  
날짜: 20170728  
기자: 장세풍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28123726001  
ID: 01100301.2017072812372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지음 / 권오현 옮김 / 을유문화사 / 3만2000원 어떻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상상해 위대한 발견에 이르렀는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암이나 에이즈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대통일이론을 만드는 것일까. 가능한 답은 현대 과학이론을 추동하는 질문만큼이나 무한하다. <br/> <br/>'생각의 탄생'의 저자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 세상을 바꾼 과학적 발견에 어떻게 이르는지를 중심으로 위대한 과학자들의 창의성, 관찰력, 통찰력 등이 빛나는 순간과 과정을 다룬 책을 출간했다. 즉, 과학의 발견과 발명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br/> <br/>저자는 과학적 사고에 자리한 창의적 측면과 개성적 특질을 탐구하는 목적에 맞춰 픽션 형식을 택했다. 생물학자, 역사학자, 화학자, 과학사학자 등 책속의 가상 인물 여섯 명은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에 놓인 다양한 쟁점을 논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적 발견'이라는 과정의 비밀을 파헤친다. 즉 '발견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모인 여섯 명의 탐구자들이 6일 동안 △'발견 과정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가 △누가 발견에 이르는가 △발견자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가? 발견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br/> <br/>그 과정에서 미생물을 발견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힌 미생물학자이자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해 수 많은 생명을 구한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표백에 염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당대 최고의 염색 기술을 제공한 화학자 클로드 베르톨레, 삼투압 원리를 발견한 제1회 노벨 화학상 수상자 야코부스 반트 호프 등 다양한 과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발견법과 생각법 등이 등장한다. 또 이들이 남긴 실험실 노트, 일기, 자서전, 논문 등을 통해 과학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찾아 새로움을 발견하는지 그 과정을 탐구한다. <br/> <br/>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기발한 생각법, 뛰어난 문제 해결력, 놀라운 발견법 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일상에서 생각의 벽에 부딪히거나 문제의 늪에서 헤매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

언론사: 내일신문-1-57.txt

제목: 메리츠 '무배당 올바른 암보험1707' 출시  
날짜: 20170719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9122313002  
ID: 01100301.20170719122313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메리츠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용범)는 암 진단시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무)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1707'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br/> <br/>이 상품은 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을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암진단 보장 금액을 강화했다.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 소액암(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진단 시 최대 5천만원, 갑상선암으로 대표되는 유사암은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br/> <br/>이 상품의 보험가입은 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암 1억원 가입 시 40세 남성 기준 월 26,000원 수준이다. <br/> <br/>암으로 진단 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다양한 암 치료 관련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br/> <br/>메리츠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의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전화로 가입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인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고객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58.txt

제목: "치매환자, 심뇌혈관질환으로 다수 사망"  
날짜: 20170719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9122258002  
ID: 01100301.2017071912225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매환자의 다수는 치매보다는 순환기계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예방과 관리방안을 세울 때 복합진료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 나왔다. <br/> <br/>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관리방안 모색' 연구서에서 "<span class='quot0'>치매환자의 사망원인이 치매가 직접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다</span>"고 19일 밝혔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사망 원인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순환기계 질환이 26.55%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질환이 14.54%, 신경계 질환이 11.85%,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이 11.35%로 나타났다. <br/> <br/>비치매환자의 사망 원인에서 가장 높은 질환이 암 29.14%이고, 순환기계 질환 24.76%, 호흡기계 질환 10.22%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군에서 만성질환관련 질환으로 사망이 비치매환자군보다 많은 것과 암 관련 사망자가 비치매환자군보다 2.5배 이상으로 적은 것이 큰 차이다. <br/> <br/>한편 치매환자가 가진 복합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 천식 불면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br/> <br/>정 선임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치매 예방과 관리에 있어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에 영향을 주는 신체 비활동, 흡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일차의료(주치의제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 경로를 다각화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59.txt

제목: 암 치료 후 관리, 병 근원 찾아 치유하는 것이 핵심  
날짜: 2017071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7122906001  
ID: 01100301.201707171229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는 병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이럴 때일수록 환자 스스로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양방 협진으로 중증·난치병 환자를 돕는 ‘소우주요양병원’ 조기용 원장(한의학 박사)을 만나 ‘암 치료 후 관리법’에 대해 들어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피부암 극복한 모친 사례 들어 <br/><br/><br/>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지만, 반대로 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30년 동안 중증·난치성 환자 치료에 앞장서 온 ‘소우주요양병원’ 조기용 원장은 암을 이기려면 먼저 병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어머니도 2002년 피부암 진단을 받았지만 암을 극복해 82세까지 10년 이상 더 살았으며, 조 원장 본인은 17년간 척추분리증으로 투병했던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r/><br/><br/>조기용 원장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암은 결과일 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전신 구조와 기능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신체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몸 속에 쌓여 결국 피부로 드러나는 것이 피부암이라고 보고 있다”며 어머니의 암 투병 사례를 언급했다. <br/><br/><br/>또, “어머니는 젊었을 때 두통과 불면증, 관절염이 있었고 노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 원인을 짚어보니 젊은 시절 충치 때문에 어금니를 뽑은 후,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어 전체적으로 치아가 부실하고 이로 인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경추가 어긋난 것으로 진단됐다. 몸에 정기를 북돋워 주고 사기를 물리쳐 주는 ‘부정거사’와 몸 안에 쌓인 독을 몸 밖으로 빼내고 원기를 보충하는 ‘해독보원’의 한의학 원리에 따라,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잡고 해독요법으로 피를 맑게 해 면역을 높여 건강해지고 암을 이겨냈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암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주목 <br/><br/><br/>조기용 원장은 수많은 임상경험을 토대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버리기, 잘못된 식생활 습관 교정하기, 자신의 몸 상태와 질병의 원인에 대해 의사만큼 바로 알고 그 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기’가 그것이다.   <br/><br/><br/>조 원장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지만 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식단과 운동 계획, 암 치료 후 관리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특히 신뢰감을 주는 좋은 의사를 찾아 병 치료에 의지하는 것은 환자의 회복이나 병세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br/><br/><br/>실제로 투병생활을 했던 조 원장은, 자신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사가 되었고 식이요법과 교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1992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설립 멤버로 참여했다. 또, 턱관절의 문제가 전신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치과 치료와 추나 치료를 병행해 병을 극복한 뒤, 환자 진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턱관절 문제를 해결할 보조 장치를 개발했다. <br/><br/><br/>조 원장은 “<span class='quot0'>특허와 의료보조기(상품명 NB, NBS)로 식약청(KFDA) 허가를 받아 턱 관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이 보조 장치를 사용해 치료하고, 심각한 환자는 턱관절 전문 치과와 협진해 진료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br/> <br/><br/><br/>환자마다 다른 발병 원인 찾아 치료·관리 <br/><br/><br/>환자마다 암을 유발한 원인이 다르므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홍채 검사를 임상에 활용하며, 조 원장이 신의료 기술로 신청한 생혈구 검사는 손끝에서 채혈한 피를 받아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10초 이내에 덮개를 씌운 뒤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 피 상태를 현미경으로 분석해 환자 치료의 근거와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이 외에도 “심장에서 나오는 생체신호를 분석해 몸 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경락기능검사와 신체·감성·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한방진단 즉 사진법(망 문 문 절), 생리적·기능적 변화를  빠르게 판단하는 치열과 설진(혀를 통한 진단) 검사, 대체의학에서 활용되는 AK 등 기능진단 테스트까지, 다양한 문진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br/>‘인체 고유의 자연방어체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곧 ‘질병 극복’이라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60.txt

제목: [새책마당] 식탁의 비밀  
날짜: 20170714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4123134001  
ID: 01100301.20170714123134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케빈 지아니 지음 / 전미영 옮김 / 더난출판 / 1만6000원 식생활과 식품의 다양한 정보가 건강을 해치고 있다. 저자는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자연건강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br/> <br/>대학원 재학시절에 본격적으로 조사화 연구에 뛰어들어 건강과 식품, 영양에 관한 허황된 속설을 파헤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90여 건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조회수 1000만 뷰를 넘겼다. 그는 세계 장수 마을 식단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 특정 식품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까 찾아 보았다. 그는 그 답을 확인했으며 식단관리에 필수적인 혈액검사 목록부터 체내에 독소 축적을 막는 법, 내게 맞는 건강식품을 고르는 비결까지 생기 있는 몸을 되찾게 해주는 현실적인 건강법을 제시한다. 그는 외친다. "<span class='quot0'>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음식이 병들게 만든다</span>"고.

언론사: 내일신문-1-61.txt

제목: [수시 합격자 선배들이 전하는 자소서 작성에 대한 조언]자소서는 나의 고교 성장기록 나만의 느낀 점, 배운 점, 특별함 담아야  
날짜: 2017071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3123044001  
ID: 01100301.201707131230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기말고사가 끝나고 짧은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수시에 서류평가가 있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소서 작성이다. 방학이 끝나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 수시 합격자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소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br/> <br/><br/><br/> <br/><br/> <br/><br/><br/>인제대 의대 박주연 학생 <br/><br/><br/>진심으로 인상 깊었던 활동 중심으로 정리 <br/><br/><br/>자소서 작성 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는 ‘식상한 자소서는 안 된다’와 ‘자소서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였습니다. 고교시절 제가 해왔던 비교과 활동 중에서 진심으로 인상 깊었던 활동들을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고3 때 의학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활동이라서 이를 토대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br/><br/><br/>자소서 1번 항목인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보다 의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암에 대해 공부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자소서 2번 항목인 의미 있는 교내 활동으로는 생물 관련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참가했던 것과 수학학술대회에 참가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학학술대회의 경우 의학과 수학을 결합한 주제로 질병 자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했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백마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설민혁 학생 <br/><br/><br/>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자 <br/><br/><br/>저 같은 경우 자소서 작성을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고3 2학기가 시작된 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마음이 해이해져서 잠시 미뤄뒀더니 여름방학이 끝났더라고요. 거의 한 달간 자소서 작성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학교생활 중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 넣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물리선생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어차피 제 고교시절을 정리해 기록하는 것이라 저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을 믿고 작성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면접 때 자소서를 토대로 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정직하게 꾸밈없이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특별히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가좌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성균관대 의상학과 박서진 학생 <br/><br/><br/>초안 작성 후 20번 정도 다시 쓰기 반복 <br/><br/><br/>자소서 준비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지만 자꾸 미루게 돼, 원서 접수를 앞두고 막판 3주간 열심히 썼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위해 관련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예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소서를 작성하고 컨설팅도 받아봤는데 그러다보니 나만의 특별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자소서는 진짜 나의 이야기를 자기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생기부를 살펴본 후 생기부만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기록만으로 눈길을 끌지 못하겠다 싶은 것들을 자소서에 살려 담았습니다. 활동을 하며 느낀 점과 노력의 과정, 고민했던 흔적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첫 문장을 인상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어떤 부분은 이런 내용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20번 정도 다시 쓰기를 반복했는데, 특히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 나열된 글들을 줄이는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가좌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디지스트 이현민 학생 <br/><br/><br/>대학의 인재상 숙지한 후 작성하면 도움 <br/><br/><br/>저는 5~6월에 자소서를 먼저 써놓았고, 여름방학 때는 수능공부 하느라 자소서에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대신 2학기 개학 이후 몇 주 동안 자소서만 붙잡고 살았답니다. 자소서 작성은 생기부를 보면서 활동을 몇 가지 정해 자소서 항목에 맞춰 개요를 짰습니다. 큰 개요를 짠 다음 연관 내용을 서로 묶어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더니 처음엔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추가했어요. 자소서 작성 시 나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소서 작성은 학교 별 특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학한 과학기술원은 무학과 단일학부로 선발합니다. 저는 물·화·생·지 모든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진학하는 과학기술원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종합대학은 학과 중심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을 보여주는 활동을 자소서에 일관성 있게 잘 담아야 합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재상을 먼저 숙지한 후 자소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가좌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서울대 화학교육과 이지희 학생 <br/><br/><br/>자소서 쓰기 전 생기부 10번 필독 <br/><br/><br/>‘생기부 10번 이상 안 읽었다면 자소서 쓸 생각도 말아라’는 조언을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저 역시 똑 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생기부는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생기부를 열심히 읽다보면 나도 몰랐던 소재들을 찾게 되는데, 저는 보물처럼 발견한 것들을 꺼내서 자소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자소서 작성을 위해 생기부를 열심히 살펴보면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소서를 쓰고 계속 보다보면 내가 쓴 글이라 나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자소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교와 학원 선생님께서 문맥이나 내용상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셔서 수정하며 완성했습니다.(일산대진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숭실대 전자공학과 송정호 <br/><br/><br/>확실한 나만의 이야기 담아 <br/><br/><br/>저는 수시 때 모두 수능최저가 없는 전형에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을 우선시 하는 학교들을 지원해 재수할 각오까지 하면서 자소서에 매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자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공부하고 도전해 온 과정들을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느낌으로 자소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은 아니지만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꿈을 키우게 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위해 주위에서 본 내 모습은 어떤지 부모님의 조언을 들었고, 교내 활동이 아닌 카이스트 교육과정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 낼지 경험 있는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이 걸어 온 길이 확실하고,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대부분을 저 혼자서 했습니다.(백석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서강대 영미문화계 박주혜 학생 <br/><br/><br/>자신만의 이야기에 개성 담아라 <br/><br/><br/>자소서는 다른 모범답안을 보지 않고 썼습니다. 아무래도 모범답안을 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따라 쓰게 될 수 있고, 자소서 유사도 검사도 걱정이 됐거든요. 자소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안에 개성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를 꼼꼼히 보고 기록할만한 내용을 압축한 후 선별해서 썼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선생님들께 첨삭을 받았고, 다시 제가 수정하고, 다시 첨삭을 받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며 완성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는 무엇보다 스스로 진정성을 느끼며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자소서에 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백석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지훈 학생 <br/><br/><br/>진학 희망 학교와 학과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br/><br/><br/>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자소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소서는 최종 완성 때까지 몇 번씩 새로 쓰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써놓으면 그 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쓰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평범해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항목별로 기록할 내용을 생기부에서 끌어내 정리한 후 각각의 활동에서 내가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때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면접 때 자소서를 배경으로 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대에도 지원했었는데 교대 면접 때 자소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소서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아요.(백석고 졸업) <br/> <br/><br/><br/> <br/><br/> <br/><br/><br/>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왕유비 학생 <br/><br/><br/>나만의 에피소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기록 <br/><br/><br/>자소서 작성 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나만의 구체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또 재미있게 쓰려고 했습니다. 자율동아리로 ‘소금꽃’이라는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며 울고 웃고, 극복한 성장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만의 에피소드로 요양원 할머니들과 친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자소서 1번 항목에는 영어 내신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나만의 노력과 노하우를 강조해 기록했습니다. 영어 토론대회 준비를 하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인 탐스 신발의 이념과 경영철학 등을 주제로 했는데 이것과 그동안 내가 해온 봉사 경험을 결합해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3학년 때 학교에서 자소서 쓰기 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자소서를 열심히 써둔 덕분에 수상도 하고, 실제 자소서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대화고 졸업)

언론사: 내일신문-1-62.txt

제목: 라이프플래닛, '건강인 할인특약 캠페인'  
날짜: 20170710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0125817002  
ID: 01100301.20170710125817002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은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 특약 알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br/> <br/>라이프플래닛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인지도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강인 할인 특약의 인지도가 낮은 것에 착안한 것으로 투표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40명에게 띵스 스마트밴드2(20명), 피쿡 스마트 체중계(20명), 오로나민C 음료쿠폰(100명) 등을 증정한다. <br/> <br/>같은 기간 건강인 할인 보험설계 이벤트도 진행한다.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서 건강인 할인 혜택이 있는 (무)라이프플래닛e암보험Ⅱ과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 중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생년월일, 성별, 흡연여부 등을 체크해 보험료를 확인한 뒤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각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9월 15일 발표되며 경품은 이벤트 응모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br/> <br/>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7월 일명 '슈퍼건강체 정기보험'인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을 출시했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슈퍼건강체 △건강체 △비흡연체 △표준체(흡연체)로 나눠 최대 37.3%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암보험 역시 비흡연체 할인을 적용하며, 비흡연자가 가입 시 업계 평균 보혐료 대비 2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종신보험, 5대성인병보험 등도 비흡연자 및 1년간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63.txt

제목: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은 책임 없다고?  
날짜: 20170710  
기자: 장병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10125810002  
ID: 01100301.20170710125810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인 강기훈씨가 대한민국과 당시 수사검사, 국과수의 문서감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대한민국과 검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br/><br/><br/> <br/><br/><br/>과연 검찰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 <br/><br/><br/><br/><br/> ◆국과수 문서감정 잘못만 인정 = 강씨는 유서 대필 혐의로 1991년 5월 구속된 후 24년만인 지난 2015년 5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후 강씨는 대한민국과 당시 수사 검사였던 강신욱(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강력부 수석검사), 허위 필정감정을 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r/><br/><br/> <br/><br/><br/>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춘호)은 6일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대한민국과 검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검사들의 개별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br/><br/><br/> <br/><br/><br/>또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형영의 잘못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가책임배상과 문서감정인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다'고 덧붙였다. <br/><br/><br/> <br/><br/><br/>하지만 민변은 "<span class='quot0'>당시 검사들은 사건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사건에 적극 가담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강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했다</span>"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br/><br/><br/> <br/><br/><br/>◆근무부대서 '메모' 입수하고도 묵살해 = 민변은 "<span class='quot0'>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span>"라고 지적했다 <br/><br/><br/> <br/><br/><br/>실제 검찰은 김기설씨가 자살한 1991년 5월 8일 직후 김씨가 근무했던 군에 찾아가 선임하사에게 써준 수첩 메모를 발견하고 가져왔다. 당시 군부대를 방문해 메모를 가져온 이는 당시 남기춘 검사였다. <br/><br/><br/> <br/><br/><br/>수첩 메모의 글씨는 필적감정이 필요없을 만큼 김기설씨의 유서와 똑같았다. <br/><br/><br/> <br/><br/><br/>검사들이 직접 군대에 찾아가 현역으로 근무하던 선임하사에게 받아온 만큼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료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자료를 은폐했다. 이 수첩메모는 필적감정이 의뢰되지도 않았고, 나중에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압수물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br/><br/><br/> <br/><br/><br/>검찰이 고의로 묵살해 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항소심 재판에서 밝혀지자, 검찰은 필적감정을 하지도 않은 채 글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김기설이 큰누나에게 준 책에 쓴 글자의 수는 수첩 메모보다도 더 적은데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br/><br/><br/> <br/><br/><br/>항소심 판사였던 임대화(재판장) 윤석종, 부구욱 판사는 수첩 메모의 증거채택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검찰의 주장을 따랐다. <br/> <br/><br/><br/><br/><br/> <br/><br/><br/><br/> <br/><br/><br/>◆수사관 라종규 "강기훈은 유서대필범 아니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기록해 놓은 안재성씨의 '거짓말 잔치'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이 강씨에게 유서대필 혐의를 씌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자 담당 검사인 강신욱이 크게 질책한 사실이 있다. <br/><br/><br/> <br/><br/><br/>서울지검 수사관인 주사보 라종규는 강력부 소속 거구의 수사관으로,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 등을 주로 수사했다. <br/><br/><br/> <br/><br/><br/>어느날 강신욱 강력부장이 남기춘 검사와 라종규 수사관을 불러 강기훈 사건을 넘겨주며 "물건하나 만들어보시오"라고 지시했다. 강력부 전통으로 보아 이 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좋으니 피의자를 족쳐서 범행을 자백하게 하라는 지시였다. <br/><br/><br/> <br/><br/><br/>라종규는 강기훈을 호되게 추궁했으나 완강히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박경순 검사는 강기훈이 유서 사본을 그대로 베껴 쓰는 시필을 20회 반복해서 쓰게했다. 한두장이야 다르게 쓸 수 있지만 계속 시필하면 본래 글씨체가 나온다는 강기훈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경순 검사도 시필을 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각자 시필을 했다. 하지만 그 결과 박경순 검사는 자신의 글씨가 김기설 유서 내용과 가장 흡사했고, 강기훈은 확연히 달라 놀랐다. 그러자 이를 확인한 강신욱 부장검사는 화를 내며 "누가 이딴 짓하라고 했어. 때려치워"라고 중단시켰다. <br/><br/><br/> <br/><br/><br/>이를 지켜보던 라종규 수사관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의심이 들었고, 검사들이 강기훈의 시필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겠다고 하자 "<span class='quot1'>유서와 강기훈 필적이 전혀 다른데 감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span>"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br/><br/><br/> <br/><br/><br/>하급 수사관의 도전적인 말에 검사들이 일제히 화를 내며 질책했다. 그러자 라 수사관은 강신욱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강기훈이는 유서 대필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했다. <br/><br/><br/> <br/><br/><br/>그러자 강신욱 부장검사는 "<span class='quot2'>나가서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span>"라며 화를 내 쫓아냈다. <br/><br/><br/> <br/><br/><br/>그 후 라 수사관은 강기훈에게 "너는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니 힘내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br/><br/><br/> <br/><br/><br/>◆여자친구와 절친의 증언도 무시 =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기훈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증인을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공작도 했다. 김기설의 여자친구였던 홍성은을 강기훈 변호인단이 증인신청을 하자, 검찰은 홍성은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br/><br/><br/> <br/><br/><br/>홍성은을 수사했던 송명석 검사가 수차례 집으로 전화를 하고, 밤 10시에 검찰 수사관이 직접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자정이 돼서 돌아갔다. 수사관이 돌아간 후, 홍성은의 아버지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딸을 야단쳤고, 그녀는 다음날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 <br/><br/><br/> <br/><br/><br/>김기설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한송흠의 진술도 검찰은 무시했다. 한송흠은 김기설의 유서를 보고 한눈에 그의 글씨임을 알아채고 큰 누나에게 "기설이의 글씨"라고 말을 했고, 큰 누나도 "한송흠이 기설이 글씨라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br/><br/><br/> <br/><br/><br/>검찰은 한송흠을 다섯시간이나 붙잡아 놓고 추궁했으나 '김기설의 필체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에게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다. <br/><br/><br/> <br/><br/><br/>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강기훈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언은 무시하고 불리한 증언만을 부각시켰다. 검찰의 가장 유력한 증인인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은 항소심이 벌어질 당시 뇌물을 받고 필적감정을 해준 죄로 구속돼 감옥에 있었다. 허위감정 혐의로 198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것이다. <br/><br/><br/> <br/><br/><br/>변호인은 이런 경우 당사자가 한 과거 수사의 진위여부를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장 임대화는 이를 묵살하고 김형영을 증인으로 불렀다. <br/><br/><br/> <br/><br/><br/>김수환 추기경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span class='quot3'>우리가 아무리 유심히 보아도 결코 같을 수 없는 유서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을 같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감정은 세인의 양식을 납득시킬 수 없는 기묘한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3'>최소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대원칙마저 무시되버린 1심 재판결과에 크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span>"고 호소했다. <br/><br/><br/> <br/><br/><br/>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강기훈에게 선고했다. <br/><br/><br/> <br/><br/><br/>대법원도 이례적으로 불과 3개월만에 항소를 기각하고 강기훈의 형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관은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등 4명이다. <br/><br/><br/> <br/><br/><br/>◆홍성은 '잠안재우고 60시간 조사' = 대법원 판결이 나고 13개월 만인 1993년 10월 홍성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린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검찰의 회유와 강압수사를 폭로했다. <br/><br/><br/> <br/><br/><br/>홍씨는 "저는 검사에게 처음부터 그 글씨는 김기설이 써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집요하게 언제 어디서 써줬느냐는 집요한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을 못하자 강기훈이 썼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게다가 강신욱 검사는 '더 조사해야하는데 48시간이 지나 자살방조혐의로 구속할 수 밖에 없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br/><br/><br/> <br/><br/><br/>또 홍씨는 "두차례 걸쳐 20시간과 60시간을 조사받았다. 낮에는 송명석 검사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밤부터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나중에는 잠을 못자 뇌가 거의 마비돼 있던 홍성은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br/><br/><br/> <br/><br/><br/>수감중이던 강기훈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검찰의 강압수사를 폭로했다. 강씨는 홍성은의 기자회견이 있던 같은날 국회 증언에서 "<span class='quot4'>전혀 자유롭지 못한 조사 분위기였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서야 변호인 접견이 허락됐는데 항상 나를 심문한 검찰 수사관이 배석한 가운데서만 가능했다</span>"고 폭로했다. <br/><br/><br/> <br/><br/><br/>◆'검찰, 분신당일부터 사건조작 가능성'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재정권 아래서 행해진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유서대필사건을 2005년 5월 발족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가 맡았다. <br/><br/><br/> <br/><br/><br/>수사권과 공소권을 갖지 않은 과거사위는 가해자 조사와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span class='quot5'>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만 사법적 재심판이 가능하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span>"며 공개적으로 협조거부의사를 밝혔다. <br/><br/><br/> <br/><br/><br/>열린우리당 의원 문병호 민병두 우원식 이인영 등이 나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검찰에 자료제공을 촉구했고,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나섰다. <br/><br/><br/> <br/><br/><br/>하지만 서울고검장 안대희는 장관의 요구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나가아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위의 수사에 대해 "<span class='quot6'>경찰청 과거사위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span>"며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맞섰다. <br/><br/><br/> <br/><br/><br/>경찰청 과거사위는 그해 12월 중간 조사발표에서 검찰이 분신 당일부터 사건 조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이 법정에서 "<span class='quot7'>당시 감정을 의뢰한 검사에게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다</span>"고 진술한 사실과 해당 검사가 감정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직접 국과수를 방문한 사실을 들었다. 수사관행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는 필적감정에서 요구되는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r/><br/><br/> <br/><br/><br/>◆김형영, 돈받고 허위감정만 3차례 = 기관별 과거사위가 난항에 빠질 무렵 국회 입법을 통해 2015년 12월 수사권을 가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곳에서 강기훈 사건을 다룰 권한이 주어졌고, 검찰은 모든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br/><br/><br/> <br/><br/><br/>이 무렵 김형영이 또다시 토지사기단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허위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 도합 3번이나 허위감정의 사기범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은 유서사건에서의 국과수 감정의 신뢰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br/><br/><br/> <br/><br/><br/>국과수의 신중한 재감정 결과 유서는 김기설의 것이 맞다며 기존 김형영의 결론을 뒤집었다. 김형영 외에 다른 공동감정인이 직접 감정에 참여한 바 없는데도, 김형영은 감정인 4명이 현미경으로 관찰했다며 중대한 사실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br/><br/><br/> <br/><br/><br/>김형영과 검사들 이외의 어떤 증언과 증거에서도 강기훈의 유죄 혐의를 발견할 없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19개월만인 2007년 11월 '국가로 하여금 강기훈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심재판으로 누명을 벗겨줄 것'을 권고했다. <br/><br/><br/> <br/><br/><br/>진실화해위원회 권고 2개월후인 2008년 1월 강기훈은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청구에 반대해 146쪽에 이르는 재심불가 이유서를 법원에 보냈다. 검찰은 현직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수차례 허위감정으로 감옥을 드나들고 있는 김형영의 필적감정이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 <br/><br/><br/> <br/><br/><br/>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청구 18개월만인 2009년 9월 재심결정을 내렸다. <br/><br/><br/> <br/><br/><br/>◆대법원, 3년 되도록 재심여부 결정 안해 = 검찰은 재심이 결정되자 격렬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원심의 대법원 판결이 불과 3개월만에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대법원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되도록 재심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br/><br/><br/> <br/><br/><br/>그 사이 강기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강씨도 간암에 걸렸다. 강기훈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2012년 8월 함세웅, 이창복, 김상근, 이부영 등 200여명의 민주인사들이 재심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해 압박을 가했다. <br/><br/><br/> <br/><br/><br/>그러자 대법원은 그 두달 후인 2012년 10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결정을 내렸다. 항고가 시작되고 꼬박 37개월만이다. <br/><br/><br/> <br/><br/><br/>재심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집요하게 강기훈의 유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기훈)은 2014년 2월 유서대필 부분에 대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했다. <br/><br/><br/> <br/><br/><br/>검찰은 또 대법원에 항고했다. <br/><br/><br/> <br/><br/><br/>대법원은 14개월후인 2015년 5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강기훈 재심 무죄를 확정했다. <br/><br/><br/> <br/><br/><br/>강기훈의 재심 무죄 확정판결이후 현재까지 검찰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언론사: 내일신문-1-64.txt

제목: 알아두면 유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날짜: 20170706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06182207002  
ID: 01100301.20170706182207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에서 큰 몫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대학이나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다양한 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꼭 기재되지 않아도 학생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확장시켜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제1회 한국창의성학회 창의성 캠프 <br/><br/><br/> 창의성 캠프는 내 안의 창의성을 찾는 재미있는 여정을 기본 틀로 한다. 참가 신청자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제품을 3가지 이상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 연결 또는 융합하여 가장 창의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한국창의성 학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된다. <br/><br/><br/> ▶ 일시 : 7월 25일(화) ~ 7월 27일(목) <br/><br/><br/> ▶ 대상 : 전국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br/><br/><br/>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br/><br/><br/> ▶ 참가 인원 : 200명 이내 (참가자 선별 및 개인별 통보는 7월 15일 오후 2시) <br/><br/><br/> ▶ 지원 기간 : 6월 29일 오전 10시 ~ 7월 5일 오후 5시 <br/><br/><br/> ▶ 참가비 : 무료 (식사, 숙박, 교통비는 본인 부담) <br/><br/><br/> <br/><br/><br/> <br/><br/><br/> <br/><br/><br/>서울대학교 청소년 여름방학과정 ‘미리 들어 보는 대학 강의’ <br/><br/><br/>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학문을 미리 경험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br/><br/><br/> 일반과정 프로그램으로는 알고 싶은 법과 법률가의 세계,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치학, 구강 해부와 치의학 탐색, 경영학의 이해, 4차 혁명시대의 생물학 등 40여 종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br/><br/><br/> 또 특강으로는 사람들은 왜 스포츠 컨텐츠에 열광하는가, 사례로 보는 중국 경영 이야기,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 이야기 등의 수업이 마련된다. <br/><br/><br/> ▶ 일시 : 일반과정 7월 24일(월) ~ 7월 27일(월), 4일간, 특강 7월 24일(금) <br/><br/><br/>           일반과정 7월 31일(월) ~ 8월 3일(목), 4이간 특강 8월 4일(금) <br/><br/><br/> ▶ 대상 :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br/><br/><br/> ▶ 접수 기간 : 1차 - 6월 27일(화) 10시 ~ 7월 3일(월) 15시 <br/><br/><br/>                2차 - 7월 4일(화) 10시 ~ 7월10일(월) 15시 <br/><br/><br/> ▶ 강의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br/><br/><br/> ▶ 수강료 : 일반과정(각 강의별 8만원), 특강(각 강의별 4만원) <br/><br/><br/> ▶ 접수 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br/><br/><br/> <br/><br/><br/>KAIST 입학처 주관 2017년 여름 창의적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br/><br/><br/> KAIST 소개와 캠퍼스 투어, 조별 경쟁 프로젝트 설계 및 진행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창업과 연구사례 특강, 선배와의 만남, 체육대회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친교의 밤 행사도 열리는데 KAIST 공식 학생 홍보대사인 카이누리가 진행한다. <br/><br/><br/> ▶ 일시 : 7월 25일(화) ~ 7월 28일(금), 3박 4일 <br/><br/><br/> ▶ 대상 : 일반고와 자율고 2학년 학생 <br/><br/><br/> ▶ 장소 : KAIST 대전캠퍼스 <br/><br/><br/> ▶ 참가 인원 : 150명 ~ 200명 내외 <br/><br/><br/> ▶ 지원 기간 :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br/><br/><br/> <br/><br/><br/>201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고교연계 프로그램 <br/><br/><br/> <br/><br/><br/> ‘몽키(夢-Key) 캠프’ <br/><br/><br/>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고교생을 위한 진로탐색 캠프이다. 숙명여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자아탐색, 꿈 탐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입학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가 발급되고 입학 안내와 전공 안내 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된다. <br/><br/><br/> ▶ 일시 : 7월 24일(월) ~ 7월 26일(수), 2박 3일 <br/><br/><br/> ▶ 대상 :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숙명여자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여고생 1학년과 2학년 <br/><br/><br/>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기숙사 숙박 <br/><br/><br/> ▶ 참가 인원 : 40명 <br/><br/><br/> ▶ 지원 기간 : 6월 26일(월) ~ 7월 7일(금) 24:00, 개별 온라인 신청 <br/><br/><br/> <br/><br/><br/> <br/><br/><br/> <br/><br/><br/>2017년 한국물리학회(KPS) 여고생 물리캠프 <br/><br/><br/> 물리학 분야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2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물리학회가 주최하고 여성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물리학 연구실을 방문하여 담당교수나 연구원의 지도 아래 직접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다. <br/><br/><br/> 3명의 여고생이 한 팀이 되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구 가능한 대학 또는 연구소에 문의하여 총 3개의 연구실을 정하여 신청한다. 학회에서는 연구계획서와 신청서를 심사하여 전체 지원팀 가운데 10개 팀을 선정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br/><br/><br/> 참가팀은 연구 기간 중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팀별로 1부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본선 캠프에서 구두 발표를 한다. <br/><br/><br/> ▶ 대상 :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학교별 팀 수 제한 없음) <br/><br/><br/>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신청서 및 추천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한 후 원본을 학회사무실로 발송한다. <br/><br/><br/> ▶ 지원기간 : 5월 25일(목) ~ 6월 14일(수) <br/><br/><br/> ▶ 본선 진출 발표 : 6월 30일(금), 한국물리학회 홈페이지 <br/><br/><br/> ▶ 연구 기간 : 7월 10일(월) ~ 8월 4일(금), 해당기간 중 연구실과 협의하여 진행 <br/><br/><br/> ▶ 본선 캠프 : 8월 10일(목), 광운대학교 <br/><br/><br/> ▶ 수상 특정 : 한국물리학회 발간지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게재, 선정된 팀에 한하여 10월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기회 제공 <br/><br/><br/> <br/><br/><br/>201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여름건축학교 <br/><br/><br/>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매년 여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을 넓히고 건축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일 건축학교를 열고 있다. 건축의 여러 분야 소개와 건축가와 건축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한 강연, 공간 만들기,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br/><br/><br/>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진이 강연과 실습을 담당하며 3인 1조의 실습과정에서 재학생 도우미들이 팀을 이루어 수업진행을 돕는다. <br/><br/><br/> ▶ 대상 : 고등학생 <br/><br/><br/> ▶ 개최 일자 : 7월 28일(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br/><br/><br/> ▶ 지원 서류 : 자기소개서와 건축에 관한 글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 내외) <br/><br/><br/> ▶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br/><br/><br/> ▶ 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 <br/><br/><br/> ▶ 신청 기간 : 5월 30일 ~ 6월 25일 <br/><br/><br/> ▶ 참가비 : 5만원 (재료비, 식사비, 기념품 등 포함) <br/><br/><br/> <br/><br/><br/>가천대 예비 의대생 멘토링 캠프 <br/><br/><br/> ▶ 대상 :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 <br/><br/><br/> ▶ 일시 : 7월 25일(화) ~ 7월 26일(수) 8시 30분~16시 20분 <br/><br/><br/> ▶ 장소 : 길병원 및 암당뇨연구원 <br/><br/><br/> ▶ 인원 : 160명 (1일 80명씩) <br/><br/><br/> ▶ 신청 기간 : 6월 19일(월) 9시 ~ 6월 30일(금) 0시 (입학처 첫 화면 해당 내용) <br/><br/><br/> ▶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 <br/><br/><br/> ▶ 심사 : 7월 3일(월) ~ 7월 10일(월) <br/><br/><br/> ▶ 대상자 발표 : 7월 11일(화) 홈페이지 공지

언론사: 내일신문-1-65.txt

제목: 우리가족 건강 가이드 - 연령별 건강검진 & 관리  
날짜: 20170706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06182205002  
ID: 01100301.201707061822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br/><br/><br/> 한솔병원 건강증진센터 김소라(가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나이에 따라 신체의 변화가 다르고 또한 연령별 주의해야 하는 질환도 달라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개인의 질병 발생 위험도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교정 및 시기에 맞는 예방주사를 병행하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내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br/><br/><br/>요즘 소아 청소년 비만이 많아지면서 10대 건강검진도 중요시된다. 10대라도 비만인 경우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질병 발생을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성인병의 씨앗이 되는 흡연, 비만,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을 체크해야 한다. <br/><br/><br/> 본격적인 건강관리가 시작되는 20대, 먼저 생활습관에 따른 성인병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해 나가야한다. 뇌혈관·심혈관질환을 앓았던 가족이 있고 비만하거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이 있는 20~30대의 경우 관리는 필수. 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이나 혈당·혈압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암 검진 권고 연령보다 일찍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만 20세부터 2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받고, 매달 유방자가검진도 하는 것이 좋다. <br/><br/><br/> 40~50대는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연령대. 국내 성인남성의 암 발생률 1~4위를 차지하는 위암·대장암·폐암·간암 검사를 꼼꼼히 받아야 하며, 5년에 한 번꼴로 권고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 발견 시 그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3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간암 고위험군으로 복부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는 것이 좋다. <br/><br/><br/>여성의 경우 40대부터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에 걸리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만 40세부터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을 권유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엑스선 촬영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어 유방 초음파 검사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 암 발생률 및 질병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커지는 60대 이상은 암 검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위암, 대장암, 간암 발견을 위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흡연력이나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매년 저선량(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양을 낮춘 검사) 폐 CT검사도 챙기는 게 좋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건강관리, 연령별 예방주사도 챙겨야 <br/><br/><br/>시기에 맞는 예방주사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br/><br/><br/>20~30대의 경우 검진을 통해 A형·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A형·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 주사로, 성관계에 노출되기 전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br/><br/><br/>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10대를 넘긴 경우하면 20대에라도 꼭 맞길 권유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풍진에 대한 항체검사를 진행, 항체가 없다면 임신 준비 전에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또한 5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대상포진 예방주사와 폐구균 예방 주사를 권장했다. <br/><br/><br/> <br/><br/><br/>내 몸의 위험성 예측 ‘유전자 암검사’ <br/><br/><br/>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포함되진 않지만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3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반드시 폐 CT로 조기 폐암 진단에 신경써야하며,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등 췌장암의 고위험군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CT검사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 <br/><br/><br/>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개인의 DNA분석을 통해 암이나 다른 질환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암검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어떤 질병이나 암이 발병하는 것은 개인의 타고난 유전자에 환경요인과 생활습관이 더해져 생기는 것. 평생 단 한 번의 검사로 내 몸의 위험성을 판단, 특정 질병의 발병을 막거나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것이 유전자 암검사의 장점이다. <br/><br/><br/> 아울러 건강검진 병원을 선택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 <br/><br/><br/>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검사를 진행하는 각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잘 갖춰진 경우 진단과 함께 시술이나 수술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66.txt

제목: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날짜: 20170705  
기자: 장세풍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05173039001  
ID: 01100301.2017070517303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생명과학과 이상명 교수, 유은애 박사과정 학생이 광주과학기술원 송우근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방암 암세포의 생장 및 전이를 억제시키는 기전을 발견하고,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연구팀은 생체유사환경 기질에서 세포막의 유입 및 이동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PIN90 유전자가 결손된 섬유아세포는 마이크로튜블의 아세틸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마이크로튜블은 세포의 골격유지와 이동, 세포 내 물질의 이동 등에 필요한 기관이다. 또 아세틸화는 유기화합물 중의 수소원자를 아세틸기로 바꾸는 반응으로 단백질 등 유기물질의 변형을 유발한다. <br/><br/><br/> <br/><br/><br/>이번 연구는 일반 세포배양 방법 대신 생체 내 유방 조직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암 섬유아세포를 분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 쥐 동물모델 실험과 화순전남대병원 인체자원은행, 충북대 병원과의 공동연구로 100여명의 유방암 환자의 조직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br/><br/><br/> <br/><br/><br/>해당 논문 “SPIN90 depletion and Microtubule Acetylation Mediate Stromal Fibroblast Activation in Breast Cancer Progression”은 국제학술지 ‘Cancer Research’ 6월 26일자 OnlineFirst 저널로 게재되었다.

언론사: 내일신문-1-67.txt

제목: [전문] 한미 공동성명서  
날짜: 20170701  
기자: 이명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701171512002  
ID: 01100301.20170701171512002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 돼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br/><br/><br/> <br/><br/><br/>◇한·미 동맹 강화<br/><br/> <br/><br/><br/>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br/><br/> <br/><br/><br/>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br/><br/><br/> <br/><br/><br/>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br/><br/><br/> <br/><br/><br/>◇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br/><br/><br/> <br/><br/><br/>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r/><br/><br/> <br/><br/><br/>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br/><br/><br/> <br/><br/><br/>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br/><br/><br/> <br/><br/><br/>◇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br/><br/><br/> <br/><br/><br/>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br/><br/><br/> <br/><br/><br/>◇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br/><br/><br/> <br/><br/><br/>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br/><br/><br/> <br/><br/><br/>◇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r/><br/><br/> <br/><br/><br/>◇동맹의 미래 <br/><br/><br/> <br/><br/><br/>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br/><br/><br/> <br/><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br/><br/><br/> <br/><br/><br/>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68.txt

제목: 가능성에 대한 믿음, 난임 해결의 중요 키워드  
날짜: 2017062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27125818001  
ID: 01100301.201706271258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난임 기술력과 장비 현황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 보아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 수준이죠. 시술 기술, 테크닉, 환자 처치 수준 등이 우수해 해외 유수 의료 기관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기술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신뢰도입니다. 경직된 심리 상태, 극도의 스트레스 등은 시술의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br/><br/><br/> <br/><br/><br/> <br/><br/><br/> <br/><br/><br/>난임 명의에게 듣다, 난임 극복을 위한 첫 번째 노력 <br/><br/><br/>미래여성병원 미래아이 난임센터 최영배 원장은 17년째 난임 진료를 맡고 있는 전문의다. 난임 시술부터 분만까지, 생명의 시작부터 태동, 그리고 태아의 첫울음을 지켜주는 것이 그의 업무다. <br/><br/><br/>미래아이 난임센터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지정(인공수정시술지정 제2010-9호, 체외수정시술지정병원 제98-6호)되며 좀 더 활발히 난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난임 부부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그중 눈에 띄는 현상은 여성보다 남성의 난임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는 4만2114명으로 2008년도(2만713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 원장은 내원하는 난임 부부 중 난임 요인이 7 : 3(여성 : 남성) 비율에서 5 : 5 수준으로 남성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br/><br/><br/>“남성 난임이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원인이 크죠. 환경 호르몬과 전자파에 자주 노출되고 불규칙한 생활이 정자 형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지구온난화도 남성에게 영향을 줍니다. 고환 온도는 정자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체온보다 2~3℃ 낮아야 정자 생성이 잘 돼요. 고환이 체외로 나와 있는 이유죠. 자신의 생활환경을 잘 파악해 보고 온도 유지를 위한 나름의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죠.” <br/><br/><br/>식습관 조절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가급적 서구화된 식습관을 고칠 것을 최 원장은 강조했다. 육식과 밀가루로 이뤄진 패스트푸드는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임신을 원한다면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br/><br/><br/>“자궁 내막증은 서구 식습관이 불러온 병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체중 증가와 함께 생리 불순,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을 유발하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찾은 환자들이 임상에 보고되고 있죠.” <br/><br/><br/> <br/><br/><br/>난임 시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다 -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br/><br/><br/>이렇듯 난임의 원인은 다양해지고 요구하는 시술의 기능과 정교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특히 급증하는 남성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br/><br/><br/>최 원장은 예전엔 수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시술의 발달로 수정에 실패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고. 또한 한국인 특유의 섬세한 손기술 덕분에 성공률이 높다고 첨언했다.“실례로 제 은사님의 자제가 난임 치료로 이곳을 찾았어요.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부부였는데 그곳에서도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며 할 수 있는 시술은 다 받아 봤지만 실패한 후였어요. 잠시 귀국할 일정 때문에 방문했다가 저를 찾아 왔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받았던 난임 진료기록을 백과사전 분량으로 들고 왔는데 본인은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출국까지 시간도 얼마 없었고. 그런데 첫 시도에 성공했어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은사님과 저 역시 기뻤습니다. 세쌍둥이라 기쁨도 세 배였죠.” <br/><br/><br/>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어 미국으로 돌아간 부부는 그곳에서도 희귀한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연구 대상이었다고. 줄곧 미국 의료진의 추적 관찰 대상이 되며 진료비와 출산 비용을 면제받았다. 고생 끝에 찾아온 생명, 최 원장의 진료실 벽면엔 이처럼 선물로 찾아온 신생아들의 사진으로 빼곡하다. 최고라 자부하는 기술력과 난임 부부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탄생한 생명은 볼 때마다 소중하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난임 부부에게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격려하는 사진이기도 하다. <br/><br/><br/>“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난임 부부가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 내일신문-1-69.txt

제목: "수면 무호흡증이 암세포 키운다"  
날짜: 20170622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22124013001  
ID: 01100301.2017062212401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면무호흡증이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암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동안 숨이 막혀 컥컥거리다가 한계점이 지나면 '푸'하고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이 가지고 있다. <br/> <br/>신현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간헐적 저산소에 노출한 쥐의 암 종양 크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 "<span class='quot0'>수면 무호흡증이 암세를 키운다</span>"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쥐에 암세포를 이식한 후 경증 저산소 군(저산소 노출 시간당 10회) 과중증 저산소 군(시간당 20회)으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저산소에 더 많이 노출된 중증 저산소 군의 암 종양 무게가 경증 저산소 군보다 2.5배 더 증가했다. <br/> <br/>또 연구진은 암 종양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저산소 적응 반응에 역할을 하는 단백질 'HIF-1α'이 활발하게 작용해 하위 단백질과 함께 암세포를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br/> <br/>신현우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세포가 저산소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신생 혈관·산소·영양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성장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암표적'(Oncotarget) 최근호에 게재됐다.

언론사: 내일신문-1-70.txt

제목: 국내 최대 잣 생산지에 들어서는 명품 타운하우스  
날짜: 20170619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19125215001  
ID: 01100301.2017061912521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서울 인근에서 단독형 타운하우스 요지로 꼽히는 곳은 양평을 비롯해 청평, 가평 즈음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강변이나 숲 안에 위치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잣나무 숲에 들어서는 피톤치드 ‘세례’를 받은 가평 하우팰리스 타운빌리지를 찾아보았다. <br/><br/><br/> <br/><br/><br/>타운하우스 아닌 ‘마을’ 개념의 콘셉트 <br/><br/><br/>요즘 흔히 말하는 ‘타운하우스’ 개념이 아닌 하나의 마을이 들어선다. ‘가평 하우팰리스 타운빌리지’가 그것.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예전부터 잣을 수확해왔던 이곳에 100만 그루의 잣나무는 그대로 둔 채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다. 마을의 콘셉트 자체가 ‘가평에 자연을 그리다’에 두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지형지물을 그대로 두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br/><br/><br/>4만 8,000여 평에 조성되는 이곳 타운빌리지는 우선적으로 2층으로 된 단독주택 36채가 지어지며 목조주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져 튼튼함을 담보하고 있다. 1차로 8채가 지어져 오는 10월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며 이어서 2차로 8채가 지어지고 연이어 3차 8채, 4차로 12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후 6차까지 모두 60채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전원주택 타운빌리지로는 그리 작지 않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br/><br/><br/>타운빌리지 뒤로는 잣나무 100만 그루의 오래된 잣나무 숲이 있고 앞으로는 실개천이 흐르는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잣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엄청난 ‘세례’이다.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테르펜이라는 성분은 숲의 향긋하고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냄새이다. 더불어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말초 혈관을 단련시켜준다. 또한,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피부를 소독해주는 약리 작용도 해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은 도시를 떠나 숲에서 가장 좋은 치료효과를 봤다고 한다. 타운빌리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에는 암 같은 중병 치료를 위해 숲의 기운을 받고자 들어와 살던 네 가구가 있다. 그중 한 명은 뇌혈류가 좋지 않아 두통이 심한 환자였는데 6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호전이 됐다고 한다. <br/><br/><br/> <br/><br/><br/>잣나무 군락지서 느끼는 피톤치드의 효과 <br/><br/><br/>또한, 타운빌리지를 둘러싸고 10킬로미터에 이르는 둘레 길도 조성될 예정이다. 워낙에 잣을 따고 실어 나르기 위해 도로가 나있었는데 그 길을 깔끔하게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로 만들 예정이다. 집은 대지 90~130평에 분양면적 42평형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분양가는 2억 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분양조건은 1차 계약금 10%, 2차 계약금 10%에 중도금(60%) 없이 준공 후 담보대출(60%), 잔금 20%로 계약초기 최소 투자비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br/><br/><br/>이곳은 일반적인 세컨드하우스처럼 사용하기보다는 은퇴자들이나 예술가, 혹은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삶의 여유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며 건강까지 더불어 챙길 수 있는 곳이다. <br/><br/><br/>이곳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시행사 (주)꽃가람에서 마을기획 및 타운하우스 디자인을 위임받은 ‘하우팰리스 건축연구소’는 건축디자인부터 설계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회사로 이미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평 하우팰리스 타운빌리지’에 빌트 인으로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도 명품으로 주방제품은 독일의 하츠 제품이며 LG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홈 네트워크 월패드 역시 편리한 터치스크린을 채택한 코콤 제품으로 구석구석 명품을 추구하고 있다. <br/><br/><br/>또한, 분양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주)분양114(대표 권오동)에서는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 계약자들에게 1박 2일로 현장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체험은 잣나무 둘레 길을 직접 둘러본 후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도 갖고 아침에는 잠을 깨우는 피톤치드의 향긋한 향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71.txt

제목: [기고]체온과 면역, 암 치료에서의 전신온열치료(Whole Body Hyperthermia)  
날짜: 20170616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16123138001  
ID: 01100301.2017061612313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체온이 올라야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기전에 대해서도 밝혀져 있어 많은 질병에 체온을 높이는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어른들이 늘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단지 민간의 구전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 되었다.  <br/><br/><br/> <br/><br/><br/>병에 걸리면 인체는 스스로 체온을 올려 몸을 지킨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올라가고 병원체의 활동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다. 체온을 올려서 혈류와 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질병에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암, 류마티즘 등의 자가면역질환과 많은 통증성 질환이 포함된다. 특히 열은 암의 세포막과 세포원형질의 리소좀을 파괴하는데, 여러 번 열을 가하게 되면 DNA 합성이 어렵게 되어 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br/> <br/><br/><br/>인체의 자동적 방어 기전 이외에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도 열을 질병치료에 사용해왔다. 온탕, 사우나, 핫팩, 적외선, 온돌, 뜸, 온침, 화침 등이 대표적인데 이 모두는 열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심부의 체온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체온이 어느 정도 오르기 전에 화상으로 피부가 먼저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고 땀 배출을 증가시켜 열을 발산시키는 체온조절시스템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온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되었다. <br/><br/><br/> <br/><br/><br/>안전하게 심부체온을 올릴 수 있는 물리학적인 방법은 몸의 일부분의 체온을 올리는 국소온열치료와 전신온열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온열치료는 대표적으로 고주파온열 암치료로 쓰이고 있다. 정전방식의 고주파가 안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신온열치료에는 특수한 필터를 이용하여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중적외선과 원적외선을 차단하고 심부로 투과되는 근적외선만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br/><br/><br/> <br/><br/><br/>전신온열치료는 한 시간 정도 근적외선을 쐬고, 체온이 어느 선에 도달하면 램프를 끄고 특수 천으로 만든 타월과 텐트를 덮어 보온을 하게 되는데, 보온기간 중에도 체온은 1도정도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39도 전후로 가열기의 목표체온을 정하게 된다. 전신온열치료의 효과는 여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는데, 암환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여줌과 동시에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완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항 우울 효과와 진통효과가 탁월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br/><br/><br/> <br/><br/><br/>치료 중에는 심부체온과 맥박, 혈압, 호흡, 말초혈액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의료인의 면밀한 관찰 하에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체온을 올리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72.txt

제목: 우리 동네 한강 100배 즐기기  
날짜: 20170615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15161745001  
ID: 01100301.20170615161745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한강은 서울이 지닌 보석 같은 레포츠 자원이다.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달릴 수도 한강에 풍덩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도심 한가운데를 도도히 흐르는 야경 또한 멋지다. 한강의 놀거리, 즐길 거리를 모았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드론, 맘껏 날리자 ‘한강드론공원’ <br/><br/><br/>서울의 첫 드론공원으로 취미용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광나루한강공원 일대다. 시야가 탁 트인 초록빛 잔디밭에서 강바람 맞으며 맘껏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다. <br/><br/><br/>드론공원은 2만7000㎡ 규모로 가로 160m, 세로 100m 크기로 조성됐다. 고정익드론존, 드론레이싱존, 회전익드론존 3개 코너로 나뉘어 운영된다. 안전을 위해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장애물을 만든 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지 겨루는 드론 레이싱도 펼쳐진다. <br/><br/><br/>이곳에서는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을 맘껏 날릴 수 있다. 사전 인터넷 예약은 필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br/><br/><br/>서울의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고 강남 지역 대부분도 비행제한구역이다. 다만 광나루한강공원 일부 구역만 비행이 가능하다. 2009년부터  RC비행기 이착륙장을 위한 활주로를 갖추고 모형비행기들이 비행했던 곳이었는데 드론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2016년 6월 한강드론공원이 만들어졌다. <br/><br/><br/>다만 지상 150m 고도에서 육안 비행만 해야 하며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자전거도로, 수영장,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br/><br/><br/>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모형항공협회 주관으로 드론체험 무료 교육도 실시한다. 드론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비행의 기초, 원리, 법규를 배운 후 교육생이 직접 정지비행과 상승하강, 전진, 후진을 실습해 본다. 교육용 드론은 협회에서 제공한다. 15명 정원이며 사전에 인터넷접수를 받는다. <br/><br/><br/>·위치 : 강동구 천호동 351-1 (천호역, 암사역 700m) <br/><br/><br/> <br/><br/><br/> <br/><br/><br/> <br/><br/><br/>수상 레포츠에 빠지다 ‘뚝섬한강공원’ <br/><br/><br/>한강 일대 공원 가운데서도 뚝섬일대는 즐길 거리가 많기로 손꼽힌다. 전망 쉼터, 도서관, 생태체험관, 전시공간으로 꾸며진 뚝섬전망문화쉼터인 자벌레를 비롯해 대형 야외 수영장, 인공암벽장 같은 체육시설을 종류별로 갖추고 있다. <br/><br/><br/>특히 이곳은 수상스포츠의 메카다. 윈드서핑장에서는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가 매년 여는 가족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은 1인당 참가비 1만원만 내면 전문 강사 지도로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트, 모터보트를 골고루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br/><br/><br/>이외에도 한강변을 따라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들어서 있다. 가족, 연인들이 좋아하는 오리보트는 최대 3명까지 30분 승선에 1만8000원이다. 청담대교, 잠실선착장까지 스피드하게 돌아보는 모터보트는 3인 기준 4만원. <br/><br/><br/>짜릿한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스키 강습도 받을 수 있다. 초보자는 1회 7만원으로 기본 동작을 익힌 후 한강에서 바로 스키를 탄다. 보통 1회 강습만으로 어렵지 않게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다. 강습이 필요 없다면 바로 수상스키를 타고 회당 2만5000원으로 한강 일대를 달려볼 수 있다. <br/><br/><br/>·위치 :  광진구 강변북로 139 (7호선 뚝섬유원지역) <br/><br/><br/> <br/><br/><br/> <br/><br/><br/> <br/><br/><br/>풍경에 반하다 ‘광진교8번가’ <br/><br/><br/>‘걷고 싶은 다리’로 만들어진 광진교는 여느 한강다리와 달리 보행자를 배려한 운치 있는 다리다. 다리 중간 지점에 위치한 광진교8번가는 한강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멋스러운 전망대다. <br/><br/><br/>계단을 따라 다리 아래로 내려가면 사방 벽이 유리로 둘러싸인 전망대가 나온다. 전 세계에 3개 밖에 없는 교각하부 전망대다. 광진교의 8번째 교각에 위치해 ‘광진교8번가’란 이름을 붙였다. <br/><br/><br/>해질 무렵 붉게 노을 진 한강 풍광부터 화려한 야경까지 시간대별로 색다른 한강을 만날 수 있다. 공연과 전시도 매월 다채롭게 열리며 역량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대관도 해준다. 월별 문화예술 이벤트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br/>특히 올해는 광진정보도서관이 광진교8번가에서 인문학 카메라타를 선보인다.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에서 벗어나 클래식 강의와 연주가 만난 통섭형 인문학 콘서트로 호평 받고 있다.  <br/><br/><br/>연주자인 동시에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제찬 피아티스트가 이보경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깊이 있는 강의와 연주를 선보인다. <br/><br/><br/>6월1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꿈과 현실’을 주제로 반고흐와 초현실주의자, 바흐와 슈베르트, 리챠드 바크와 생텍쥐베리 등 음악, 미술, 문학을 아우르며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살펴본다. 7월21일 금요일에는 한여름밤 야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녁 7시에 열린다. ‘패러디와 오마주’란 주제로 찰리 채플린,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고 즉석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한다. 인문학 카메라타는 무료로 열리며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br/><br/><br/>광진교8번가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은 휴무. <br/><br/><br/>·위치 : 강동구 구천면로 (천호2동 527-2)

언론사: 내일신문-1-73.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  
날짜: 20170615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15110414002  
ID: 01100301.2017061511041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5월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9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이 암센터 부문,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특성화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br/><br/><br/>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br/><br/><br/>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환자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속적 혁신으로 JCI 재인증 획득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9년 연속 수상했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이대여성암병원 9년 연속, 장기이식센터 2년 연속 수상 <br/><br/><br/>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정구용 센터장을 주축으로 한 신장이식팀과 홍근 교수가 주도하는 간이식팀, 원태희, 김관창 흉부외과 교수가 이끄는 심장·폐이식팀으로 구성돼 신장센터와 간센터 등 각 진료과별로 진행돼 오던 장기이식 관련 진료 과정을 통합하고 일원화해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여 왔다. <br/><br/><br/>특히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한 이식 관리 시스템 ▲수술 전 건강 상태 관리 통한 성공적 이식 수술 도모 ▲수술 후 중환자실 전문의 환자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의 면역 조절, 영양 관리 ▲중환자실과 긴밀한 협조 통한 뇌사자 발굴 관리 등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특성화센터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br/><br/><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성 친화 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74.txt

제목: "여성암환자에게 질 좋은 요양·재활·휴식을"  
날짜: 2017060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05125308001  
ID: 01100301.201706051253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 나이가 80인데 병원에서 보낸 세월이 1/3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한 병원은 처음이야. 서비스를 받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다 상을 줘야 돼." <br/> <br/>느루요양병원에서 요양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의 말이다. <br/> 1일 오후 느루요양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이 의료진에게 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규철 기자 <br/>최근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새로운 요양병원이 설립됐다. 바로 느루요양병원이다. 느루는 '늘,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이라는 우리말이다. <br/> <br/>조현주 병원장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요양 재활을 하기 힘들다. 게다가 지방에서 오가며 잦은 치료를 받는 경우 회복에 방해된다"며 "여성암환자들에게 적절한 요양과 재활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어 느루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br/> <br/>◆여성 환자의 욕구에 맞는 요양 재활서비스는 = 요양병원은 급성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급성기병원 즉 대형종합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재활과 회복을 위한 진료를 받는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비슷한 역할을 해 오면서 요양병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유행으로 입원환자들을 장기간 머물게 하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br/> <br/> <br/> 느루요양병원 입원실. 사진 느루요양병원 제공 이런 결과 부모들에게 권하기에는 불효자가 되는 듯한 느낌마저 주게 됐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인증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병실에 10명 몰아넣는 모습들이 없어져 가고 요양병원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환자들의 요양 재활 욕구를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br/> <br/>조현주 병원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다. 잦은 서울 상경 치료자, 보호자 없는 1인 가구 환자, 휴식 돌봄이 필요한 여성등 이 해당된다. <br/> <br/>암 환자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특히 빅5병원에 80%이상 방문을 하는데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기하기 위해 요양에 걸맞지 않는 시설에 머물곤 한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병기가 매우 길어 적절한 요양재활이 뒤따라야 한다.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치료하고 케어 받고 보호해야 하는 시기가 매우 길다. 암치료와 동시에 요양과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 <br/> <br/>한편 보통 요양병원 환자 구성을 보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br/> <br/>그런데 여성환자들은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암 수술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가서도 남편 자식들 밥해주거나 살림에서 벗어나지 못해 요양이 어렵게 된다. 회복기 암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가정이란 공간이 되레 방해가 되는 셈이다. <br/> <br/>이 때문에 느루요양병원의 등장은 요양병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가 크다. <br/> <br/> <br/> 느루요양병원의 테라스 필라테스스튜디오 공간. 사진 느루요양병원 제공 ◆기존 병원 동시 이용 가능, 면역증진 강화 = 느루요양병원은 10층 건물에 회복기 암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식사, 휴식, 운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br/> <br/>1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2층에는 통합치료실 병동 간호시설 주사실 약국 샤워실이 있다. 3∼6층은 병동 간호시설 샤워실 파우더룸이 갖춰져 있다. 7층은 사우나 느루스파 림프부종마사지 샤워실 파우더룸 미니정원이 있다. <br/> <br/>8층에는 병동 간호시설 샤워실 파우더룸, 9층에는 다학제연구실 VIP병동, 간호시설, 테라스, 샤워실. 10층에는 필라테스스튜디오, 상담실, 소독실, 테라스가 있다. 옥상에는 정원 느루 미니 가든이 있다. <br/> <br/>시설이 병원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다. 호텔에 와 있다고 할까. 그런데 5,6인실의 경우 병실료 본인부담금이 월 30만원이 되지 않는다. <br/> <br/>느루요양병원 측은 "시설이 호텔급이라 해서 입원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비싸게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병원은 어디서나 병실료는 같다"고 설명했다. <br/> <br/>느루요양병원은 요양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암환자 회복을 위해 진료차원에서 면역주사요법을 병행한다.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암세포를 줄여주는 고주파온열치료를 기본으로 서울에서 1대 가지고 있는 전신온열치료도 하고 있다. <br/> <br/>이외 운동·음악·명상·정서지지 치료, 광선·마사지· 미술 치료, 푸드테라피 등이 제공된다. <br/> <br/>느루요양병원을 이용하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진료 일정을 그대로 두면서 면역력 증진과 통증완화 치료를 중점으로 받을 수 있다. △암진단 초기에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전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면역력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기간 공백이 걱정인 여성을 위해 외출 조정이 가능하다. △가사 노동 등으로 요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안심 입퇴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느루병원을 이용하면서 서울 대형 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영양 컨설턴트가 설계한 유기농 항암 식단을 가족이 차려준 집 밥처럼 맛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입원 기간 동안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피로 해소는 물론 통증 감소도 도움 받는다. <br/> <br/>또한 암질환 정보반, 푸드테라피를 겸한 요리반, 병원 인근 도산공원 힐링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br/> <br/>한재복 대표원장(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은 "<span class='quot0'>조기 암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요양이 필요한 환자부터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모든 여성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집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요양병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 환자의 욕구에 맞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아지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75.txt

제목: [사서가 추천하는 오늘의 책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법  
날짜: 2017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02122253001  
ID: 01100301.2017060212225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시모주 아키코 지음 / 강수연 옮김 / 경향BP 누구나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가족,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좋으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림 같은 가족을 바란다. 하지만 그런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br/> <br/>대부분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족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여행작가협회장이자 문필가인 시모주 아키코가 가족에 대한 싱각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풀어낸 글이다. <br/> <br/>시모주 아키코는 NHK 아나운서 출신의 작가·수필가이다. 그녀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가족의 모습과 일본사회에서 만연한 '행복한 가족' 콤플렉스를 통해 느꼈던 우리시대 가족상에 대한 생각을 읽으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br/> <br/>이 책에는 그녀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방송인 생활과 세계 각국의 여행지에서 목격한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다. 특히 그녀는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여성의 삶을 지향한다. 부모, 남편, 자녀로 대변되는 여성의 가족관계도 가족이라는 병을 낳는 큰 요인 중 하나로 보고 동등한 관계 설정과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글 속에서도 자신의 배우자를 남편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관점을 부담스럽지 않게 인식시키고 있다. <br/> <br/>저자는 조부모, 부모, 오빠와 불화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그 불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그녀가 불편했던 가족 이야기를 '가족이라는 병'과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라는 책에 담았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에 대한 글을 쓴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가족'은 행복과 화목의 대명사이지 결코 '병'이라는 말과 연관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일본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br/> <br/>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다. 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족이라는 병의 원인도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br/> <br/>가족은 구성원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스트레스도 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체의 병은 원인을 인식하고 직시하면 고통이 덜해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으로 인한 마음의 병은 아무리 외면하고 지나치려 해도 어디든 뒤쫓아 와서 마치 귀신이 목말을 타듯이 어깨를 짓누른다. <br/> <br/>책에서 '가족이라는 병'에 대처하는 처방전으로 그녀가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가족에게 편지쓰기다. 가족 사이에 일어난 트러블, 가족에 대해 싫다고 생각한 점, 신경 쓰였던 일들을 조금은 힘들더라도 편지를 쓰며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한다. <br/> <br/>그녀가 느낀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통과 개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좋은 아이, 좋은 부모, 좋은 가족이라는 형태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지 말고, 때로는 반항하거나 장난치거나 떼를 쓰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r/> <br/>한원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언론사: 내일신문-1-76.txt

제목: 보험증권 받기 전에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날짜: 20170602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02122234003  
ID: 01100301.2017060212223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직장인 A씨는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다. 보험을 든 다음 날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셨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됐다. <br/> <br/>#B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작년에 가입했던 아들 명의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 암보험을 든 것을 후회했다. <br/> <br/>보험도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보험증권을 받기 전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다. <br/> <br/>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계약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사안을 모아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5대 권리'를 안내했다. <br/> <br/>5대 권리 중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에 따르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면서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br/> <br/>또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철회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려받을 수 있고 그보다 늦어질 경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만큼 받을 수 있다. <br/> <br/>하지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다. 또 이 청약철회권리는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이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r/> <br/>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br/> <br/>이밖에도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r/> <br/>또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회사의 비슷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77.txt

제목: 신간\_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가슴 설레는 맛, 가슴 뛰는 요리]  
날짜: 2017060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01122221001  
ID: 01100301.2017060112222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식사가이드’가 출간됐다. <br/><br/><br/>[가슴 설레는 맛, 가슴 뛰는 요리-북스고 출판사]는 세계적인 유방암 명의로 꼽히는 백남선 원장(이대여성암병원장)과 CJ다담의 정재덕 헤드셰프, 샘표 지미원의 원장 이건호 셰프 등 <br/><br/><br/>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콜라보로 유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에게 ‘건강함+맛’을 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br/><br/><br/>암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지만, ‘건강함’은 ‘맛’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왔다. 이에 이 책은 유방암에 대한 최신 질환 정보와 함께 백남선 원장이 제안한 여성들을 위한 30가지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두 명의 셰프가 77가지 요리를 개발해 요리 과정까지 담아냈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건강은 물론 맛까지 생각한 요리책 <br/><br/><br/>고혈압, 당뇨병 등 식사가이드 라인은 이미 넘쳐나지만, 현재 매년 3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식사 가이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여성만이 겪는 유방암이라는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br/><br/><br/>책을 통해 백남선 교수는 “유방암의 증가원인은 서구형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에 따라 영양과잉의 시대가 오다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질병인 것”이라면서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8%가량 되는 암이다. 하지만,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예후가 좋지 않아 생사를 넘나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br/><br/><br/>이어 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일본 등지에서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가슴 건강에 도움이 되는 30가지 식재료와 섭취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br/><br/><br/>77가지 레시피는 환자들도 짧은 시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br/><br/><br/>또한 음식의 형태별 분류가 아닌, 앞서 서술한 30가지 재료별로 구분함에 따라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응용요리를 만들어나가는 재미도 선사한다. <br/><br/><br/>또한 정재덕, 이건호 두 셰프가 중간중간 재료에 대한 설명이나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조언을 첨가했다. 건강한 재료에 자극적인 양념을 하지 않아도 호텔 못지않은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78.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  
날짜: 20170601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601122217002  
ID: 01100301.2017060112221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구용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장(사진 가운데)이 암센터 부문 대상 수상 후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사진 왼쪽)과 윤은기 (사)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br/><br/> <br/><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2017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수상했다. <br/><br/><br/>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9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이 암센터 부문,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특성화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br/><br/><br/>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br/><br/><br/>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환자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속적 혁신으로 JCI 재인증 획득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9년 연속 수상했다. <br/> <br/><br/><br/> <br/><br/>이대여성암병원 9년 연속, 장기이식센터 2년 연속 수상 <br/><br/><br/>또한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정구용 센터장을 주축으로 한 신장이식팀과 홍근 교수가 주도하는 간이식팀, 원태희, 김관창 흉부외과 교수가 이끄는 심장·폐이식팀으로 구성돼 신장센터와 간센터 등 각 진료과별로 진행돼 오던 장기이식 관련 진료 과정을 통합하고 일원화해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여 왔다. <br/><br/><br/>특히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한 이식 관리 시스템 ▲수술 전 건강 상태 관리 통한 성공적 이식 수술 도모 ▲수술 후 중환자실 전문의 환자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의 면역 조절, 영양 관리 ▲중환자실과 긴밀한 협조 통한 뇌사자 발굴 관리 등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특성화센터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br/><br/><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는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79.txt

제목: 40대 후반~ 50대 초반 주부의 갱년기  
날짜: 20170526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26112036002  
ID: 01100301.20170526112036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젊게 사는 분위기가 대세인 요즈음 중·고생 자녀를 둔�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의 주부라 해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젊게 산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여자라면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아무리 젊게 산다 해도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여성의 갱년기 주요 증상과 그 현명한 극복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도움말 염선경 산부인과 전문의(강남 미즈메디) <br/><br/><br/> <br/><br/><br/>한국여성 평균�49세 폐경,�생리�12개월 이상 없을 때 진단 <br/><br/><br/>나이가 들면 생리와 관련된 난자의 질적,�양적 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또한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양도 줄어 생리가 멈추기 마련이다.�때문에 폐경은 생식이 마무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폐경과 더불어 여성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br/><br/><br/>여성 갱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폐경의 진단을 언제 내리는지 강남 미즈메디 산부인과 염선경 진료과장은 “2012년도 폐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한국 여성은 평균�49세에 폐경이 됩니다.�갱년기에는�menopause(폐경)과�perimenopause(폐경이행기)가 있습니다.� <br/><br/><br/>폐경의 정의는 난소의 노화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며 생리가�12개월 이상 없을 때 진단합니다.�폐경이행기는 폐경 되기 몇 년 전부터�12개월 미만으로 생리가 건너뛰거나,�불규칙 생리 및 폐경기 증상(안면홍조 등)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br/><br/><br/>‘OECD Health Data 2013’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84.5세인데 비해 평균 폐경 연령은�49세로 전체 수명의�3분의�1이 넘는 약�30년간이 폐경기에 해당한다.�때문에 갱년기를 대비하는 준비 단계로서의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br/><br/><br/> <br/><br/><br/>폐경 후 갱년기 주요 증상,�미리 알면 도움 돼 <br/><br/><br/>갱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경과 관련된 증상은 다양하다.�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폐경기나 폐경 후에 생기는 주요 증상을 미리 안다면 대처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염 과장은 폐경기 여성에게 생기는 가장 불편한 증상을�50세 여성의�75%가 경험하고 있지만 약�30%의 여성은 안면홍조와 발한이 폐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했다.� <br/><br/><br/>특히 안면 홍조 및 발한의 경험에서는 개인차가 크다고 했다.�개인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에서 매일 혹은 하루에 세 번 이상씩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이외의 폐경기 주요 증상은 질 건조증,�수면 문제,�우울한 기분,�신체 및 정신적 피로,�성적 문제 호소,�과민성,�관절 및 근육 불편,�불안감,�배뇨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br/><br/><br/>폐경기를 잘 살펴보면 분만 후 수유 중인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흡사한 변화가 폐경기에 일어난다. 폐경기에는 수유기처럼 지방과 칼슘이 혈액에 유입되지만 모유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지혈증과 골다공증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폐경기의 변화로 나타나는 질 신축성저하,�질 건조, 성교 통 등은 육아와는 관련이 적고 오히려 성생활에 장애가 된다.�또한 열성홍조와 야간 발한 증상 같은 체온변화가 나타나며 각성과민 상태로 인한 만성 불면증을 비롯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br/><br/><br/> <br/><br/><br/>폐경 후 일상생활 지장 있거나,�늦은 폐경 후 정기검진 필요 <br/><br/><br/>폐경기나 폐경 후라 할지라고 그 이유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폐경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증상 조절 치료를 위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하며 폐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출혈이 있을 때는 자궁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역시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br/>특히�1년 이상 생리가 없을 때 골다공증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염 과장은 조언했다.�여성은 폐경이 시작되면 골 소실이 급격히 진행된다.�여성의 경우�70대가 되면�65%�이상이 골다공증을 진단 받게 되나 이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인지율이 낮다.�예를 들어 척추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굽을 수도 있고,�대퇴골절이 발생하는 경우�1년 내에�10명 중 약�3명 정도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br/><br/><br/>무엇보다도 염 과장은 “<span class='quot0'>폐경이 돼서 특정 암 발생률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노화로 인한 암 위험도는 증가합니다.�만약 폐경이 늦게 되었다면 여성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더 길어졌기에 유방과 자궁내막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며,�아울러 배란 횟수가 많아짐으로 난소암 위험도도 올라갈 수 있어 이에 해당된다면 특히 정기검진을 잘 받아야 합니다</span>”라고 당부했다. � <br/><br/><br/> <br/><br/><br/>폐경으로 생긴  갱년기 현명한 극복,�좋은 생활 습관 실천으로 <br/><br/><br/>폐경으로 생긴 갱년기의 현명한 극복과 관련해 염 과장은 무엇보다도 좋은 생활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특히 안면홍조나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는 커피와 차,�술을 줄이고,�흡연을 하는 사람은 금연을 해야 한다.� <br/><br/><br/>대인관계 등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얼굴홍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이와 관련해 복수 응답 가능한 설문지에서 영양제�43%,�운동�32%,�병원 상담�14%의 순으로 관리하며 만족도의 경우는 병원 상담이�9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80.txt

제목: 한화손보 '보험 기부' 저소득층 자녀 대상  
날짜: 20170525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25123624003  
ID: 01100301.20170525123624003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은 24일 여의도 월드비전 사옥에서 민간구호단체(NGO)인 월드비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4~19세 자녀들에게 3대진단비(암·뇌·심장)는 물론 상해·질병 입원비, 수술비 등을 무료로 보장해주는 '기부보험' 캠페인을 진행한다. <br/> <br/>한화손해보험은 이 캠페인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담은 '한화행복나눔보장보험'을 개발했다.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를 기본계약으로 일반상해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상해·질병 입원비, 상해·질병 수술비, 골절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5년이다. <br/> <br/>한화손보는 월드비전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81.txt

제목: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영국의 5배  
날짜: 20170523  
기자: 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23130209001  
ID: 01100301.2017052313020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리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율(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이 영국보다 약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6만9000여명으로, 이 중 61.6%(4만2000여명)가 강제입원이다. 10%대에 머무는 다른 국가들과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수치다. 독일의 경우 강제 입원율이 17.0%, 영국 13.5%, 이탈리아 12.0% 등이다. <br/> 18일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현병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본인의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비정신질환자나 경증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입원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1995년 12월 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허용했다. 게다가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해 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도 화장품제조판매업 말조련사 장례지도사 등 각종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 선택을 제한해왔다.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사회복귀가 아닌 잘못된 분리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br/> <br/>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 국가가 정신질환을 덮고, 수용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음을 반성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종전에는 시설을 잘 관리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지 않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span class='quot0'>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종전 정책적 잘못을 바로잡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 시스템 확립에 중점을 뒀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한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미국의 절반도 안돼 = 18일 국립정신겅강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는 조현병환자다. 입원 치료를 받고 호전된 A씨는 "버스를 타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 쑥덕거리면서 해치려는 것 같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사람들은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우리 아이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픈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다고 터부시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br/> <br/>사회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김 실장은 "<span class='quot0'>먼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다. 1년 유병률은 11.9%로, 최근 1년간 470만명이 1차례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span class='quot1'>외국은 정신질환자의 자진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나라가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39.2%지만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에 불과하다. <br/> <br/>최 부장은 "<span class='quot1'>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일수록 자발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효과도 크다</span>"며 "<span class='quot1'>잘못된 강제입원 경험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어려워진다</span>"고 말했다. <br/> <br/>조현병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C씨는 "강제입원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며 "처음 입원했던 개인 병원은 창도 없고 시설도 열악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br/> <br/>◆정신질환자 범죄, 전체 0.003% 불과 = 일각에서는 이번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실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며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만 건 정도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수는 2014년 6301명, 2015년 7016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0.003% 정도로, 일반인들에 있어 조현병의 유병률이 1%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인셈이다. <br/> <br/>최 부장은 "<span class='quot1'>정신건강은 암이나 다른 질병과 달리 문화와 환경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문화가정 등 달라지는 사회 특성에 맞는 연구를 확대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82.txt

제목: 피우진 보훈처장 발탁 '역대급 홈런'  
날짜: 20170518  
기자: 정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18125417001  
ID: 01100301.20170518125417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정부의 파격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29대 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61) 육군 예비역 중령 발탁은 그야말로 백미로 꼽힌다. 여성이 처장이 된 것도, 장성급이 아닌 중령출신이 처장이 된 것도 모두 처음이다. <br/> <br/><br/><br/><br/><br/> 그동안 보훈처장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보수성향 정권에서는 군 출신이 다수 포진했고, 진보성향 정부에서는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상징적으로 처장을 맡기도 했다. 일례로 전임 박승춘 처장(28대)이 예비역 중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처장(27대), 중부국세청장 출신인 김정복 처장(26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양손자이자 광복회 회장을 지낸 박시창의 장남인 박유철 처장(25대), 육군대학교 총장(중장)과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낸 안주섭 처장(24대)이 역임했다. 이번 피 신임처장의 발탁은 이 같은 관성을 완전히 뒤흔든 파격으로 꼽힌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찬사가 터져 나왔다. 피 처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br/><br/><br/> <br/><br/><br/>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인사는 일찍이 없었다. 단순한 인사조치를 넘어 정의의 실현"이라며 '역대급 홈런'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br/><br/><br/> <br/><br/><br/>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여성 당대표로서 정권교체로 이렇게 국민께 화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span>"면서 '사이다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br/><br/><br/> <br/><br/><br/>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도 "<span class='quot1'>장성출신이 아닌 그것도 여군 영관급 출신이며, 암과 싸우며 또 군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졌던 피해자이자 소수자이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녀를 국가보훈처장 내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수라 할 수 있다</span>"고 극찬했다. <br/><br/><br/> <br/><br/><br/>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span class='quot2'>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span>"고 평가했다. 또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평가하면서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피 신임처장은 "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 보훈가족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전임 처장시절 해마다 논란이 일었던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서는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한편 1979년 소위로 임관한 피 처장은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1981년 8월부터 교육을 받고 이듬해 14기 헬기조종사가 됐다. 일부에서는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로 보도했지만 피 처장보다 7개월 앞선 김복선 예비역 대위가 여군 1호 헬기조종사다. 피 처장은 유방암에 걸려 유방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쪽 유방까지 절제한 일화나, 강제 전역조치에 맞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복직에 성공한 사례, 그리고 군내 성희롱에 맞서 4성장군과도 맞서는 등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계를 극복한 인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83.txt

제목: 중국, 본격 '디레버리징(차입비율 낮추기)' 나섰나  
날짜: 20170515  
기자: 김은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15131153001  
ID: 01100301.20170515131153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 당국이 드디어 차입열풍 차단(디레버리징)에 나섰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는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위기를 막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베이징대 HSBC 경영대학원 교수인 크리스토퍼 발딩(캘리포니아대 정치경제학 박사)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고통을 얼마나 감내할지가 더 중대한 관심사라는 것이다. <br/> <br/>발딩 교수의 13일자 블룸버그 기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결국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지난 몇년간 여러 차례 레버리지 축소를 꾀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화두로 삼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br/> <br/>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중은행에 대한 인민은행의 대출액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3%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3~4월 12% 줄었다. <br/> <br/>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은 2016년 3월 이후 평균 7.3% 증가로, 완만하게 올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명목 성장률보다 둔화된 수치다. 발딩 교수는 "<span class='quot0'>이같은 중국 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는 지난해 1분기 급격한 신용확대 이후 이뤄진 것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하지만 분명 성과를 내고 있다</span>"고 평가했다. <br/> <br/>또 다른 청신호는 그림자금융에도 메스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등급 자산관리상품 출시액이 3~4월 18% 줄었다.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규제를 강화한 덕분이다.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 풀린 투기등급 금융상품은 4조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디레버리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일엔 명과 암이 있다. 레버리지 규제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모두 강한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채권투자자들의 고통이 특히 심해지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상품의 주식과 채권 편입률이 지난 1년 중 최소치로 떨어졌다. 이는 주식과 채권시장을 더 아래로 내리누르고 있다. <br/> <br/>향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산업수요 증가세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공급능력은 계속 오르고 있다.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가격은 올해 최고점으로부터 8% 하락했다. 2015년 12월 이후 91%나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미약한 하락세다. 하지만 이처럼 미미한 하락에도 충격파는 컸다. 강철봉 가격이 올 최고점을 기록했던 3월엔 허베이성 철강업체 85%가 이익을 냈다고 보고했지만, 현재는 66%로 급감했다. 발딩 교수는 "<span class='quot0'>8% 가격 하락에 이익을 낸 철강업체 수가 19%포인트나 줄었다면, 추가 가격 하락 땐 철강업계 전반이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2010년 이후의 중국은 세계 역사상 최대 건설경기 붐을 맛본 나라였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건설 관련 상장기업의 운영손실은 51억위안(약 8312억원)에 달했다. 향후 중국의 디레버리징이 가속화한다면, 건설업종엔 크나큰 시련이 불가피하다. <br/> <br/>부동산시장도 급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소비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생득권'(birthright)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당연히 수요에 맞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2016년 3월 이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31% 늘었다. 하지만 주요 도시와 은행권이 모기지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이나 은행대출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선 업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br/> <br/>설상가상으로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다. 발딩 교수는 "<span class='quot0'>아직 기업들을 벼랑으로 모는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대규모 디폴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금융당국이 기업파산과 미상환부채에 보다 정교한 대처를 해야 할 때</span>"라고 지적했다. <br/> <br/>현재 중국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바람직한 자세다. 하지만 고통이 커지면, 그리고 국영기업은 물론 소비자와 금융권으로까지 고통이 확산되면, 다시 한 번 신용확장에 나서라는 압력이 커질 것은 뻔하다. 발딩 교수는 "<span class='quot0'>경제학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이율배반의 학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국 정부가 어느 것을 살려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84.txt

제목: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날짜: 20170512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12123051001  
ID: 01100301.2017051212305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40대 후반의 주부 K씨는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데도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소화불량에다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서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좀 더 자세히 검사해본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매일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 약을 복용한 이후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피로감은 여전하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니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도 된다. 특히 여성에게 많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도움말 행복찾기한의원 차용석 원장 <br/><br/><br/>참고자료 <갑상선, 면역력을 키워야 고친다>, 차용석 지음, 피톤치즈·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갑상선 기능 저하증’ <br/><br/><br/> <br/><br/><br/>갑상선 질환자 80%가 여성, 갑상선은 건강 상태 알려주는 나비 <br/><br/><br/>목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 바로 갑상선이다. 이 갑상선이 두뇌의 명령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T3, T4)을 만들면 이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를 조절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은 크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땀을 많이 흘린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정상보다 낮거나 결핍된 상태로 몸이 붓고 둔해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추위를 탄다. <br/><br/><br/>‘행복찾기한의원’ 차용석 원장은 “전체 갑상선 질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한다는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갑상선은 여성에게 있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나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증상으로도 나비효과를 일으켜 온몸에 큰 변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br/><br/><br/>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질환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T3, T4)이 잘 생성되지 않아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오랜 기간에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거나 추위를 타는 등 막연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갑상선 질환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br/><br/><br/>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성피로, 무기력증, 우울증, 수족냉증, 탈모, 피부 건조, 변비, 근육통, 관절통, 어지럼증, 성욕 감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br/><br/><br/> <br/><br/><br/>증상의 원인인 면역 체계 이상을 치료해야 <br/><br/><br/>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면역 세포가 갑상선에 다수 침착해 염증을 일으켜 갑상선을 파괴하는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br/><br/><br/>‘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면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제(신지로이드)를 처방해주고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켜준다. 하지만 면역 이상에 의한 갑상선 이상은 단순히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처방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br/><br/><br/>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차 원장은 “증상의 원인이 되는 면역 이상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체질 면역 한약, 면역 해독 약침, 면역 영양 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치료법을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한다. <br/><br/><br/>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웰빙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갑상선 치료 방식은 웰빙과 무관하다. 호르몬 수치를 끌어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면역을 강하게 만드는 치료법을 선택하면 갑상선 환자들도 진정한 의미의 웰빙 상태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br/><br/> <br/><br/><br/>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세 <br/><br/><br/> 체중이 쉽게 증가하며 잘 빠지지 않는다. <br/><br/><br/>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차다. <br/><br/><br/> 저혈압이거나 맥박이 느리다. <br/><br/><br/> 수면시간이 충분한데도 늘 피곤하다. <br/><br/><br/> 머리카락과 손톱이 건조하고 잘 끊어진다. <br/><br/><br/>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br/><br/><br/>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생긴다. <br/><br/><br/> 전신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쉽게 생기거나 힘이 없다. <br/><br/><br/> 수근관 증후군이나 족저근막염이 있다. <br/><br/><br/> 생리가 불순하고, 성욕이 없다. <br/><br/><br/> 우울증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br/><br/><br/> 건망증이 심하거나 집중하기 힘들다. <br/><br/><br/>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br/><br/><br/> 안구 건조증이 있다. <br/><br/><br/> 목 안이 답답하고 무언가 걸린 느낌이 있다. <br/><br/><br/> 안구 주위,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다. <br/><br/><br/>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느낌이 든다. <br/><br/><br/> <br/><br/><br/>Tip  갑상선 건강관리 10가지 <br/><br/><br/>▶방사선 노출을 줄인다. X선, CT 검사는 특히 위험하다. 불가피할 때는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한다. <br/><br/><br/>▶깨끗한 생수를 마신다. 수돗물 속에 포함된 불소,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에 포함된 불소 역시 갑상선에 유해하다.  <br/><br/><br/>▶환경 독소를 줄여라. 갑상선은 특히 요오드의 작용을 방해하는 할로겐 계열의 환경 독소에 민감하다. 각종 농약, 세제, 인테리어 내장재, 불연제 등이 사용되는 환경독소를 줄여야 한다. <br/><br/><br/>▶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 소화기관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80%가 모여 있는 면역 기관이다. 갑상선 질환의 원인은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br/><br/><br/>▶호르몬 교란 물질에 주의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의 작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환경 호르몬은 물론 피임약과 같은 인공 호르몬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r/><br/><br/>▶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동시에 갑상선암과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br/><br/><br/>▶비타민D를 보충한다. 비타민D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br/><br/><br/>▶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은 해독 기능, 혈액순환, 신경의 활동, 면역 기능을 좋게 한다. <br/><br/><br/>▶스트레스를 줄인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과도하게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내의 여러 기능을 저하시킨다. 갑상선 기능은 물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br/><br/><br/>▶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 갑상선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로는 요오드와 비타민D를 비롯해 셀레늄, 아연, 비타민C 등이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85.txt

제목: 한국당, 후보-구도-캠페인 다 졌다  
날짜: 20170510  
기자: 엄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510131229001  
ID: 01100301.20170510131229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자유한국당은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24%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명박-박근혜정권을 연속으로 만들었던 당이라는 잣대에 비춰보면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의 3대 요소로 꼽히는 후보와 구도, 캠페인 모두에서 패했다는 지적이다. <br/> <br/>한국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가까스로 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후보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저는 제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는 본인의 말을 확인시켜주듯 가는 곳마다 막말을 쏟아냈다. <br/> <br/>△"(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에라이 이 도둑놈의 새끼들" △"여론조사기관은 도둑놈 새끼들이다" △"(언론이) 어떻게든 대통령 안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다한다" △"집권하면 SBS 8시뉴스를 없애 버리겠다" "(SBS) 사장, 본부장 다 목을 잘라야 한다" △"용돈도 장모님한테만 주면서 영감탱이(장인)와 나눠 쓰면 앞으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말했다" 등 수많은 막말을 쏟아냈다. 자서전에서는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를 털어놓았다가 뒤늦게 '남 얘기'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br/> <br/>홍 후보의 극단적 언행은 중도층과 진보층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성향상 보수적이고 점잖은 보수층에서는 "보수가 망하는 걸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찍지만 이게 무슨 보수후보냐"는 한탄이 쏟아졌다. <br/> <br/>대선기간 중에 만난 한 당직자는 "<span class='quot0'>황교안 같은 후보였다면 최소한 망신스럽지는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후보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br/> <br/>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찬성이 80%를 넘나들었고, 탄핵 반대는 20%에 머물렀다. 탄핵을 당한 한국당으로서는 애당초 구도가 불리했다는 얘기다. <br/> <br/>문제는 한국당이 불리한 구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 탄핵을 반성하면서 새 출발하지 않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 20%에 안주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스스로를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보다 지역·연령·이념적 확장성이 앞서곤 했던 한국당이 자진해서 확장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의 확장성 포기는 이번 대선 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선거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는 우려다. <br/> <br/>한국당은 대선 기간 내내 색깔론과 네거티브에만 몰두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과 비전은 후순위였다. 대선이 통상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캠페인이 중요한데 한국당은 거꾸로 간 셈이다. <br/> <br/>한국당은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붉은 색을 덮어씌우거나 깎아내리는 전략에만 몰두했다. 홍 후보는 "<span class='quot1'>(문 후보는)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가서 한·미 동맹이 깨지고, 북·미 관계가 끝장날 것</span>"이라며 안보 심리를 자극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1번과 3번 후보 앞에 인공기를 넣은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다른 후보와 언론을 비난하는데만 매달렸다.

언론사: 내일신문-1-86.txt

제목: 자연산 숙성회 맛집 ‘배 들어온 집’  
날짜: 20170429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9215857001  
ID: 01100301.20170429215857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세계 장수마을은 모두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서 생선회는 장수식품이며 특히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 회를 숙성시켜 특유의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을 입안 한가득 즐길 수 있는 곳! 싱싱한 바다 향으로 봄 입맛 제대로 살려주는 교대역 횟집 ‘배 들어온 집’을 찾아가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배 들어오는 상황 따라 그날 그날 달라지는 제철 최고의 횟감 <br/><br/><br/>교대역 근처 싱싱한 자연산 회와 풍성한 제철 해산물로 입소문 난 ‘배 들어온 집’은 이름에서부터 바다의 싱싱함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자연산 막회 전문점이다. 그날그날 배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횟감이 달라지는 이곳에서는 자연산 도미를 포함해 우럭, 농어, 광어 등 제철 싱싱한 횟감을 쫄깃하고 감칠 맛 나는 최고의 식감으로 맛볼 수 있다. <br/><br/><br/>1년 6개월 동안 56번 이곳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은 마니아층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곳 ‘배 들어온 집’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제철 풍미 가득 머금은 싱싱한 자연산 숙성 모둠회이다. 두툼하며 쫄깃한 식감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kg 미만의 단가 싼 생선이 아닌, 3kg 이상 되는 큰 생선만을 고집한다는 ‘배 들어온 집’은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횟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바다를 통째로, 푸짐함이 남다른 한상 차림  <br/><br/><br/>‘배 들어온 집’ 교대역 강남점은 2층에 위치한 넓은 홀 매장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룸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은 전통적 느낌의 나무 테이블과 칸막이, 조명 등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으며, 단체 회식을 위한 대형 룸 또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배 들어온 집’ 교대역 강남점에만 있는 인기 메뉴로 튀김류 추가 메뉴가 있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속살에 바삭한 튀김옷을 입힌 문어튀김은 여성 고객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먹다 보면 생선이 톡톡 씹히는 생선살 듬뿍 넣은 어전은 물론 상큼하게 입맛 돋우는 연어샐러드와 오징어, 가자미구이 등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는 곁들이 주변 사이드 요리들 역시 푸짐하면서 맛도 좋아 남다른 한상 차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동통 살이 꽉 차있는 간장새우 역시 사이드 메뉴 같지 않은 비주얼을 선보이며 그 맛 또한 자연산이라 질기지 않고 고소하고 싱싱한 맛이 입안 한가득 바다를 느끼게 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얼큰 시원 끝판왕!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매운탕 <br/><br/><br/>쫄깃쫄깃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자연산 숙성회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인기 메뉴는 생선뼈를 우려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얼큰 시원한 매운탕이다. 일반적인 횟집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매운탕과는 달리 ‘배 들어온 집’에서는 매운탕을 별도 메뉴로 추가 주문해야 한다. 생선뼈를 우려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육수에 싱싱한 생선과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매운탕은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보양식을 먹는 기분이 들게 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인기가 좋다. <br/><br/><br/>직장인들을 위한 점심 메뉴로는 알탕, 대구탕, 고등어조림, 오징어 볶음 등 다양한 단품 메뉴들이 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낙지해초비빔밥’은 바다향 물씬 나는 특별한 풍미를 자랑하며, 한 입 머금으면 자연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건강 비빔밥이다. 해남에서 직접 공수한 톳, 다시마, 고장초 등 싱싱한 해초향이 고소한 참기름과 한데 어우러져 한 입 가득 은은하게 퍼지고, 쫄깃하며 부드러운 낙지와 아삭한 해초들이 조화를 이뤄 환상적인 식감을 만들어 낸다. 고급 숙성 자연산회를 착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곳. 바닷가 근처에서 먹는 듯 푸짐하고 싱싱한 즐거움을 ‘배 들어온 집’에서 가득 느낄 수 있다. <br/><br/><br/> <br/><br/><br/>위치: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39 (서초동 1575-11) <br/><br/><br/>영업시간: 주중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30분(매주 일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Last order)

언론사: 내일신문-1-87.txt

제목: 췌장암의 효율적인 진단  
날짜: 2017042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7123256001  
ID: 01100301.201704271232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김영애씨가 5여 년 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4월 9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와 스티브잡스,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br/><br/><br/>췌장암은 특히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기록하며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췌장암은 환자의 대부분이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고 2기 이상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미만에 불과하다. <br/><br/><br/>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위치한 한솔병원 최규언 진료(소화기내과 세부전문의)과장은 “<span class='quot0'>췌장암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특징적인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췌장암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진 통증, 황달,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을 경험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암세포가 몸 곳곳에 퍼져 수술이 불가한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췌장암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그렇다면 췌장암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일까. <br/><br/><br/>최 진료과장은 “<span class='quot1'>췌장은 위의 뒤쪽, 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 크기가 작아 복부초음파와 내시경 등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다양한 검사가 있지만 초기 췌장암을 검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방법은 복부 CT 촬영</span>”이라고 설명했다. 또 “췌장에서 보이는 덩어리를 보고 진단하거나 췌장 부위의 혹 또는 췌관이 막혀서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 췌장암임을 진단할 수 있고 다중 채널 CT, 이중 혹은 삼중시기검사로 더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r/><br/><br/>흔히 건강 검진에서 종양 표지자라고 불리는 혈액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피검사만으로는 췌장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종양 표지자는 췌장암의 진단과 선별검사보다는 예후판정 그리고 수술 후 재발유부 판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br/><br/><br/>복부 초음파 역시 정확한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 황달, 통증,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지만 3cm 이상의 큰 종양을 발견하는 진단율은 높은 반면, 종양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견률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췌장전체나 췌관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성 환자나 위십이지장에 공기가 많이 차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더욱 어려워진다. <br/><br/><br/> <br/><br/><br/>한편, 2014년 국내조사를 보면 췌장암은 10만 명 당 12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발병확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혹은 장기 흡연자, 만성췌장염 환자라면 일반적으로 췌장염 고위험군으로 판단, 의사와 상의해 정기적으로 복부 CT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br/><br/>최 진료과장은 “<span class='quot1'>현재까지 추천되고 있는 췌장암 선별검사의 구체적 대상은 직계가족에서 두 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는 가족성 췌장암,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환자, 유전췌장염 환자, p16·BRCA2·HNPCC 유전자 변이 보유자이면서 직계가족에서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등</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유전성 췌장염 환자는 35~40세에 검사 시작을 추천하고 있고,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환자는 30~40세, 가족성 췌장암 환자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의 가장 어린 발병 연령보다 10세 이전에 적어도 50세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span>”고 설명한다. <br/><br/><br/>고위험군이라면 바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위험군이 아니지만 췌장염이 걱정된다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시 추가로 췌장암 진단을 위한 ‘복부 CT’를 고려해 보는 것도 췌장암에 대비하는 정기적 진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br/><br/><br/>또한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 과체중, 운동부족 등을 뽑는 만큼 금연과 정기적인 운동과 진료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88.txt

제목: [Advertorial]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날짜: 2017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6122712002  
ID: 01100301.20170426122712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한화손해보험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위험, 여가활동 중 위험, 상해 집중 케어까지 연계 가능한 생활밀착형 상품이다. <br/> <br/>골절진단비, 골절깁스치료비, 골절부목치료비를 기본담보(치아파절 제외)로 구성한 이 상품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사고 시 가족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전손 시에도 가입당시 차량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br/> <br/>특히,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의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br/> <br/>또한 가족 중 의료사고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가족의료사고 법률비용과 노후한 배관으로 인한 누수 시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시켰다. <br/> <br/>본인과 가족의 기호에 맞춘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패키지'를 도입하여 생활 속 위험보장, 상해위험보장, 레저활동과 운전 중 위험보장, 우리집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간편 가입 기능을 탑재하였다. <br/> <br/>한화손해보험은 △남성만을 위한 플랜 △여성만을 위한 플랜 △유가족 플랜 △암보장 플랜 등 다양한 가입플랜을 마련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 <br/>보험료환급 및 지원 특약을 활용하여 더 강력해진 납입면제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기존에는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잔여보험료 면제만 해주던 것을 이번 상품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 환급해주고 납입해야 할 잔여보험료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해줌으로써 해택을 한층 강화했다. <br/> <br/>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최저 만 15세부터 보험나이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전기납, 보험기간은 3, 5, 10, 15, 20년 단위로 설계할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89.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2004년생 47%만 맞아  
날짜: 2017042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5124112004  
ID: 01100301.20170425124112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04년생 여성청소년의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률이 47%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소(86.3%) 같이 접종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제주동부·경북영덕보건소 같이 접종률이 30% 미만인 곳도 있다. 전국적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br/> <br/>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 한해 4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망하지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이다. 특히 첫 성경험 이전 2회 접종을 끝내면 최적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br/> <br/>하지만 2004년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22만8000여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1차 접종 기준)은 46.6% 수준이다. <br/> <br/>전국 255개 보건소 관할 지역의 접종률을 비교하면, 전남 곡성군이 86.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 신안군 79.7%, 강원 양양군 79.2%, 충북 단양군 75.9%, 경북 군위군 71.4% 순이다. 곡성군의 경우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접종대상자 명단을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접종을 독려했다. <br/> <br/>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동부) 28.9%, 경북 영덕군 29.9%, 경남 거창군 30.2%, 전북 정읍시 31.4% 등이었다. <br/> <br/>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낮은 이유는 다른 어린이 예방접종과 달리 만 12세에 1차 접종이 이뤄지고, 이상반응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된 반면 접종의 암 예방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본부장은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지난해 6월20일부터 시행돼 이를 몰랐던 보호자가 많아 접종률이 50%에 그쳤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의 70%이상 접종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올해 2004∼2005년생이 대상이다. 1차 접종에 응한 청소년은 6개월 뒤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무료로 1차 접종을 받을 수 기간은 출생연도별로 2년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들이 5월 연휴 기간에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접종 가능 기관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90.txt

제목: "양한방협진사업 대폭확대 필요"  
날짜: 20170424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4124918003  
ID: 01100301.20170424124918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의 보다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양한방 협진(통합 진료 포함)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양한방협진의 치료효과는 세계 유수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은 4.6%(2015년 3205개 중 148개)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진행되는 곳도 무늬만 협진이지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건강보험 적용은 제한적이고 경제적 유인은낮은데다 의료계 내부의 불신과 갈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br/>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진행하는 병원이 13곳에 불과해 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손기철 전인병원장(의사·신부)은 23일 "<span class='quot0'>의사 한의사들이 서로의 의학 성과를 인정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진료문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윤영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의학과 의학의 높은 기술적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미비로 통합의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자중심의 통합의료로 나가는 것은 세계의료시장의 추세"라며 "지금이라도 양한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서양의학만으로 수명 늘리는데 한계 = 세계 유수 의학계는 이미 동서의학 협진이나 통합진료를 추구하고 있다. 대형제약사가 중심이 된 서양의약 연구의 한계 등으로 동양의학은 좋은 협진 파트너로 인정되고 있다. <br/> <br/>스테픈 로즌펠드 미국 보건성 전문위원 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서 열린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2017'에서 "<span class='quot1'>미국은 지난 20년간 1인당 의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17%대까지 비중이 높아졌지만 수명을 늘리지 못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합의료에서 찾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서양의학은 외과수술, 감염병, 백신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동양의학(한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 내의 조화와 내적 상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서양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br/> <br/>이런 지적은 암치료에 있어 암의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 처방, 침, 약침, 온열요법의 성과를 인정하는 미국 의학계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br/> <br/>세계적인 암 전문의료기관인 존스홉킨스, 메모리얼슬론 커터링, 엠디엔더슨 등은 기관 암센터 홈페이지에 한방치료가 '통증 자가면역질환 인지장애 피부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질환 신경학적 질환 호흡기질환 등에' '오심 구역 안면홍조 숨참 피로 통증 불안 신경질환 관절질환 구강건조 림프부종 등에' 효과적이라고 명시했다. <br/> <br/>국내 양한방협진에 의한 대외적인 성과들도 많다. 통합의료진흥원은 전이유방암 치료하는 항에스트로겐인 타목시펜과 한약 자음강화탕을 같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줄고 독성도 줄인다는 연구 성과를 냈다. 미국조지타운대에 동일한 한약을 보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뿐만아니라 타목시펜으로 발생하는 자궁내막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통합의료진흥원은 국내 통합의료 전문의료기관인 전인병원(대구)을 운영하고 있다. <br/> <br/>한방암치료방식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베스트케이스 시스리즈 프로그램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유화승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대한통합암학회 2016년 대국민강좌에서 "<span class='quot2'>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이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기 위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검증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 이는 한의 치료만으로도 폐암, 자궁내막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치료효과를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한다. <br/> <br/>◆공신력 있는 제도로 지원 강화해야 = 이렇게 양한방협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는 아직도 제도추진이 더디고 부족하다. <br/> <br/>복지부가 지난해 7월 15일부터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한양방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15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협진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협진을 잘 이뤄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한양방 협진사업이 공적제도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br/> <br/>더욱이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지만 약제의 경우 여전히 양한방 약제 한 쪽만 급여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다. 동시 약제 사용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r/> <br/>이와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3'>중국 뿐만아니라 독일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양한방협진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미진하다</span>"며 "<span class='quot3'>전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환자중심의 협진체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2019년 하반기까지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단계에서 시범사업기관이 추가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91.txt

제목: [19대 대선 D-18, 후보들 국민 속으로] 홍준표 잇단 여성 구설수 말썽  
날짜: 20170421  
기자: 차염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1123726002  
ID: 01100301.20170421123726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여성관련 구설에 잇따라 올랐다. 그는 21일 자신의 자서전과 관련된 이른바 '성범죄 모의' 논란과 관련 "들은 얘기일 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r/> <br/>그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대선후보와 무역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서전이라는 특성상 전해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썼다"고 했다. <br/> <br/>홍 후보는 2005년 펴낸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소제목으로 대학교 1학년인 1972년 당시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으며, 홍 후보와 다른 친구들이 이를 구해줬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br/> <br/>홍 후보는 "<span class='quot0'>홍릉에서 하숙하면서 S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것을 책에 기술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처럼 쓰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넣은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S대 상대생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설겆이 등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19일 TV토론회에서 사과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br/> <br/>그는 이날 무역인 간담회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보 뿐 아니라 경제도 거덜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북세력,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는 이 나라의 가장 암적인 적폐세력이자 대한민국의 공적"이라며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 이후 보수텃밭인 포항, 경주 등 대구경북지역을 다시 찾았다.

언론사: 내일신문-1-92.txt

제목: 노인 암환자 "가족·주변에 짐 될까 걱정"  
날짜: 20170420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0124735005  
ID: 01100301.20170420124735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인 암환자들은 가족과 주변에 '짐 될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으로 사망하는 노인의 말년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은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연구팀과 함께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0개 병원에서 2014년에 치료받은 60세 이상의 위암, 대장암, 폐암 환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br/> <br/>연구 결과, 노인들은 가족과 병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문제(약 45%),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약 40%),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약 30%),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약 25%), 미래에 대한 걱정(약 25%), 거동장애(약 20%), 관절 경직 문제(약 15%)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특히 병이 심할 수록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거동 장애가 있을수록 질병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암환자 대상의 한국어판 삶의 질 척도'를 개발했다. <br/> <br/>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은 "<span class='quot0'>노인 암환자가 겪는 삶의 질 문제는 분명 젊은 성인과 다른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삶의 질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가 암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규명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성과는 노인종양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언론사: 내일신문-1-93.txt

제목: 갑상선암 수술 환자 5년간 42% 감소  
날짜: 20170420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20124735004  
ID: 01100301.2017042012473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치게 많은 수술로 인해 '과잉'논란을 빚었던 갑상선암 수술환자가 5년 간 4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갑상선암 및 갑상선 수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 환자는 2012년 4만1306명에서 2016년 2만3832명으로 42.3% 대폭 줄었다. <br/> <br/>이는 2014년 3월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span class='quot0'>현재 우리나라 갑상선 발생률이 외국보다 크게 많은 것은 과다진단에 의한 것</span>"이며 "<span class='quot0'>진단행위가 갑상선으로 인한 사망률을 전혀 낮추지 못하고 있다</span>"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br/> <br/>논란이 확산된 그해 3만1806명으로 뚝 떨어졌고, 2015년 2만2321명으로 급감했다. <br/> <br/>우리나라는 원전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갑상선암이 증가해 과잉진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br/> <br/>실제로 국내 갑상선암은 1999년 3325명(인구 10만명당 7.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 2만1262명(38.2명), 2010년 3만6687명(63.1명), 2011년 4만1200명(69.7명), 2012년 4만4494명(74.4명) 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br/> <br/>이는 첨단 영상진단기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건강검진이 활성화하면서 미세한 신체변화까지도 집어낼 수 있게 되면서 사망률이 미미한 갑상선암까지 검사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현상으로 비쳤다.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4년 암 등록통계자료를 보면 2010~2014년 발생한 전체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이다. <br/> <br/>반면 갑상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00.2%로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높았다. <br/> <br/>사망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검진으로 발견된 후 '그래도 암'이라는 공포심이 작동해 많은 수술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94.txt

제목: '불가해성'은 인공지능 진화의 본질  
날짜: 20170419  
기자: 김은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19124100001  
ID: 01100301.2017041912410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8일자 13면 '정신분열증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인간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에서 이어집니다. <br/> <br/>'기계의 자율학습' 개념은 애초 실용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큰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60년대와 70년대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변방으로 밀렸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계가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방대하게 축적되면서 이 접근법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인공지능망'으로 알려진 새로운 버전의 기계 자율학습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너나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 결과 손글씨도 0과 1의 숫자로 디지털화되는 세상이 열렸다. <br/> <br/>하지만 연구성과가 본격화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인공지능망이 딥러닝을 통해 자동인지 기능을 갖게 되면서다. 딥러닝은 AI의 폭발적 확산을 불렀다. 사람의 말을 스스로 인식하는 등 전례없이 막강한 힘이 컴퓨터에 부여됐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코드를 입력해서는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도 불가능한 일을 기계 스스로 해내는 것이다. 이제 AI는 의학과 금융,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br/> 구글이 만든 기계화가 '딥드림'이 그린 그림.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도 인간과 달리 부차적 정보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사진출처 구글포토 딥러닝 기술은 본질적으로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기록을 다 담고 있지만 인간이 이를 열어 해독할 수는 없는 '어두운 블랙박스'(Dark Black Box)다. 이를 개발한 컴퓨터공학자들도 모르긴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욱 향상될 미래 AI 기술은 인간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br/> <br/>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인공신경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 인공신경망의 추론은 수천가닥 개별 뉴런(신경세포)의 움직임에 심어져 있고, 이는 다시 복잡하게 연결된 수십개, 많으면 수백개의 층(layer)에 배열돼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층에 배열된 뉴런 각각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선명도와 같은 입력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수행한 뒤 새로운 신호를 발산한다.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이렇게 생성된 신호는 다음 층의 뉴런에게 전달된다. 층층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생성된다. 여기에다 인공신경망이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개별 뉴런들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복습 과정이 곁들여진다. <br/> <br/>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층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각기 다른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차원의 층들은 개의 윤곽이나 전체 색깔 등과 같은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고차원의 층들은 개의 털과 눈색깔 등 보다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최상위의 층이 전체 정보를 모아 온전한 의미로서의 개를 인식한다. 이같은 접근법은 기계가 스스로 인간의 대화를 학습하는 과정에도 적용된다. 대화 속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인식하는 층이 있고, 텍스트 내에서 문장을 만드는 철자와 단어를 인식하는 층이 있다. 자율주행차의 작동도 마찬가지다. <br/> <br/>인공지능망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적 시도가 이뤄졌다. 2015년 구글 개발팀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바꿔봤다. 사진 속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바꾸도록 조정한 것이다.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개발팀은 인공지능이 새나 건물 등 사물을 인식하는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br/> <br/>'딥드림'(Deep Dream)으로 불리는 기계 화가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같은 이미지는 딥러닝이 완전히 불가해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알고리즘이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br/> <br/>하지만 인간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사람이라면 무시할 만한 곁가지 정보를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낸 것. 구글 개발팀에 따르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아령'이라는 이미지를 그릴 때 아령을 들고 있는 인간의 팔도 포함시켰다. 구글 AI는 부차적 정보인 사람의 팔을 아령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br/> <br/>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의 개념을 활용해 인공지능을 해부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br/> <br/>미 와이오밍대 제프 클룬 교수팀은 인공신경망을 실험하기 위해 시각적 환상을 이용했다. 2015년 클룬 교수팀은 특정 이미지가 인공신경망을 속여 실재하지 않은 사물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해당 이미지는 AI 시스템이 탐색하는 저차원 패턴을 활용해 인공지능을 속였다. 클룬 교수팀의 연구원인 제이슨 요신스키는 인간 두뇌에 삽입된 '외과용 탐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 도구를 인공신경망 내 뉴런에 접속해 뉴런을 최대치로 활성화시키는 이미지를 찾아봤다. 실험 결과 인공지능망이 떠올린 이미지들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었다. AI 지각력의 미스터리한 본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br/> <br/>AI의 사고과정을 엿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인공지능망의 추론 과정은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 덕분에 인간처럼 고차원적 패턴 인식과 복잡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같은 추론 과정은 수학적 기능과 변수들이 복잡하게 엉킨 '늪'(quagmire)과 유사하다. MIT 교수 토미 자콜라는 "작은 규모의 신경망이라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층마다 수천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그같은 층이 수백개에 이른다. 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br/> <br/>자콜라 교수실 옆방은 레기나 바질레이 교수실이다. 바질레이 교수는 딥러닝을 의학에 접목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최첨단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실망이었다. 바질레이 교수는 "<span class='quot0'>AI는 의료계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의료기록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이미지 데이터나 병리 데이터 등 모든 미가공자료를 사용해 연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지난해 암치료를 끝낸 바질레이 교수는 메사추세츠종합병원 의사들과 함께 병리학 보고서를 활용하는 AI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독특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환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바질레이 교수 역시 AI 시스템의 추론과정이 이해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콜라 교수팀과 함께 한 가지 목표 단계를 추가했다. AI가 특정 질환의 대표적 패턴을 발견할 경우 정보의 일부를 추출해 인간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그는 가슴 X레이 사진으로 유방암의 초기단계를 알아내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중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인간과 기계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미 국방부도 기갑병과 차량이나 전투기 등의 자율주행, 적의 식별, 군사정보 생산 등의 부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국방 분야 인공지능은 그 어떤 분야보다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의료부문보다 더 세심해야 한다. 국방은 '생살여탈'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능성이 핵심 관건이다. <br/> <br/>국방부 산하 방위선진연구기획국(DARPA) 매니저인 데이빗 거닝은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DARPA의 예전 프로젝트는 애플사의 음성인식 비서인 '시리' 개발로 이어진 바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인공지능이 국방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span>"고 말한다. <br/> <br/>군사정보 분석가들은 AI를 활용해 산더미같은 도감청 자료 속에서 패턴을 인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실험을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기갑차량과 전투기들이 속속 개발돼 시험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AI 로봇탱크의 작동원리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전투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추론과정을 알 수 없는 군사정보에 의거해 임무를 수행하기도 마뜩잖은 일이다. 거닝은 "인공지능이 종종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AI의 정보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가들이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DARP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워싱턴대 교수인 카를로스 궤스트린이 주도하고 있다. 궤스트린 교수팀은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이 결과물을 낼 때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컴퓨터는 자료뭉치에서 몇개의 사례를 추출한 뒤 이에 대한 짧막한 설명을 붙인다. 보통의 인공지능은 이메일에서 테러관련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수백만개의 이메일을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궤스트린 교수팀의 접근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메시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강조한다. 이미지 인식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의 해당 부분을 강조하며 추론과정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것이다. <br/> <br/>이같은 방법의 단점은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보가 언제나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주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질레이 교수팀이 맞닥뜨린 장애물과 비슷하다. 궤스트린 교수는 "<span class='quot1'>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결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span>"며 "<span class='quot1'>완전히 이해가능한 AI를 만들겠다는 꿈은 아직도 멀리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완벽한 AI를 만들겠다는 꿈이 꼭 암진단이나 군사작전처럼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돼 인간의 삶에 유용한 부분이 되려면, AI의 추론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애플에서 시리팀을 이끌고 있는 톰 그루버는 "<span class='quot1'>인공지능에 대한 설명가능성은 우리팀에게 최고 고려사항</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시리를 더 똑똑하고 유능한 가상비서처럼 만들기 위해서</span>"라고 말했다. 애플 AI 리서치 국장이자 카네기멜론대 교수인 루슬란 살라쿠트이노프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진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설명가능성을 꼽으면서 "<span class='quot2'>그래야 인간과 기계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인간행동의 많은 측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AI도 자신이 하는 것을 모두 설명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와이오밍대 제프 클룬 교수는 "<span class='quot1'>사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늘 불충분하다</span>"며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은 부분적이라는 건 지능을 가진 생물이나 기계의 본성</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인간이나 기계나 일부 행동은 본능에 따른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잠재의식에 따른 것이며, 그외 나머지 부분은 불가해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렇다면 어떤 단계로 올라서면 인간은 AI의 판단이나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AI의 판단에는 사회적 집단지성이 포함돼야 한다. 인간사회는 서로 기대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암묵적, 명시적 계약관계 위에서 건설된다. 이는 AI 시스템을 인간의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이 로봇탱크나 기타 살상용 무기를 만들려 한다면, AI의 의사결정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br/> <br/>미 터프츠대 교수인 대니얼 데닛은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다. 그는 의식과 정신에 대한 전문가다. 데닛 교수는 최근 펴낸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라는 책에서 의식에 대한 사상을 집대성하고자 했다. 책에 따르면 창조자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적피조물의 자연스런 진화 과정이다. 그는 "<span class='quot1'>문제는 우리가 이를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span>"라고 말했다. <br/> <br/>데닛 교수는 "<span class='quot1'>만약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의지하려 한다면, 할수 있는 한 최대치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왜 그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인공지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땐 AI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내일신문-1-95.txt

제목: 백혈병·GIST환우회 "불법리베이트 노바티스 규탄한다"  
날짜: 20170417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17131003002  
ID: 01100301.2017041713100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백혈병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판매하는 노바티스가 정부의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둔 가운데, 관련 환자단체들이 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를 규탄했다. <br/> <br/>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적용 정지 처분을 내리면 전국 6000여명의 백혈병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돼 정부에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br/> <br/>한국 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환자단체들과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7년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br/> <br/>불법리베이트 혐의로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는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br/> <br/>이 중 글리벡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을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의약품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br/> <br/>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약제가 단일 폼목으로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이 해당된다. <br/> <br/>이에 환자단체는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정지할 경우, 전국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바로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고 생명유지에 지장에 생길 수 있다"며 "과징금으로 갈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br/> <br/>이와 더불어 환자단체는 "노바티스사 뿐만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96.txt

제목: 노인 부정적 사고습관 우울 키운다  
날짜: 20170414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14125831001  
ID: 01100301.201704141258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년기의 부정적 사고 습관은 우울 불안장애를 키워 자살로 이어지거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br/>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인식 등은 음주와 식사 안함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생활습관과 연결돼 적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후한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br/> <br/>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노년기 정신적 습관의 실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보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희망 없음'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도피 등은 적은 수의 노인들에게서 발견되지만 우울이나 불안장애와의 관련성이 커 매우 위험한 정신습관으로 볼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신적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인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br/> <br/>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적 습관은 인지적 오류, 반추, 걱정이다. 적은 수의 노인들은 희망없음, 자기 부정적 사고, 자기 도피에 빠지기도 한다. <br/> <br/>이런 부정적 정신습관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로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60대 36.9명, 70대 62.5명, 80대 이상 83.7명이다. <br/> <br/>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알려 있다. 60대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68.1%,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53.3명인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br/> <br/>특히 부정적 정신습관은 모든 우울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부정적인 사고의 강도는 우울환자의 중증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br/> <br/>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습관인 인지적 오류와 반추, 걱정보다 희망없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 도피 습관이 우울이나 불안장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타났다. <br/> <br/>'희망 없음'은 자살 생각, 시도, 이행의 예측 인자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것이 강력한 정신적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정신건강의 위험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br/> <br/>'희망 없음'은 신체적인 상태에도 위협적으로 작용해 환자의 회복이나 재활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r/> <br/>'부정적 사고'는 유년기부터 시작돼 우울환자의 통찰력을 좌우한다.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우울 위험 인자인 것이다. <br/> <br/>'현실 도피'는 대개 매일 해야 할 일과 의무로부터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r/> <br/>그런데 자기 도피의 방식으로 자살 시도, 식이 장애,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신적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br/> <br/>이런 부정적 정신습관이 강한 노인들은 생활습관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위험 음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되는 노인들 중 강한 부정적 정신습관을 가진 경우가 24.5%로, 정상군 1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신체활동을 전혀하지 않는 경우는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보다 습관 보유율이 2배 높았다. <br/> <br/>최근 3개월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한 날이 주 1~2회 이상으로 빈번할 경우 28.9%가 부정적 정신습관을 보유했다. 반면 월 1~2회로 드물게 있거나 없는 경우의 습관 보유율은 16.9% 수준으로 낮았다. <br/> <br/>부정적인 식습관을 보면, 아침식사를 꼭 하지 않는 경우가 38.9%, 폭식을 자주 하는 경우가 26.8%, 육류 생선 채소를 골고루 먹지 않는 경우가 30.2%, 혼자서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 27.0%로 나타났다. <br/> <br/>채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부정적 정신 습관은 반복되고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정신 습관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강화되고 고착화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1'>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신적 습관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내일신문-1-97.txt

제목: SKC&C-건양대병원, 인공지능 이용한 암진료  
날짜: 20170405  
기자: 고성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05175407001  
ID: 01100301.201704051754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K주식회사 C&C(SKC&C, 대표 안정옥)는 건양대병원(원장 최준원)이 5일 ‘인공지능 암 진료실’ 개소식과 함께 인공지능 왓슨을 통한 진료(왓슨 포 온콜로지)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br/><br/><br/> <br/><br/><br/>왓슨 포 온콜로지는 담당 의사가 암 환자의 정보와 의료기록,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 수십 초 안에 제시해준다. 의사가 모두 파악하기 힘든 최신 의료정보와 문헌 등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받는 왓슨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왓슨은 의료진의 효율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뿐 치료 방향 결정과 환자와의 소통은 의사가 담당한다. <br/><br/><br/> <br/><br/><br/>건양대병원 암센터 윤대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왓슨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최신 의학지식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검증된 국제표준의 암 치료를 안방에서 제공받는 셈이다</span>”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실제 진료를 받은 K씨는 “<span class='quot1'>솔직히 컴퓨터가 내 병의 치료계획을 제시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암 진료팀의 의견과 일치했다고 하니 추후 치료에 확신이 생긴다</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98.txt

제목: [기고]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날짜: 2017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05122753002  
ID: 01100301.2017040512275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충북 제천에 사는 안 모(남 57세)씨는 2014년 간암 판정을 받아 아파트를 처분해 치료비로 충당했으나, 2015년 간암이 재발되어 아들에게 간이식을 받았다. 배우자가 조그만한 가게 운영으로 치료비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생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br/> <br/>수술비용 등 치료비 3100만원이 나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다행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단으로부터 17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br/> <br/>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이라는 제도의 양적 성장을 통해 수혜대상에 대한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세계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에서 기인한 낮은 보장 수준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충분하지 못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과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br/> <br/>예산 300억원 배정해 2013년 8월부터 시행 <br/> <br/>현재 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17.1%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2014~2017년)했고, 4대 중증(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보장성 강화 계획(2013~2016년)을 마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이러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가시화 될 때까지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정부가 추가예산 300억원을 배정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4대 중증, 중증화상에 비급여본인부담액 포함 최대 2000만원 지원)의 시작이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소득 또는 가계 총지출에서 가계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각국의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그 기준점은 10~40%가 될 수 있다고 했다. <br/> <br/>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014~2015년 600억원과 2016년 550억원은 정부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절반씩 부담해 마련됐다. 2017년 사업비는 525억원으로 정부와 모금회가 177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재정 17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이다. <br/> <br/>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당연 선정으로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외는 본인부담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연간소득 대비 30%이상 발생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사업 운영 결과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만8567건에 1760억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로 10.6%p 증가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연 55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보장률을 10% 이상 올린 정책은 없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br/> <br/>복권기금 등 다양한 공적 재원 확보해야 <br/> <br/>이처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 지원 요구가 많아 정부는 2018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br/> <br/>이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논란, 안정적 재원 확보 곤란 등 문제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의료비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br/> <br/>이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고액이 드는 모든 질환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며 복권기금 등 다양한 공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br/> <br/>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언론사: 내일신문-1-99.txt

제목: [100세 시대, 웃으며 삽시다 │① 건강 : 운동실천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운동으로 노인 건강 찾고 선물까지 받아요"  
날짜: 20170404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04125608001  
ID: 01100301.201704041256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는 8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5년이면 사회 구성원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오래 사는 것만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노인들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이를 넘어서는 '문화가 있는 삶'이 필요한 것. 내일신문은 '100세 시대, 웃으며 삽시다' 기획을 통해 노인건강·여가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br/><br/><br/> <br/><br/><br/>8년 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과다와 우울한 노후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에는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병장수'라는 불우한 100시대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고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 경증화하는 정책추진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br/><br/><br/><br/> <br/><br/><br/><br/>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span class='quot0'>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건강실천을 돕는 정책개발 추진이 더딘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운동실천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신체활동만으로도 노인질환 개선 도움 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인구 662만명이 건강보험 진료비만 21조원 이상을 사용했다. 2014년도 보다 2조원 넘게 증가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 노인 실태조사 결과(2014)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9.2%(의사 진단 기준)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46.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유병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인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고 치매 유병률은 2016년 전체 노인의 9.99%로 추정된다. <br/><br/><br/> <br/><br/><br/>노인계층의 건강 상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은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으면서 장수를 누리는 소위 '유병장수'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망 직전 1년 이내에 많은 치료비용이 지출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대부분 사망 한다는 점에서 노인 개인적으로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사회적 비용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br/><br/><br/> <br/><br/><br/>이에 효율적인 노인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생긴다. 특히 만성질환 치매 등은 신체활동으로 개선될 수 있음에도 약품 처방이나 입원 진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절실하다. <br/> <br/><br/><br/><br/><br/> 3월 20일 서울 마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건강백세운동 타임에 체조를 하고 있다. 사진 김규철 기자 <br/><br/><br/><br/> <br/><br/><br/>또 이미 2009년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원인 20위 안에 신체활동 부족이 4위이며, 신체활동 통해 교정 가능한 사망원인으로 1위 고혈압, 3위 고혈당, 5위 비만 등을 지적했다. <br/><br/><br/> <br/><br/><br/>더욱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신체활동 부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br/><br/><br/> <br/><br/><br/>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도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한 고령자 신체활동 촉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대안 마련은 아직 더디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업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고령화 대책으로 노인건강활성화 주문이 많지만 제도 도입 등 이제 시작단계여서 많은 준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br/><br/> <br/><br/><br/>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자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모색하면서 '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올해 12곳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이다. 운동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상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습관 개선''운동독려 포인트제' 등도 참고하고 있다. <br/><br/><br/> <br/><br/><br/>인천지역에서 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적인 있는 임 준 가천대 교수는 "<span class='quot2'>노인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건강마일리지 도입은 의료진의 처방 외 개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운동실천에 자극제로 작용할 것</span>"이라고 그 필요성을 말했다. <br/><br/><br/> <br/><br/><br/>◆노인이 이용할 건강운동프로그램과 시설 확대해야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후건강활성화를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가 662만명을 넘어 선 가운데 두 부처의 노인건강활성화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 <br/><br/><br/> <br/><br/><br/>복지부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강사가 방문, 노인강습, 건강교육, 신체기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4231곳에서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경로당 노인교실은 3309곳으로 이용자는 3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br/><br/><br/> <br/><br/><br/>문화체육관광부도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체율활동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게이트볼, 당구, 철인3종, 탁구, 볼링, 검도,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등 13개∼16개 종목으로 최근 3년 전국 25만명 정도 노인들이 이용했다. 지난해 관련예산은 26억6500만원 수준이었다. <br/><br/><br/> <br/><br/><br/>복지부나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노인건강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시설과 예산부족으로 이용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br/><br/><br/> <br/><br/><br/>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건강백세운동 타임에는 60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했는데 운동교실 공간을 가득 매웠고, 공간 부족으로 대기자들이 밀려 있었다. 1시간 백세운동을 마친 이영자(서울 신수동, 74세)씨는 "3년째 건강백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팔다리 불편한 친구들도 많은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본다. 병원도 안가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어울릴 수 있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많이들 이용하라"고 말했다. <br/><br/><br/> <br/><br/><br/>서울 홍은동 논골문화경로당에서는 서대문구복지관에서 강사가 파견돼 지도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민요 따라하기, 금요일에는 노인에 맞는 맨손체조(일명 멧돌체조)를 배우고 있었다. 보통 30여명이 참여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공간이 넓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타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포노인복지관이 신체활동교실이 12타임 넘는 것과 대비됐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운동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노인운동지도강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span class='quot3'>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후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외국의 건강증진 사례를 참고해 고령층의 건강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br/><br/><br/><br/> [

언론사: 내일신문-1-100.txt

제목: 건설근로자 보험(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날짜: 20170403  
기자: 한남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403125351002  
ID: 01100301.2017040312535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6000명에게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br/> <br/>201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되는 보험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br/> <br/>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 5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골절진단위로금 70만원, 질병사망 500만원, 암진단비 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해준다.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했다. <br/> <br/>지원자격은 만 65세 미만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5년 12월∼2016년 11월 적립일수가 134일 이상인 근로자(외국인 제외)가 해당한다. <br/> <br/>수혜자 선정은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가운데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 664명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200명), 현업 종사자(3136명), 장기 적립자(2000명) 등으로 구분해 총 6000명을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30일까지로 1년이며,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근무 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6000명에 이른다, 이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1365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2억4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br/> <br/>권영순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현장근로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1.txt

제목: [봄을 담은 요리 ‘비빔밥’]쓱쓱 비벼 한 그릇 뚝딱! 입맛 살리는 건강한 밥상  
날짜: 20170330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30121250001  
ID: 01100301.20170330121250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할 때 절로 떠오르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하얀 쌀밥 위에 갖가지 채소와 고기 등을 올리고 입맛에 따라 어울리는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비면 봄철 잃어버린 입맛이 새록새록 살아난다. 화반(花飯)이라 하여 꽃으로도 비유되는 비빔밥은 재료 고유의 색감과 맛이 한데 어우러져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음식이다.     <br/> <br/><br/><br/> <br/><br/>  <br/><br/><br/>목동 구룡포 막회 ‘멍게 비빔밥’ <br/><br/><br/>입 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고 향긋한 바다 향기 <br/><br/><br/>멍게는 바다의 꽃으로 불린다. 매서운 겨울을 견디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멍게는 특유의 알싸한 단맛과 향긋한 향으로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멍게에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있어 노화방지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으며 숙취해소와 기관지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우스꽝스런 생김새의 멍게의 껍질을 벗기면 오렌지색 속살이 나오는데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숙성시킨 젓갈로 먹어도 일품이다. <br/><br/><br/>목동 파라곤 지하상가에 위치한 ‘구룡포 막회’에 가면 통영에서 올라온 숙성 멍게를 이용한 요리, 멍게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매장은 원목과 타일을 매치한 아기자기한 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편안하고 깔끔한 분위기다. 멍게 비빔밥을 주문하니 색감 고운 밥상이 차려진다. 숙성 멍게와 상추, 양배추, 날치 알, 당근, 양파 등을 넣고 김 가루를 솔솔 뿌렸는데 한 숟갈 뜨니 입안에 짭조름하고 진한 바다 향이 퍼진다. 숙성 멍게라서 비린내가 없어 멍게비빔밥이 생소한 이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멍게비빔밥은 7,000원에 맛볼 수 있으며 2,000원을 추가하면 미니 우동이 제공된다. 이곳은 다양한 일본식 ‘숙성회’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숙성회’는 활어회보다 쫄깃한 식감에다 감칠맛이 더해져 인기가 좋다. <br/> <br/><br/><br/> <br/><br/>  <br/><br/><br/>염창동 손 여사 ‘나물비빔밥’ <br/><br/><br/>여덟 가지 나물로 채워진 정성스러운 밥상 <br/><br/><br/>비빔밥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어떤 식품보다도 높은 편이다. 특히 비빔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성인병과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높인다. <br/><br/><br/>염창동의 ‘손여사’에서는 8가지 기본 나물들로 채워진 비빔밥을 선보이는 곳이다. 매장의 테이블은 주방을 마주보고 앉는 형태로 주인장의 요리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 다소 좁은 매장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테이블 회전이 빠르고 포장도 가능해 언제든지 손 여사의 정성 깊은 솜씨를 맛볼 수 있다. ‘손 여사’의 나물비빔밥은 최소한의 간만 사용해 식재료 고유의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숙주, 도라지, 표고버섯, 당근, 고사리, 건채 취나물, 시금치 등 다양한 나물들이 있으며 비빔밥에 들어가는 자연산 나물들은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채취해 올라온 것들이다. 시금치는 남해의 지인이 보내준단다. 가마솥에 재료를 넣고 직접 끓여 만든 맛 간장과 매실엑기스를 넣은 매실고추장은 비빔밥의 풍미를 더한다. 각종 재료를 넣고 푹 우려낸 육수가 일품인 육개장과 맛깔스러운 샐러드 소스를 얹은 소불고기덮밥도 유명하다.  <br/> <br/><br/><br/> <br/><br/>  <br/><br/><br/>당산동 바오담 ‘곤드레 비빔밥’ <br/><br/><br/>구수함이 매력, 맛과 영양 조화이룬 별미 <br/><br/><br/>곤드레는 강원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산나물로 예전에는 봄철 춘궁기에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식재료였다. 보통 쌀 위에 얹어 밥을 지은 후 양념장을 넣어 비벼 먹는데 맛이 부드럽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등 영양도 풍부하다. 열량이 낮고 거친 섬유소가 많아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br/><br/><br/>요즘에는 곤드레 나물에다 다양한 재료를 함께 섞어 먹으니 균형 잡힌 건강식이자 별미로 자리 잡았다. 영등포구청 인근에 위치한 ‘바오담’은 퓨전 떡 카페로 떡을 이용한 색다른 브런치로 알려진 곳이다. 떡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가 가득한 매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색다른 공간이다. <br/><br/><br/>‘바오담’의 대표 식사 메뉴인 곤드레 밥을 주문하면 ‘보기 좋게 담다’라는 순 우리말인 ‘바오담’의 이름처럼 정갈한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온다. 곤드레 나물을 넣어 볶은 밥과 노란 달걀지단, 가늘게 썬 채소, 부드러운 순두부와 입맛 당기는 양념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커피를 포함한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대부분의 재료는 강화도의 바오담 농장에서 직접 키운 것들이다. 천연재료로 맛과 색을 낸 다양한 떡도 함께 판매하며 주문의뢰도 받고 있다. <br/><br/><br/> <br/><br/><br/>  <br/><br/><br/>목동 아빠곰탕 ‘한우육회비빔밥’ <br/><br/><br/>싱싱한 붉은 소고기, 살살 녹는 맛이 일품 <br/><br/><br/>육회는 한민족이 예로부터 즐겨먹던 식재료다. 갓 도축한 신선한 소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특유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과 감칠맛이 나는데 소고기 맛을 좀 안다하는 사람들은 꼭 찾는 메뉴다. 소고기 육회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철분과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다. 빈혈이나 피부미용, 자양강장 등에 효능이 있으며 식욕과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br/><br/><br/>목동의 ‘아빠곰탕’에서는 신선한 한우 홍두깨살을 특제 소스로 버무린 전통육회비빔밥을 선보인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오픈된 주방에서 직접 고기를 손질하고 일일이 양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질반질한 놋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육회비빔밥은 초록의 채소와 붉은 소고기, 노란색 달걀노른자가 어우러져 눈이 즐거운데 생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손님이라도 한번쯤 도전해보게 만드는 비주얼이다. <br/><br/><br/>새콤달콤한 고추장소스를 넣어 쓱쓱 비벼먹으면 입 안에 고소함이 가득 채워진다. 비빔밥을 주문하면 작은 그릇에 곰탕이 함께 나온다. 사골과 소뼈, 양지, 사태를 넣고 25시간을 우려낸 진한 육수가 일품이다. 신 메뉴인 불고기비빔밥도 인기다. 구수한 석쇠불고기와 채소의 조합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갈비찜, 전골, 수육 등 가족 외식을 위한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2.txt

제목: [Advertorial] 보험료는 낮아도 보장은 업계 최고 수준  
날짜: 2017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22125504004  
ID: 01100301.20170322125504004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하만덕)은 기존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낮추고 환급률은 높인 '건강종신보험 건강의 가치'를 출시했다. 기존 CI(Critical illness)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GI(General illness) 종신보험으로 16대 질병에 대한 고액 보장을 제공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보장 범위를 자랑한다. 또 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장점을 더해 보장폭을 대폭 늘리고 보험료는 낮춰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br/> '건강의 가치'는 기존 CI종신보험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차세대 GI종신보험으로 설계됐다. 일반 CI보험은 발병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형태로 구분해 보험금을 받기가 다소 어려웠다. 이 상품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6대 질병 진단 및 수술 시 최대 1억 원을 선지급 진단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선지급 진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도 일반암으로 재분류해 주계약 선지급 보장에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br/> <br/>이 상품은 기존 건강종신보험을 저해지 환급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낮췄다. 저해지환급형 선택 시, 납입 기간 이내 해지환급금을 50%로 줄여 사망보험금 및 선지급 진단금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최대 15%까지 낮췄다.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수록 고객에게 더욱 유리하게 구성해 장기 유지를 이끌고 나를 위한 종신보험이라는 건강종신보험의 본질을 살렸다. <br/> <br/>또한 저금리, 고령화 기조 속에 효과적으로 질병 치료자금 및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사망 부분 연금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16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진단금을 종신토록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높아진 환급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span class='quot0'>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진단금, 연금의 3가지 핵심 은퇴설계자금을 각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DIY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span>"이라고 소개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3.txt

제목: 보장자산은 올리고 보험료는 내리고  
날짜: 20170320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20130324001  
ID: 01100301.20170320130324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장자산이 2배로 증가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먼저 지급 받아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한생명의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이 상품은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5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정액체증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가입하면 45세 때부터 매년 5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돼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100% 증가하는 것이다. <br/> <br/>'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은 고객이 선택한 은퇴시점 이후부터 체증된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br/> <br/>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저해지환급형으로 개발됐다. 저해지환급형은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형태인 일반형보다 적지만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지고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br/> <br/>이와 더불어 주요 보장(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질병진단, LTC연금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보험료 상승 부담은 없애고 노후보장은 강화했다. <br/> <br/>이 상품의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저해지환급형(50%)과 일반형(100%)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 할인 가능하며 단체취급할인(1.5%)도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4.txt

제목: 역할극으로 '생명존중' 배운다  
날짜: 20170320  
기자: 김진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20130315003  
ID: 01100301.2017032013031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강서구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도입한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23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역할놀이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r/> <br/>2016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사망자 10만명 당 자살이 7.4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운수사고(4.9명)나 암(2.9명)으로 인한 사망보다 월등히 많다. 강서구는 청소년들이 가상의 상황극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일깨우도록 역할놀이로 접근하기로 했다. 자살충동에 휩싸이는 과정과 극복 과정을 간접 경험, 자살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는 취지다. <br/> <br/>청소년은 역할놀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수용과정을 거치면서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나서 자살원인 분석과 우울증 해소 방법에 대해 들려주고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증진교육,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에게 1년 내내 열려있다. 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역할놀이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돕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강서구 자살인구는 10만명 당 24.6명. 구는 올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살예방 계획을 세우고 민관협력 안전망 구축, 자살예방 지킴이, 생명이음 청진기, 50대 정신건강 무료검진 등을 추진 중이다. 문의 02-2600-5887

언론사: 내일신문-1-105.txt

제목: SKC&C-건양대병원, 인공지능 종합병원 만든다  
날짜: 20170316  
기자: 고성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16122150001  
ID: 01100301.2017031612215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KC&C는 16일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대회의실에서 이기열 ITS사업장과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에이브릴 기반 병원 업무 디지털 전환 MOU’ 및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이번 협약은 병원 곳곳에 인공지능 에이브릴과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함으로써 정확한 치료법 제시는 물론 병원 내 모든 의료 정보가 환자와 의사를 위해 움직이는 맞춤형 인공지능 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추진 됐다. <br/><br/><br/> <br/><br/><br/>이를 위해 양 기관은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에이브릴 기반의 환자 및 의료진 맞춤형 인공지능 도우미 서비스 개발 등을 진행한다. <br/><br/><br/> <br/><br/><br/>SKC&C와 건양대학교병원은 다음달  왓슨 포 온콜로지 시스템을 공개한다. <br/><br/><br/> <br/><br/><br/>왓슨 포 온콜로지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방대한 의학 논문과 관련 치료 자료들을 빠르게 분석해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의사들의 정확한 치료법 제안을 돕는 시스템이다. <br/><br/><br/> <br/><br/><br/>SKC&C와 건양대학교병원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에 대한 치료법을 제안하고 환자들도 의사와 함께 분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및 의료진 누구나 개인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에이브릴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자신만을 위한 인공지능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br/><br/><br/> <br/><br/><br/>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에이브릴과 채팅 혹은 대화를 통해 병원 예약은 물론 질병 검진을 위한 사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br/><br/><br/> <br/><br/><br/>진료 후에도 에이브릴과 대화하며 병원진료기록과 자신이 입력한 건강 데이터(건강검진기록, 생활습관 등)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암 등 각종 질병 발생확률을 확인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운동, 식이요법, 생활습관 등을 추천 받을 수도 있다. <br/><br/><br/> <br/><br/><br/>의료진의 경우에는 에이브릴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등 환자 관련 내용을 호출해 보며 현재 치료 상황 등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언론사: 내일신문-1-106.txt

제목: [2017학년도 수시합격생이 전하는 수시합격 노하우\_ 충남대 의예과 이지수 학생(신서고)]“연구에 최적화된 인재로 어필했어요”  
날짜: 20170315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15122140001  
ID: 01100301.20170315122140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앞으로 대입은 정시보다 수시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78.4%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율이 7대 3으로 잡혀가고 있어 ‘수시’ 전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지원 대학 및 전형 유형별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봤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수시 3관왕, 카이스트, 포스텍, 충남 의대 합격 <br/><br/><br/>충남대학교 의예과에 교과전형으로 합격한 이지수 학생(신서고 졸)은 카이스트, 포스텍, 충남대 의대에 동시 합격한 수시 3관왕이다. 합격한 세 곳 중 어디를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싶어 최종적으로 의대를 선택했다. <br/><br/><br/>“면역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신기했고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고2 때는 삼성병원 암 연구실에서 의사가 연구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전문의로서 치료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대가 낫다고 추천해주어 최종적으로 충남대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br/><br/><br/>지수양이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포스텍 잠재력개발과정 캠프의 영향이 컸다. 이곳에서 ‘암과 암 치료법’에 대한 수업을 듣고 면역을 이용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암 면역치료(cancer immunotherapy)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면역 전공 서적을 읽으며 대학과정까지 심화된 공부를 했다. <br/> <br/><br/><br/> <br/><br/>동아리에서 면역 연구, 전공적합성 강조 <br/><br/><br/>지수양은 자신이 면역을 연구하기에 최적화된 인재임을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보여주었다. 수학과 생물 학습동아리에서 수업보다 깊이 있는 심화공부를 했던 것을 어필할 수 있었다. <br/><br/><br/>생물동아리에서는 Active Immune Club 활동으로 캠벨의 생명과학, 로버트 A. 윌리스의 생물학 등 면역에 대해 심화된 공부를 했다. 세포가 고유의 MHC분자로 서로 인식한다는 것, V유전자와 J유전자 조각을 임의로 선택해서 연결하는 exon shuffling 때문에 항원 수용체가 다양하다는 것에서 인체의 신비를 느꼈고 면역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생명과학 수업시간을 빌려 심화 내용까지 연결해서 설명해주기도 했다. <br/><br/><br/>수학동아리에서는 암호에 대해 공부했다. <이미테이션 게임>과 <암호 수학> 등 암호와 관련된 책과 영화를 보며 연구를 할 때 관찰하고 고민하는 자세에 대해 배웠다. <br/> <br/><br/><br/> <br/><br/>청소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봉사활동, 의사 꿈 키우며 소통의 중요성 깨달아 <br/><br/><br/>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지수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하고 정기연주회에도 참여했다. 부원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부원이 좋아할 만한 곡을 선곡할 만큼 오케스트라에 애정이 많았다. <br/><br/><br/>때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시설로 찾아가 연주회도 열었는데 좋은 곡을 선별하고 연습에 매진하자 단원들 간에는 호흡이 잘 맞았고 즐겁게 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객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단원들의 학부모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진을 찍는 반면 정작 음악을 듣고 즐거워해야 할 시설 아이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br/><br/><br/>“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즐겁지 않다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대중적인 곡으로 선곡하자 이전과 같은 불편한 상황 없이 관객과 단원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br/><br/><br/>소통과 리더 역할의 중요성은 동아리 부장을 맡으면서 확실히 알게 됐다. 산만하고 장난 많은 친구가 현미경을 잘 다룬다는 장점을 찾아 역할을 맡기자 열정을 보이며 현미경 사용법을 알려주고 세포 표본을 만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 날 이후 그 친구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질문하고 돕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br/><br/><br/>“그 전에는 친구를 자제시킬 생각만 했는데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분위기도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진정한 리더는 부원을 세심하게 관찰해 팀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r/> <br/><br/><br/> <br/><br/>2명만 1등급, 치열한 경쟁 뚫고 내신 1.0 완성 <br/><br/><br/>신목중학교를 졸업한 지수양은 중2 때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친 후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공부하는 방법과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몰라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만큼 했고 성적도 딱 남들 받는 만큼이었다. <br/><br/><br/>“중2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번에도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를 때려치우리라는 각오로 스퍼트를 올렸는데 늘 70~80점 받던 수학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100점을 받기 위해 ‘이 정도까지 투자해야 되는 구나’ 생각했고 그제야 감을 잡았어요.” <br/><br/><br/>특히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교과서 목차를 보고 암기한 내용을 거꾸로 말해보는 공부법을 적용했다. 교과서를 3번 정도 소리 내어 정독하고 나면 거꾸로 책 목차에 나와 있는 소단원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소리 내서 말해보는 방법이다. 단원에서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체크할 수 있었고 이 공부법은 고3 문이과에서 직업반까지 반이 갈라지니 이과에서 2명밖에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줄곧 내신 1.0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br/><br/><br/>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과 집중할 것을 권한다. 특히 시간을 잡아먹는 비교과 활동을 하다 정작 내신과 수능 공부를 놓치는 수가 있으므로 대입에서 들인 시간에 비해 학생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7.txt

제목: LG 의인상, 첫 외국인 수상자  
날짜: 20170315  
기자: 범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15122317003  
ID: 01100301.20170315122317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LG복지재단(대표이사 구본무)은 지난달 10일 경상북도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사진·39)씨에게 '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br/> 'LG 의인상'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수여되고 있는 가운데 니말 씨는 외국인으로는 첫 수상자이다. <br/> <br/>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니말 씨는 당시 인근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무사히 구했다. <br/> <br/>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얼굴과 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br/> <br/>니말 씨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준데 대해 고마워했고, 할머니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br/> <br/>LG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고 없는 이국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니말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08.txt

제목: 흡연여성 혈중 독성물질 3배  
날짜: 20170310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10134431003  
ID: 01100301.20170310134431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보다 혈중 독성물질이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인 다이옥신,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을 통틀어 이른다. 이로 인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출산장애, 암 등이 일어난다. <br/> <br/>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21∼73세의 건강한 성인 401명(남 232명, 여 169명)을 흡연자(190명)와 비흡연자(211명)로 나눠 혈청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span class='quot0'>여성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폴리염화바이페닐(PCB 156, PCB 167, PCB 180) 농도가 최소 2.7배에서 최대 3.5까지 높았다</span>"고 10일 밝혔다. <br/> <br/>남성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견줘 다이옥신류로 분류되는 PCB 157의 농도가 2.3배에 달했지만, 다른 성분들은 여성의 위험도에 미치지 않았다. <br/> <br/>폴리염화바이페닐 성분뿐만 아니라 디디티 등의 유기염소계 살충제 농도도 여성의 경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3.2배에 달했다. 이런 성별 차이를 두고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대사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흡연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br/> <br/>연구팀은 "체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쌓이면 그만큼 건강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법적 규제를 통해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경우도 흡연자의 체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게 확인된 만큼 향후위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이 연구는 식약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국제학술지 '역학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언론사: 내일신문-1-109.txt

제목: [3월의 맛]바다의 귀족, 바다의 쇠고기 ‘참치’  
날짜: 20170309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9102850001  
ID: 01100301.20170309102850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종합영양제라 불릴 만큼 최고의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꼽히는 참치. 참치의 매력은 영양가도 뛰어나지만 부위마다 또 먹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참치 마니아들은 참치는 먹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고들 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단박에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맛은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먹다보면 알 것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 묘한 맛에 점점 매료된다는 참치. 3월의 맛으로 ‘참치’를 소개한다. <br/> <br/><br/><br/> <br/><br/>DHA 풍부한 뇌 영양제, 필수 미네랄의 보고 <br/><br/><br/>‘바다의 귀족, 바다의 쇠고기’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많은 다랑어와 새치 종류를 통틀어서 ‘참치’라고 부르며, 어종 중 가장 고가의 생선으로 분류된다. 참치는 영양이 우수해 우주여행 시 먹는 우주 식품으로도 명성이 높다. 고단백 저지방 생선인 참치의 효능은 고도불포화지방산 DHA(Docosa Hexaenoic Acid)가 풍부해 뇌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힌다. 또한 참치에 다량 함유된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 성인병 예방과 심장병의 위험을 줄인다. 뿐만 아니라 참치는 철분, 인, 마그네슘, 셀레늄 등 미네랄도 풍부하다. 풍부한 미네랄은 노화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균형 있는 성장 발육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생선 및 육류 중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해독 작용을 촉진해 암을 예방,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br/> <br/><br/><br/> <br/><br/>부위마다 각기 다른 맛, 알맞은 ‘해동’이 맛의 관건~ <br/><br/><br/>참치는 볼에 있는 살 부분으로 쫄깃쫄깃한 감칠맛이 나는 참치의 특수 부위인 ‘볼살’, 아가미 뒷부분부터 뱃살 앞부분까지로 지방이 그물처럼 고르게 퍼져 마블링이 있으며 고소한 맛을 내는 부위인 ‘가마살’, 지방분이 풍부하며 살이 곱고 윤기가 흐르는 부위로 회로 먹거나 초밥의 재료로 쓰이는 ‘등살’, 가장 기름기가 많은 부위로 오도독 씹히는 배꼽 부위와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을 가진 ‘뱃살’로 분류된다. 참치는 잡는 순간 미오글로빈이라는 근육단백질이 바로 변질되기 때문에 급속으로 냉동하게 된다. 그래서 참치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해동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해동이 지나치면 물이 생겨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해동이 덜 돼면 이가 시려 참치의 제 맛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참치의 본연의 맛을 내려면 무엇보다 ‘해동’이 중요하다. 알맞게 해동된 참치는 강한 향신료 대신 고추냉이간장을 이용하고 무순과 함께 먹으면 좋다. <br/> <br/><br/><br/> <br/><br/>우리지역 참치 맛집을 찾아서 <br/><br/><br/> <br/><br/><br/>  <br/><br/><br/>-가격 대비 고급 참치를 맛볼 수 있는 ‘은 참치’ <br/><br/><br/>‘은 참치’는 가격 대비 고급 참치를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지방질이 풍부한 최고급 ‘참다랑어’만을 사용해 회를 내고 있다. ‘은 참치’ 최길 실장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동된 참치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후 주문 즉시 회를 떠서 제공한다. 참치 대배살(오도로), 등지살(세도로), 아까미(몸살), 가맛살(목살), 호호니꾸(볼태기살) 등 다양한 부위를 제공한다. 또 밑반찬(스끼다시)의 가지 수는 줄이고 대신 참치의 질을 높였다. 밑반찬의 가지 수는 많지 않지만 대신  참치튀김, 새우튀김, 무 조림, 회 초밥, 해물볶음 등 은 단품 메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고객만족도가 높다. <br/> <br/><br/><br/> <br/><br/>  <br/><br/><br/>-참치 해동법에 관한 특허 보유한 ‘송재만 참치’ <br/><br/><br/>이곳은 송재만 대표가 오랜 연구 끝에 참치 해동법에 관한 특허(특허 제10-1234291호)를 획득한 참치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참치 해동법에 대한 특허신청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여러 건이 있었고, 심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랜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냉동 참치 해동법 특허는 송 대표가 따냈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 송 대표는 6,000여 회의 일반 해동과 65회의 실험 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송재만 참치’에서는 참치 중의 참치라 일컫는 참다랑어와 눈다랑어 등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특허 받은 해동법으로 육질과 식감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확연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참치뱃살은 담백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하고, 볼때기 살은 육사시미 저리가라 할 정도로 식감이 좋다. <br/> <br/><br/><br/> <br/><br/>  <br/><br/><br/>-식사메뉴 없이 정통 참치회만 고집하는 ‘미다미(味多美)’ <br/><br/><br/>호수 미관광장 앞의 한 자리에서 10년 째 운영 중인 이 집은 가게 입구에 적힌 문구대로 참치 눈물주도 제공하지 않고, 밑반찬(스끼다시)도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마니아층 고객이 많은 이유가 있다. 10년 째 미다미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손충재 실장은 “<span class='quot0'>참치는 클수록 가격도 비싸고 맛도 좋은데 이익은 적게 남더라도 큰 참치만 고집하고, 그날 팔 만큼만 해동해 늘 신선한 참치 회를 제공하는 것이 철칙</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점심에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식사메뉴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것도 오로지 정통 참치회(사시미)만 집중하기 위해서</span>”라고 한다. 또 참치 전문점에 흔히 있는 바(Bar)가 없이 개별 공간만으로 구성돼 조용하고 오붓한 분위기에서 외식을 즐기기에 좋다. <br/> <br/><br/><br/> <br/><br/>  <br/><br/><br/>-질 좋은 1등급 참치만 제공하는 ‘홍진참치’ <br/><br/><br/>홍진참치는 국립 암센터 앞에서 7년, 현재 정발산동 자리에서 2년째 문을 열고 있는 장수 참치 전문점. 이 집은 질 좋은 1등급 참치만 제공하는 참치 맛 집으로 단골고객이 많다. 최운식 실장은 “작은 참치는 뒷맛이 느끼하지만 큰 참치는 기름 맛이 다르다. 큰 참치는 느끼한 맛도 비린 맛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치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같다”고 한다. 홍진참치는 밑반찬(스끼다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격 대비 질 좋은 참치를 제공하기로 입소문이 났다.  <br/><br/><br/>스페셜, 특 스페셜, 특선, 홍진 스페셜 등 참치 회 뿐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선보이는 점심특선(1인 1만9,000원)도 인기다. 고객에게 영화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진행 중이다. <br/> <br/><br/><br/> <br/><br/>  <br/><br/><br/>-착한 가격, 무한리필 ‘참치愛난’ 웨스턴돔점 <br/><br/><br/>웨스턴돔 앞에 위치한 이곳은 스페셜 무한리필 참치 메뉴를 1인 1만4,900원의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일반 일식집에 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치와 곁들여 사케를 즐기기에 좋은 이 집은 가격 대비 질 좋은 참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젊은 데이트 족이나 직장인들 고객이 많다. 웨스턴돔점 공원재 실장은 “참치는 크기 별로, 부위 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양껏 즐기기에는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메뉴일 수밖에 없었지만 참치愛난에서는 마음껏 참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 스페셜 무한리필 참치 외에 생 연어를 추가한(1인 1만7,900원)메뉴와 1~4인까지 다양한 무한리필 세트도 있다. 단 특수 부위는 무한리필 제외, 다이닝 타임은 3시간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10.txt

제목: WHO "유아 때 공기오염 노출되면 암 발병 늘어"  
날짜: 20170307  
기자: 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7123835001  
ID: 01100301.2017030712383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170만명이 오염된 환경 때문에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WHO의 '지속 가능한 세계를 물려주고 있는가? : 어린이 보건과 환경 지도보고서'에 따르면 유아기에 공기 오염에 노출된 어린이는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뇌졸중 암 등에 걸릴 위험이 증가했다. <br/> <br/>WHO는 지난해 공기 오염과 사망 관계를 다룬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인구 사망원인의 4분의 1이 각종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br/> <br/>WHO는 "환경오염은 신체 기관이 아직 자라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며 "어린이의 작은 몸과 기도, 약한 면역체계는 더러운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서 더 약해진다"고 말했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7만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공기 오염, 간접흡연과 관계가 있는 호흡기 질환으로 숨지고 있었다. <br/> <br/>또한 36만1000명은 식수 오염과 위생시설 미비로 설사, 탈수증 등을 일으켜 목숨을 잃었다. <br/> <br/>WHO는 환경오염은 태아 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조산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 때문에 평생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 <br/>WHO는 설사, 말라리아, 폐렴 등 질환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나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어린이 20만 명의 사망원인이 되는 말라리아는 모기 서식지 퇴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WHO의 공중보건·환경·사회적 요인 담당 국장인 마리아 네이러는 "<span class='quot0'>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수질개선과 더 청정한 연료 보급 등 오염을 줄여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span>"며 각국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관련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br/> <br/>또한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폐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폐기물이 새로운 환경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전기 및 전자 폐기물 분량은 2014년보다 19% 늘어난 50만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r/> <br/>WHO는 "폐전자제품 쓰레기는 어린이들에게 두뇌기능 저하, 집중력 약화,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1.txt

제목: KB금융그룹 블록체인 활용 기술특허 출원  
날짜: 20170307  
기자: 성홍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7123828002  
ID: 01100301.2017030712382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7일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관련 기술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br/> <br/>특허의 주요 특징은 기존 일체형으로 개발되는 앱과 달리 서비스 부분과 보안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앱 업그레이드 없이도 최신 보안 솔루션을 실시간 적용함으로써 보안 대응력 강화했다. 또 보안부문의 암·복호화키를 블록체인망에 보관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KB금융측은 설명했다. <br/> <br/>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고객들은 보안 솔루션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앱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다. <br/> <br/>KB금융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본 모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내부 보안 검증절차까지 마쳐 기술과 보안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단계</span>" 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출시되는 대고객 서비스 앱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span>" 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KB금융그룹은 작년 11월 특허 출원한 '음파를 활용한 폰투폰 결제시스템'을 캄보디아에서 출시한 'Liiv KB 캄보디아' 앱에 올해 2월 적용해 상용화한 바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2.txt

제목: [박철의 금융교실] 올 봄에는 '장롱보험' 정리하기 어때요?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6125501003  
ID: 01100301.20170306125501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일전에 서랍정리를 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다. 서류뭉치 속에서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보험증권'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br/> <br/>그런데 비단 필자만의 얘기는 아닐 듯싶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서랍이나 장롱 속에 보험증권을 묻어 둔 채 잊고 지내기 일쑤다. <br/> <br/>오죽하면'장롱보험'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장롱보험이 한 두 개씩 늘어나다 보면 어떤 보장은 필요 이상 넘쳐나고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있거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br/> <br/>또 나이와 결혼·출산 등 가족관계의 변화와 직업·경제여건·건강상태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보험을'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생긴다. <br/> <br/>보험도 시간 지나면 리모델링 <br/> <br/>예컨대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면'태아보험'이나'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보험 리모델링'이다. <br/> <br/>보험 리모델링은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장내용·보장기간·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중복되거나 넘치는 부분은 정리(해약)하고 모자란 부분은 특약을 추가하거나 신규가입을 통해 채우는 것이다. <br/> <br/>보험'리모델링'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험증서를 한곳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가입일과 만기일, 보험료와 보장내용·특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보장내용이 겹치거나 정작 중요한 보장이 빠져 있다면'리모델링'은 필수다. 예컨대, 의료실비보험은'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몇 배로 내고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는 얘기다. <br/> <br/>따라서 의료실비보험에 중복가입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 두고 반드시 해지해서 보험료 거품을 빼야 한다. '암'등 특정 질병에만 보장이 치우쳐 있는 경우에도 일부 해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훌훌 털고 해약하는 편이 낫다. 대신 부모나 친척 등의'가족력'을 살펴서 그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하거나 필요할 경우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br/> <br/>가족력이라는'렌즈'를 통해 보장할 위험의 초점을 맞추면 보험료부담은 덜면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은 더 확실히 챙길 수 있다. 직업·연령 등을 감안해서 보장(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업무상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정작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꾸로 운전면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만 잔뜩 채워져 있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과 다를 게 없다. <br/> <br/>보험내용과 보장기간 살펴봐야 <br/> <br/>보장내용뿐만 아니라'보장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장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보험은 장기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기간이 10~20년 내지 60~70세 전후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자칫 오랜 기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으면서도 정작 보장이 필요한 때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br/> <br/>이런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통해 적정한 기간까지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요즘에는 100~11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최대한 길게 보장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자. 최소한 평균수명(약 80세)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따로 가입하지 않고 기존보험에'특약'을 이용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br/> <br/>예컨대 보통 40세가 넘으면'암 전용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에'암 보장'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br/> <br/>보험 리모델링은 한 마디로 낡은 보험에'새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장롱 속에 처박아둔 철 지난 헌 옷도 잘만 손질하면 말끔한 새 옷으로 변신한다. 장롱보험도 리모델링을 거치면 꼭 필요한 보장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맞춤형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청명을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빈 가지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로운 입들이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다. 산과 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 빛을 띠고 만개한 꽃들과 따사로운 햇빛이 봄 내음을 물씬 느끼게 한다. 올해 '봄 맞이'는 장롱보험 정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br/> <br/>박철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팀장

언론사: 내일신문-1-113.txt

제목: 전북 익산시 '환경문제'로 골머리  
날짜: 20170306  
기자: 이명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6125454002  
ID: 01100301.20170306125454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북 익산시가 환경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발됐고, 도심 인근에 짓던 축사 신축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혼합유기질 비료공장 인근 주민들은 암 유발을 주장하며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br/> <br/>전북도 등에 따르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익산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주민 80여명 가운데 1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최근 5명이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500m 떨어진 비료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식물성 부산물을 섞어 하루 138톤 규모의 혼합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공장을 가동해 왔다. 폐수 방류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자치단체가 시료 검사 등을 벌였다.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3일 환경부를 방문,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역학조사 의뢰를 위한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경실태 조사를 벌여 암 발생이 환경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에 앞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부지에 지정폐기물을 10년 넘게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가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배터리 처리 후 남은 폐기물을 폐석산 매립재로 사용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폐석산에서 추출한 시료의 45%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br/> <br/>익산시 동산동과 인접한 왕지평야 부근은 축사 신축문제로 업체와 주민간 갈등이 번졌다. 익산시 신흥·동산동 인근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생활쓰레기 야적장 등이 밀집된 곳이다. 인근에 소(4곳) 염소(3곳) 닭(1곳) 등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신축이 진행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통해 돼지(2㎞) 닭·오리·개(1㎞) 소·젖소·말·사슴·양(300m) 축사와 민가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축사의 경우 1㎞ 이상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br/> <br/>주민들은 그러나 기존 악취발생 시설에 축사가 추가될 경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익산시는 지난 1월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중지하게 된 업체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축사 신축 허가와 공사중지를 번갈아 결정한 익산시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br/> <br/>전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경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4.txt

제목: [기고] 봄 냉이의 추억  
날짜: 2017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3125800004  
ID: 01100301.20170303125800004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봄바람에 찬 기운이 서려있어도 유난히 햇살 좋은 날이면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은 소쿠리를 끼고 두렁에서 냉이를 캐셨다. 아주머니들이 피워낸 이야기꽃만큼 소쿠리에도 냉이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 날 저녁밥상에는 냉이 된장국이 올라왔다. 밥상 위에 올라온 봄 덕분에 식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별한 조미료도 없이 된장으로 끓인 냉잇국은 어린 나에게 봄맛을 알게 했다. 어릴 적 먹었던 냉잇국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음식 중 하나이다. <br/> <br/>겨우내 눈비를 맞고 자란 냉이는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봄나물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뿌리는 인삼보다 좋은 명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뿌리째 먹는 냉이는'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냉이 뿌리를 보면 여러 갈래의 잔뿌리와 길고 곧게 뻗은 모습이 인삼을 닮아있다. <br/> <br/>냉이는 여느 채소보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A가 풍부해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에 기력 회복을 위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아연과 망간도 풍부하고 몸에 독소를 없애주는 셀레늄도 들어있다. <br/> <br/>두렁이나 들녘 길가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까지 풍부해 냉이와 같은 제철음식은 그야말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br/> <br/>요즘 시장에 나가면 냉이뿐만 아니라 쑥, 미나리, 달래 등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채소가 반긴다. 봄에 나는 제철식재료에는 소생(甦生)의 기운이 깃들어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움츠렸다가 파릇한 얼굴을 내밀고 올라온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br/> <br/>또한 잠자고 있던 미각을 깨우는 알람이기도 하다. 봄나물 특유의 향긋함과 쌉싸래함은 봄이 선사한 계절의 맛이다. <br/> <br/>농촌진흥청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제철 식재료를 소개하고 우리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이달의 식재료'를 소개한다. 3월에는 이른 봄 한 달간 잠시 먹을 수 있는 별미 식재료인 풋마늘을 선정했다. 풋마늘은 예로부터 초절임과 장아찌 등으로 먹어온 식재료이자 암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성 농산물이다. <br/> <br/>최근에는 음식을 통해 계절의 맛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사는 것이 바빠서 또는 한 끼를 때워야 해서 쉽게 찾는 인스턴트식품은 그야말로 제철이 없다. 자연에서 난 재료로 만든 한 끼는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철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계절의 기운을 먹는 것과 같다. <br/> <br/>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할 온화한 날씨도 이어질 것이다. <br/> <br/>혹시 계절변화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면 가까운 전통시장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맛은 물론 영양까지 물오른 봄나물과 제철채소들이 반겨줄 것이다. 가격 또한 착하다. 저렴하게 구입하지만 만족도는 가격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손수 캐온 봄나물을 소박하게 진열하고서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다 보면 마음에도 봄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br/> <br/>아침에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부탁했다. 저녁 식사로 냉이 된장국을 끓여달라고 말하니 아내도 흔쾌히 좋다 한다. 이심전심이었나 보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고 한다. <br/> <br/>정황근 농촌진흥청 청장

언론사: 내일신문-1-115.txt

제목: KB국민은행, 방카슈랑스 보험 가입 이벤트  
날짜: 20170302  
기자: 성홍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302125510003  
ID: 01100301.20170302125510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r/> 이번에 지급되는 포인트리는 KB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플랫폼인'리브메이트(Liiv Mate)'를 통해 적립된다. 제휴사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교환하거나 포인트리 쇼핑몰에서 상품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br/> <br/>또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포인트리를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br/> <br/>KB국민은행은 암, 뇌출혈 등 주요 3대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각종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성 형태의 상품뿐만 아니라 저축기능이 부가된 페이백(Pay-back) 형태의 보장성보험도 있다. <br/> <br/>특히 페이백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납입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월 생활자금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설계되어 최근 가입이 부쩍 늘고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6.txt

제목: “내 가족 건강 위하는 마음 가득 담았어요”  
날짜: 2017022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7121729001  
ID: 01100301.2017022712172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br/><br/><br/> <br/><br/><br/>설 지나 전화를 하니 명절 선물로 제품이 다 소진돼 전시품이 없단다. ‘푸실’의 박은영 사장(43·죽전)은 “<span class='quot0'>열심히 만들어 놓을 테니 2주 후에 오세요</span>”라고 말했다. 이국적이기도 한 상호명이 무슨 뜻인가 물으니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고 한다. 이곳은 건강 먹거리를 수제로 만들어 파는 작은 상점인데, 박씨의 가족 스토리가 담겨있다. <br/><br/><br/> <br/><br/><br/>“친정아버지가 2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암 투병을 하실 때 친정엄마가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만드셨어요. 그때 보고 배운 것이 많죠. 엄마는 5년 묵혀 간수를 뺀 소금을 물에 씻어 말린 후 볶아서 양파, 스피룰리나를 섞어서 건강소금을 만드셨어요. 매일아침 해독주스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렸죠.” <br/><br/><br/> <br/><br/><br/>친정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건강 먹거리 습관을 남기고 가셨다. 박씨는 건강 먹거리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만들어 주다가 아예 상점까지 내게 됐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푸실’에서 만들어 파는 제품은 다양한 수제 과일청(백향과, 블랙베리 레몬, 약도라지배, 레몬생강, 제주레몬, 자몽, 애플시나몬)과 해독주스, 수제 주먹밥 가루, 수제 과일 칩, 야채 해산물 맛 간장 등이다. <br/><br/><br/> <br/><br/><br/>“건강소금도 팔았었는데 5년 이상 묵힌 소금이 떨어져서 지금은 못 팔고 있어요. 다시 소금에 세월을 쌓아야겠죠? 맛 간장은 설탕 대신 과일과 야채, 해산물로 맛을 내고,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과일 칩은 제철 과일을 썰어서 식품 건조기에 직접 말려요. 화학조미료 없이 야채와 해산물을 볶아서 만든 주먹밥 가루도 엄마들에게 인기랍니다.” <br/><br/><br/> <br/><br/><br/>카카오스토리에도 홍보하면서 전국에서 제법 주문이 들어온다. 해독주스는 지역은 당일 제조판매를 하지만, 타 지역은 만든 후 급랭해 택배로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봄 신상품으로 무, 다시마, 멸치, 새우, 우엉을 말려 넣은 다시 팩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할 계획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17.txt

제목: 기업PR특집-1  
날짜: 2017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4122730001  
ID: 01100301.20170224122730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사회공헌 '눈에 띄네' <br/>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징은 체계적이고 일상적이란 점이다. <br/> <br/>수출입은행은 2012년 초 사회공헌을 희망씨앗으로 브랜드화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을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탈북가정의 사회적응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등 세가지 테마로 활동분야를 분류한 것. <br/> <br/>특히 수출입은행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신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탈북가정에 대한 지원에 주력,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일회성 행사후원 보다는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적 후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br/> <br/>수출입은행이 새로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게 된 남다른 동기도 있다. 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등 수출입은행만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을 체감했다는 설명이다. <br/> <br/>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 개별 다문화가정도 후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고심거리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 후원도 적극 거들고 있다. <br/> <br/>탈북민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그룹홈 '가족'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비 등을 후원한다. 또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사업에 후원하는 등 탈북자녀의 교육사업도 중점 지원한다. 매년 탈북민 고용 사회적기업을 후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br/> <br/>글로벌 사회공헌도 수출입은행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수출입은행이 주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특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봇벵 마을과 공공기관 최초로 '개도국 1사1촌'자매결연을 체결해 주목받기도 했다. 우물·화장실·보건실 설치 등 생활시설 개선은 물론 마을 내 중학교 건립 지원 등을 통해 후원의 지속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br/> <br/>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아시아여성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학생 3명을 초청, 한국수출입은행 EDCF 인턴십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br/> <br/>한편 수출입은행은 설을 앞둔 지난달 17일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 무료급식소를 찾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갖기도 했다. 이덕훈 행장 등 이날 봉사에 참가한 '수은 희망씨앗 나눔 봉사단'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떡만두국을 함께 만든 뒤 급식소를 찾은 이주민들에게 배식했다. 봉사단은 배식봉사 직후 이주민을 위한 무료병원과 다문화어린이 교육시설인 지구촌학교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구촌사랑나눔에 전달했다. 이 행장은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설을 앞두고 멀리 고향을 두고 온 이주민들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무료급식소를 찾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거래소] 재테크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KRX금시장' <br/> <br/> <br/> #서울 종로에 삼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는 50대 A부장 가족은 오피스텔을 처분한 자금(1억5000만원)을 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종로 금은방, KRX금시장 등 세곳에서 금을 사들이기로 했다. 아들인 대학생 B군은 KRX금시장을 이용키로 하고 K증권사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했다. 스마트폰(MTS)을 이용, 2월 20일 KRX금시장 종가 기준 금 1kg을 4560원만원(1g당 4만5600원)에 샀다. 수수료(0.2%) 9만1200원을 더한 매수비용은 4569만1200원. <br/> <br/>A부장은 은행에서 20일 기준 가격인 1g당 4만6004원에 골드뱅크 1kg(4600만4000)을 샀다. 수수료(1%) 4만60040원을 더한 매수비용은 4646만4040원. <br/> <br/>할아버지 C씨는 금은방에서 20일 귀금속중앙회 골드바 소매시세(금은방 수수료 포함)인 1g당 4만7840원에 1kg(4784만원)을 샀다. 부가가치세(10%) 478만4000원을 더한 매수비용은 5262만4000원. 며칠 뒤 금값이 10% 오르자 A부장 가족은 금을 팔기로 했다. <br/> <br/>B군은 KRX금시장에서 1g당 10% 상승한 5만0160원 가격에 1kg(5016만원)을 팔았다. 매도 수수료(0.2%) 10만320원을 제하니 수익률은 9.58%(436만8480원)였다. (5016만원-4560만원-9만1200원-10만320원 = 436만8480원) <br/> <br/>A부장은 골드뱅킹 계좌에서 1g당 10% 상승한 5만604원 가격에 1kg(5060만4400원)을 팔았다. 매도 수수료(1%) 50만6044원과 배당소득세(매매차익의 15.4%)55만9685원을 제하고 나니 수익률은 6.68%(3074만631원)였다. (5060만4400원-4600만4000원-46만40원-50만6044원-55만9685원 = 3074만631원) <br/> <br/>할아버지 C씨는 금값 10% 상승에도 금 1kg을 팔 수 없었다. 금은방 수수료와 부가세 10%(478만4000원) 등을 고려 되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 결국, 은행이나 금은방보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할 경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br/> <br/>KRX금시장이 불확실성 시대 재테크의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소득세(15.4%)와 부가가치세(10%) 등 세금비용이 없고 매매 수수료(0.4%내외)가 싸 시장가격 상승률을 투자수익에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RX금시장으로 금 투자자들 발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br/> <br/>한국거래소측은 "<span class='quot1'>KRX금시장은 투자자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금을 공개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손쉽게 매도할 수 있으며 금 관련 투자상품 중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span>"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 차익거래와는 달리 금 실물 인출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한국예탁결제원·해당 증권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br/> <br/>KRX금시장은 2014년 개설 이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br/> <br/>일평균 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2014년 5555g, 2억4000만원에서 2017년 2월 20일 현재 2만1705g, 9억8000만원으로 4배나 급증했다. <br/> <br/>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국내 금시장 규모는 연간 150~160톤으로 일평균 600kg으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0%(75~80톤)로 추정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2'>KRX금시장은 음성거래 양성화를 위해서 미니금(100g) 상장,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국내 금 거래의 5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현재 KRX금시장 거래 규모(연간 약 4톤)의 20배 이상 성장 여력이 있는 셈이다. <br/> <br/>또 금시장관련 ETF(상장지수펀드) 등 연계상품 상장에 따라 KRX금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br/> <br/>저금리 기조와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상황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가·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br/> <br/>[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피해 털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br/> <br/> <br/> 동양생명은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조4295억원, 당기순이익 344억원의 잠정실적을 최근 발표했다. 총자산은 26조7736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br/> <br/>매출액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 전년대비 58.1% 성장했다. 전체 월납초회보험료는 757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늘었고 종신·CI·정기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판매가 25.6% 증가한 34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성상품 중심 채널인 방카슈랑스에서 보장성상품의 월납초회보험료가 전년대비 262.7%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br/> <br/>고객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고객 민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누적 민원은 총 983건으로 전년대비 48.0%나 줄었다. 올해는 민원감축을 넘어 '민원 0(제로)'를 고객서비스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도전할 예정이다. <br/> <br/>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266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정 반영해 규모가 줄었다. <br/> <br/>동양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전체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손실로 가정해 충당금을 쌓기로 했으며,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손충당금을 확정하고 재공시 및 결산 재무제표에 재반영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동양생명은 이번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span class='quot4'>고객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span>"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 1조8581억원에 이르며,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로부터 6000억원대 증자를 받기로 예정돼 있어 육류담보대출 피해 손실과 RBC 제도 변화(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를 적용해도 2017년 지급여력비율(RBC) 200% 이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br/> <br/>[ING 생명] 질병·장해에도 연금자산 보장 <br/> <br/> <br/> ING생명(대표이사 정문국)은 질병과 장해에도 연금자산이 보장되는 '무배당 오렌지 케어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고객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발생해도 연금자산을 지키는 두 가지 기능을 탑재됐다. 연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암, CI(중대한 질병 및 수술, 중대한 화상)나 고도장해를 진단받으면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웰스케어지급금'을 지급하며 재해로 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최초 1회, 36회 확정)을 추가로 보장한다. 더불어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암 또는 CI를 진단받게 되면 기본생존연금을 10년간 두 배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낮추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암종신연금형, CI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암종신연금형, CI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등 총 7가지 옵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기연금개시 옵션'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12회 이내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하는 기능도 있어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br/> <br/>고객은 펀드수익률과 운용사 평가를 거쳐 엄선된 펀드 라인업을 통해 투자성향과 시장트렌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채권형펀드 등 총 16종의 펀드로 구성된 '고객설계형'과 자산운용사에 일임하여 투자하는 '운용사경쟁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펀드자동재배분, 라이프사이클 펀드배분, 손절매옵션, 안심플러스옵션 등 다양한 투자관리 옵션도 갖추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8.txt

제목: 올해 유가전망 30~70달러 '널뛰기'  
날짜: 20170224  
기자: 김은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4122720001  
ID: 01100301.20170224122720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오를 것인가, 아니면 30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정답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달렸다고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가 23일 전했다. <br/>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5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스라시 인근 '루말리아' 정유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파이프밸브를 잠그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가 전망은 언제나 다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유가만큼 널뛰기 전망세는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br/> <br/>씨티은행의 경우 올해 70달러대로 오를 것이라고 믿는 측이다. 석유수요는 오르는데, 공급은 계속 축소된다는 것이다. 물론 씨티은행도 유가상승의 걸림돌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배럴당 53~58달러를 오가는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은 적다"며 "석유 재고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급 축소가 보다 현실화할 때까지는, 유가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가 되면 유가가 큰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씨티측 전망이다. <br/> <br/>하지만 현재로선 유가 상승보다 하락세를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제쳐두더라도 단기간 유가폭락을 가져올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자 블룸버그통신보도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이 매수포지션을 건 석유 물량만 10억배럴에 달한다. 이는 사상최고치 기록이다. 이처럼 막대한 매수물량이 몰려 있다는 건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투기세력들 스스로 자신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 반대 포지션으로 우르르 쇄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 초반에서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매수 포지션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br/> <br/>코메르츠방크 원자재분석팀장 유진 웨인버그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석유 공급이 충분하고 앞으로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 70달러대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50달러 밑으로 내려가 40~45달러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br/> <br/>일부 분석가들은 보다 비관적이다. 네덜란드계 은행인 ABN암로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향후 6개월 내 추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 이전의 OPEC 감산 합의로 현재 하루 석유공급량은 합의 이전보다 100만배럴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OPEC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br/> <br/>국제유가는 안정세인 반면 미국 내 석유와 정유제품 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원유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이고 가솔린 재고량은 수십년 만의 최고치다. OPEC 감산합의가 시장의 공급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리비아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늘면서 감산합의를 상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만약 OPEC이 오는 6월 모임에서 기존 감산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제 원유공급량은 지난해 수준으로 금세 돌아가 국제유가를 추락시킬 전망이다. <br/> <br/>ABN암로 선임연구원인 한스 반 클레프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OPEC이 감산을 포기한다면 국제유가는 2년 전 바닥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최악의 경우 배럴당 30달러로 주저앉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현재의 국제유가에는 OPEC의 기존 감산합의뿐 아니라 향후 추가감산 기대감까지 반영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클레프 연구원은 "<span class='quot1'>OPEC이 유가상승에 기여할 부분은 거의 없는 반면 급락시킬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월스트리트저널은 JP모간 애널리스트 데이빗 마틴의 말을 인용해 "<span class='quot2'>미국 내 원유와 정유제품 재고량이 향후 수주 동안 현재 추세처럼 늘어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5~10달러씩 속락하는 건 시간문제</span>"라고 전망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19.txt

제목: 상명대, 피아니스트 박지원 교수 독주회  
날짜: 20170223  
기자: 장세풍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3101450001  
ID: 01100301.20170223101450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상명대(총장 구기헌)는 이 대학 음악학과 박지원 교수가 27일 저녁 7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연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박 교수는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미국 유학 중 각각 1위로 입상하고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에서 개최된 많은 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해 연주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생명사랑음악회, 기쁨터음악회, 희망음악회, 서울대병원 암 환우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자선연주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20.txt

제목: [우리 지역 수시 합격자 인터뷰- 인제대학교 의예과 박주연 학생]부담스러운 수능 대신 안정적인 학생부종합전형 선택  
날짜: 2017022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3101449003  
ID: 01100301.20170223101449003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대입 수시모집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 2018학년도에는 대입 정원의 73% 이상을 수시로 선발한다. 10명 중 7명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현실이다 보니 나에게 적합한 수시 전형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산 내일신문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수시합격 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합격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br/> <br/><br/><br/> <br/><br/>의학 동아리 활동하며 전공적합성 키워 <br/><br/><br/>그동안 공부해온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쏟아내야 하는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도전이다. 박주연 학생(백마고)은 수능시험 하루 만에 대학 진학의 운명을 다 걸기보다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걷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학교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대학을 목표로 준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택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든든한 배경이 됐다. 내신 성적은 3년 종합 1.17등급으로 주연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제대 의대에 합격했다. <br/><br/><br/>고1 생물시간에 암세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독서와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진로를 확실히 한 후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다. 특히 3학년 때는 의대나 한의대, 간호대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의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전공적합성을 키웠다. 주연 학생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 중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암에 대해 연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꿈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다는 점을 자소서에 상세히 기록했다고 한다. <br/><br/><br/>비교과 활동으로는 영재학급 과정 수료, 과제연구 발표대회, 과학탐구토론대회, 수리논술대회, 독서토론대회, 글로벌커뮤니케이션대회 등에 참여했고 소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동아리는 생물동아리에서 해부와 실험 등의 활동을 했고, 친구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봉사활동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과 학교 실험실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br/><br/><br/>주연 학생은 고등학교를 선정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관련 지원활동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백마고를 1순위로 지원했다. 실제로 영재학급부터 다양한 과학대회 개최와 과학 활동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   <br/> <br/><br/><br/> <br/><br/>중3 겨울방학, 고교 성적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 <br/><br/><br/>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중3 겨울방학의 중요성이다.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주연 학생은 몸소 체험했다. 중3 겨울방학 때 부족했던 수학과 국어공부에 매달렸고 고등학교 입학 전 학습 양을 늘리고 공부했더니 진학 후 바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br/><br/><br/>주연 학생은 시키는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문제집 선택부터 공부방법까지 스스로 판단해 선택했다. 학원에서 추천해주는 문제집 보다 서점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문제집을 직접 골라 풀었고, 인강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신중히 선택해 골라 들었다. 공부는 학원수업과 인강, 자기주도학습을 병행했다. 개념 정리의 경우 학원보다는 인강을 통해 더 꼼꼼히 정리할 수 있었고, 학원 수업은 심화 학습과 사고력 문제 등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 학원수업이나 인강 등 듣는 공부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과목들을 스스로 정리하며 공부했다. 특히 오답과 개념을 결합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공책에 정리해 놓고 시험 막판까지 살펴보며 숙지했다. <br/><br/><br/>수학의 경우 <수학의 바이블>로 개념을 다진 후 <쎈수학>과 <오르비>, <한권에 완성하는 수학> 교재 등을 통해 기출문제와 고난도 심화문제까지 풀며 공부했다. 국어는 1학년 때는 내신이 1등급이었으나 2학년 때 내신이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학 부분이 약한 것 같아 2학년 겨울방학 때 문학 부분을 꼼꼼히 정리하며 약점을 보완했다. <br/><br/><br/>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모든 문학작품을 정리했고, 특히 시 같은 경우 작품을 공책에 옮겨 적으며 시 자체를 음미하고자 노력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작품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문학이 인생에 주는 교훈 등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국어 과목 또한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어 성적은 다시 1등급으로 진입했다. <br/><br/><br/>  <br/><br/><br/>조급함 내려놓고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하며 실력 쌓아 <br/><br/><br/>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했던 고3 시절, 주연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친구들과 모의고사 모임을 만들어 아침에 국어 1교시 모의고사를 치르며 하루를 시작했고, 3~4교시에는 수학 모의고사를 풀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쉬는 시간에는 간식을 함께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덕분에 마음 서늘해지기 쉬운 그 시간이 재미있었던 추억이 됐다고 한다.  <br/><br/><br/>지금 현재 고3들에게 수능 시험일이 300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 때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주연 학생은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후배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해서 쌓아간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r/><br/><br/>“고3을 보내고 났더니 그때 그렇게 걱정하며 지낼 일이었나 싶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고3 3월이 되자 공부해야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수능이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한 달간 공부했더니 문제집 한권이 끝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쌓아 올리니 여름방학 때쯤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고3이 됐다고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언론사: 내일신문-1-121.txt

제목: [현장취재\_ 2017년 우리지역 학교별 특색있는 졸업식 현장]자신의 꿈 발표하며 새로운 출발 다짐해요~  
날짜: 2017022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3124954002  
ID: 01100301.20170223124954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2월은 졸업식으로 분주하다. 천편일률적인 지루한 졸업식 대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특색 있는 졸업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간 가르쳐 주신 스승과 물심양면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학교별 이색 졸업식 현장을 찾았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 9일에 진행된 목운초등학교 제8회 졸업식은 ‘꿈과 비전이 있는 졸업식’이었다. 목운초 가온누리 오케스트라의 축하연주로 시작된 졸업식은 8개 재능부문으로 나눠 졸업생 전체에게 ‘성공하는 목운어린이상’ 수상이 진행됐다.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축사 후에 진행된 꿈 발표 시간에는 졸업생이 반별로 무대에 모두 올라가 한 명씩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교장 선생님과 다짐의 악수를 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 장수초등학교 제11회 졸업식은 ‘가족과 공감하는 졸업식’으로 졸업생 85명과 그 가족이 나란히 좌석에 앉아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특히 전체 졸업인원 85명이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과 함께 모두 부문별 으뜸상을 수상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 14일에 진행된 양강초등학교 졸업식 역시 가족들이 함께하는 졸업식이었다. 129명의 졸업생들이 까만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의젓하게 앉아 식에 참석했다.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장과 함께 각각 공로상, 봉사상, 성실상, 예절상, 우정상, 문예상, 예체능상을 수여했다. 졸업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6년간의 학교생활의 버팀목이 되어 준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 제6회 목운중학교 졸업식은 ‘꿈과 희망이 영그는 목운 졸업축제’로 진행됐다. 목운중 아마빌레 어머니 합창단과 두드림 동아리의 난타 공연으로 축하무대를 열었다. 졸업생 뿐 아니라 축하하러 온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같은 형식이 인상적이었다. <br/><br/><br/> <br/><br/><br/>  <br/><br/><br/> <br/><br/><br/> 같은 날 진행된 제34회 금옥여자고등학교 졸업식은 빨간색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의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들은 자기비하, 여성차별 등 불평불만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뜨리며 나쁜 것들을 훌훌 털어냈다.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불평불만 풍선을 모두 터뜨리면 자신의 소망을 깨알같이 적은 대형 종이비행기를 희망찬 꿈과 함께 힘차게 날려 보낸다. 교장 선생님은 한명 한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행운의 쿠키와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을 격려했다. <br/><br/><br/> <br/><br/><br/> <br/><br/><br/>“<span class='quot0'>암 극복하고 중학교 졸업장 받았어요</span>” <br/><br/><br/>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무려 33번이나 받는 위기를 극복하고 뒤늦게 중학교를 졸업한 만학도 윤창숙씨(65·여), 지난 8일 열린 성지중학교(이사장 김한태) 졸업식에서 공로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상을 받았다. <br/><br/><br/>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윤씨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어린 나이에 농사일, 나무장사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결혼을 한 후 식당을 운영하다 불이 나 모았던 재산을 모두 잃은 후 남편은 사우디에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윤씨는 작은 아이스크림 공장에 취직해 주말에는 식당일을 겸하며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했다. <br/><br/><br/>이제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가정에 여유가 생겼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는 달리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윤씨의 몸에 큰 병이 있는 줄 몰랐다. 59세부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무려 33번이나 받았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순간순간 참아내자 드디어 암 완치 진단을 받았고 꿈에나 그리던 중학교도 졸업하게 됐다. <br/><br/><br/>윤씨는 앞으로 고등학교 2년,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돼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

언론사: 내일신문-1-122.txt

제목: 환절기에 더욱 챙겨야할 건강검진, 잊지 마세요！  
날짜: 2017022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3124950002  
ID: 01100301.2017022312495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의 기세도 한 풀 꺾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추운 겨울동안 잔뜩 움츠려 있던 우리 몸은 환절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부담을 느껴 자칫 탈이 나기 쉽다. 특히 고 연령층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환절기의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질환도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 신체의 큰 이상이 없더라도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자신의 몸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이다. 남천병원 건강검진센터 조은숙 팀장에게 환절기에 챙겨야할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건강검진 왜 중요할까？ <br/><br/><br/>조은숙 팀장은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나다보니 사람들은 건강검진에 대한 두려움과 번거로울 것이라는 부담감을 가진다. 하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우리 몸의 상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또 환절기에는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신체 리듬에 변화가 오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져 무기력증, 빈혈, 피곤함, 어지럼증 등이 유발하므로 충분한 수분섭취와 숙면으로 신체의 리듬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평소 지병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br/><br/><br/>유질환자로 복용 중인 약이 많고 고혈압이나 경련이 있다면 검진 당일 아침 일찍 최소량의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한다. 당뇨는 금식 시점부터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중지해야 하며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등의 항혈전제를 복용한다면 검진 1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한다. 쿠마딘, 와파린,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 투약자는 주치의에게 복용중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장, 뇌혈관스텐트를 삽입한지 1년 이내 또는 심장판막교환수술을 한 경우 약(항혈전제, 항응고제)을 당일 복용하나 출혈의 위험으로 내시경은 가능하지만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수면내시경 또한 검진이후 당일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진표를 작성할 때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br/> <br/><br/><br/> <br/><br/>연령대별 건강검진 주기는？ <br/><br/><br/>건강검진은 4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관심이 많고 주로 검진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스컴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0대 중반부터 건강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br/><br/><br/>연령대별 건강검진 주기를 살펴보면 30대는 신체계측, 청력, 시력, 혈압, 소변검사(단백뇨), 혈액검사(빈혈, 당뇨,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기본검진과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한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검진을 2년 주기로 하고, 위내시경과 상복부초음파는 남녀 공통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br/><br/><br/>40대는 30대 검진 항목에 대장내시경을 3～5년 주기로 진행하고, 간염고위험자는 혈청알파태아단백과 간초음파를 6개월마다 시행한다. 또 저선량폐CT는 매년 검사한다. 50대의 경우 40대 검진 항목에 추가로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와 남성의 경우 전립선검사, 여성의 경우 골밀도검사, 호르몬검사를 실시한다. 60대는 50대 검진과 함께 노인성난청, 백내장, 녹내장, 치매, 우울증 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다. <br/><br/><br/>이밖에 건강검진 후 결과를 보고 꼭 짚어봐야 할 것은 20대～30대의 경우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지, 정상수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한다. 40대 이후에는 모든 검사수치와 암 검진 결과, 작년 혹은 재작년과의 비교, 변화를 통한 방향성을 통해 정밀검진 또는 치료를 시행한다. <br/><br/><br/>“남천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성인병 공단검진,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장 종합검진, 채용검진, 학생검진, 외국인 비자관련 검진 등 성별, 연령대별, 질환별로 특화되어 있다. 건강검진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의문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하고, 바른 의학지식을 전달해주며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123.txt

제목: 미국 빙엄턴대 연구팀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 내장 손상"  
날짜: 2017022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1124707001  
ID: 01100301.20170221124707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흔히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TiO2)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에 이어 내장 세포 구조도 손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br/><br/> <br/><br/><br/>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종이·플라스틱의 표백색소, 치약의 마모제, 자외선차단제 같은 화장품 등에 쓰인다. 사탕 젤리 껌 탈지유 커피크림 초콜릿 도넛 등 각종 가공식품에도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등의 용도로도 첨가된다. TiO2에 접촉돼도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이산화티타늄 가루의 경우 흡입 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발암물질B로 분류하고 있다. <br/><br/><br/> <br/><br/><br/>반면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에도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등록돼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양은 미량이므로 걱정할 것 없고 아직은 이산화티타늄이 유해하다는 확증이 없다는게 식품당국의 입장이었다. <br/><br/><br/> <br/><br/><br/>이런 가운데 미국 빙엄턴대학 연구팀은 TiO2에 의한 손상으로 유해 세균이 소화기관에 침투하기 더 쉬워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소화기관 영양분 흡수 기능도 떨어진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br/><br/><br/> <br/><br/><br/>21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작은창자 내피세포 배양 모델을 만든 뒤 식품 1회 섭취 분량에 해당하는 TiO2 나노분자들에 4시간 동안 노출시켜 단기간 영향을 살펴봤다. <br/><br/><br/> <br/><br/><br/>또 장기간 반복 섭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끼니 섭취 분량에 5일 동안 노출시킨 결과, 나노 크기의 미세 TiO2가 내장 세포에 침투하며 영양분 흡수를 돕는 기능을 하는 미세융모가 손상됐다. 이로 인해 내장기관들이 약해지고 아연 철분 지방산 등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졌다. 음식 분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br/><br/><br/> <br/><br/><br/>연구팀 그레첸 말러 교수는 "<span class='quot0'>TiO2는 흔한 식품첨가물이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이 섭취하게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물질의 나노분자 섭취를 줄이려면 사탕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나노임팩트'에 실렸다. <br/><br/><br/> <br/><br/><br/>한편 지난달 프랑스 연구팀이 TiO2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한 동물의 40%에서 대장암 초기의 비(非)악성종양 출현이 나타났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내놓자 프랑스 정부는 안전성 재검토를 지시했다. <br/><br/><br/> <br/><br/><br/>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pan class='quot1'>프랑스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첨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지만 안전성 문제를 연구할 단계는 아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124.txt

제목: [공공의료 바로세우기 | ③ 불평등한 지역의료] 대형병원 접근성이 사망률 좌우  
날짜: 20170220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20121713002  
ID: 01100301.2017022012171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증·고난이도 수술 진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가 전국에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사망률은 다른 지역보다 30%나 높았다. 더욱이 해당지역 고소득층은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떠나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입원(수술) 진료 수준이 낮은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불평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진료권 개념을 도입해 이들 49곳을 25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입원진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br/> <br/><br/><br/><br/><br/> <br/><br/><br/><br/> <br/><br/><br/>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지역 차원에서 경증환자 중증환자에게 각각 적합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도 입원진료 취약지에 500병상 이상을 구비한 종합병원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20일 말했다.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단순 내과계 입원의료이용을 증가시키지만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반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지역주민 수용률과 입원환자 사망률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응급·중환자 병상과 의사 간호인력을 적절히 갖춰 특히 외과계 고난이도 질환의 사망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br/><br/><br/> <br/><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에 밝힌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연구책임자 김 윤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원진료 취약지에서는 입원환자 사망률은 1.3배 높았다. 중증질환자(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은 1.88배, 주요수술(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폐암수술, 간절제술, 신생아 심흉부 혈관수술, 중증화상 등)에서의 사망률은 1.44배, 그 외 일반수술(복강경 수술, 자궁부속기 수술, 충수절제술, 기타 어깨 무릎 수술 등)환자의 사망률은 1.29배 더 높았다. <br/> <br/><br/><br/><br/><br/> <br/><br/><br/><br/> 입원진료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과 사망률을 보면 대도시 대형병원과 지리적 시간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그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br/><br/><br/> <br/><br/><br/>경기도지역에서는 여주·이천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70배, 오산 진료권 1.35배, 평택·안성 진료권이 1.30배로 높았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속초·인제·고성·양양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45배, 제천·영월·정선·단양 진료권 1.26배, 동해·태백·삼척·울진 진료권이 1.26배 높았다. 충청남도지역에서는 당진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9배, 서산·태안 진료권 1.35배, 예산·홍성·보령·청양 진료권이 1.30배로 높았다. 경상북도지역에서는 포항·영덕·울릉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0배 높았다. 경상남도지역에서는 통영·고성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3배, 거제 진료권 1.30배, 남해·사천 진료권이 1.28배 높았다. <br/><br/><br/> <br/><br/><br/>이런 입원진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680만명이나 된다. 전 국민의 13%가 넘는 인원이 그 지역에 거주한 탓에 의료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br/><br/><br/> <br/><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공공병원이 지역민간병원을 인수하든지, 민간병원들이 인수합병을 거치든지 아니면 서로 네트워크를 갖춰 해당 전문진료분야를 분업하는 방식 등으로 적절한 진료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렇게 갖춰진 500병상 병원에 대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이와 관련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이 추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간호인력 등 의료종사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의료 질을 떨어뜨릴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br/><br/> ['공공의료 바로세우기' 연재기사] <br/><br/><br/>▶ ① 컨트롤타워 부재│ 3709개 공공병원, 8개 부처서 각각 관리 2017-02-13 <br/><br/><br/>▶ ② 광역거점병원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2017-02-15 <br/><br/>▶ ③ 불평등한 지역의료| 대형병원 접근성이 사망률 좌우 2017-02-20

언론사: 내일신문-1-125.txt

제목: 이재용 구속 후 첫 집회 … "촛불은 승리한다"  
날짜: 20170218  
기자: 김형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18193640001  
ID: 01100301.20170218193640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탄핵 지연 시도가 무산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첫 주말을 맞아 촛불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br/><br/><br/> <br/><br/><br/>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6번째 주말 촛불집회의 막이 올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6시 30분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6차 주말 촛불집회 본행사에 4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과 '탄핵 지연 시도 무산'을 자축하며 촛불을 켰다. <br/><br/><br/> <br/><br/><br/>이날 집회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이재용 구속'이었다. 시민들은 '삼성 불구속 신화'까 깨진 데 대해 놀라워하면서 촛불이 조금씩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는 데 대한 희망,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책임감을 보였다. 집회 전날 암선고를 받았다는 이용우(경기 성남)씨는 "이재용이 구속되는 기쁜 날이었는데 나는 암 선고를 받았다"면서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몸이 나으면 또 광장에 나오겠다"고 다짐했다. <br/><br/><br/> <br/><br/><br/>김덕진 퇴진행동 대외협력실장은 "<span class='quot0'>이재용 구속은 16번의 주말 동안 광장을 지키고 전국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span>"이라고 촛불의 이룬 승리를 자축했다. <br/><br/><br/> <br/><br/><br/>권영국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정경유착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외침이 승리의 단초를 만들어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끝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span class='quot1'>특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수사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황교안은 특검에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본 집회 후 시민들은 청와대·헌법재판소·대기업 본사 3방향으로 나눠 행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방면 행진 대열은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을 감옥에 넣은 그림이 그려진 레드카드를 들고 행진할 예정이다. <br/><br/><br/> <br/><br/><br/>한편, 같은 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며 "결사항전할 것을 천명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단순히 평화적인 방법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span class='quot2'>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계속 싸울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26.txt

제목: [건강보험 100% 적용 병원도입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로 가능  
날짜: 20170217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17120908003  
ID: 01100301.20170217120908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처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동안 건강보험강화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비급여 확산을 잡지 못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r/> <br/>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7일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0'>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급여확대가 가계부담을 완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계층간 질환간 보장성 격차를 되레 발생시켰다</span>"고 밝혔다. <br/> <br/>◆중증질환 위주 보장성 강화, 질환별 차별 낳아 = 2016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직접 의료비부담은 36.8%로 OECD 평균 19.6%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비급여진료와 실손보험을 위주로 한 민간의료시장의 확대로 건강보험급여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2014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이고 법정 본인부담률 19.7%, 비급여 본인부담륭은 17.1%로 개인이 40%에 가까운 부담을 졌다. <br/> <br/>박근혜정권에서 진행된 4대중증질환 위주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별 의료비 가계부담의 격차를 벌렸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암 질환(위암 1.2%)보다는 만성질환 환자(고혈압 당뇨 32.2%)가 있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유 가구는 외래 평균 진료비가 119만원으로 기타중증질환 보유 가구의 127만원보다 적었다. <br/> <br/>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0'>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목표치가 부재한 것은 정책 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민의료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 혹은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진료비 후불제 도입도 비급여관리에 도움 =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가운데 의사와 환자 간의 사적 계약 영역인 비급여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민간보험사의 순이익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급여 영역이 대체가능한 대상이 존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효과가 낮음에도 정부의 한 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을 위배하고 있는 산업강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br/> <br/>이와 관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1'>비급여 목록을 정비해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선정에서 제외된 비급여항목은 급여행위와 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정 정책국장은 이어 "<span class='quot1'>진료비 후불제를 도입하면 비급여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2'>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면 비급여의 풍선효과로 또 다른 비급여를 양산할 수 있으니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는게 좋다</span>"며 "<span class='quot2'>이와 더불어 신포괄수가제를 병행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신포괄수가제도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서비스 중 기본진료 내용은 포괄수가로 묶고 의료진이 제공하는 일부 행위와 기타 가산비를 포함시키는 제도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적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br/> <br/>이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0'>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필요의료 선정 등 다양한 선행 작업들이 뒤따라야 되서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것 같다. 건보 100% 적용 시범사업을 당장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비급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회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27.txt

제목: 자유학기제와 맞물린 중등 진로 탐색  
날짜: 2017021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17120846002  
ID: 01100301.20170217120846002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진로 설정 최적기인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중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한다. 학기 중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에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중학생 시기 올바른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한 강남 중등 교사의 조언과 강남서초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br/><br/><br/>도움말 대명중학교 최이권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 서울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회장) 참고자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서초 마을 속 배움터> / 이미지 출처 각 홈페이지 <br/><br/><br/> <br/><br/><br/> <br/><br/><br/> <br/><br/><br/>올드스토리뮤지엄 \_ 화석·광물이 총망라된 자연과학의 매력 속으로 <br/><br/><br/>올드스토리뮤지엄은 화석·광물 전문 박물관이다. 2층과 4층으로 구성돼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우수한 화석과 광물 총 4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판피어류 갑주어, 동갈치, 크리노이드, 실러캔스, 동굴사자 골격, 그린리버 악어, 히파크로사우르스 골격, 거북화석 등의 화석과 대형 스테고돈 두개골, 호박, 운석, 털코뿔소 골격, 삼엽층, 아게이트 및 행운석 등 호박·운석을 만날 수 있다. 방문 전 전화 예약자에 한해 전시 해설(오후 2시)이 진행된다.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br/><br/><br/>-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br/><br/><br/>-관람료 : 초·중·고 3,000원, 성인 5,000원 <br/><br/><br/>-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202 강남을지병원 2층 (압구정역 3번, 학동역 8번 인근)  <br/><br/><br/> <br/><br/><br/> <br/><br/><br/> <br/><br/><br/>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_ 핸드백의 역사부터 DIY까지  <br/><br/><br/>2012년 런던에 기반을 둔 전시 디자이너 주디스 클락에 의해 개관. 16~21세기 핸드백 300여 점이 전시되어 핸드백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하에 가죽소재 시장과 DIY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어 패션 관련 직업이나 핸드백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의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br/><br/><br/>-시간 : 화~토 10:00 ~ 19:00, 일 11:00부터(매주 월요일 휴관) <br/><br/><br/>-관람료 : 5,000원 <br/><br/><br/>-위치 : 강남구 신사동 536-17 (신사역 8번 출구 800m) <br/><br/><br/> <br/><br/><br/> <br/><br/><br/> <br/><br/><br/>헬릭스 동물 메디컬센터 \_ 미래의 수의사를 꿈꾸는 메디컬센터 투어 <br/><br/><br/>헬릭스 동물 메디컬센터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 있으며, 의료장비와 최신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동물병원이다. 1,487㎡(450평)의 병원 공간 내에 1.5T MRI와 16채널 MD-CT를 포함한 최고 사양의 호흡 마취 시스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암 치료 및 진단에 적합한 최신 장비가 구축돼 있다. <br/><br/><br/>메디컬센터 투어 및 원장과의 인터뷰 등 진로체험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김성호 원장)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r/><br/><br/>-시간 : 월~금 10:00 ~ 11:00 (진로체험 시간 1시간 30분) <br/><br/><br/>-위치 : 서초구 신반포로 162 르본시티 2층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인근) <br/><br/><br/>-관람료 : 진로체험 무료 <br/><br/><br/> <br/><br/><br/> <br/><br/><br/> <br/><br/><br/>The Green \_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한 눈에 <br/><br/><br/>The Green은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 성능 검증, 신재생 에너지 등 생활 속 녹색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지진 제어기술 체험관’에서 가상 지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는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와 ‘동식물이 공생하는 작은 우주’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생태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br/><br/><br/>홈페이지에서 날짜별 관람희망 2일 전 예약하면 되며, 현재 3월 18일까지 그린관 리모델링 공사로 3월 20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행복드림관(2층)’만 관람할 수 있고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한 번 들러보자. <br/><br/><br/>-시간 : 월~금 9:30 ~ 17:30, 토 ~16:00까지 (일·공휴일, 설·추석 연휴 휴관) <br/><br/><br/>-위치 : 강남구 밤고개로 206 (수서역 6번 출구 자곡사거리 인근) <br/><br/><br/>-관람료 : 무료 <br/><br/><br/> <br/><br/><br/> <br/><br/><br/> <br/><br/><br/>서울서예박물관 \_ 서예 작품부터 다양한 이벤트 전시까지 <br/><br/><br/>1988년 생긴 서예전용 전시장으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야외 놀이마당, 한국정원 등과 어우러져 2개 층 10개 전시실과 복도 갤러리 전시실에서 옛 서예 작품 전시회가 항상 열린다. 상시 전시 외에도 이벤트성 전시(입장료 있음)가 전시되며, 전시 관람 최소 3일 전 전화상담 및 예약을 하면 도슨트 프로그램(사전 전화 협의)이 제공된다. <br/><br/><br/>현재 열리고 있는 ‘위대한 낙서 전(The Great Graffiti)’은 길거리 낙서에서 예술로 인정받은 그라피티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장료 성인 10,000원, 어린이 및 초중고생 5,000원)이다. 라틀라스, 제우스, 크래쉬, 존원, 닉 워커 등 7인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3월 12일까지 연장 전시된다. <br/><br/><br/>-시간 : 평일 11:00 ~ 19:00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br/><br/><br/>-위치 : 강남구 선릉로 158길 3 (압구정로데오역 4번 출구 100m) <br/><br/><br/>-관람료 : 어린이 12,000원, 청소년 13,500원, 성인 15,000원(온라인 구매 10% 할인)  <br/><br/><br/> <br/><br/><br/> <br/><br/><br/> <br/><br/><br/>피규어뮤지엄 \_ 만화 캐릭터와 스토리 작가를 꿈꾼다면! <br/><br/><br/>피규어 및 토이를 테마로 테마파크 기능을 접목시켜 진귀한 피규어를 만나고 감상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 콘텐츠 문화공간이다. <br/><br/><br/>1층은 다양한 기획전 및 행사 등을 통해 피규어를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외 층별로 테마가 나눠져 블록놀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추억의 오락게임, 관련 서적 및 코믹 북 독서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 피규어 숍에서는 피규어 전문가 및 비기너 등을 위한 전문 피규어를 판매한다. 만화 캐릭터와 만화 스토리에 관심 있는 학생에겐 안성맞춤이다. <br/><br/><br/>-시간 : 평일 11:00 ~ 19:00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br/><br/><br/>-위치 : 강남구 선릉로 158길 3 (압구정로데오역 4번 출구 100m) <br/><br/><br/>-관람료 : 어린이 12,000원, 청소년 13,500원, 성인 15,000원(온라인 구매 10% 할인)    <br/><br/><br/> <br/><br/><br/> <br/><br/><br/> <br/><br/><br/>이앤티 진로직업체험센터 \_ 예술, 방송, 뷰티, 패션 등 직업탐색 <br/><br/><br/>‘이앤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간, 서울시 교육청 지정 서울 학생 배움터 인증기관이다. 방송 및 뷰티, 법률 등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 체험이 가능한 직업 전문 체험센터로서 예술, 방송, 뷰티, 패션, 법률 분야에 관한 진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br/><br/><br/>방학 중에는 1인 개인 체험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아나운서&스포츠캐스터, 개그맨, 가수&보컬 트레이닝, 가수&댄스 트레이닝, 탤런트&영화 체험을 할 수 있다. <br/><br/><br/>-시간 : 10:00 ~ 13:00, 14:00 ~ 17:00 (3시간씩 진로 체험) <br/><br/><br/>-위치 : 강남구 논현동 112-21 로엠 2빌딩 4층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인근) <br/><br/><br/>-관람료 : 유료(프로그램별 상이) <br/><br/><br/> <br/><br/><br/> <br/><br/><br/> <br/><br/><br/>한생연 실험누리과학관 \_ 생명과학, 화학, 물리 분야 실험의 장 <br/><br/><br/>한생연 실험누리과학관은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각 수준에 맞는 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생명과학, 화학, 물리 분야의 전문 실험기계 등으로 실험 설계부터 실험 수행, 논문 작성 등을 전문 연구원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관람(전시물 해설 및 관람 60분)과 체험 관람(전시물 해설 및 관람 60분 + 체험 프로그램 진행 60분) 2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나만의 현미경 만들기(오전 10시, 오후 4시), 태양광 로봇 제작(오후 1시 30분) 체험은 각 20,000원이다. <br/><br/><br/>-시간 : 평일 및 주말 10:00, 14:00, 16:00 (매주 월요일, 구정 연휴, 추석 연휴 휴관) <br/><br/><br/>-위치 :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6층(한티역 3번 출구 인근) <br/><br/><br/>-관람료 : 학생 및 성인 7,000원(체험 관람은 별도) <br/><br/><br/> <br/><br/><br/> <br/><br/><br/> <br/><br/><br/>창희보석예술관 \_ 주얼리 작품부터 세공과정까지, 주얼리 디자인의 모든 것! <br/><br/><br/>창희보석예술관은 조창희주얼리(구 제이젬)에서 운영하는 보석 작품 전시 예술관이다. 3억년 된 나무화석, 200kg의 종유석, 350kg의 황수정 원석 등의 희귀한 원석들로, 작게는 30cm에서 크게는 3m에 이르는 약 5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br/><br/><br/>보석 및 귀금속 세공장인 조창희 대표가 다양한 보석, 화석, 나무, 금속 등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주얼리 디자이너의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제작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다. <br/><br/><br/>-시간 : 평일 10:00 ~ 18:00, 토요일 ~17:00(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관) <br/><br/><br/>-위치 : 강남구 신사동 614-3 융기빌딩 B1 조창희주얼리(압구정역 2번 출구 인근) <br/><br/><br/>-관람료 : 5,000원 <br/><br/><br/> <br/><br/><br/> <br/><br/><br/>Tip. 강남 교사의 진로 탐색 조언 <br/><br/><br/> <br/><br/><br/>하나. 진로 보고서로 기록해둘 것 <br/><br/><br/>학생이 개인적으로 진로 체험을 하는 경우, 학교 과제가 아닌 이상 진로 보고서를 거의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이 길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을 기록해두면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 등 고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의 ‘꿈과 끼’와 같은 진로 항목에 자신의 경험담을 잘 녹여낼 수 있다. <br/><br/><br/> <br/><br/><br/>둘. 최신 기술 동향 및 다채로운 직업군 체험해볼 것 <br/><br/><br/>‘삼성디라이트’처럼 최신 IT 기술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진로에 상관없이 중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 ‘잡월드’처럼 다채로운 직업군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신의 관심사를 잘 반영한 직업 탐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세워나갈 수 있다. <br/><br/><br/> <br/><br/><br/>상기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체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128.txt

제목: [납 범벅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언제 철거하나] 올 상반기 중에나 우레탄 교체 된다  
날짜: 20170217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17120838002  
ID: 01100301.20170217120838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납 성분 과다 검출로 학교 운동장 트랙과 농구장에 ‘사용금지’ 푯말이 붙은 지 어느 덧 8개월에 접어든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속이 타는 것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뿐이다. 관내 해당 초중고 학교들에 대한 우레탄 철거 및 교체 현황을 살펴보았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미뤄 아이들 피해 불가피 <br/><br/><br/>지난해 6월 경기도 교육청은 고양시 관내 우레탄 트랙 보유 학교 유해성 검사 결과 35개 학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는 초등 9개교(강선초, 능곡초, 무원초, 백송초, 양일초, 오마초, 원중초, 한산초, 안곡초), 중등 12개교(덕양중, 덕이중, 백마중, 서정중, 백석중, 원당중, 양일중, 저동중, 무원중, 백신중 등), 고등 14개교(고양국제고, 백신고, 백양고, 대화고, 행신고, 덕이고, 화정고, 능곡고, 백마고, 백석고 등)로 이 중 백석중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br/><br/><br/>납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두뇌의 반응이 둔해지도록 하며 지능을 낮아지게 할 수 있어 두뇌가 한창 발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나아가서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문제를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br/><br/><br/>이에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임시방편으로 우레탄 트랙에 ‘출입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내걸고 부직포로 통행로를 덮는 한편 학생들에게 운동장 사용 시 손을 닦을 것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 조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 예산 부족과 교육 당국의 늑장행정으로 지난 8개월간 상당수의 학교가 우레탄 트랙 교체는커녕 철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br/> <br/><br/><br/> <br/><br/>전체 35개교 공사완료 단 한 곳뿐 <br/><br/><br/>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 고양시 관내 35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 철거 및 교체 명목으로 모두 15억 원(초·중학교 해당)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양일중학교 단 한 곳뿐이며 공사 중인 학교 7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학교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br/><br/><br/>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하면서부터는 해당 학교가 우레탄 대체 제품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들 학교들은 지난해 말 교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우레탄을 대신 할 대체 제품을 우선 결정한 바 있다. <br/> <br/><br/><br/> <br/><br/>강선초 등 25개교 마사토로 교체키로 <br/><br/><br/>우레탄을 대신하는 제품으로는 친환경 마사토, 우레탄, 천연 잔디, 인조 잔디 등이 있는데 강선초를 포함한 25개 학교(강선초, 백송초, 안곡초, 양일초, 오마초, 원중초, 한산초, 덕양중, 서정중, 덕이중, 백석중, 원당중, 무원중, 백신중, 백양고, 백석고, 능곡고, 덕양고, 대화고, 행신고, 덕이고, 화정고 등)가 마사토를 설치키로 했다. 나머지 학교는 저동중과 백신고가 천연 잔디, 백마중은 인조 잔디, 백마고 우레탄 체육관 마루 교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레탄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후에도 학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현재 깔려져 있는 우레탄 트랙 철거를 교체 공사 시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br/><br/><br/>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면 날카로운 골조물이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서 철거를 미루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자재로 공사를 시행하기 바로 앞서 우레탄을 철거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깔게 될 우레탄의 경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우레탄에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학교는 사업시행이 좀 더 늦어질 전망이다. <br/><br/><br/>현재 능곡초 등 11개 학교가 우레탄을 재설치 할 계획인데 물품 공급이 빠르면 3월 중순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하는 조달청이 현재 우레탄 제품을 심사 중인데 아직까지 해당 업자들이 제품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물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br/><br/><br/>우레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산업표준(KS)을 발표하면서 우레탄 제작업체들이 새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등록이 진행 중”이라며 “조달청은 3월 중 등록된 업체를 심사해 최종 5~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될 때 비로소 각 학교들이 조달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br/> <br/><br/><br/> <br/><br/>신학기에도 체육활동 어려울 듯 <br/><br/><br/>이에 따라 고양시 관내 해당 학교 대다수는 빠르면 3월말에나 납 범벅 우레탄 교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학기에도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및 체육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임수성씨는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신경이 쓰인다. 아이들이 안전 불감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향후 우레탄 공사 안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span class='quot1'>우레탄 교체 공사 완료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적합성 여부를 검사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내일신문-1-129.txt

제목: “암 극복하고 중학교 졸업장 받았어요”  
날짜: 20170216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16120826001  
ID: 01100301.20170216120826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무려 33번이나 받는 위기를 극복하고 뒤늦게 중학교를 졸업한 만학도 윤창숙씨(65·여), 지난 8일 열린 성지중학교(이사장 김한태) 졸업식에서 공로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상을 받았다. <br/><br/><br/>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윤씨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어린 나이에 농사일, 나무장사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결혼을 한 후 식당을 운영하다 불이 나 모았던 재산을 모두 잃은 후 남편은 사우디에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윤씨는 작은 아이스크림 공장에 취직해 주말에는 식당일을 겸하며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했다. <br/><br/><br/>이제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가정에 여유가 생겼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는 달리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윤씨의 몸에 큰 병이 있는 줄 몰랐다. 59세부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무려 33번이나 받았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순간순간 참아내자 드디어 암 완치 진단을 받았고 꿈에나 그리던 중학교도 졸업하게 됐다. <br/><br/><br/>윤씨는 앞으로 고등학교 2년,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돼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

언론사: 내일신문-1-130.txt

제목: 건강한 배아 난자정자 냉동 보관으로 미래의 임신 준비  
날짜: 20170208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08125632001  
ID: 01100301.201702081256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체 산모 5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일 정도로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신이 늦어지다 보니 막상 아이를 가지려 할 때 난임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r/><br/><br/>이로 인해 만혼 부부 또는 결혼이 늦어지는 미혼 여성에서 난임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임력 보존 치료다. 이는 가임력이 손상되기 전 미리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임신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로, 생식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젊은 암 환자나 부인과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치료를 원하는 일반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br/><br/><br/>정경아 이대목동병원 가임력 보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가임력 보존 치료는 난임 예방을 통해 미래의 임신을 돕는 '보험'과 같은 치료로 인식되는 데다 암 치료 후에도 생존 이상의 삶의 질이 점차 중요하게 요구되면서 앞으로 치료받는 이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전했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시행할 수 있어 <br/><br/><br/>여성의 연령이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50대에 접어들면 난자를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폐경을 맞는 탓에 가임력 보존 치료는 불임, 난임이 의심되는 여성을 위한 치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남녀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이다. 남성에게 항암 치료는 정자 기형 또는 정자 수 감소나 무정자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앞둔 젊은 남성 암 환자가 훗날 임신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br/><br/><br/>남성의 가임력 보존 치료는 정자 냉동을 통해 이뤄진다. 병원이나 집에서 소독된 용기에 정액을 받아 정액 검사 후 동결하면 돼 여성보다 채취 과정이 훨씬 간편하다. 단, 가정에서 채취하면 보관하여 한 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정보단 병원에서 시행하는 편이 낫다. <br/> <br/><br/><br/> <br/><br/>냉동 보관 외에도 가임력 보존 치료법 다양 <br/><br/><br/>가임력 보존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을 위한 가임력 보존 치료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배란 유도 후 채취한 난자를 바로 얼리거나 정자와 수정한 배아를 보관하는 시술이 주로 시행되지만, 환자의 상황에 맞춰 다른 방법도 시행할 수 있다. <br/><br/><br/>아직 임상적으로 상용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과배란 유도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난자 채취가 어려운 부인과 질환자는 미성숙 난자를 채취해 배양기로 난자를 성숙시킨 후 동결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초경이 시작되지 않은 소아암 환자는 난자 채취가 불가능해 난소 조직을 떼어 내 얼리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항암 치료가 임박해 난자 채취를 위한 과배란 유도에 걸리는 1-2주 동안의 치료 지연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br/> <br/><br/><br/> <br/><br/>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무분별한 선택 지양해야 <br/><br/><br/>가임력 보존 치료는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장기간 보존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치료다. 이 치료가 건강한 출산까지 보장할 거라는 지나친 기대로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건강한 난자와 정자로 임신에 성공한다 해도 태아가 자라는 모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임신 중 합병증 증가 등의 이유로 건강한 출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임력 보존 치료를 안심하고 출산을 미루는 방법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br/><br/><br/>또한 가임력 보존 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임신 합병증과 유산, 미숙아 출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만 37세를 기점으로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가임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인과 질환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여 최대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br/> <br/><br/><br/> <br/><br/>무조건 시술은 금물. 치료의 득과 실 충분히 고려해야 <br/><br/><br/>최근에는 보다 신속하게 가임력 보존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월경주기에 무관하게 과배란 유도를 하는 방법이 가능해졌지만 이 치료를 위해서는 1-2주에 걸쳐 매일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직접 맞아야 한다. 또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 과정 및 비용적인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어떠한 최신의 치료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가임력 보존 치료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미래의 임신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후회 없는 결정이 필수적이다. <br/><br/><br/> <br/><br/><br/>도움말 이대목동병원 가임력보존센터 정경아 센터장

언론사: 내일신문-1-131.txt

제목: [기획\_ 진로대회 수상자들의 dream story③]꿈 이루기 위한 다짐… 신약개발연구원 꿈에 한걸음 더  
날짜: 20170202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02124708001  
ID: 01100301.20170202124708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학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고 관심 분야를 개발해나가는 능동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일신문에서는 진로와 희망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내 진로대회 수상자들에게 꿈을 찾고 구체화시킨 과정을 들어봤다. 그 세 번째 주인공 양정고등학교(교장 김정수) 1학년 이현동 학생을 만났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신약개발연구원 되고 싶어 <br/><br/><br/>지난 12월 발표한 진로탐색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양정고 1학년 이현동 학생의 꿈은 신약개발연구원이다. 현동군이 신약개발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과학, 그 중에서도 화학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br/><br/><br/>“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과학 중에서도 화학이 재미있었는데 정유나 유기화학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지만 신약을 공부할 때는 재밌고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br/> <br/><br/><br/> <br/><br/>진로탐색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금상 <br/><br/><br/>양정고의 진로탐색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1년을 마감하면서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진로에 대해 탐색한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시상을 한다. 현동군은 2학년 학생을 제치고 당당히 금상을 수상했다. <br/><br/><br/>“1년 동안 틈틈이 활동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학업 시간을 쪼개서 했던 활동이 생각보다 많아 스스로 놀랍고 뿌듯한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br/>보고서 중 가장 비중을 둔 분야는 교내 스팀교육이었다. 융합형 교육인 스팀교육 중 ‘도자기’ 분야 수업을 들으면서 도자기에 쓰인 글귀, 도자기 원료에 숨어있는 화학적 원리, 도자기 재료인 흙 성분 등을 분석했다. <br/><br/><br/>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중고생을 위한 토요 과학 공개강좌와 식약청 캠페인에 참여한 것도 기록했다. 진로주간에는 화공학과를 다니는 대학원생을 만나 조언을 듣고 삼성병원에서 암환자에게서 얻은 조직을 면역성이 낮은 실험용 쥐에 이식해 환자의 조직과 형태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전학적 특성도 일치시키는 동물모델인 아바타 마우스에도 참여했다. <br/><br/><br/>현재 수능으로는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한 다음 PEET시험에 응시해서 약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현동군은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신약 개발과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고 싶다. <br/><br/><br/>“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전 세계적 단위의 질병은 WHO에서 조사하고 진화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메르스에 크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염병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고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예측해 신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2.txt

제목: 현대해상화재보험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날짜: 20170202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202121947003  
ID: 01100301.20170202121947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은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채택한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고 2일 밝혔다. <br/> <br/>'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은 뇌졸중 진단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적용해 재활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진보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이 프로그램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도 취득했다. 업계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br/> <br/>이 상품은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준다. 이뿐만 아니라 암(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갱신주기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며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언론사: 내일신문-1-133.txt

제목: [Advertorial] 삼성화재, 건강보험+손해보험 = '모두모아 건강하게'  
날짜: 2017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26110856003  
ID: 01100301.2017012611085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과 손해보험이 통합된 '모두모아 건강하게'를 판매 중이다. <br/> 이 상품은 사망, 장해, 진단비, 수술비, 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비용, 화재 위험, 배상 책임까지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 또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해 고객 상황별로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br/> <br/>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의 주요 보장 내용과 상품 특징은 다음과 같다. <br/> <br/>기본적으로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15년 후에는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장내역 재컨설팅을 통해 재가입하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무설계도 가능하다. <br/> <br/>보험기간 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재발·잔존한 경우에는 재진단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등 암 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입원수술시 20만원, 통원수술시 10만원을 보상한다. <br/> <br/>고객이 납입기간 동안 쌓은 적립금을 저축성보험으로 계약 전환하여 만기 또는 해지시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장례용품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및 카케어 서비스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4.txt

제목: 한국증시엔 없는 '4차 산업혁명' 주도주  
날짜: 20170125  
기자: 고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25121524002  
ID: 01100301.20170125121524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21세기 인류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다. <br/> <br/>세계 자산시장에까지 가장 큰 투자대안으로 등장했을 정도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의 주식으로 눈치 빠른 세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아마존 인텔 구글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주'가 세계증시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고고한 흐름에서 한국증시는 뒤쳐져 있다. 이렇다 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다. 주도주는 당연히 찾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에 자산을 배분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증권사 4차 산업혁명 분석 보고서 역시 열외없이 해외기업 일색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2차 수혜주이지 주도주는 아니다. 현재까진 국내증시에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흐름에 편승해 투자할 대안이 없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물론 투자까지도 선진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br/> <br/>◆4차 산업혁명이 뭐기에 =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뜻은 이렇다. 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긴 어렵다.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속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며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br/> <br/>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span class='quot0'>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기술혁신과 융합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1차는 동력(증기기관 발명), 2차는 대량생산, 3차는 IT(디지털 혁명)와 산업의 결합으로 정의한다면 여려 분야의 다양한 기술혁신과 산업이 융복합된 게 4차 산업혁명</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예컨대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개발중인 자율주행자동차, PC소프트웨어 업체인 IBM '왓슨'의 암 진단 서비스,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서비스인 '시리'가 4차산업 혁명의 대표 사례다. <br/> <br/> <br/> ◆세계는 이미 주도권 전쟁 =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r/> <br/>KB증권에 따르면 독일은 2006년 시작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바탕으로 2011년 '인더스트리 4.0'이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스마트 공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제품을 대량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제품에 대해 주문부터 소비자 욕구를 반영해 제조단계에 적용, 고객 지향향 맞춤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br/> <br/>일본과 중국은 모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재흥전략 2016'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전략으로 책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 공사의 측량과 설계 등에 소형 드론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나름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앤디비아 등 기업 스스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센서 소트프웨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체인을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br/> <br/>◆주도 업체들이 투자 대안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간 업종간 서비스간 융·복합이 이뤄지게 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통신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런 기술들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투자대안인 셈이다. <br/> <br/>임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일부 국내 기업의 경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이 확장될 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근본 기술은 대부분 미국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우리나라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선 주도주도 없고 투자대안도 없는 셈이다. 대신 아마존 구글 인텔 앤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IBM 시스코 애플 넷플리스 테슬라모터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오스람OpTo 콘티넨탈 델피아 모빌아이 시놉시스 코닝 등 세계 주요 리딩기업들이 결국, 4차산업 혁명의 확실한 투자대안이라는 설명이다. <br/> <br/>증권가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투자에서 뒤쳐져 있는 만큼 선진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br/> <br/>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span class='quot1'>4차 산업혁명의 1차적인 수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기업들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시장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를 고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span>" 말했다. <br/> <br/>그는 다만 "<span class='quot1'>선진국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좀 더 적합해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개별 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매출비중이 상이해 영업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ETF 투자보다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해야 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군에 투자하는 ETF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군에 투자하는 ETF가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35.txt

제목: 치료시기 놓치면 난청이나 우울증 등으로 발전  
날짜: 2017012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23124629001  
ID: 01100301.2017012312462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는 정신분열증의 환청과는 달리 귀에서 뇌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환자에게 실제로 소리가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br/><br/><br/>이명의 증상은 매미소리, 금속소리, 기계돌아가는 소리, 맥박 뛰는 소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맥박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박동성 이명을 제외하고 기질성 이명은 제 삼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환자 본인만 고통을 당하는 질환입니다. <br/><br/><br/>이명은 귀에서 소리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의 결림, 두통 등의 근육질환과 불안, 초조와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과 난청 어지럼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br/><br/><br/>이러한 이명은 최근에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는 약 14만명에서 2009년에는 약 25만명으로 최근 7년간 약 2배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r/><br/><br/>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과도한 소음과 수면부족, 인스턴트음식 등의 식생활패턴 등)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명의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약 15~20%가 이명을 경험하고 5%의 사람이 심각한 증상의 이명을 경험하고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청소년들의 이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br/><br/><br/>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수면 패턴의 실조, 식생활습관의 변형)과 과도한 정신노동으로 인하여 많이 에너지가 손상된 것이 하나의 이유이며, 둘째는 인체 구조의 흔들림, 즉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척추관절이 손상되고 오랜 시간 동안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경추와 턱관절의 이상을 일으켜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이명이 발병합니다. 셋째로 소음이 심한 산업 현장, 자동차 소리 등의 생활 소음이나 과도한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우리 귀의 기능이 점차 손상이 되고 또한 환경오염에 많이 노출이 되는 생활을 하여 최근에 이명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br/><br/><br/>그렇다면 이명의 치료 시기 및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br/><br/><br/>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면 난청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충동 등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br/><br/><br/>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이명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에 국한이 된 치료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합니다. 추나요법과 두개천골요법 등으로 경추와 턱관절을 교정하여 우리 몸의 비틀림을 치료하여 머리와 귀로 올라가는 혈행을 돕게 하고, 신장의 정기와 인체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으로 인체의 에너지를 보충하여 주고 침과 약침요법으로 귀의 경락을 자극하여 기의 순환을 촉진하여 귀의 청신경 등을 안정하게 하며 또한 귀 주변을 마사지하여 혈행을 촉진하여 이명을 치료합니다. <br/> <br/><br/><br/> <br/><br/>Q. 이명을 방치하면 난청이 될 수 있다? <br/><br/><br/>A. 이명은 우리의 청각기능의 이상이나 몸의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음입니다. 이명 환자의 상당수는 소음성 난청 전음성 난청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난청이 되지는 않지만 방치하여 두면 난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br/><br/><br/> <br/><br/><br/>Q. 이명은 못 고친다? <br/><br/><br/>A. 이명은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이명을 치료하는 의사는 전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병 초기나 청력의 손상이 적을수록 또한 환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치료율은 높아집니다. 이명은 때로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환과 같이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발병 초기에 치료하고 몸 관리를 잘 하면 이명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br/><br/><br/> <br/><br/><br/>Q. 이명과 어지럼증을 동반한다? <br/><br/><br/>A. 모든 이명이 다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이는 중심을 잡아주는 전정기관과 소리를 듣게 해주는 청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메니에르증후군같이 어지럼증 난청 이명을 동반하는 질환 이외는 이명이 어지럼증과 동반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자성당한의원

언론사: 내일신문-1-136.txt

제목: [2017년 정유년을 여는 우리들의 새해 이야기]촛불처럼 따뜻하고 소박한 불빛으로,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날짜: 20170120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20131714001  
ID: 01100301.20170120131714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새해 병상> <br/><br/><br/>앓아누운 채 새해 첫날을 맞았다. <br/><br/><br/>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삭풍은 나무들을 모질게 훑고 가고 통증은 주기적으로 몸을 훑고 지나갔다. 새벽부터 가야 할 모임이 있고, 올라야 할 산이 있고, 방문하기로 한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다 접고 온종일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중략) <br/><br/><br/>쓰러져 누워야 정신이 드는 생활이 아니라, 시간과 시간 사이의 절제를 익혀야겠다. <br/><br/><br/>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세차다. 비로소 시간보다 존재에 눈 돌리는 하루. <br/><br/><br/>앓아누운 채 새해 첫날을 고맙게 보낸다. (시. 도종환) <br/> <br/><br/><br/> <br/><br/>도종환 시인의 <새해 병상>이라는 시로 뒤늦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시인의 말처럼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 눈 돌리는 그런 2017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유년을 열며 우리 이웃들의 새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게 됩니다. <br/> <br/><br/><br/> <br/><br/> <br/><br/><br/>박근혜 퇴진 고양운동본부 김미수 상임대표 <br/><br/><br/>‘꽃보다 아름다운’ 슬로건답게 ‘사람 중심’ 도시로 성장하길 <br/><br/><br/>지난해 횃불처럼 일어난 촛불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빛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퇴진 고양운동본부(상임대표 최창의, 강명용, 김미수)가 출범해 고양시에서도 촛불이 타올랐다. <br/><br/><br/>김미수 상임대표(고양시민회 대표)는 “<span class='quot0'>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원칙이 잘 지켜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span>”고 밝혔다. <br/><br/><br/>“현재 청문회나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뭔가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적인 수사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자부심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하고,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br/><br/>그는 2002년부터 고양시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고양시가 그 슬로건에 맞게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br/><br/><br/>“일산 신도시는 본래 계획화된 도시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살게 되고 사람이 도시의 부속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아파트 건설 없이 자족도시로, 기업이나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사람이 고양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br/><br/><br/> <br/><br/><br/> <br/><br/><br/>고양시 열린청소년쉼터 윤기선 소장 <br/><br/><br/>‘꾸미준’이 더 활성화돼 아이들의 자립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br/><br/><br/>고양열린청소년쉼터의 윤기선 소장은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2004년부터 고양시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가정ㆍ학습 등 개인문제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일정기간 거주하게 한 후 사회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왔다. <br/><br/><br/>“<span class='quot1'>성년이 돼 쉼터를 퇴소한 후 아이들이 자립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도 준비도 안 된 아이들은 또 다시 방황하고 나쁜 길로 들어섰어요.</span>” 고심 끝에 윤 소장은 2010년에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청년 자립지원 교육관 ‘꾸미준’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힘을 길러주기 위해 ‘꾸미준’에서는 공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br/><br/><br/>“아이들이라 그런지 뭐든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 빨리 배우고 솜씨도 좋아요. 그래서 고양시 브랜드상품 공모전에서 입상해 브랜드상품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고 경기도공예경진대회에 나가 특선과 입선을 했고요.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지난해 11월 열린 고양시 기예경진대회에는 7명이 나가 다 상을 타왔어요.” 딸(?)들 자랑이 끊이지 않는 윤 목사는 “매년 똑같은 바람이지만 ‘꾸미준’이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것이죠. 올해는 이제 아이들 실력도 수준에 올랐으니 아직 나이가 어려 강사활동은 못하지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일반인도 ‘꾸미준’에서 다양한 공예를 배울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더 이곳이 활성화 돼 아이들의 자립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올해 소망을 밝혔다. <br/><br/><br/> <br/><br/><br/> <br/><br/><br/>풍산동 주민자치회 최효숙 회장 <br/><br/><br/>마을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켜가는 풍산동 그려봅니다 <br/><br/><br/>안녕하세요.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그간 마을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단풍골 품앗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를 토대로 마을 화폐 ‘그루’를 탄생시켰고  반찬 품앗이, 남성 시니어 요리 교실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태동된 많은 동아리들이 마을 발전과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풍산동은 주민자치의 롤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모두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단풍골 품앗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계획해보고 참여하면서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풍산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힘찬 열정과 총명함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주민과 함께 진정한 생활자치의 꽃을 피우는 풍산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고 가정 내 밝은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유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br/><br/><br/> <br/><br/><br/> <br/><br/><br/>백마중학교 박수경 교사 <br/><br/><br/>아이들이 중심에 있는 마을 교육사업 계속 하렵니다! <br/><br/><br/>지난해에 이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마을 교육사업에 힘쓰고 싶습니다. 복 받은 것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아주 많다는 것,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작년 마두청소년수련과, 백마중 학부모지원단 등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아이들과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고, 그곳에 가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뭘 해도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일산을 기억하고 마을을 떠나지 않으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또, 그런 작업을 통해 지난해 자유학기제, 올해 자유학년제의 그 긍정적인 여파와 활동이 자유학기연계학년(중2, 중 3학년)에도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br/><br/><br/> <br/><br/><br/> <br/><br/><br/>김선영 누리다문화학교 교장 <br/><br/><br/>“<span class='quot1'>다문화 친구 ‘돕는 일=좋은 일’ 말해주세요!</span>” <br/><br/><br/>“최근 우리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고 한국 학교에서 참여 수업을 함께 하자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작지만 조금씩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죠. 우리 아이들도 세상과 부딪혀 가면서 성큼 성장해 나가고 있죠.” <br/><br/><br/>지난해 교내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누리다문화학교’. 이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 김선영 교장은 “합창이란 도구를 통해 아이들이 노래를 직접 만들고 무대에도 오르면서 자연스레 자존감은 물론 주체성, 책임의식까지 배우게 됐어요. 학년 초 만해도 주위의 편견어린 시선 등으로 의기소침했던 아이들인데 세상 밖으로 뛰어 들어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뤘답니다”라고 말한다. <br/><br/><br/>김 교장은 “올 해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한해가 됐음 해요”라고 말한다. 김 교장은 또 “학교나 사회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돕는 일이 ‘좋은 일’, ‘훌륭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어른들과 교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생각이 곧 아이들의 생각이니까요”라고 강조한다. <br/><br/><br/> <br/><br/><br/> <br/><br/><br/>최보영?사학자?운정동 <br/><br/><br/>정유년 새해, 아들과 떠나는 전국일주 <br/><br/><br/>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 주말이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역사의 현장에서 한 목소리를 냈던 나와 진우는 정유년 겨울방학을 맞아 무얼 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제 곧 초등 4학년이 되어 어엿한 십대의 반열에 오르는 아들과 둘만의 쫀득쫀득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생각에 아들 진우에게 제안한 것은 바로 전국일주!  <br/><br/><br/>진우가 갓 초등학생이 됐을 때 나는 8살 꼬맹이와 함께 배낭 하나 둘러메고 인천, 군산, 전주, 제주, 경주, 안동, 춘천 등 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로이 돌아다녔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며 여행의 멋과 낭만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하지만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은 언제나 다음 여행에 대한 목마름만 남길 뿐이었다. <br/><br/><br/>겨울방학을 맞아 이번엔 파주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전국일주를 계획했다. 여행지는 아들이 배웠던 3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역과 앞으로 배울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으로 정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과서가 보여주지 못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다니며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다.      <br/> <br/><br/><br/> <br/><br/><br/>국립암센터 폐암 병동 이영은 간호사 <br/><br/><br/>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br/><br/><br/>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 폐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 병동에서 12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교차하는 곳입니다. 환자들은 처음 폐암 진단 후 큰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암과 투쟁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희망적입니다. 암의 진행으로 더는 손 쓸 수 없어 임종을 맞닥뜨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날 때 말로 위로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를 저는 사랑합니다. <br/><br/><br/>새해에도 이분들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겠지만 저는 희망을 계속 전하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또 마음마저 보듬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돼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br/><br/><br/>제가 폐암 병동에서 일하면서 담배의 무서움을 직접 보고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한해를 시작하며 시민 여러분께 금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연은 내 몸의 건강과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새해에도 금연하여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되시길 기원합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7.txt

제목: "비타민제, 사망률 높이고 암 예방효과 없다"  
날짜: 20170118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8121838002  
ID: 01100301.2017011812183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이제 더 이상 비타민제와 항산화제를 사려고 돈 낭비하지 말라</span>"는 주장이 나왔다. 야채나 과일 등 음식을 통해 몸 안에 흡수되는 비티민과 항산화제가 암과 심혈관질환 등에 도움이 되는 것과 달리, 합성 비타민제와 합성 항산화제는 사망률을 되레 높이고 암 예방효과가 없거나 도움된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br/> <br/>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는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근거와 가치'에 게재한 '비타민 및 항산화 보충제의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 논문에서 "<span class='quot1'>지난 10년동안 충분히 많은 임상시험과 이를 종합한 분석을 통해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의 효능은 결핍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건강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할 임상적 근거가 없다</span>"고 밝혔다. <br/> <br/>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발표된 수백편의 관찰역학연구들은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 암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30%까지 줄인다'는 결과를 생산했다. <br/> <br/>이런 이유로 비타민제와 항산화제 시장이 덩달아 날로 확대되고 있다. <br/> <br/>일반인들이나 동네의원에서는 비타민 제품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경우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산화 작용으로 감기 등 감염성질환의 위험을 줄인다거나 피로회복 피부미백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br/> <br/>그 결과 2015년 비타민 및 무기질 생산실적은 2079억원으로 전년도 1415억원보다 47%가 늘었다.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순위에서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이 72.8%, 홍삼이 60.7%,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가 57.6%, 글루코사민 제품이 28.9%로 나타나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이런 비타민제 등의 시장 성장세에 대해 명 교수는 "<span class='quot2'>비타민이 필수영양소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매자의 믿음, 비타민을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홍보, 식약처가 건기식품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 이유</span>"라고 설명했다. <br/> <br/>하지만 명 교수는 음식이 아닌 합성 비타민제와 합성 항산화 보충제에 대한 무한 신뢰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계적인 연구들이 "합성제제의 효능에 대해 의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2007년 2월 미국의학협회지에는 기존 발표된 47편의 질적 분석한 결과, 합성비타민 및 합성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한 군은 복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시 사망률이 유의하게 5% 높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3'>세포자살, 식세포작용, 해독작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어기전을 방해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이는 등 해가 될 수 있다</span>"는 가설을 내세웠다.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E,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보충제는 암 예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4개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되레 방광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013년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명 교수의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의 심혈관질환 예방효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29만4478명의 대상자가 포함된 50개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비타민과 항상화 보충제의 사용은 주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br/> <br/>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2014년 2월 '암과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비타민 보충의 권고안'에서 "<span class='quot4'>단일 혹은 종합 비타민을 권고할 근거가 불충분하며 베타카로틴 혹은 비타민E 보충제는 사용하지 말 것</span>"을 권고했다. <br/> <br/>명 교수는 "<span class='quot2'>일부 실험실 연구, 동물실험연구, 일부 임상시험, 의사의 개인적 임상경험 등을 근거삼아 합성비타민제와 항산화제를 사용 권고해서는 안된다</span>"고 주장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8.txt

제목: [책으로 소통하는 병영 │⑦ 제3야전군사령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날짜: 20170118  
기자: 송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8121826002  
ID: 01100301.2017011812182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함께 하며 국방부가 후원하는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200개 부대를 대상으로 1460차례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책을 읽고 소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내일신문은 2015~2016년에 걸쳐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 현장을 각 10차례씩 취재, 소통하는 병영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16년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일신문은 그 현장을 찾아 수평적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의 노력을 생중계한다. <br/> <편집자주> <br/> <br/>"인문학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100% 행동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도 그 강의를 삶에 접목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평소 인문학 강의를 하면 앎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49번째 '소통과 공감'의 주제인 '나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br/> <br/> 김인수 제3야전군사령부 인사처장. 사진 이의종 16일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만난 김인수 인사처장(준장)의 말이다. 현역 장성 중 유일하게 등단한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 처장은 주1회 1시간 30분 동안 간부·장병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소통과 공감'을 진행하고 있다. <br/> <br/>이 시간은 코미디 동영상을 시청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음악 감상·시낭송 감상, 인문학 동영상 시청, 김 처장이 강의하는 인문학 강의,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등으로 꾸려지며 매주 주제를 정해 진행된다. 이는 육군·제3야전군사령부가 역점을 두는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책 읽는 병영'과 맥을 같이 한다. <br/> <br/>◆"소유형인가, 존재형인가" = 김 처장은 이날 '소통과 공감' 시간에 인사처 등의 간부·장병 50여명에게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한 장'을 들려주며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br/> <br/>김 처장은 "<span class='quot0'>안 시인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은 '연탄'이라는 사물을 통해 삶을 얘기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살아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돼 베풀고 죽어서는 산산이 으깨져 빙판길에 뿌려져 베푸는 것이 곧 삶이자 나눔</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그는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등 2권의 책에 대해 나눔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김 처장은 "<span class='quot0'>죽어가는 사람의 글, 강의에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담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죽어가는 교수가 제자에게 강의한 것으로 '인생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더불어 김 처장은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 "<span class='quot0'>자신이 소유형 인간인지 존재형 인간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데 만족하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인 반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나만을 향해서 던지는 미소'를 느끼는 사람은 존재형 인간</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김 처장은 "<span class='quot0'>존재론적 삶을 살던 인간은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능력과 지위, 돈의 크기가 중요해지면서 소유형으로 바뀌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존재형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나눔</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정기후원 경험을 덧붙임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권했다. <br/> 16일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소통과 공감' 시간. 사진 이의종 <br/>◆"소통이 나비효과 되길" = 간부와 장병들도 나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는 경험담부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까지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br/> <br/>박진선 사서는 "<span class='quot1'>매주 소통과 공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간부·장병들이 모두 식구처럼 느껴져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라는 장용석 대위는 "아내가 군인이고 장모님이 말기암이라 연탄이 돼 육아를 하기로 했다"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선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일일이 간부와 장병들의 이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함을 표현했다. <br/> <br/>특히 그는 장 대위에게 "장 대위의 삶은 소유의 삶이 아닌 존재의 삶"이라면서 "조금만 더 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했다"며 격려했다. <br/> <br/>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span class='quot0'>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책 읽는 병영은 인사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 군인으로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이런 소통하는 분위기가 나비효과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군인, 인간에 대한 사랑있어야" = 한편 김 처장은 2014년부터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연·사람·사랑'을 주제로 매일 1편씩 '인산편지'라는 글을 써서 독자들과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선 2012년 육군훈련소 제30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훈련병의 부모들에게 매주 인터넷으로 편지를 써서 귀감이 됐다. <br/> <br/>그는 "군인은 제한된 조건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된다"면서 "때문에 군인이야말로 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39.txt

제목: [신간│기후카지노] 국가주의에 갇힌 기후정의의 딜레마  
날짜: 20170113  
기자: 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3130453002  
ID: 01100301.20170113130453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윌리엄 노드하우스 지음 / 황성원 옮김 / 한길사 / 2만원 <br/><br/>'결국 문제는 돈이다.' <br/><br/><br/> <br/><br/><br/>지구온난화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풀어냈다. "푸른별 지구를 지켜주세요" 식의 감성적인 접근이나 이상만이 앞선 환경보호론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br/><br/><br/> <br/><br/><br/>사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명제를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br/><br/><br/> <br/><br/><br/>왜일까? <br/><br/><br/> <br/><br/><br/>저자는 '국가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갖은 논란과 방해 전략을 누르고 힘겹게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최근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나 탄소세 등 온실가스를 덜 내뿜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개별 국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br/><br/><br/> <br/><br/><br/>하지만 그 편익은 전 세계가 공유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괜찮지만, 특정 몇몇 국가들이 이를 위해 투자할 경우 반사이익을 얻는 나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br/><br/><br/> <br/><br/><br/>'죄수의 딜레마' 증폭시키는 먼 미래 <br/><br/><br/> <br/><br/><br/>때문에 서로 눈치보기만을 하며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br/><br/><br/> <br/><br/><br/>이런 경제적 국가주의의 한계는 '미래'와 결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다 무력화한다. 일자리나누기, 경제성장률 상승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좇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찌감치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 50년이 지나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가 환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br/><br/><br/> <br/><br/><br/>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위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밀린 숙제'를 쌓아둘 수만은 없다. 저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담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흡연이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진리다. <br/><br/><br/> <br/><br/><br/>하지만 이 명백한 의학적 사실이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각종 음모론들과 지난한 싸움을 거쳐야 했다. <br/><br/><br/> <br/><br/><br/>저자는 "<span class='quot0'>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음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해 업계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다</span>"고 지적했다. <br/><br/><br/> <br/><br/><br/>300억달러짜리 담배 전쟁서 희망을? <br/><br/><br/> <br/><br/><br/>지구온난화 문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국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게 이 책의 진단이다. <br/><br/><br/> <br/><br/><br/>저자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br/><br/><br/> <br/><br/><br/>"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도 이와(담배)와 유사한 의심 조장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미국 담배판매량은 약 300억달러지만, 에너지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약 1조달러다. 탄소세를 가지고 오늘날의 탄소곡선을 최대 2℃나 3℃상승하는 정도로 충분히 제한하려면 많은노동자와 기업, 국가에 무시 못할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1조달러짜리 해법이 필요한 1조달러짜리 문제이며, 마음과 정신 그리고 표를 둘러싼 각축전은 전투를 방불케 할 것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40.txt

제목: 전통을 잇는 아름다운 시니어  
날짜: 20170113  
기자: 내일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3130435002  
ID: 01100301.20170113130435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구 벽제읍 성석1리 자연부락.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마을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성석동 진밭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시니어들이 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로 알려진 성석 농악 ‘진밭 두레패’가 바로 그들이다. <br/><br/><br/> <br/><br/><br/>  <br/> <br/><br/><br/> <br/><br/>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고양시 대표 풍물단체 <br/><br/><br/>진밭마을은 옛날 신라가 고구려로 쳐들어 갈 때 이곳을 지나다 말이 빠져서 진격을 못하고 말에서 내려 끌고 가는 소동이 벌어지자 그 때부터 이곳을 진밭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진다. 진밭두레패 김수정 회장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부락은 옛날부터 농악과 그 모태로서 두레라고 하는 농업공동체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예전부터 농악과 두레가 있었습니다만 조선조 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상당수 지역에서 농악과 두레가 변질되거나 소멸되었듯이 이곳 진밭에서도 농악이 잠시 동안 소멸된 적이 있었죠</span>”라고 한다. <br/><br/><br/>한 때 소멸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던 진밭 두레패는 100여 년 전인 1919년 일제 치하에서 재출범하여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경문화의 소멸이 진행되는 현실에서도 오늘날까지 그 단체를 보존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7월 29일 성석 농악 진밭두레패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로 지정돼 고양시를 대표하는 전통 민속예술 풍물단체로 자리 잡게 됐다. <br/><br/><br/>“성석동에서는 사당골, 아랫말, 함못이, 구석말, 벌말, 진밭, 오랫골, 뒷골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마을들이 한 마을처럼 지냈어요.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온 성씨는 함정 어 씨입니다. 그 이후로 순천 김씨, 전주 이 씨가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진밭마을은 집성촌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돈독했습니다. 저만 해도 이 마을에 15대째, 전 회장이신 이계희 명예회장님은 18대째 대를 이어 살고 있어요.” 김 회장의 말대로 공동체 의식이 끈끈했던 만큼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성석동 산신제’와 논김을 맬 때 하던 ‘진밭 두레패 놀이’ 등 유대감이 강했던 마을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찾고자 나선 것은 이 마을 60~80대 시니어들. 2005년 7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2호로 등록되기까지 진밭마을 주민들은 두레가락 원형을 복원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br/> <br/><br/><br/> <br/><br/>우렁차고 꺾임이 뛰어난 진밭 두레,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 열려 <br/><br/><br/>성석동에는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성석동 산신제’와 마을 민속놀이인 ‘진밭 두레패 놀이’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어 사람들을 하나의 유대감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마을 논김을 매기 위해 두레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던 두레가락을 지키고, 해체되어가는 공동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br/><br/><br/>진밭 두레패 농악은 이전 농경사회에서 품앗이를 할 때 부르던 노랫가락과 춤이 발달해 오늘에 이르렀다. 진밭 농악은 길놀이 농악, 농사소리, 농사놀이 16마당, 풍년놀이외에도 마을의 경조사 때마다 불리던 지신밟기/고사덕담, 지경다지기(집터다지기)/고사덕담과 지경소리, 상사놀이(상여운구, 회방아 다지기)/상여소리, 달구소리 등이 전해져 내려온다.  <br/><br/><br/>“우리 진밭 농악은 고양시 농악놀이 중에서도 우렁차고 꺾임이 뛰어나다는 것이 자랑이죠. 40여 명의 회원들 대부분 마을에서 오랫동안 두레패를 함께 했던 이들이라 장구, 북, 소리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이에요. 나이는 지긋하지만 무대에 서면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으로 진밭 두레패는 2013년 8월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고양시 대표로 출연해 우수상을, 2015년 제 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는 장려상과 소품상을 수상했다. 또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와 고양민속예술제, 행주문화제 승전거리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br/><br/><br/>전 회장 이계희 명예회장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라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누군가는 이 맥을 이어가야 할 텐데 하는 사명감, 애향심에 두레패 농악을 이어가고 있는데 힘들죠. 공연 때는 70~80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회원들은 40명 정도밖에 안되니 매번 인원 모으기도 어려워요. 우리 전통문화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맥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다. 더 많은 공연을 펼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진밭 두레패. 2017년에는 진밭 농악이 농사소리 부문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회원들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진밭마을 마을회관에서 장구, 북, 소리 등 무료 강습도 진행하고 있다. http://cafe.daum.net/jinbart <br/><br/><br/> <br/><br/><br/> <br/><br/><br/>재야 사학자 문정조 작가 『아침의 나라』 출간 <br/><br/><br/>“<span class='quot1'>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는 우리 고양 땅이 원류</span>” <br/><br/><br/>“<span class='quot1'>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가 한반도의 고양 지역 및 옛 주민들에 건설되었다.</span>” <br/><br/><br/>이런 믿기지 않는(?) 추론을 여러 사료들을 찾아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아침의 나라』가 출간돼 화제다. 그동안 수메르가 한민족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가설을 다룬 책은 있었지만 고양 땅 옛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화를 일으킨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 추론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이 책의 저자인 문정조 작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재야 사학자다. 저서로는 『독일』 (데뷔작, 1984. 서울국제출판사)와 『일산 아라리』 (에세이, 2013. 북랩), 『수메르·한반도』 (2014, 북랩)이 있다. <br/><br/><br/>문정조 작가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신약개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가 상고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일 바이엘 개발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취미로 즐기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독일에 가서 생활하다보니 취미 한 가지씩은 있어야 대화가 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품격 있는(?) 취미를 즐겨보자 하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 탐구에 취미를 붙였고(웃음) 시간이 날 때마다 박물관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독일 베네딕도 수도원에서는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운 대 발견, 그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촬영해 2010년 KBS에서 방영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정리해둔 보물급의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아침의 나라』는 TV에서 방영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따온 것이죠.” <br/><br/><br/>『아침의 나라』는 이전 책들인  『일산 아라리』, 『수메르·한반도』의 완성본이다. “독일에서 귀국 후 국립암센터 암 관련 신약연구원으로 오면서 고양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고향은 전남 구례지만 고양시에 오래 살았으니 이곳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고 그만큼 지역 역사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 땅의 시원을 연구하다보니 가와지볍씨가 발견된 대화동에서 살았던 가와지 농민들이 BC 2000~2500년 경 추위를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메르 지역에 정착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추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 작가는 이러한 가설을 떠받치는 네 가지 핵심적인 근거를 과거 연구원 출신답게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한다. 첫 번째는 고양 벌에서 발견된 즐문토기 등 유물들이 수메르의 것과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 두 번째는 수메르 점토판에 적힌 농사법이 바로 고양 벌의 관개농법과 일치한다는 것, 세 번째는 검은 머리와 청회색 토기, 참기름과 마늘을 먹는 음식문화, 순장문화, 씨름 등의 유사한 생활상이 많다는 것, 마지막으로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언어체계가 같은 교착어에 속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br/><br/><br/>“독일 등 유럽에서는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우리는 상고사를 연구하는 이들도 없고 관심도도 낮아요. 사실 상고사는 고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연성 있는 상상을 전개하기 위해 서사시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양 벌이 수메르 문화의 원류라는 놀라운 추론을 보다 더 쉽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문정조 작가. 그는 앞으로 그 추론에  대한 명쾌한 근거들을 언젠가는 후학들이 더 명확하게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141.txt

제목: 현대해상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날짜: 20170112  
기자: 박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2125332001  
ID: 01100301.201701121253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업계 최초로 뇌졸중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시 보험료를 낮춰주는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후유증이 남고 재발률이 높은 뇌졸중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r/> <br/>이 프로그램에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의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br/> <br/>또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 전환제도'를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암(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갱신주기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br/> <br/>한편 간편심사보험이란 △5년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 △2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개월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및 건강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언론사: 내일신문-1-142.txt

제목: 여성, 배우자건강 탓에 일 중단 경향  
날짜: 20170111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11122430001  
ID: 01100301.2017011112243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이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함선유 서울대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span class='quot0'>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br/> <br/>6727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일상동작활동(ADL)지수 악화로 일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의 경우 남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 정서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br/> <br/>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남성은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점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216만원인 반면 여성은 90만원으로 차이가 큰 점.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평균 소득이 63만원으로 매우 낮은 것도 여성의 근로활동 중단의 사유가 된다.

언론사: 내일신문-1-143.txt

제목: [기고] 주치의제도 없는 의료정책은 거짓  
날짜: 2017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9122322002  
ID: 01100301.2017010912232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어느 병원 또는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하다. <br/> <br/>아플 때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는 선진국 의료이용 관행과는 사뭇 다르다. 즉, '의료'라는 넓고 위험한 정보과학기술의 바다 앞에서 타야 할 배와 목적지를 정할 때, 우리 국민은 위험부담을 안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주치의를 보유하는 선진국 국민과 비교하면 불리하다. <br/> <br/> 선진국 국민의 주치의 보유율은 네덜란드 100%, 독일 92%, 영국 89%, 뉴질랜드 89%, 호주 88%, 캐나다 84%, 미국 80% 등으로 조사(Commonwealth Fund 2007년)된 바 있다. <br/> <br/>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주치의를 두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보유율은 13.9%에 불과하다(한국의료패널 2012년). 주치의란, 아프거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진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를 국가(또는 보험자) 차원에서 장려하여 제도화한 것이 주치의제도이다. <br/> <br/>주치의를 두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료이용을 할 때의 위험성을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br/> <br/>예를 들면, 국내에서 갑상선암은 최근 10여 년 동안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선진국에 약 10배 수준에 달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무증상인 경우 검진을 권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주치의 조언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검진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게 갑상선 암이 진단되고 있다. <br/> <br/>그런데 이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의료기관의 민간소유 비중이 세계 최고(>90%)인 상태에서 주치의제도 부재와 건강검진 상업화가 과다진단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지하지 못한다. <br/> <br/>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2015)했을 때, 첫 번째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10일간 4개 의료기관을 경유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킨 것이 시발점이 되어, 전 세계에게 가장 빠르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데, 이를 감염병 관리체계 부실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주치의제도 부재 속에서 낮게 책정된 행위별수가제로 3분 진료가 만연한 가운데, 의사 1인당 진료건수와 국민 1인당 의사방문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원인임을 바르게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br/> <br/>국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 <br/> <br/>국내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br/> <br/>국민 입장에서, 첫째, 아플 때 어느 의료기관,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 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아프지 않을 때라 해도 건강증진/질병예방 상담을 받으며,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서, 중복진료, 중복투약, 중복검사 등을 막을 수 있다. <br/> <br/>의료인 입장에서, 첫째,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이 향상 되므로 신뢰관계 속에서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의뢰-회송체계의 확립으로 일차의료 전문의와 특정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사이에 협력관계구축이 가능해 진다. <br/> <br/>국가 차원에서, 첫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 둘째,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며 무상의료 실현이 쉬워진다. 셋째,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안정화시키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br/> <br/>건강은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며 의료서비스는 흥정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br/> <br/>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 보장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은 이제 주치의제를 도입하라는 전국민적 요구로 구체화 되고 있다. <br/> <br/>더욱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치의제도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이다. <br/> <br/>올 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모두가 보건의료정책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 <br/> <br/>이재호 가톨릭대의대 교수

언론사: 내일신문-1-144.txt

제목: [국민주치의제도 도입하자│①저효율 의료서비스 개선] 진료비 60조 시대 … '각자도생'은 이제 그만  
날짜: 20170109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9122320003  
ID: 01100301.20170109122320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보험 진료비만 60조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만 국민의 건강 만족도는 낮고 병들어도 치유를 위해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병의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br/> <br/><br/><br/> <br/><br/><br/><br/> <br/><br/>질병예방과 생활 속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체계가 없다보니 노인인구에서의 복합질환자는 늘고 있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를 반영하듯 촛불시민들의 새사회에 대한 바램 중에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 <br/><br/><br/>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0'>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 시 초기 대응하며 관리해 주는 새 의료체계가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 <br/><br/><br/>이재호 가톨릭대의대 교수는 "의료를 환자개인이 자의적으로 대처하도록 방치하면 제 때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의약품의 중복이나 오남용, 진단검사의 반복,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비용도 낭비된다"며 "이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 개인에게 자신의 주치의를 두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발병후 치료에만 의료체계 집중돼 = 수많은 건강·의료 지표들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고비용·저효율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br/> <br/><br/><br/> <br/><br/> 서울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에서 한 환자가 재활치료받고 있다. 사진 이의종 기자<br/><br/> <br/><br/>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 연령에서 58조원, 노인인구 662만명이 21조원 이상을 사용했다. 2014년도 보다 각각 3조6000억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br/><br/><br/> <br/><br/><br/>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예방관리와 동떨어져 있는 의료체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질환은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노인진료는 사후치료에만 집중되어 임종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 생애의료비의 1/3을 사용하고 있다. <br/><br/><br/> <br/><br/><br/>발병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치매로 진료한 인원이 2015년 4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치매특별등급 이외의 치매환자는 치매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섞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br/><br/><br/> <br/><br/><br/>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1000만명 시대,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br/><br/> <br/><br/><br/>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결과, 의사 진단을 받은 노인만성질환 유병률은 90%이고 복합질환자는 7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러 의약품을 동시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의 개인별 생리특성에 따라 약물 유해반응 가능성도 높다. 한달 동안 외래 의약품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의약품 성분수는 6.72개,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수는 평균 4.02개로 조사됐다. <br/><br/><br/> <br/><br/><br/>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순간도 불행하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8.5명이고 노인자살률은 64.2명이다. 세계 최고 자살률이다.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3배나 된다. 죽음의 질 수준은 선진국 40개국 중 32위로 낮다. <br/><br/><br/> <br/><br/><br/>말기암 환자 중심으로 말기환자 돌봄체계를 시작하고 있을 뿐 아직 암 이외 말기환자가족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br/><br/><br/> <br/><br/><br/>◆지역사회차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절실 = 이런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br/><br/><br/> <br/><br/><br/>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질환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우울증상도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으니 노년기 진입 이전부터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에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균형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일차예방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 △지역사회차원에서 건강관리가 강화되고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br/><br/><br/> <br/><br/><br/>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an class='quot1'>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질 낮은 의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건강없으면 국민의 행복한 삶도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45.txt

제목: [신간 | 음식의 역습] 대량생산된 식품, 건강 위협한다  
날짜: 20170106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6132304002  
ID: 01100301.20170106132304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마이크애덤스 지음 / 김아림 옮김 / 루아크 출판 / 1만7000원 "불임이나 태아 기형, 자폐증, 당뇨, 비만, 암 같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비스페놀A는 보통 식품 통조림이 열에 노출될 때 그 안에 든 식품으로 유입되곤 한다. 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도 비스페놀A가 쓰인다" "MSG는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손상을 입혀 비만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MSG를 섭취한 쥐들은 병적 비만을 보였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쥐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패턴과 비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패턴이 매우 비슷했다" <br/> <br/>이 책 '음식의 역습'에 나오는 연구사례 일부들이다. 현대사회에서 인류의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역사적으로 음식(영양)섭취가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청소년은 키와 덩치는 날로 크지고 있고 노년의 시기는 점점 늘어가 이제 100세시대를 앞두고 있다. <br/> <br/>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리게 된 대량 생산 환경의 뒷면에는 산업병이라는 난치병을 양산하고 있다. 항생제를 뒤집어 쓴 가축을, 거기서 흘러나온 독성물질 가득한 분뇨로 재배된 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사람이 먹는다는 비극이 따라 온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선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음식을 매일 식탁에서 마주한다. <br/> <br/>우리가 언론을 통해 얻는 식품의 독성물질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저자는 편의점 진열대 위 즉석식품에서부터 건강을 약속하는 유기농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먹거리가 독성물질에 오염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br/> <br/>이 책은 일반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식품회사와 관련 규제기관이 공모해 치밀하게 감추려는 내용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밝혀내고 대중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저자는 식품 분석전문가이자 탐사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어떤 경로로 독성물질을 흡수해 몸에 축적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이 인간의 몸과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지 여러 학자의 연구결과를 내세워 소개한다.

언론사: 내일신문-1-146.txt

제목: [신간│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편지] 현직 지방경찰청장의 사부가(思婦歌)  
날짜: 20170106  
기자: 최세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6132303001  
ID: 01100301.2017010613230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박화진 지음 / 문학공간 / 1만2000원<br/><br/> <br/><br/>'아직도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은/식지 않은 체온이 남아 있는 것이라네/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미치도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네/내 사랑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은/내가 못다 채운 것을 주고 있는 것이라네/밤을 지새워 그리워 하여도/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내 벗, 내 사랑이여/그대 그리워 시리도록 아픈 내 눈에/눈물만 깊이 고이고 있다네' <br/><br/><br/> <br/><br/><br/>현직 경찰 고위간부가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 '그리움'이다. <br/><br/><br/> <br/><br/><br/>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시리도록 아픈 눈'에 눈물을 채워 노래한 시집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편지'를 발간했다. <br/><br/><br/> <br/><br/><br/>그는 2012년 에세이집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를 발간한 등단 문인이기도하다. 그는 "이번에 발간한 시집은 30년 인연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 그 아내의 부재와 상실의 아린 가슴을 시(詩)와 웃음으로 꾹꾹 눌러쓴 사부가(思婦歌)"라고 소개했다. <br/><br/><br/> <br/><br/><br/>이 시집은 표제작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편지'를 비롯 총 55편의 시와 1편의 수필, 그리고 절친한 친구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의 사진으로 편집됐다. <br/><br/><br/> <br/><br/><br/>그는 시집 앞쪽에'저를 '내 마음의시인'으로 불러준 하늘나라 아내 고 이은경님께 이 시집을 바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암이라는 질기고 무서운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돌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 무기력감,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50대 중년 남성의 상실감을 오롯이 담아 시어로 역어냈다. 또한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편지'에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아내를 잃은 아픔과 상실, 그리움이 크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허전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웃음의 미학을 터득하고 삶과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한 줄 한 줄 노래했다. <br/><br/><br/> <br/><br/><br/>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주 인도네시아 경찰 주재관, 경기도 과천경찰서장. 행자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31년째 경찰에 재직하고 있다. 박 청장은 20대에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상생활을 했고 40대에는 양이(兩耳) 중도난청에 시달렸으며 50대에 30년 인연의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언론사: 내일신문-1-147.txt

제목: 암 환자 60% "술은 못 끊어"  
날짜: 2017010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5122547001  
ID: 01100301.201701051225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암치료 중에도 술을 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은 암의 재발률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에 의사들이 진료안내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암 환자들은 이런 음주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br/> <br/>고현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1269명의 음주습관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음주 경험이 있는 암 환자의 60.3%(546명)는 암 진단 이후에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술을 끊었다는 암 환자는 39.7%(360명)에 불과했다. <br/> <br/>암 투병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환자 가운데 27.1%(148명)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 음주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횟수가 한달에 1회 이상인 경우다.

언론사: 내일신문-1-148.txt

제목: 아파트층간 5분 안에 담배먼지 이동  
날짜: 20170105  
기자: 김규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5122546002  
ID: 01100301.20170105122546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아파트같은 공동주거환경에서는 한 층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미세먼지)는 5분 안에 다른 세대로 이동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래층으로는 중력작용에 의해 4시간이상 담배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와 관련 특히 산모와 태아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심인근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연구사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미세먼지의 층간 확산 정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span class='quot0'>흡연세대만 환기를 켜고 나머지 세대는 환기를 끈 상태에서 각 세대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보니 5분 안에 위아래 세대로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PM2.5 크기의 담배미세먼지는 중력에 의해 흡연 시작부터 천천히 아랫세대로 내려가 4시간 이상 영향을 미친다</span>"고 밝혔다. <br/> <br/>흡연의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 제8조에는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2015년부터 음식점 등 26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br/> <br/>또 정부는 2016년 9월 3일 주민동의를 얻어 공동주거 안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이 베란다나 화장실, 방과 같은 개인 거주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다른 가구로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층간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br/> <br/>특히 임신기간 중 간접흡연 노출이 태아와 신생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임신부에 의한 저체중아 출생, 아동기의 암 백혈병 림프종이나 뇌종양 역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언론사: 내일신문-1-149.txt

제목: [기고] 교육이 바뀌면 아이들 미래가 바뀐다  
날짜: 2017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301.20170104130710002  
ID: 01100301.20170104130710002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지금 세계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예측한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 이어 포켓몬고(Go)의 증강현실 기술, IBM의 인공지능 왓슨의 암 진단 등 새로운 과학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br/> <br/>이전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했다면, 초융합화, 초지능화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와 직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5년 후 지금의 초등학생 65% 이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br/> <br/>4차산업혁명 대비한 교육혁신 필요 <br/> <br/>미래 사회는 표준화된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뉴질랜드,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역량 기반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지능정보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보다 필요할 때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br/> <br/>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반복적인 문제 풀이 학습으로는 문제의 패턴을 익힐 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등 교실수업을 변화시키는 교육과정 개선을 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경우 다양한 수업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역량의 반영, 학습량 적정화, 과정 중심평가 개선 등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학생들에게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찾고 수업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br/> <br/>세계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알트 스쿨(Alt School)'이나, 시험이나 평가 없이 협력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칸 랩 스쿨(Khan Lab School)'등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미래학교의 모습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교육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면서 더불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과감히 바꾸는 수업혁신이 필요하다. 토론과 토의, 프로젝트, 거꾸로 수업 등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만드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br/> <br/>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은 지식을 암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팀원과 협업하면서 체득되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루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쟁 중심의 평가 체제를 완화하고 수시·상시평가와 성취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br/> <br/>'스스로 생각하는 힘' 기르는 교육의 변화 <br/> <br/>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교사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학습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br/> <br/>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학교 운영체제 등 총체적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br/> <br/>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능정보시대에서 인간 본연의 '관용, 배려, 협력' 등의 본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세대가 4차 혁명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힘의 원천은 교육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br/> <br/>이 영 교육부 차관